畿甸文化

| 제 18 집 |

사단법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畿甸(기전)이란 무엇인가

한양(서울)을 중심으로 가까이 뻗어있는 행정구역, 즉 경기도를 말한다. 따라서 예전의 기전지방은 북쪽으로는 개성, 남쪽으로는 충청도 접경, 서로는 제물포(인천), 동으로는 강원도 접경까지를 두고 한 말이다.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행하였습니다.

畿甸文化 제18집

사단법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발 간 사

광화문 촛불 집회로 뜨거웠던 병신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11월 26일, 서울시 세종로 1번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00만 촛불 집회는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지는 '수많은 사람이 서울 중심가를 메웠음에도 매우 평화로운 축제 같았다' 고 보도하였고, 중국의 신화통신은 '한국 국민이 평화 집회의 새장을 열었다' 고 전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는 헌법 제1조의 규정을 확인하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기전문화 제18집에 실린 올해의 원고는 모두 아홉 편입니다. 붉게 익은 가을 단감처럼 탐스런 결실이어서 손에 들고 다니며 찾아 읽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창식 고문의 원고 '일제하 수원군내 범죄 실상에 대한 고찰' 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발생한 수원군민의 범죄 사례를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궁핍함에 시달린 조선인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시 수원군민의 범죄 유형을 보면 절도가 가장 많고 사기, 횡령, 상해, 도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석규 한국시조협회 이사장의 원고 '시조의 의의와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는 고려 후기 경기도 개성과 한성에서 시작된 우리 시조가 당면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700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시조가 교과서에서조차 외면당하는 현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선 문학평론가의 원고 '역대 경기시조 회장 작가작품론' 은 경기시조시인협회를 이끌어온 제8,9대 회장 김석철 작가와 제10대 회장 여류 시조시인 김옥정 작가 작품의 평론입니다. 덧붙여 지난 1987년부터 2016년의 경기시조시인협회 창립 30주년 연혁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세세히 밝혀 적었습니다.

밝덩굴의 원고 '문장 구조와 글쓰기의 실제' 는 한글 연구가의 입장에서 글쓰기의 방법 여섯 가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낱말 및 어휘들은 한글 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득이 필요한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속에 넣습니다.' 등, 글은 쉽고 간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훌륭한 문장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김훈동 연구위원의 원고 '水原華城 社稷壇에 대한 考察' 은 정조가 수원 화성에 세웠던 사직단에 대한 정체규명입니다. 토지신과 곡물신에게 제사하는 동서의 단을 사직단이라 하는 바, 토지와 곡식에 대한 제사는 그 자체가 국가의 사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수원 화성에 사직단을 복원하는 일은 우리의 책무이자 권리라는 것입니다.

김용대 연구위원의 원고 '바우덕이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에 대한 소고'는 조선 후기 꼭두쇠 바우덕이에 의해 번창하였던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의 면모를 세세히 밝혀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의 노력으로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일과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과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임종삼 연구위원의 원고 '백제 하남 慰禮城의 위치와 우리말 소릿값'은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의 위치는 경기도 안성천의 남쪽인 천안시 직산읍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慰禮城의 우리말 소릿값을 '위예성' '위에성' '위례성'으로 읽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삼국유사의 기록과 우리말 처소격 조사의 쓰임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신금자 연구위원의 원고 '경동철도의 부설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은 수인선과 수려선의 건설과 폐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쌀과 소금 등을 실어 날랐던 사통팔달의 도시 수원의 경제적 역할에 주목하였습니다. 아울러 판교-여주를 잇는 경강선이 개통된 지금, 수인선과 수려선을 성급히 폐지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권영호 연구위원의 원고 '정조와 위항문학'은 조선 후기의 성군 정조와 도성 한성의 인왕산 기슭에서 시작된 중인 출신의 시 문학을 정리한 글입니다. 역대 어느 임금보다 시와 그림, 술과 담배를 즐겼던 정조 임금의 면모와 중인 문인들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이어서 새롭습니다.

평소 '기전문화'를 읽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전문화 18호'의 발간을 지원해주신 경기문화재단 이사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민은 물론 학계 연구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12월

기전향토문화연구회 회장 밝 덩 굴

畿甸文化 제18집

차 례

발간사 …… 4
회 장 밝덩굴

일제하 수원군내 범죄실상에 대한 고찰 …… 9
– 『水原』과 『生活狀態調査』 기록을 중심으로
고 문 이창식

시조의 의의와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 21
– 고려 후기 경기도 開城과 漢城에서 시작된 시조時調
한국시조협회 이사장 이석규

역대 경기시조 회장 작가작품론 (1) …… 43
문학평론가 유 선

문장 구조와 글쓰기의 실제 …… 79
–작은 논리論理에 의거한 문장 만들기
회 장 밝덩굴

水原華城 社稷壇에 대한 考察 …… 99
연구위원 김훈동

바우덕이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에 대한 소고小考 …… 127
연구위원 김용대

백제 하남 慰禮城의 위치와 우리말 소릿값 …… 161
연구위원 임종삼

경동철도의 부설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 235
연구위원 신금자

정조와 위항문학委巷文學 …… 253
– 중인 시문학을 중심으로
연구위원 권영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역대 회원 명단 …… 305

■ '기전문화' 수록 논문 목록 …… 306

■기전향토문화연구회 발자취 …… 319

■기전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명부 …… 323

■기전향토문화연구회 회칙 …… 324

■기전향토문화연구회 고유번호증 …… 327

■편집 후기 …… 328

일제하 수원군내 범죄실상에 대한 고찰
-『水原』과『生活狀態調査』기록을 중심으로 -

기전향토문화연구회 고문 | 이 창 식

1. 들어가는 말

인간이 사는 곳에 범죄가 있고, 범죄 뒷면에는 막장인생을 마다않는 인간이 있다. 범죄란 사회생활의 질서를 행하는 가운데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형벌을 가하기로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유책有責, 위법행위를 말한다.

오천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이다 보니 범죄 역시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유형과 죄질도 필설筆舌로 다하기 어려울만큼 다양하다. 하지만 범죄가 많아지거나 잔혹해진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후에 처벌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관서(경찰 · 검찰 · 법원 · 교도소) 등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치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법 또는 형벌이 강화되면 될수록 범죄 역시 지능화, 잔혹화, 묻지마 형의 범죄

가 증가하게 마련이어서 사회적, 국가적 고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안 및 사법제도의 역사는 꽤 오래일뿐 아니라 시대에 따라 개편, 신설 내지는 통폐합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었다. 법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태조 때 의형대義刑臺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어사御事 · 시랑侍郎 · 낭중郎中 · 원외부員外部 등의 관원을 두었다가 곧 형관刑官으로 개칭하고, 995년(성종 14)에는 상서형부尙書刑部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문종 때 판사判事 · 상서尙書 · 지부사知部事 등 관원의 직책과 명칭을 세분화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전법사典法司로 다시 개칭하고, 1298년(충렬왕 24) 비로소 형조刑曹라 하였다. 조선시대는 고려의 제도를 본떠 법률 · 소송 · 노예 등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았다. 초기에는 실무 집행기관으로 권한이 미약했으나 1405년(태종 5) 관제 개혁을 통하여 정2품의 어문御門으로 승격하면서 권한이 강화되었다. 1405년(태종 5) 그 예하 기관으로 사사四司를 두었는데 상복사詳覆司는 중죄에 대한 복심覆審, 고율사考律司는 법령의 조사, 장금사掌禁司는 감옥과 범죄수사, 장례사掌隷司는 노예와 포로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인 1460년(세조 6)에 호전戶典, 1461년(세조 7)에 형전刑典, 1469(예종 1)에 나머지 4전을 찬진撰進함으로써 완성되었으나, 다시 1470년(성종 1) · 1471년(성종 2) · 1474(성종 5) · 1485년(성종 16)의 개정과 교정을 거쳐 완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지적되어 태종 때 속육전續六典이 나왔다. 이후 관제官制 · 전제田制 · 세제稅制 · 병제兵制 등의 개혁으로, 그때까지 나왔던 법전은 또 불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순까지 생겨 여러 법을 정리 · 개찬한 끝에 1485(성종 16)에야 6권 4책의 『經國大典』(경국대전)이 완성되었다. 이 대전은 조선 제도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이다. 하나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 체결로 영세불변의 대전이라 자찬했던 『경국대전』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고종은 같은 해 9월 30

일 칙령勅令을 공표하게 되는데 그 첫 머리는 이러했다.

"짐朕은 추밀고문樞密顧問의 자순諮詢을 거쳐 조선총독부 관제官制를 재가하고, 이에 공포한다."로 되어 있다.[1]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았다.

제1조, 조선총독부에 조선총독을 둔다. 총독은 조선을 관할한다. 제2조, 총독은 친임親任하는 육 · 해군 대장으로 보한다. (중략) 제8조, 총독부에 정무총감政務總監을 둔다. 정무총감은 총독을 보좌하고 부무府務를 감독한다. 제9조, 총독부에는 관방 및 다음의 5부를 둔다. 총무부, 내무부, 탁지부度支部, 농상공부, 사법부. 마지막 항인 제21조, 총독부에는 무관武官 2인, 전속부관 1인을 둔다. 총독부 무관은 육 · 해군 소장 또는 좌관佐官 · 우리 군인의 영관급으로 보한다. 부관은 육 · 해군 좌관으로 한다.

한마디로 조선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 무치극無恥劇의 극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법에 관한 것으로, 일제하 수원의 범죄실태의 일부를 고찰함으로써 옛 수원군내의 범죄 유형과 사건수 등을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1)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003, 8.15, 이창식, 수원문화원,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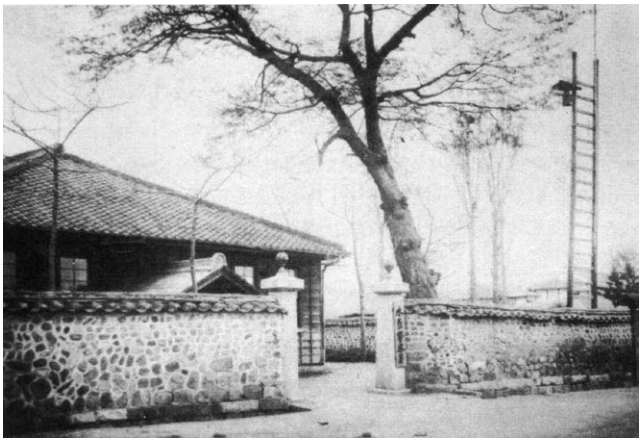
2. 수원지역의 통치기관 변천

수원은 1793년(정조 17) 화성유수부로 승격되었으나 갑오경장(1894 · 고종 31) 때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단행되면서 수원유수부는 경기도 수원군으로 바뀌었고, 재정, 사법, 치안, 교육, 위생 등 군현郡縣 단위의 행정 등 전반을 담당하던 수령의 권한이 분산 또는 약화되었다. 그러나 1896년(건양 1) 한성부에 있던 경기관찰부가 수원군으로 옮겨 오면서 수원의 지역적, 행정적 위상은 크게 향상되었다. 1898년(광무 2) 2월 한성부에 있던 경기재판소를 경기관찰부로 이관하여 인천을 제외한 경기도 3부 34군의 항소, 민 · 형사사건을 담당하였다.[2] 1907년(융희 1) 일본의 간섭으로 재판소구성법을 개정하게 되고, 동법에 따라 1908년(융희 2) 8월 대심원大審院, 공소원控訴院, 지방재판소, 구재판소, 즉 3심제 4계급의 재판소를 설치하였으나 재판소 간부는 일본인 일색이었다. 수원의 경우 경기관찰부가 담당하던 지방재판소 업무가 경기지방재판소로 통합되고, 그 산하로 신설된 수원구재판소는 수원 · 안산 · 남양 · 과천 · 시흥 · 진위군 등 6개 군의 1심 재판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1909년(순종 3)에 광주와 용인군이 추가되었다.[3]

하지만 경기재판소는 1908년 5월 폐지되고, 다시금 한성재판소로 합병되는데 얼마 후 경성재판소로 개칭되어 5월 15일부터 재판업무를 보았다.[4] 일본인 저술가 사카이 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쓴 『水原』에 보면 '경기재판소'에서 '한성재판소', 다시 '경성재판소'로 바뀌고 나서 1923년 12월 1일자

---

2) 『수원시사』, 2014.6.25, 차선혜,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권7, p.146.
3) 상동, p.147.
4) 『경성신문』, 1908.5.6 일자.



수원경찰서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송산면경찰관주재소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성호면경찰관주재소
(조선총독부, 생활상태조사-수원군, 1929)

로 '경기재판소 수원지청'으로 개청돼 수원 · 용인 · 안성 · 진위 · 광주 등을 관할구역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5] 총독부는 1932년 2월 10일 인천 · 여주 · 서산 · 성진城津 · 진남포 · 의주 · 밀양 · 통영 등 8개 지방법원 지청에 대하여 민 · 형사 사무(등기부 제외)를 정지시키고, 마산지청 합의부를 폐지한 바 있는데 여주와 이천 업무는 수원지청으로, 인천과 양평은 경성재판소로 이관했다. 조선총독부는 재판소의 업무 개편과 통합에 그치지 않고, 치안관서 증설에도 박차를 가했다. 1906년 수원군에 경기경무서(1907년 수원경찰서로 개칭)를 설치하고, 수원경찰서 산하에는 13개의 경찰관주재소를 두었다. 1908년(순종 2)에는 수원헌병분견소가 설치돼 경찰마저 지배하는 초법적 군권軍權을 행사하였다.

3. 수원의 범죄 실상과 법의식

정조가 수원화성을 축성할 당시(1794년)만해도 수원은 촌락에 불과했다. 2년 만에 수원화성이 준공되고, 정조의 신도시 건설 의욕이 오늘의 수원으로 발전시킨 초석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일개 촌락이 소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인구 증가, 고유의 문화 정착, 거기다 경제발전까지 이뤄지면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치안을 불안하게 하

5) 『水原』, 1923.10.3,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오사카활판사, p.22, 이창식 번역, 수원박물관 발행.

는 각종 범죄가 생겨났다. 이는 공동체 사회에서 기본이 되는 인간들의 이해 관계가 상충하면서 나타난 필연의 결과였다. 특히 한말을 거쳐 일제 식민지시대에 접어들면서 범죄 양상은 다양화되고, 빈도와 범죄의 질도 극악스러워졌다. 범죄 유형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오늘날의 지능화, 기획화, 자인화된 범죄 행태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굳이 범죄 유형을 정리한다면 특정한 세력이나 조직 또는 관권의 도움을 받아 이뤄지는 늑탈과 토색, 감언이설과 거짓으로 행해지는 사기와 위조, 무자비한 폭력과 간교한 수법으로 자행되는 강 · 절도, 남녀가 있는 곳에 그림자처럼 밀착되는 성범죄까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재산과 안정을 위협하는 반인간적, 반사회적 악행은 부지기수였다. 수원의 사회 및 민생실태를 기록한 『水原』의 저자 사카이마사노스케는 이 책 '민 · 형사 소송사건' 이란 대목에서 당시(1923년)의 수원지역 범죄 실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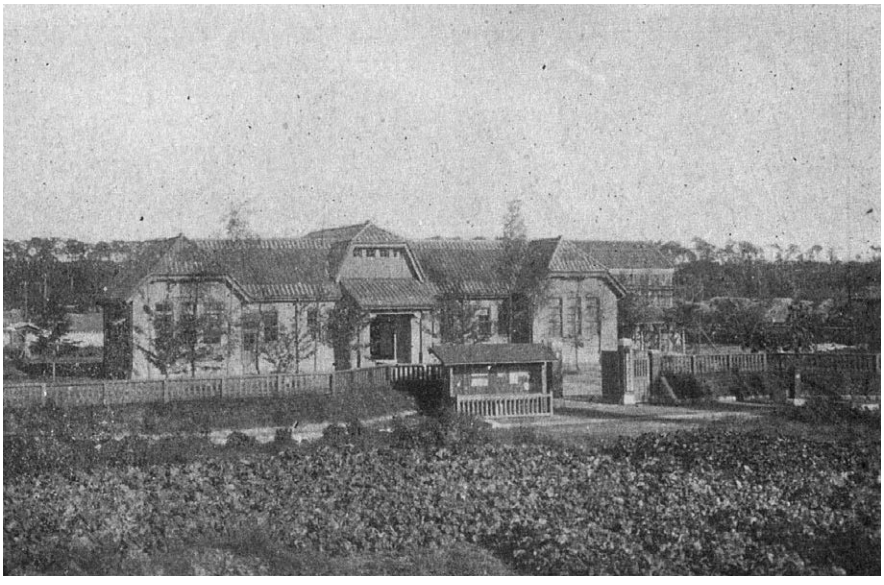
> 보통 지방 민도民度의 문화 정도 및 사상 여하를 고찰하는 방법의 하나로, 그 지방의 민 · 형사 소송사건의 통계를 보면 상당한 참고가 된다. 수원에는 경성지방법원의 지청이 있다. 지청은 명치 42년(1909) 12월 1일 사무를 개시한 이래 다소의 관할구역 변경이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수원 · 용인 · 안성 · 진위 · 광주의 5군과 인접한 여주지청의 예심사건을 관할하고 있다. 그리고 수원지청이 주관하고 있는 5군의 총인구 호수는 대정 10년(1921) 현재 8만 311호, 43만 5277명이다.

그 취급 사건 실적은 다음과 같다.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 취급사건 연표 적기摘記6)

연차	본안 소송	화해	독촉	가차압 기처분	형사제1심		예심		등기사건 인지수입		
					건수	피고 인원	건수	피고 인원	건수	개수	인지수입액
1911	1022	159	20	88	109	121	0	0	0	0	0
1914	765	40	1007	488	296	438	3	15	0	0	0
1918	571	2	1099	748	476	572	27	56	6539	26,941	28,510.59
1922	631	14	1647	217	177	250	5	9	7676	32,036	54,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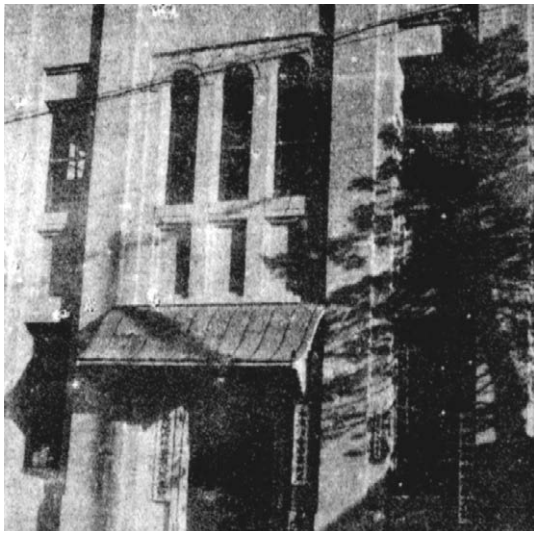
앞의 통계로 보아 민 · 형사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1922년에는 4년 전인 1918년에 비해 형사 건수와 피고인원이 급감한 것은 특이하다. 아마도 치안(사법)이 강화된 탓이 아닐까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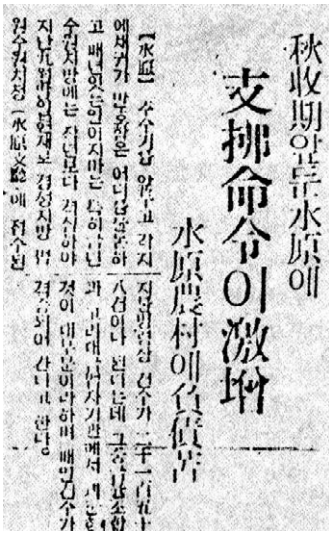


경성지방법원 수원지청(酒井政之助·『水原』, 1923년)

6) 『水原』, 1923.10.3,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 오사카활판사, p.22, 이창식 번역, 수원박물관 발행, p.22.

일제시대에는 재판소가 발부하는 지불명령장支拂命令狀이란게 있었다. 아다시피 사람이 살다보면 궁한 나머지 남의 빚을 얻어 쓸 수 있고, 반대로 여유가 있으면 빌려 줄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주고 받은 빚을 약속한 대로 지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약속을 못지키면 시비가 붙게 마련이다. 일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말로 독촉하지만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지불명령'이다. 1936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사이에 수원지청에 접수된 지불명령만 자그만치 200건으로, 미제未濟분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었다. 2년 뒤인 1938년에는 지불명령 청구건수가 무려 2580건에 달하였다. 재판소는 밀어닥치는 지불명령 청구를 소화시키기 위해 지불명령장을 무더기로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동네방네할 것 없이 지불명령장이 홍수를 이룬 때도 있었다.[7]





秋收期앞둔水原에

支拂命令이激增

水原農村에負債苦

1938.10.4.일자『동아일보』기사.

7) 『동아일보』, 1938.4.8., 추수기 앞둔 수원에 지불명령이 급증, 수원농촌에 부채고(負債苦) 제하기사.

일제 식민지가 강화되면서 조선인의 생활은 점차 어려워지고, 생활형편이 궁핍해질수록 범죄는 증가하였다. 이 당시의 범죄 유형을 보면 절도가 가장 많고, 사기, 횡령, 상해, 도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도그럴 것이 절도는 빈집이나 남의 물건 따위를 훔치는 것이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차츰 범위와 규모를 높여 가게 마련인데 일제하의 빈곤층 생활은 매우 궁핍해서 절도의 유혹에 빠져들기 십상이었다. 조선총독부가 식민지정책의 치밀화, 기획화, 철저화를 목적으로 발간한 『生活狀態調査(其一)-水原郡』[8]의 범죄 관련 기사가 이런 점을 정확히 짚고 있다.

> 민중의 문화 및 사상 경향은 한면으로 범죄상황을 근거로 추측할 수 있는데 본군(수원)은 경성(서울)에 가깝고 철도가 부설되어 있는 관계로 문화는 비교적 발달해 왔다. 따라서 문서위조, 사기, 횡령 등의 범죄가 근년에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지난 독립소요사건[9] 때 군내에서 일시적이나마 강력한 운동이 일어났던 일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불순분자가 일소되었다. 하지만 대체로 권리의무의 관념이 강해서 일반적으로 소송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10]

이 책은 문자 그대로 조선의 내정內政과 관련된 모든 사회문제와 조선인의 개인생활 정도 및 생활환경의 심층부까지를 조사한 기록물로, 마치 인간을 알몸상태로 벗겨 놓고 신체 구조를 살펴 본 것과 다름이 없는 엽기적 도서라 할 수 있다. 조사 내용은 매우 치밀, 다각도, 다방면하고, 심지어는 특정

---

8) 『生活狀態調査(其一)-水原郡』, 1929.9.17, 조선총독부, 善生永助(젠쇼에이스케), 조선인쇄주식회사, 이창식 번역, 수원박물관 발행.
9) 1919년 3월 1일의 독립만세사건.
10) 『생활상태조사(其一)-수원군』, 조선총독부, 젠쇼에이스케, p.123.

한 가정의 소득 정도, 부채 유무, 전구수, 관척貫尺 유무, 등화燈火의 종류와 수량, 화장실의 유무와 위생상태까지 살피고 있다. 그런데 당시 조선 8도에는 수 많은 부府와 군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군'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삼은 까닭은 무엇일까. 당시의 수원군은 다른 군에 비해 상업 · 농업 · 교육 · 우정(우편) · 문화 · 민속 등 면에서 고루 겸비한 고장이었기 때문에 표준군郡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에 게재된 '범죄의 종류 및 누년 비교'를 인용함으로써 당시의 범죄 실상을 인식하는데 일고가 되기 바란다.

범죄의 종류 및 건수 누년 비교[11)]

범죄 종별 / 연도별	문서 위조	도박	외도 간음 및 중혼	살인	상해	강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계
1921	2	32	14	1	45	13	214	66	15	40	442
1922	7	82	10	3	54	14	264	71	·	47	552
1923	8	32	·	4	51	4	372	69	2	33	575
1924	7	3	2	2	36	5	351	64	·	36	506
1925	17	10	3	1	39	7	297	64	2	41	481
1926	17	19	4	5	50	2	245	80	1	61	484

11) 『생활상태조사(其一)-수원군』, 조선총독부, 젠쇼에이스케, p.124.

4. 맺는 말

이 글에서는 일본인 저술가 사카이마사노스케酒井政之助가 쓴 『水原』과 조선총독부 촉탁 젠쇼에이스케善生永助가 쓴 『生活狀態調査(其一)-水原郡』에 수록된 일제하의 수원군 범죄 기록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범죄는 이 보다 훨씬 많았다. 일제시대에 발행된 각종 신문에 게재된 대소 범죄사건만 해도 매일같이 사회면에 7 · 8건, 많게는 여남은 건씩 실릴만큼 수원군내의 범죄는 부지기수였다. 범죄는 두 말 할 것도 없이 사회적 공공의 적이다. 따라서 범죄는 적거나 아주 없는 편이 안정된 사회라 할 수 있지만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해도 벗어날 수 없고, 당장에 물욕을 뿌리칠 수 없었던 등외等外 인생들은 범죄가 나쁜 줄 알면서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이다. 특히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빈부 격차가 극대화되면서 그것도 마땅한 생업수단을 상실한 사회적 낙오자가 범죄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같은 범죄 증가는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인간의 최고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직사회, 특히 정계와 법조계의 부정비리사건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인간사회에서 범죄를 아주 소멸시키기는 어렵겠지만 범죄의 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죄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가하는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전통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범죄없는 사회 만들기의 첩경이라고 본다.

시조의 의의와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 고려 후기 경기도 開城과 漢城에서 시작된 시조時調 -

한국시조협회 이사장 | 이 석 규

Ⅰ. 들어가며

한 나라 또는 한 민족의 역사, 지리, 풍습, 생활은 물론 그 민족의 기질과 사상, 감정 및 정체성 그리고 그 나라의 정신적 DNA까지 모두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은 무엇일까?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나라 또는 그 민족의 언어일 것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화유산은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언어가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 완전히 말살하려면, 그 민족 전체를 살육하거나, 아니면 언어를 자기네 언어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있던 시기에 내선일체內鮮一體를 부르짖으며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하고 우리말을 없애려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프랑스의 자연주의 소설가 알퐁스 도데의 〈마

지막 수업〉에서 보여주는, 독일의 무력 앞에서 프랑스말을 지키려는 교사와 어린 학생들의 절절한 민족애는 그야말로 언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일깨워 주는 예이다.

이처럼 한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의 정신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화의 바탕이라면, 그 언어를 가장 아름답고 함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뭐니 뭐니 해도 시詩일 것이다. 시에는 정형시定型詩와 자유시自由詩가 있다. 그런데 자유시는 형식이 없으므로 다른 나라의 시와 다를 바가 없다. 반면에 정형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나라 언어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진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 민족의 독특한 기질이나 사상과 · 감정 곧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 훨씬 더 효과적다.

현대에 남아있는 정형시는 700여 년 전쯤인 1300년대 초반기에 형성된 시조時調하나 뿐이다. 시조는 이처럼 어떤 문학 장르보다 긴 세월 동안 왕으로부터 양반 귀족은 물론 초동급부樵童汲婦에 이르기까지 짓고 애송하던 유일한 전통적 정형시이다. 그런데 오늘날 시조가 여전히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며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시조의 의의

(1) 시조의 기원

시조의 기원에 대하여는 크게 두 부류, 곧 외래 기원설外來起源說과 재래 기원설來起源說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래 기원설은 안자산(1930)과 정래동鄭來東[1]에 의하여 제기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재래기원설에는 ①신요神謠, 무가巫歌 기원설 ②민요民謠 기원설 ③향가 기원설 ④별곡체 기원설 ⑤고려시대의 속요 기원설 ⑥역학 기원설 등이 있다.

① **신요나 무가 기원설** : 이는 이희승(1933)에 의하여 주창된 것이며, 최남구(1940) 등에 의해 나온 학설이다. 원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종합예술의 핵심은 그 내용과 목적이 신에게 소원을 비는 데서 출발한다. 농사나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기원하거나, 타민족의 침략이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신에게 비는 국가적 행위로부터 개인의 치병治病, 치재治災, 입신양명立身揚名, 가족의 화목 등을 비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 속성은 주술성과 신성성神聖性을 바탕으로 개인에게 전승되어 왔다.

이러한 신요나 무가는 그대로 민요나 향가, 속요에 살아 있었다. 예컨대 처용가, 나례가, 대왕반, 삼성대왕, 별대왕 등은 모두 향가나 기타 노래 형식에 들어 있는 신가, 무가의 흔적들이다.

② **민요기원설** : 민요기원설은 이병기(1960)의 주장이다. 민요는 인류가 집단생활의 감정을 공동으로 표현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요나 국중대회國中大會, 곧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

1) 鄭來東, [中國民間文學概論의 讀後感], 동아일보, 1931. 11. 이상 (李泰極, [時調의 硏究論叢],1975에서 재인용)

신라의 한가위 행사 등에서 자주 불렸을 것이다. 예컨대 고구려의 내원성來遠城, 백제의 선운산禪雲山, 정읍사井邑詞, 신라의 도솔가, 회소곡會蘇曲 등 삼국시기 악지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청산별곡, 서경별곡, 가시리 등도 속요이면서도 민요로 불린 예이다.

③ **향가기원설** : 이에 대하여는 천태산인, 이병기, 이광수 등이 주장하였으나 보다 체계를 세운 이는 조윤제(1960), 이탁李鐸(1960), 정병욱(1959) 등이며 이태극(1981)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시조의 내용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노래와도 쉽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조형식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내는 일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시조는 3장 6구에 12소절[2]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옛 시가 형식 중 3장의 형태를 갖추거나 각 행이 4소절로 되어 있다면, 시조에 가까운 형식으로 시조 발생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향가는 대부분 1구 3소절小節로 되어 있고 2소절도 가끔 보였는데, 신라 후반기로 올수록 10구체 사뇌가 소절 수를 보면 1구 4소절 형식이 많이 나타남으로써 이미 1장 4소절의 시조 형태가 향가에서 싹트고 있었음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다.

---

2) 음보(foot) 라는 것은 음의 강약과 장단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 음보를 이루는 필수요건은 1회의 강음절(accent)과 1회의 장음이 필수적인데 현대국어에서 운소(韻素)로서의 강약과 장단이 있기는 하지만 의미 변별의 기능은 하지 못한다. 더구나 음보는 시의 1행 안에 나타나는 횟수를 말하는데, 시조는 3장6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아 12음보라고 한다. 이러한 셈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세계화 시대에 그것을 foot라고 번역한다면 전혀 다른 서양시의 음보와 완전히 헷갈려 다른 나라와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까닭으로 '음보' 대신 '소절(小節, bar)' 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이에 대하여는 이석규 [시조사랑] 6호, 이석규 [시조의 형식과 명칭 연구] 참조.

또 한 가지는 향가 원형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10행형 향가에는 반드시 낙구가 있음으로써 시조 종장 첫 소절의 3자가 결정되는 원초적 계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3] 이러한 것은 시조가 향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④ **별곡체 기원설** : 정병욱은 제망매가를 예시하여 그 형태가 3절 1연 형이므로 후대에 완성된 3장 1수와 통한다고 보고 바로 그 향가의 형태에서 별곡형식이 나오고 별곡형식 속에서 4소절격인 시조가 나왔다는 견해이다.

⑤ **속요 기원설** : 이는 고정옥高晶玉[4]의 주장인데, 고려시대 속요의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시조와 비슷한 형태 지닌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고려시대 속요는 주로 악학궤범樂學軌範과 악장가사樂章歌詞에 실려 있는데 이 또한 향가와 마찬가지로 거의 3소절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사모곡과 어부가는 2소절과 3소절이 번갈아 나타나므로 시조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동동과 만전춘은 4소절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 중 특히 만전춘은 첫 1연은 3소절로 되어 있지만 그 뒤, 특히 2연과 5연은 완벽한 4소절로 각 연마다 단시조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耿耿孤枕上에 어느 자미 오리오
西窓을 여러 하니 桃花ㅣ發하두다
桃花는 시름업서 笑春風하나다 笑春風하나 (2연)

---

3) 초창기 시조의 3장 첫 소절은 향가의 낙구를 연상케 하는, 예컨대 어즈버, 아이야, 아마도, 두어라 등 감탄사가 많이 쓰였다.
4) 高晶玉 [國語國文學 要綱] 大學出版社, 1949, 49쪽.

南山에 자리 보와 玉山을 버여 누고

錦繡山 1니블 안해 麝香 각시 아나 누워

藥든 가슴을 맛초압사이다 맛초압사이다 (5연)

이 작품에서 리듬, 호흡, 수사 방법 등이 시조의 풍격에 가깝게 접근하고 있으며 특히 3장으로 분장되어 1 연을 이루는 형태적인 성격이 시조의 형식을 낳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시조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3장 6구 12소절 이라는 명제가 일반적으로 공인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장과 구의 변별력이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면 소절에서 그 특성을 찾아내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 시도라고 믿는다.

⑥ **역학 기원설** : 이 학설은 원용우 박사의 주장으로, 천지인天地人 삼재설三才說과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에 맞도록 3장 6구 12소절의 시조형식을 완성하였다는 것이다.[5] 좀더 부연하면, 안향 선생에 의하여 처음으로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의 수제자였던 역동 우탁선생이 최초의 시조를 쓴 것으로 알려진데다가, 오직 우탁 선생의 제자들에 의해서만 초창기의 시조 작가군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이른바 성리학易學이 시조 발생의 연원이었을 것으로 주장하는 근거이다. 실제로 조선 초반기까지 성리학을 공부한 양반들에 의하여 시조가 창작 발전되어 온 것을 보면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시조의 기원설을 논의하는 가운데 우리 옛 노래들이 뒤로 올수록 시조의 형태에 가깝게 진화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맨처

---

5) 원용우 [시조문학의 원론],백산출판사, 1981, 186~209쪽.

음에 발생되었다고 여겨지는 선사시대의 신가, 무가, 민요 등 고시가 그리고 향가와 별곡체, 고려시대 속요 등이 각각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하나의 시가가 다음 시가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 시 형태에는 앞엣것의 속성들이 속에 녹아들어 있는 채로 공존하거나 그 다음 시가 형식에 영향을 주었다고 본다.

여기에서 필자가 주장하고자하는 바는 여러 학설 가운데 하나는 맞고 다른 것은 틀렸다거나 둘은 맞고 나머지는 틀렸다는 식의 흑백논리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각 학설은 나름대로 각 고시 형식의 어떤 일부에서 시조의 연원이 될 만한 근거와 특성을 발견하여 각각의 학설을 제시한 것이므로 각 학설마다 일리가 있다고 봐야한다. 시조는 옛 시가들에서 부분적인 모습이나 어떤 성향을 직간접적으로 이어 받았다고 본다. 그리고 옛 시 형식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거나 시대에 따라 변화하였고, 그러는 사이에 장단점을 보완하여 우리언어에 가장 합당하고 적절하게 창조된 최종의 시형식이 바로 시조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역사에 명멸했던 이전의 모든 시 형태의 최선의 결과가 시조요, 나아가서 모든 고시 형식들이 시조라는 우리언어 특성에 아주 적합한 형식을 창조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시조는 우리민족이 수천 년 간의 절차탁마를 거쳐서 탄생된 우리 시의 정수精髓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도 기서결起敍結 또는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내용적 구조를 완전히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종장은 초, 중장에서 뿌려 놓았던 씨앗을, 예술적, 논리적 새로운 완성을 창출해낼 수 있는 멋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다.

(2) 시조가 담고 있는 내용

박을수朴乙洙[6]는 시조를 100년 단위로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대의 대표적 작품들과 그 시대의 시조들이 담고 있는 내용과 주제를 분석하였는데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고려 후기(1300경– 1393)

고려 후기 시조가 처음 발생하여 작품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그 형식이 이미 완성된 모습을 보인다. 고려 원종 때 우탁禹倬으로 부터 이조년李兆年, 이존오李存吾, 이색李穡, 이방원李芳遠, 정몽주鄭夢周 등의 작가와 60편이 넘는 작품들이 발견된다.

2) 조선의 초기 100년(태조–성종)

새 왕조의 초창기로 정치, 사회, 문화, 재도 등이 혁신된 시기로 성삼문, 김시습, 왕방연, 이현보, 김구 등 37명의 자가의 작품 86수가 전한다.

3) 연산군–임진왜란(1495~1608)

이 시기는 사화士禍와 당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학자들은 자연에 숨어 살면서 현실도피 또는 음풍농월을 즐기던 시대로 정치적으로는 암흑기였으나 문학 측면에서는 큰 발전을 보인 시기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 시조작가와 작품은 주세붕周世鵬의 [오륜가] 6수, 이황李滉의 도산십이곡 12수, 김구金緑의 시조 5수, 정철鄭澈의 [훈민가] 16수 등 86

---

6) 朴乙洙 [韓國時調文學全史] 성문각 47~197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가 요약 설명한 것임.

수, 이이李珥의 [고산구곡가] 10수 등을 비롯하여 108 명의 761수가 전한다.

4) 광해군–숙종(1612~1720)

이 시기는 임진 정묘, 병자의 3대 난을 겪으면서 국가는 초토화하고 세자와 충신들이 청나라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는 가운데 경제 문화의 피폐와 정신적 치욕을 겪던 시기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양반계급의 무능이 폭로되고, 이에 평민계급이 자각을 하게 되었다. 시조문학에서 특이할 사항은 이 시기에 사설시조辭說時調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기록된 사설시조는 모두 445수인데 알려진 작가는 27명의 75수뿐이고 나머지는 작가를 알 수 없는, 주로 평민들이 쓴 작품으로 짐작된다.

시조작가로는 신흠申欽 31수, 소현세자昭顯世子, 남구만南九萬, 권섭權燮 65수, 김수장金壽長 127수, 이정보李鼎輔 105수, 김천택金天澤 72수, 윤선도尹善道 어부사시사 40수를 포함하여 75수 등 82명의 작가의 668수가 있다.

5) 경종–고종(1721~1894)

이 시기는 윤선도를 정점으로 난숙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실학사상實學思想이 만개하고 정약용丁若鏞, 안정복安鼎福 등 수많은 실학자들이 배출되었으며, 후반기에는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그 후에 서구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불안정속에 사회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시조에서는 청구영언靑丘永言, 해동가요海東歌謠, 고금가곡古今歌曲 등 가집歌集 편찬이 이루어졌으며 경정산가단敬亭山歌壇 같은 창곡활동을 하던 평민집단이 생기기도 하였다

작가로는 황윤석黃胤錫 28수, 신헌조申獻朝 25수, 송계연월옹宋桂煙月翁 14수, 이세보李世輔 459수 안민영安玟英 182수, 박효관朴孝寬 10수 등 41명의 작가에

의하여 1000여 수의 작품이 있다.

이상으로 14세기 초반 고려 원종 때 우탁이 처음 시조를 쓴 이래 1985년 무렵까지 300여명의 작가와 2500여 수를 대략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① 고려 후반기로부터 조선시대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상황과 생활 모습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성리학, 실학사상 등 시대가 추구하는 이념과 사상(선비정신, 선비문화 포함)이 잘 반영되어 있다.

③ 자연과 전원생활 농촌생활 내지 한거생활 천석고황의 생활 모습을 잘 담고 있다

④ 백성들의 농업 어업 등의 생업과 거기에서 발생한 세시풍속을 포함하는 일상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⑤ 전란 등 나라가 위험에 처할 때, 애국충정과 우국, 멸사봉공, 나라와 임금에 대한 자존심, 충성심, 호기와 기개, 절의 그리고 사회의 변화에 따른 회고와 송축 등 나라사랑과 민족의식이 잘 나타나 있다.

⑥ 교육과 수신, 사회적 질서와 조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

⑦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움, 그리움, 애정, 연정, 슬픔, 염려 등의 감정이 잘 실려 있다.

⑧ 인생, 늙음, 탈속과 무위자연 등 개인의 희로애락 등이 잘 그려져 있다.

⑨ 사회풍자, 해학, 비판의식도 있다.

전반적으로 시조는 우리민족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국민정신을 일깨워 오

면서 우리의 역사, 풍습, 국가의 형편, 사회생활, 개인생활 등 전반적인 우리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고루 담고 있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민족의 대표적 시 장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자유시에 나타난 시조의 모습

자유시가 처음 들어오던 1920-30년대로부터 자유시의 초기 작가들은 많은 분들이 다 시조도 겸해서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한, 김팔봉, 이광수, 박종화, 한용운, 변영로, 김억, 양주동, 박용철, 한용운, 김소월, 김상용, 노천명, 이희승, 노자영, 권중휘, 박계주, 조윤제 등은 대부분 당대의 대표적 사유시인들이며, 몇 명은 소설가 또 학자들도 시조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 시대의 자유시의 작품 중에는 의식 또는 무의식중에 시조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형태의 시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이태극(1975)에서 자유시 속에 흐르는 시조 형식의 언어사용 모습을 통하여 시조는 시조시인들뿐 아니라, 자유시를 쓰는 시인들의 의식구조에 배어 있어서 저절로 시조의 리듬을 자유시에 사용하고 있는 예를 제시 한바 있다. 그는 자유시 중에서 시조를 닮은 유형을 다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시조와 닮은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였다. 여기서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시 초창기에서 5,60년대까지 시조리듬을 사용한 시인들만 열거하겠다.

김기진, 김동환, 김동명, 김광섭, 김영랑, 김해강, 신석정, 윤곤강, 유치환, 장만영, 이설주, 구상, 조지훈, 김명순, 이육사, 서정주, 양명문, 박두진, 조

병화, 김용호, 김달진, 신동집,피천득, 변영로, 이장희, 김동명, 김용호, 이인석, 박목월, 이원섭, 장수철 등 모두 35명인데, 모두가 민중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학전집 35〉와 〈현대시인선집 상〉에서만 발췌한 시들이다.

물론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면 훨씬 더 많은 예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두 편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 1)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조지훈 ('승무(僧舞)' 1연)

예 2)

해와 하늘 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서정주('문둥이' 전문)

한 마디로 초창기 자유시를 살필 때 수많은 자유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시조를 썼다는 것과 시조를 전연 쓰지 않은 자유시인들의 작품에서도 시

조의 리듬과 같거나 아주 유사한 리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시조가 시인들은 물론 우리민족의 무의식 속에 본능적으로 잠재해 있는 언어적 특성과 장점을 그대로 반영한 최선의 형식이라는 근거가 된다.

이상으로 시조의 기원을 보면 수천 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우리언어 특성에 가장 적절한 시 형식으로 창조되었고 게다가 700년 이상을 발전하여왔으며, 시조의 내용을 고찰하면 우리민족 역사와 생활과 정신적 모든것 실생활 속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현대에 발전된 자유시와의 관계를 보더라도 아무형식이 없는 자유시를 쓰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시조의 리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자유시 발생 무렵의 많은 자유시인들이 시조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시조는 우리언어의 특성에 아주 잘 맞게 창조된 정형시로서 우리민족의 기질과 정신문화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 주는 우리민족의 최고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정형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시조의 현실적 문제

1906. 7. 21 대구 여사가 지었다는 대한매일신보에 혈죽가血竹歌가 발표되면서, 뒤를 이어 대부분 가명을 쓰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시조를 지속적으로 발표하여 대한매일신보에 300여 편 이상이 발표 되었고, 1906년에 창간된 경향신문, 시천교 월보 등에도 시조가 지속적으로 실렸다. 이

는 전문 시조창작인들이 시조 창작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일반 백성들이나 지식인들이 시조를 지속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명맥을 잇게 한 놀라운 현상이었다.

이에 앞서 1860년 이후1900년대 초반까지 근대적 새로운 민요들이 발표되기 시작하고 창가라는 서양식 노래가 들어와 차차 정착하고 유행하던 시기를 지나면서 그 무렵 문학이 선각자였던 육당 최남선은 이른바 "조선심"을 지키고 이끌어 가기에 적합한 수단으로 시조를 주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국풍國風 등 실험을 거치면서 마침내 시조에 몰두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서양근현대문학을 받아들이면서 자유시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던 1925년 백팔번뇌百八煩惱를 내고, 1928년에 고시조집 시조유취時調類聚을 간행하면서 비로소 시조에 대한 불꽃이 이 땅에 다시 일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 편에서 시조를 반대하는 인사들은 "시조는 우리민족의 전통예술로서 이미 지난시대를 반영하고 종언終焉을 고했다"고 주장하였다. 시조를 무시했던 김동환金東煥이나 시조를 창작한 경험이 있으며 [백팔번뇌]의 서문까지 쓴 홍명희洪命憙 등의 주장이 그러했으며, 그 후에도 몇 차례 이에 대한 논쟁이 반복되었다. 더구나 1950년대, 60년대의 정병욱 교수나 심지어 김현 같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한 바 있다. 세계문학의 역사상 사회에서 잘 쓰이고 읽히는 문학형식을, 서양식 새로운 형태가 아니란 이유로. 구시대의 유물이란 말로 폄하하여 그것이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도 문학 전문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조는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 시대를 이어 명맥을 유지해 왔다. 그것이 중요하다.

육당의 이러한 노력을 발판으로 같은 시대에, 정인보, 이광수 같은 문인들이 열심히 시조를 썼으며, 특히 이병기, 이은상, 양주동, 안확, 조운 등은 뛰

어난 시조작가인 동시에 학문적 연구를 계속하여 체계를 세워나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으로 시조는 현대문학적 체계를 갖추고 또한 내적 변화도 이루면서 조금씩 발전하여 왔다.

그렇다 해도 1920년대 이후 일제 강점기는 독립을 되찾아야겠다는 사명감과, 또는 우리가 세계의 대세에 뒤졌다는 자괴감을 극복하려는 모든 지성인들, 특히 외국유학을 한 엘리트들에게 있어서 화두는 단연 '서양' 이었다. 그러한 시류 속에서 학문이나 예술이나 서양의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고유의 것은 무참하게 무시되었다. 당연히 뛰어난 인재들은 자유시로 몰려갔고 그런 분위기에서 시조시인들의 배출은 저절로 줄어들었다. 워낙 서양적인 것, 특히 시에서는 자유시의 바람이 거셌기 때문이다. 그 바람에 당대 최고의 시조시인이었던 이은상이나 이병기, 이호우조차도 부분적이었지만, 시조의 변형을 꾀하여 3.4조의 리듬을 벗어나 자유시에 가깝게 다가가려는 현상을 보였으며, 양장시조, 절장시조라는 이름으로 다각적인 변형을 꾀한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시조의 기본 정형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1930~40년대를 거치면서 김상옥, 이호우, 이영도, 조종현, 정훈 등이 등장했으며, 특히 50년대 후반과 60년대 초에 이태극, 유성규, 정완영, 박재삼, 이우종, 장순하, 최승범, 유선 등에 의해, 명맥을 유지해 오던 시조를 활성화하기 위한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1200여 명에서 많게는 1500여명을 상회하는 시조시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호황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가 시조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자 또한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나는 시조시인이 가장 많은 이 시대를 시조의 가장 위험

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조시인 1500여 명의 시대를 맞이하면서도 초 · 중 · 고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서 현대시조는 물론 고시조도 점점 줄어들어 거의 실리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 두 편의 시조가 실려 있다 해도 그것이 '시조'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시 속에 섞어 넣어 자유시와 구분을 하지 않고 함께 교육함으로써 피교육자들이 시조를 배웠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대학의 거의 대부분의 국어국문학과(문예창작과 포함)에도 자유시에 관한 이론, 창작, 평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리큐럼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시조에 대한 커리큐럼은 거의 전무하다. 대학 입학수학능력 평가시험에서 시조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상적 국어교육체계의 선상에서 시조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② 그럼에도 이 정도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시조시인들이, 주로 은퇴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적으로 무상으로 시조를 전수함으로써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간혹 대학의 비정규 과정인, 평생교육원에서나 극소수가 체계도 없는 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그 결과 시조시인들 대부분 노인들이다. 이렇게 되면 시조시인들의 양적 증가에도 곧 한계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숫자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 급속도로 줄어들 염려도 있다.

③ 시조 창작품의 질적 수준 문제이다. 시조가 실리는 문예잡지 및 시조전문잡지는 많지만 명작, 걸작은 흔치 않다. 그것은 등단하는 인재들이 예

술적 문학적 창작능력 및 체계 있는 이론을 갖출 때까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의 치열한 훈련과정이나 피교육자의 열정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객관적이고 엄격한 검증과정이 없이 쉽게 등단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수준이 높지 못한 경우가 많게 되었다.

④ 파격이나 탈격으로 시조의 정격[7]을 훼손하는 경우와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시조가 정체성을 지키고 바르게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정격 훼손 현상 빈번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점점 복잡하고 첨단화되어가는 현대 사회를 표현하여야 하고 더구나 현대시에서 강조되는 이미지, 상징성, 또는 무의식 세계를 포함하는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접근 등 현대적 표현기법에 시조의 틀이 장애가 된다고 판단하여, 시조의 형태를 좀 융통성 있게, 자유롭게 틀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특히 시조의 리듬에 관한 부정확한 지식이 만들어낸 시조형식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현실이 변격과 파격 시조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파격 탈격, 변격 시조는 도를 넘기가 아주 쉬우며 그 결과는 자유시와 구분이 허물어짐으로써 시조의 본질을 흔들어버리는, 말하자면 시조를 위기에 몰아넣을 가능성이 점점 커 가고 있다. 둘째

---

7) 시조는 3장 6구 12소절로 되어 있으며 기본 음수율은 3(4)/4(3)조를 원칙으로 하되, 종장 첫 소절은 3자, 둘째 소절은 5~7자이며, 시조 전체의 글자 수는 43~47자 범위에 들어야 한다. 연시조의 경우 각 수(首)가 앞의 수에 붙이거나 말이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되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이석규 [시조의 형식과 명칭 연구] [시조사랑] 5호, 2015 참조.

는 말하기조차 거북하지만, 시조를 쓰는 사람 스스로가 '시조'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갖고, 시조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자유시 흉내를 내거나 의도적으로 닮아가는 경향이다.

무형문화재의 가치는, 전통성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 150여 년 간 우리는 서양의 발전된 과학문명 앞에서 우리 나름의 고유한 최고 최선의 아름다운 문화가 있음에도 그 가치를 잘 파악하지는 못하고, 우리 것을 무시하는 열등의식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분발하여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한류를 세계마당에 수출하는 놀랄만한 기적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시하는 경향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을 본다.

한류문화가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발현시킬 때, 얄팍한 화려함에서 벗어나 깊이와 고품질의 생명력 있는 진정한 한류를 창출하여 세계문화에 기여하고 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의 처음은 시조에 있다. 그것을 깨닫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하며, 국가와 사회의 협력 하에 시조의 발전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일정한 배분을 확보하여 '시조'라는 분야를 독립적으로 싣고 가르치며 국민 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에는, 아직 이에 대한 인식이나 분위기가 전연 조성되어 있지 않다. 당연히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시조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그 지위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바꾸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국어교육 또는 문학교육의 중요한 한 항목으로 제 자리를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일은 우리 시조시인들이 앞장

을 서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사명이다.

Ⅵ. 결론

시조는 우리민족의 최고 최선의 문화유산 중에 하나다. 그것은 수천 년의 준비과정을 거쳐 700년을 상회하는 오랜 기간을 양반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짓고 읊으며 애용하여온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적 정형시이기 때문이다. 시조는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존재하고 명멸했던 모든 시가詩歌의 장단점을 경험으로 내면화하여 우리국어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진 시형식이다. 시조는 그것이 발생한 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의 시대 상황과 형편을 담았고 우리민족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을 담아왔다. 특히 외국의 세력과 물질적 과학문명이 우리 문화를 압도하던 개화기 이후부터는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했으나 아직도 꿋꿋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960~70년대 이후에는 시조가 양적 향상을 이루는 데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우리의 유일한 정형시인 시조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사랑을 받아 모두들 즐기고 애송하는 장르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일이다.

이에, 시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부와 사회의 협조 아래 정규 교육과정을 통하여 기초가 튼튼한 전공자를 배출하며, 시조인구를 더욱 넓힘으로써 전통적 정격시조로써 현대 예술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징적 기법을 창출해 나아가야 한다.

이쯤에서 다시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조는 우리 민족의 가장 중요한 무

형문화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조의 형식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많은 시조시인들과 폭넓게 세미나, 심포지움 토른 등 학술 대회를 통하여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 시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격형식을 다시금 정비 · 확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규교육과정에 따라 교육하여 젊은 엘리트들을 길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도 등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시조가 과거의 전통을 지킴은 물론 미래의 우리문화에 초석이 되는 최선의 장르로 키워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시조시인들의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학성, [현대시조의 이론과 비평], 보고사, 2015.
- 신재홍, [향가의 미학], 집문당, 2006.
- 安自山, [時調의 淵源],동아일보 , 1930. 9
- 이광녕, [현대시조의 창작기법], 국학자료원, 2011.
- 조동일, [한국문학 통사], 지식산업사, 2005.
- 金亨奎, [古歌謠 註釋,] 일조각 1990.
- 朴乙洙, [韓國時調文學全史], 성문각, 1978.
- 李泰極, [時調의 史的 硏究], 이우출판사, 1975.

역대 경기시조 회장 작가작품론 (1)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문학평론가 | 유 선

Ⅰ 머리말

금년이 경기시조 탄생 30주년이다. 우리 시조계를 돌이켜보면 1960년 〈시조문학〉 창간, 1963년 〈울림회〉 조직, 1964년 12월 30일 〈한국시조작가협회(한국시조시인협회 전신, 초대 이병기 회장)〉 창립, 1986년 11월 23일 〈경인시조문학회〉를 창립하였다. 현재 〈경기시조시인협회〉의 전신이다. 벌써 우리 〈경기시조〉의 나이가 30세를 넘기고 있다.

1986년 6월 4일 최성연, 유 선, 정운엽, 이동구, 신웅순, 홍승표 등이 수원 장안문 안의 마포식당에서 발기하여 경기와 인천지역의 시조 중흥과 발전 및 그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1986년 11월 23일 창립총회로 결성된 〈경인시조문학회〉가 1996년 8월 18일 한국시조시인협회 총회의 인준을 거쳐 1997년부터 〈한국시조시인협회 경인지회〉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자연 이 때부

터 〈경인시조문학회〉를 〈경인시조시인협회〉로, 다시 2012년 〈경기시조시인협회〉로 고쳐 부르게 되었다.

1986년부터 수원여고에 〈수원상설시조학교〉와 〈청소년 시조강좌〉를 개설하여, 수원, 안양, 용인, 화성, 평택 지역 청소년 및 대학생, 일반인들에게 '시조 이론과 창작실기교육'을 실시하여 1,500여 명을 수료시켰고, 경인지역 시조시인들을 초청하여 본 회의 입회여부를 타진하여 허락을 받았다.

한편 수료자 중 1988년 〈현대시조〉 제3회 신인예술상으로 등단한 김옥정이 중심이 되어 〈끼리창작동인회〉를 결성하고 추석 다음날 저녁마다 시조에 대한 강의와 낭송회를 개최한 것도 특기할 일이다.

1994~5년에는 이포중 · 고에 〈여주 이천 상설시조학교〉를 설립하여 2년에 걸쳐 학생 및 교원 200여 명에게 우리시에 대한 애착심을 길러주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1986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30년간 매년 학교를 순회하며 백일장, 시조창작강좌를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 개최하고, 또한 일반인들의 교육을 실시하여 문단에 등단시켜 경기시조시인협회 회원으로 영입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사화집 창간호 〈지금은 비록 하늘을 못 날지라도〉는 1987년 4월 10일에서야 발간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시인은 최성연 고문, 백이운, 이동구, 유 선, 신웅순, 김석철, 이호광, 문한종, 홍승표, 이대영, 윤범하, 정운엽 등 12명이었다

1999년 9월 19일 오전 10시 장안공원에서 한국시조시인협회 주최 본회주관으로 전국시조백일장과 2002년 6월 18일 오전 10시 경기대에서 월드컵 기념 전국시조백일장을 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룬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더구나 2002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1월 3일까지 9회에 걸쳐 전국 정운엽시조문학상을 수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나, 9회로 중단된 아쉬움

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아무튼 경기시조시인협회가 15대 회장, 30주년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하게 된 까닭은 회장들을 비롯한 전 회원들의 시조사랑 덕분으로 치부하면서 이번에는 제8대와 9대를 거친 회장 김석철 , 제10대를 거친 김옥정 회장의 작가와 작품론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면이 허락하는 한 나머지 회장들의 작가와 작품론을 게재하여 청사에 남기고자 계획하고 있다.

Ⅱ. 본말

1. 제8, 9대 회장 김석철金錫喆에 대하여

가. 작가론

김석철 시조시인은 1940년 11월 11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본덕리에서 출생하였고, 호를 다정茶汀이라 하였다. 서라벌 예대 문창과와 경기대 국문학과를 졸업하였고, 교직경력 36년으로 성남문원중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03년 정년퇴임하였다. 1978년 시詩가 〈詩文學〉에 추천되었고, 1980년 〈월간문학〉 4월호에 시조 「용문암운龍門庵韻」이 신인상에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이 때의 작품경향은 원초적 슬픔의 본능과 자연 친화적 경향이었으나 점차 주제의식을 심화하면서 인간 내면의 성실성을 유추적으로 표출하였다. 1983년부터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1985년부터 씨

얼문학회 회원 및 韓國詩 詩文學會 상임 고문과 부회장으로 활약하였으며, 1986년에는 경인시조시인협회 창립멤버였으며, 현재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1989년부터 월간 〈韓國詩〉편집위원과 신인 심사위원을 겸하였고, 월간 〈한울문학〉 신인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1996년엔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 및 부이사장직을 역임하였고, 1998년부터 한국문협 성남지부 이사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석철은 본인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백 년이듯 천 년이듯 / 아슴한 여정인데
아직은 험한 길이 / 몸살로 누워 있네
어느 제 / 이승의 풍경 / 환해질까 봄처럼.

〈여정旅情〉 전문

불교에서는 사람의 인생살이를 '고해苦海'라고 했던가. 인생 한 평생의 여정이 밝거나 어둡지도 않으면서 그저 흐리터분한 것인데, 아직은 험난한 앞길이 몸살하듯 아픔으로 덮여 있는 어두운 풍경, 그것이 어느 때나 봄날처럼 따스하고 환해질 건가?

한편 2000년 4월 8일 경기시조시인협회 정기총회(수원 매향가든)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후 동년 7월 22일 회원들을 초청하여 남한산성 태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입회원 입회, 시조박물관 부설 만해 한용운 기념관을 관람시켰다. 동년 9월 29일엔 본회 제12사화집을 발간하였고, 동년 10월 14일에는 매향가든에서 제12사화집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제8회 문학 강좌와 시조낭송회를 개최하였으며, 동년 10월 20일엔 인터넷시조박물관 웹진〈동인

순례〉란에 경기시조 특집을 탑재하였다.

2001년 1월 13일 수원 상아그릴에서 경기시조 정기총회를 열고 최희선 간사의 제1시조집 〈고독의 城〉 출판기념회를 성대하게 마쳤다. 동년 7월 8일 안희두 부회장 댁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최봉돌의 입회와 본회 홈페이지를 시연하였고, 동년 8월 25일에는 본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였다. 동년 10월 25일에는 경기시조문학 13집을 발간하여 10월 31일 성남 시민회관에서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제9회 문학특강 및 시조낭송대회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2002년 경기도 문인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도 본회의 회장직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2002년 2월 13일 매향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회장단 유임과 더불어 박용하를 영입시켰다. 동년 6월 8일 월드컵 기념 전국시조백일장을 경기대학교에서 개최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동년 10월 20일에는 본회가 〈전라시조〉, 〈열린시조〉, 〈성남문학〉, 〈시조웹진〉 등에 특집 「동인순례」를 탑재시켰다. 동년 11월 3일 수원 동양문고 아트홀에서 제14사화집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신입회원 조혜숙, 민병철을 영입하고 제1회 정운엽 시조문학상을 손영옥에게 수여하였으며, 제10회 문학강연 및 시조낭송회를 개최하였다.

2003년 2월 11일 매향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박현진을 영입하였고, 동년 6월 6일 제1회 문학기행에서는 제3땅굴 및 전적지 순례, 석화원과 포천 일원을 탐방하였으며, 동년 11월 3일 수원 동양 아트홀에서 제15사화집 출판기념회 및 제2회 정운엽 시조문학상을 최언진에게 수여함과 더불어 제11회 문학 특강과 시조낭송대회를 개최하였다. 2004년 2월 매향가든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김옥정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하기까지 경기시조시인협회 회장 및 제2회 정운엽 시조문학상 운영위원으로서 성실히 모든 임무

를 깨끗하게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36년이란 긴 교직생활을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한결같은 정성으로 / 가꿔가는 꽃밭일레
순수의 눈빛이다 / 형형색색 고운 자태
싱그런 / 향내음 속에 / 어여쁨을 겨루네.

〈교단 일지〉 전문

교직생활에서 학생들에 대한 사랑과 따사로운 눈길이 여실히 담겨 있다. '형형색색'으로 어울어진 꽃밭 같은 학생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실로 가슴 벅찬 것이다. 더구나 아름다운 향기를 내품는 꽃나무들을 다독여 가꾸는 일이 교직자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2004년에는 한국 시조문학상 · 심사위원, 2005년에는 계간 〈시조예술〉편집 자문위원과 백양촌문학상 심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2006부터 한국 작가회 및 시조문학 문우회 이사와 노산문학상 · 전국시조백일장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2007년부터는 한국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하고, 2009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경기지역위원회 부회장과 계간 〈시조문학〉 편집장 등을 역임하였다.

수상으로는 1996년에 제10회 황산시조문학상과 1997년에는 제1회 경기문학상을 받았으며, 1999년엔 한국 시조시인협회상과 제24회 노산문학상을 받았다. 2000년에는 제12회 백양촌문학상을 받고, 2003년엔 제21회 한국 시조문학상을 받았으며, 2005년 제17회 경기예술대상(문학부문)을 받았다. 2008년엔 제9회 월하시조문학상을 받고, 2009년에는 국제문화예술상

을 받았으며, 2010년엔 제18회 성남시문화상을 받았다.

김석철은 교직의 정년퇴임 이후의 인생살이를 다음과 같이 읊었다.

꽃 피우고 / 열매 맺어 / 빛부시던 한 시절은
가뭇없이 흘러가는 / 몇 구비의 강물인가
어느 새 / 노을의 둔덕 너머 / 서릿바람 차가우니.

〈덧없음〉 전문

이 작품은 인생의 중반고개를 넘어서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고 실감하는 '인생무상'을 주제로 하여 '덧없음'을 한 편의 단시조로 형상화하였다.

저서로는 제1시집 〈바다 風景(1984 월간문학사)〉, 제2시조집 〈바람처럼 구름처럼(1989 정인각)〉, 제3시조집 〈참 선비의 그 뜻은(1999 한국시사)〉, 제4시조집 〈가을 산책(2003 정인각)〉, 제5시조집 〈시간 위에서(2009 정인각)〉을 출판하였고, 교직 36년을 정리하면서 정년퇴임 기념으로 발간한 문집 〈교정에 내린 햇살(2003 태창문예주식회사)〉 등이 있다.

아무튼, 김석철은 원래 너그럽고 온화하며 다정다감한 품성으로 근면 성실할 뿐만 아니라 후덕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나. 작품론

다정 김석철 시조의 중심에는 인간의 소망과 불심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 자연도 자연 친화도 불심의 바탕위에 인간의 소망을 축성하고 있다. 초기의

시조집에서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자연친화적 작품경향을 보였는데, 그 후 점차 주제의 심화를 꾀하면서 내면세계 표출에 참신성을 보였으며,우리 시조계의 대가로 자리 잡고 있다.

원래 미당 서정주에게 사사하면서 자유시에 심취하면서 1978년 〈詩文學〉에 추천까지 받았으나 시조 즉 우리시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1980년 4월 〈월간 문학〉에 〈용문암운〉이 신인상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일관된 자세로 우리 민족의 심상과 겨레시의 정격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가슴 깊이 사무치는 / 혼이 실린 우리 가락
은연중 짜여지는 / 자연스런 정형의 틀
아무리 / 잊으려 해도 / 샘이 솟는 3 · 4조

행간마다 숨어 있는 / 곱고도 귀한 심상
되뇌이고 되뇌어도 / 돋아나는 아름다움
이거야 / 숙명이로세 / 가슴 젖는 시조시.

〈겨레시〉 전문

시조는 실로 우리의 얼과 말과 글이 빚어낸 언어 예술이다. 그 예술성은 다시 오늘의 문학으로 탈바꿈하여 현대의 예술로 자연스럽게 발전하였다. 그러기에 거기엔 우리 조상들의 생활과 리듬과 사상이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민족시 또는 겨레시라고 한다. 〈겨레시〉의 첫수에서는 '시조의 틀' 즉 형식을, 둘째 수에서는 '심상' 즉 내용을 극찬하고 있다. 가슴을 촉촉이 적셔주는 시조야말로 내가 해야할 숙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제21회 〈한국시조문학상〉 수상 소감에서 "이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탈 주정의 깃발을 더

높이 치켜들고 새로운 시도와 모색으로 시조의 진수를 살려 나가는 일에 진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보다 세련된 단형의 틀 속에 빛 고운 삶의 무늬도 운치 있게 그리고 싶습니다."라고 피력하였다.

진흙에 뿌리 묻고 / 내민 얼굴 고웁구나
풍랑을 다스리며 / 청정으로 여민 숨결
세상사 / 어지러워도 / 자비롭게 웃느니.

〈연꽃 · 2〉 전문

진흙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대비적으로 더욱 고운 얼굴일까? 작자는 연꽃의 아름다움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웃음과 연결시켜 시상의 파장을 확대시켰다. 연은 본디 인도산으로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꽃이거니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불교는 물론 현세화하여 오희월여吳姬越女나 채련여採蓮女를 생각하게 하는 동시에 채련곡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근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천연적 호소湖沼가 중국보다 드물기 때문에 인력으로 동서남북에 연못을 파서 불의의 재난과 풍치와 미관을 돋으려 했다. 또 연화와 관련 있는 이야기가 적지 않으니, 저 심청전이나 고려 충선왕이 원나라 미희美姬에게 연화 한 떨기를 주어 석별의 정을 간절히 표현한 일화는 근래까지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도도한 흐름 속에 / 해와 달이 뜨고 지고
부대끼며 추스르며 / 잠 못 들고 일렁이다
하 많은 / 부침浮沈의 세월 / 되돌릴 수 없는 강물

버리고 또 버려도 / 욕심처럼 이는 거품

흐르고 또 흘러서 / 어디로 가는 건가

뜨겁게 / 지나온 날이 / 강심江心으로 뛰어든다.

노을도 여울여울 / 곱게 물든 강물 위로

산천이 깨어나서 / 가을의 시를 쓴다

저보게 / 순명의 화두話頭 / 강물 되어 흐르네.

〈순명順命〉 전문

순명順命이란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천명에 순종함 또는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주어진 대로 죽는 것을 말한다. 3연 1수로 인간 여정의 회한을 유기적으로 섬세하게 표출하였다. 즉, 첫수에서는 쉬지 않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낮과 밤이 교차되고, '부대끼며 추스르며' 물결처럼 '잠 못 들고 일렁이'는데, 그 많은 뜨고 지는 세월, 강물처럼 되돌릴 수 없다고 하며 격정적인 청춘의 삶의 모습을 그렸고, 둘째 수에서는 '버리고 또 버려도' 차마 버릴 수 없는 욕심의 거품, 향방 잃은 인생의 행로와 뜨거웠던 과거가 '강심으로 뛰어든다.' 즉, 장년기 삶의 고뇌를 그렸으며, 끝수에서는 천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년기의 인생 역정을 허심 탄해 하게 표출하였다. 맹자도 명심보감에서 "순천자順天者는 존存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이라"(하늘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했다. 우리가 만일 법이나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목숨을 부여한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를 길러준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순종하기로 약속해 놓고 이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시간을 갉아 먹고 / 자라나는 나의 바램

바램은 허기를 낳아 / 어둑한 나를 재촉한다

힘겹게 / 휑한 공복으로 / 허위허위 가는 길

영혼에 심지 돋워 / 공복을 밝히지만

갈수록 잦아드는 / 허당의 발길이다

하늘엔 / 뜬 구름 몇 장 / 눈망울에 스치고.

〈무상無常〉 전문

무상無常이란 인생의 덧없음이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생멸生滅하고 전변轉變하여 항상 머무름이 없다는 것이다. 인생이란 하루아침의 이슬과 같이 참으로 허무한 것이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면서도 나날을 보내고 있으되, 결국에 가서는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첫 수에서는 헛된 나의 바람은 시간을 갉아먹고 자라며, 허기를 낳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둑한 길로 재촉하여 나아가게 한다. 공복감에 쫓기듯이 힘겹게 '허위허위 가는 길' 이지만 보상이 없는 삶이다. 둘째 수에서는 내 '영혼에 심지를 돋우' 고 '공복을 밝히지만' 가면 갈수록 소득 없는 발길인데, 하늘에는 덧없는 뜬구름 몇 장이 '눈망울에 스칠' 뿐이라는 것이다.

끝 모를 깊이에서 / 그 얼마나 견뎠던고

목 메인 서러움도 / 치솟는 울분조차도

마침내 / 어둠을 뚫고 / 시원스레 꽃이 핀다.

뜨겁게 앓던 가슴 / 묻어둔 욕망들이

자유다 / 해방이다 / 깃발을 휘날리며

한바탕 / 잔치를 벌여 / 갈채 속에 흥겹다.

〈분수噴水〉 전문

분수는 힘차게 뿜어내는 물줄기이다. 그것은 날개를 파닥이며 하늘을 날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하나의 몸통에서 수많은 가지를 치고 너울거린다. 물방울은 투명한 새가 되어 하늘을 나른다. 그것은 항상 쉬지 않고 나르는 맑은 영혼들이다. 첫 수에선 끝없이 어둠의 깊은 침묵 속에서 견뎌 온 분수!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치솟아 오르는 울분조차도 결국 어둠을 뚫고 꽃처럼 시원하고 아름답게 핀다는 것이다. 둘째 수에서는 그 구체성이 표출된다. 즉 '뜨거운' 가슴앓이와 '묻어둔 욕망들이' 자유와 해방의 깃발을 휘날리며 '한바탕 / 잔치를 벌여 / 갈채 속에 흥겹다'는 것이다. 분수에서 해방의 기쁨을 유추한 작품으로 보인다.

기우는 / 햇살 너머 / 무너지는 시공時空

시름도 식혀내면 / 꽃으로 피는 건가

보게나 / 만다라의 꽃 / 저 선혈의 열반을.

〈노을에〉 전문

노을이란 해가 뜰 무렵이나 해가 질 무렵에 공중의 수증기가 햇빛을 받아 하늘이 벌겋게 보이는 기운을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시조에서는 해가 뜰 무렵이 아니라 해가 질 무렵을 말한다. 팡세는 "인생의 저녁은 그 램프를 휴대하고 온다."라고 했고, 지이드는 "마치 하루가 거기에 죽어가기라도 하듯

이 저녁을 바라보라"라고 하였다. 그러기에 초장에서 '기우는 햇살' '무너지는 시공' 이라 했고 중장에서 노을 = 꽃으로 승화시켰으며, 종장에서는 다시 전환하여 '만다라의 꽃' 그리고 '선혈의 열반' 즉 불법의 고향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자욱한 안갯길도 / 그러려니 걷는 거다
가도 가도 막막한 갈 / 그런대로 가는 거다
젖은 땅 / 험한 행로여 / 내 경전의 유유자적.

무거운 짐 덜어내며 / 쉬엄쉬엄 가는 거다
가다 보면 먹구름도 / 동양화로 뜨는 하늘
이승은 / 축복이어라 / 단 한 번의 삶이거니.

〈보법步法〉 전문

보법은 걷는 방법이다. 즉 살아가는 방법을 유추한 것이다.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말이 있다. 이는 장자莊子의 〈추수〉편에 나오는 말로 연나라의 한 청년이 한단邯鄲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원래의 걸음걸이 마저도 잊어버리고 기어서 돌아왔다는 일에서 유래된 말이다. 즉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다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의 것조차 다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김석철의 보법은 안갯길이든, 막막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모두 '그러려니, 그런대로, 유유자적' 이며, '무거운 짐 덜어내며 / 쉬엄쉬엄 가는 보법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단 한 번의 삶이기에 먹구름도 / 동양화로 뜨는' 것이리라. 그러기에 '이승은 / 축복' 인 것이다.

상념을 걸어두면 / 더없이 이는 바람

일렁이는 세월의 구비 / 파노라마 물결친다

귀 열고 / 천 년을 듣네 / 참선으로 앉은 몸.

〈수석壽石 · 2. – 부처상 (1)〉 전문

수석은 전시 또는 관상용으로 아름답게 생긴 자연석을 이름이다. 이 시조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모습의 자연석인 듯싶다. 초장에서 마음속에 품은 여러 가지 생각을 '걸어두면 / 더없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 인다는 것이고, 중장에서는 '일렁이는 세월의 구비' 마다 '파노라마 물결친다' 는 것인데, 종장에서 부처상의 수석은 '참선으로 앉은 몸' 으로 '귀 열고 / 천 년을' 듣고 있다는 불교적 심상이다. 작자는 수석 · 3의 '부처상' 에서도 '마냥 / 풀지 못한 / 명제 하나 붙들고서 // 천 년을 하루같이 / 참선으로 지내누나 // 자는 듯 / 깨어 있음을 / 미처 생각 못 했네' 라고 읊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 힘에 겨운 한恨의 무게

중모리 중중모리 / 휘모리 자진모리

저마다 / 채색도 곱게 / 뽑아내는 실타래.

인연의 끈을 쥐고 / 곡예처럼 아슬한 길

한 서린 가슴앓이 / 무거운 업보던가

지나온 / 골짜기마다 / 남도창이 여울진다.

〈남도창南道唱 · 〉 전문

남도창은 제21회 한국 시조문학상을 받은 작품이다. 남도창이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의 잡가를 이름인데, 전라도의 화초사거리, 보렴, 새타령 따위와 경상도의 골패타령, 성주풀이 등을 가리키며, 때로는 육자배기, 농부가 등의 민요를 포함하여 이르기도 한다. 대개 한사람의 창자가 고수의 반주를 받아 공연하는 판소리를 달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는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남도지방에서 유행하여 붙인 이름이다. 우리나라 창의 바탕에는 한이 서려있다고 한다. 그 한의 정서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첫 수에서는 구성지게 불러도 불러 봐도 다 나타내지 못하는 그 한과 장단의 종류 그리고 사람마다 혹은 창마다 채색한 실타래처럼 각기 곱게도 뽑아낸다는 것이다. 둘째 연에서는 창의 전승과 내용을 말하고 있다. 남도창 · 2에서도 '걸걸한 목소리는 / 도도한 유천강물 // 흥이런가 /한이런가 /추임새로 춤을 추고 // 저 물녘 / 흰옷자락이 / 먼빛으로 날린다.' 와 판소리 · 3에서도 '천 년을 내달려 온 / 열두 폭 아린 사연 // 웃음인가 흐느낌인가 / 일렁이는 강물인데 // 멀리로 / 선학 한 마리 / 빗금 긋는 노을 녘' 이라고 읊었다.

정경은 박사도 그 해설에서 '위의 시조는 소리를 형상화해서 연극처럼 보여주는데 무대에는 여러 인물의 한과 아슬한 삶의 곡예가 있다. 한은 감당하기 힘든데다가 끝도 없다. 그들의 삶이 그리 고단했는데 민요가 흥겨울 이유가 없다. 지주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리꾼을 고용해서 부르게 했기 때문에 민요는 민중의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읽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흥겨움에서 한을 읽으니 이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소리의 힘이다. 고용된 소리꾼들의 한스런 삶이 소리에 녹아져 있었던 것이다' 라고 평했다.

밀물에 떠밀리고 / 썰물에 써리어진
시련의 주름살들 / 켜켜이 쌓였구나

그 많은 / 아픔의 세월 / 해조음에 묻힐 수야

하늘의 높은 뜻도 / 바다의 깊은 뜻도
섭리로 받아들여 / 서사시를 지었것다
저렇듯 / 사무친 말씀 / 뼈 속까지 들리리.

–〈채석강〉 전문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1-1에는 기묘한 배변이 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술을 마시고 물속에 비치는 달을 잡으려다 빠져 죽은 곳과 비슷하다 해서, 이름하여 〈채석강彩石江〉이라 하였다. 하나, 사실은 해수면 아래로 보이는 암반의 색이 영롱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채석강〉은 그 이름만큼이나 경관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수천만 년 바닷물에 깎이고 남은 바위 절벽은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 거대한 층리를 이루었고, 그 아래로는 수많은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나가면서 남겨놓은 흔적으로 편마암층이 벼루처럼 반들거리기에 명승 제13호, 전라북도 기념물 제28호로 지정되어 있다.

윗 시조는 이런 경관의 〈채석강〉을 2수 1편의 시조로 구성하였다. 첫 수 초장은 밀물과 썰물의 작용을, 중장에서는 그 '시련의 주름살들'로 인해 수만 권의 책이 쌓인 것 같은 모습을, 종장에서는 결국 '그 많은 / 아픔의 세월 / 해조음에 묻힐 수야'라 하여 조수가 흐르는 소리나 파도소리에 묻힐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수 초장에서는 '하늘의 높은 뜻도 / 바다의 깊은 뜻도' 중장에서 '섭리로 받아들여 / 서사시를 지었것다.' 종장은 '저렇듯 / 사무친 말씀 / 뼈 속까지 들리리.'라 하여 마무리를 지였다. 아무튼 다음 한국시 대사전에 기록된 내용을 빌어 마무리를 지으려 한다.

초기에는 다소 서러운 원초적 본능과 자연친화적인 작품 경향을 보였는데, 그 후 나름대로의 자각과 반성으로 주제의식의 심화를 꾀하면서 내면세계 구축에 성실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제2, 3시조시집에선 전통의 계승과 건전한 시정신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혜안을 지니고 모든 갈등과 문제점들을 순리로 푸는 작품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긍정적 인생관으로 밝은 면을 찾고 사랑으로 화해하며 순응하는 노래가 많았다. 2003년의 제4시조시집 〈가을 산책〉에선 주로 자연친화 의식과 생활서정의 세계를 넓혀가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9년 제5시조시집 〈시간 위에서〉에서는 순하고 조화로운 감성과 너그럽고 온화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샛별마을 라이프아파트 110동 802호에 거주하고 있다.

2. 제10대 회장 김옥정金玉貞에 대하여

가. 작가론

김옥정 시조시인은 1946년 8월 1일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에서 출생했다. 원래 본적은 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마장리 111번지다. 부친은 경기도 경찰로서 자주 이동이 심하였기 때문에 서울 종로구를 중심으로 집을 마련하여 가정을 꾸리며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그래서 김옥정은 종로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창덕여자중학교를 거쳐 창덕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교 졸업과 동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한동안 동대문 구청에 근무하기도 했다.

원래 김옥정은 역사에 근거한 영화와 독서를 좋아하여 개봉되는 영화는 빼놓지 않고 모두 관람하였으며, 독서 또한 즐겨 세계 명작이란 명작은 모

두 섭렵하였다. 그러기에 한 때 수원 광교의 고등공민학교 교사로 재직한 바도 있다. 따라서 시작에 몰두하여 자유시를 썼다. 그러다가 당시 한국시조시인협회 사무국장인 일상 김광수의 권유에 따라 1986년 5월부터 11월까지(이 때 경인시조시인협회 창립) 수원여자고등학교에 『수원상설시조학교』및 『수원청소년시조강좌』를 필자 주관으로 개설하였을 때 참가하여 총무를 맡은 사람으로, 그를 보조를 해 준 손영옥, 송지은, 정혜경, 최옥림, 최희선 등과 더불어 제1 · 2회로 졸업한 학생들이었다. 그러다가 김옥정은 1988년 계간 『현대시조』 가을호에 〈숲길에서〉와 박현덕의 〈겨울의 章〉, 황진영의 〈山吟歌〉가 제3회 신인문학상에 당선되어 문단에 등단하게 되었다. 이 때 김옥정의 등단 작품은 다음과 같다

바람을 앞세우고 / 숲은 늘 일어선다
잠들 듯 눈을 떠서 / 술렁이는 푸른 파도
연록빛 / 울음 웃으며 / 가슴 앓는 숲이여.

저만큼 물러 앉아 / 세월 곁을 떠돌다가
고뇌의 풀빛 향을 / 왈칵왈칵 토해내며
한 자리 / 지키는 목숨 / 파란 꿈만 꾸는가.

그늘로 쌓이다가 / 밀려오는 빛살 앞에
천만 번 뒤척여도 / 저려오는 팔과 다리
한 자리 / 햇살을 두르고 / 바라보는 먼 하늘.

〈숲길에서〉 전문

등단의 기쁨을 김옥정은 한마디로 “13세 소녀의 꿈이 이제사 우편함에 숨은 듯 꽂혀 있는 엽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아프다.

소설의 전개방식도 모르며 무작정 쓰리라고 덤벼들었던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결혼하고 엄마 되어 행복을 착각하며 살아가던 계절에서 갑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것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쥔 바 없다며 허허로와 벽과 마주하던 일, 무생물화 되면서 거저 살다 죽어가기에는 아쉬워 툴툴대며 방황하던 기억, 그로부터 생활의 넋두리를 쓰기 시작했고 우물 안 개구리 식 습작에서 탈피해야겠다고 안달하던 차에, 『수원상설시조학교』를 주관하시는 선생님을 만나 시조에 대한 그 분의 열정과 더불어 시조의 형식, 시조가 갖고 있는 율律의 멋을 배우게 되어 내 나름대로 열심히는 해 보았으나 왠지 성이 차지 않고 자신이 없었는데……

지각생으로 글자리에 끼어들게 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큰 절을 올립니다. 生의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는 저에게 덜커덩하고 금빛다발을 주셨으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여편네 장기가랑이 안 되도록 공부하고 노력할 작정입니다.” 라고 하였다.

김옥정이 등단하자 유 선을 지도교수로 삼고, 1990년 한가위날에 김옥정을 중심으로 손영옥, 송지은, 정혜숙, 최옥림 등이 방화수류정에 모여 시조낭송회 잔치를 벌이다가, 『끼리창작동인회』를 조직하고, 그 회장이 되어 본격적인 시조창작 활동에 돌입하였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조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1991년 5월 20일 17시 권선구청 별관 4층을 빌어 초청인사 전형대(현대시조 주간, 경기대 교수), 선정주(목사, 시조시인), 강대욱(경기도 학예연구관), 유 선 등을 모시고 제1회 자작 〈현대시

조 낭송회〉를 팜프렛 제작과 더불어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제2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1년 9월 20일 19시에 화홍문 방화수류정에서 최희선이 입회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제3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2년 2월 22일 16시에 권선구청 별관 4층 코리아나화장품 회의실에서 초청인사 김준(서울여대 교수), 선정주, 이은방(시조시인) 유 선 등을 모시고 개최한 바, 김석철(시조시인, 고교 교사), 안희두(시인, 고교 교사)가 찬조출연을 하였다. 제4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2년 9월 13일 추석 다음날 저녁 19시에 화홍문 방화수류정에서 김준, 선정주, 이은방, 유 선 등을 모시고 시민과 더불어 잔치를 벌였다.

제5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3년 10월 1일(금) 19시에 화홍문 방화수류정에서 김광수(시조시인), 김준, 선정주, 원용문(교원대학장), 이은방, 유 선 등을 모시고 개최한 바, 전혁중(시조시인), 진성열(시조시인), 안희두, 양승본(소설가) 등이 찬조출연을 하였다. 제6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1994년 4월 23일(토) 16시에 수원시 문화원 강당에서 제1부에서는 〈현대시조 창작강좌〉를 개최한 바, 이은방의 〈시조와 시〉, 김광수의 〈자작시 해설〉, 유 선의 〈시조창작 실기〉. 제2부에서는 〈시조 낭송회〉를 가진 바, 초대시조시인 김광수, 김재황, 선정주, 유 선, 이은방, 홍오선 등이었고, 입회 회원으로서는 신명자와 이혜옥 두 시조시인이었으며, 찬조작품낭송으로는 안희두, 이호광(시조시인, 세태풍자 소설가, 칼럼니스트) 이용한(시조시인), 진성열, 서순석(시조시인) 등이 찬조 출연하였다.

제7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4년 9월 21(수) 16시에 방화수류정에서 개최한 바, 초대인사로 선정주, 유 선, 이은방 등이었고, 찬

조로는 양점숙(시조시인), 김영희(시조시인), 안희두, 이용한, 서순석, 강무강(시조시인) 등이었다. 제8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1995년 4월 24일 16시에 수원시 문화원 큰사랑에서 개최한 바, 제1부는 시조창작 강좌로 이태극 박사(한국시조시인협회 고문) – 시조와 현대시, 전형대 – 현대시조에 대하여, 유 선–시조창작 실기였고, 제2부에서 시조낭송으로 초청 시조시인 이은방, 선정주, 원영동(시인), 유 선, 최정학, 김석철, 이인식, 경규희, 진성열 등이였으며, 시조시인 김옥롱과 조춘현이 입회 가세하였고, 찬조출연 시조시인으로 안영준, 황진영, 양점숙, 안희두, 이용한, 서순석 등이었다.

제9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5년 9월 20일 방화수류정에서 개최한 바, 초대작가로 이태극, 김 준, 선정주, 유 선, 윤범하, 이은방, 최정학, 강대욱, 밝덩굴, 김남웅, 윤수천 등이었고, 경규희, 서순석이 찬조 출연하였다. 1996년 4월 20일 14시에 제10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손영옥의 첫시조집 『구름이 머무는 나무로 서서(교문사)』출판기념회와 더불어 동인지 제1사화집 『꽃잎이 벙그는 소리(교문사)』을 발간하여 성대하게 실시하였다.

제11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7년 5월 18일 16시에 21세기 여성개발원에서 제2사화집 『한빛으로 사랑일레(삼진사)』를 발간하여 출판기념 및 시조 창작강좌와 더불어 시조낭송회를 개최하였다. 제12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8년 5월 23일 14시에 여성개발원에서 제3사화집 『모처럼의 고운 세상(대한)』출판기념회와 더불어 낭송회를 개최하고 정기명을 영입하였다.

제13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9년 5월 23일 16시에 여성개발원에서 제4사화집 『깊은 밤 짧은 얘기(교문사)』출판기념회와 더불

어 개최하였다. 제14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1999년 9월 19일 10시 장안공원에서 한국시조시인협회 주최 경인시조시인협회 주관 전국 우리시(시조) 백일장대회 섭외를 담당하였기 다음해로 미루어 2000년 5월 20일 16시에 남문백화점 4층 여성개발원에서 제5사화집 『언 손을 녹이면서』 출판기념회와 더불어 성대하게 실시하였다.

제15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2001년 10월 3일(수) 17시에 방화수류정에서 달맞이와 함께 제1부 초대작가 김광수, 김남환, 밝덩굴, 백이운, 이은방, 유 선, 윤수천, 등과 찬조로 김석철, 서순석, 안희두, 최오균, 김옥연 등과 더불어 시조낭송회를 가졌고, 제2부에서는 우리시 창작 토론회를 진지하게 가졌다.

제16회 『끼리창작동인회』〈현대시조 낭송회〉는 2002년 9월 22일 오후 4시 30분 시상에서 제16회를 끝으로 많은 초정문인 즉 원용문 박사를 비롯하여 이은방, 김광수, 유선, 김석철, 백이운, 한운산, 조순애, 밝덩굴, 조홍원, 윤수천, 김남욱, 김남혁 등을 모시고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해마다 확대 실시하여 경인지역의 시조인구 저변확대와 시조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을 끼쳤다. 2003년에는 김옥정이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따라 도미하였다가 연말에 귀국하였기에 실시하지 못하고 말았다.

2004년 2월 수원 매향가든에서 경기시조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김옥정이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끼리창작동인회』는 해산되고 말았다. 김옥정은 경기시조 회장으로서 본회 제16사화집(2004년 11월 3일)과 제17사화집(2005년 11월 3일)을 아름답게 제작하였고, 제3회(서순석)와 4회(엄미경) 정운엽시조문학상을 수여하였으며, 많은 회원들을 영입하였다. 그동안 시조집으로는 『광대의 춤(1993. 7. 13 교문사)』, 『세상구경(1998. 7. 30 교문

사』, 『외눈으로 본 세상(2003. 5. 30 동방기획』 등의 3권과 다수의 수필을 남겼으며, 사설시조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나. 작품론

김옥정 회장의 시조는 등단작품 〈숲길에서〉에서 보듯 현실참여나 고발의식 그리고 절망감 같은 것을 소재나 주제로 삼지 않았다. 다만 시조 본연의 형식과 율격에 충실하면서 일상생활속의 평범한 소재들을 그의 시심에 용해시켜 한 편의 시조로 변종시키고 있다. 즉, 대상과 정서의 개성적 접촉을 통해서 새 이미지를 창출하고, 창출된 이미지를 다시 독창적으로 내적 유기체화 하여 결국 놀라운 감동과 강한 호소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숲길에서〉는 현대시조로서 크게 성공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을 하느님 다음가는 창조자라고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아무튼 〈숲길에서〉은 숲과 작자와의 교감을 잘 나타낸 작품이다. 언제나 정적인 숲은 자신의 모습이며 늘 동적인 바람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술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연록빛 / 미소를 띄우며 / 가슴 앓는' 것이다. 또 공간적 거리감을 나타낸 '저만큼 물러 앉아' 는 현실과 거리를 둔 삶이기에 '고뇌의 풀빛 향을' 객혈하듯 토하며 조선 여인의 한 자리를 굳게 지키고, '파란 꿈' 만 꾸고 사는 것이다. 무성한 나뭇잎 같이 나이테만 늘고 있지만 '밀려오는 빛살 앞에' 오히려 사지만 저려올 뿐이기에 그저 하염없이 '먼 하늘' 만 갈망하고 있다는 것 즉 자화상에 나타난 서정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징 치고 나발 부는 / 가설무대 가면극

망둥이가 춤을 추면 꼴뚜기도 뛰어보려 허수룸이 차려입고 뒤뚱뒤뚱 나서보고, 넘실대는 사이비, 파도 타는 서생원, 사기치고 도망간 너구리 분단장 연지 칠로 앙실방실 등장하면 시계추를 매단 멍청이들 북이랑 장구 치며 지화자 어절시구……

한바탕 / 꿈인 줄 알면서도 / 숯검정이 된 애간장.

〈세상구경 (1) – 백일장〉 전문

〈세상구경〉은 작자가 현실생활에서 듣고 본 대상과 자신의 신념을 접합시켜 자신의 문패를 역설적으로 걸어놓은 것이다. 종래의 사설시조와 비교하면 신선하고 참신한 맛을 풍긴다. 대부분의 현대시조들이 공연히 신음하고 탄식하며, 이유 없이 흘쩍거리는데 비해 윗시조는 박장대소를 낳게 한다.

즉, 초장에서는 백일장을 개최하는 배경과 시작하는 모습을 배치해 놓고, 중장에서는 주관자들의 남녀별 행동거지를 사설 특유의 풍자적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참가자들이 그 결과를 애타게 가다리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순수시의 반대편엔 참여시가 있다. 참여시란 현실사회의 참여를 조장하는 현실주의 시들을 말한다. 윗시는 하나의 참여시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인도 현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현대사회에 대한 비판, 저항, 고발 등의 내용을 담기도 하는 것이다.

바람 든 흥타령에 / 엉덩이를 출썩이다 //

녹슬어 허물어진 칼 / 썩 내어 휘두르며 /

단숨에 / 무어든 버히리라 / 튀어나온 어릿광대

주름살, / 분칠해 지운 / 움푹 패인 고랑마다 //
알싸한 외로움이 뽀얗게 배어나와
초침에 / 목을 맨 몸짓으로 흘린 시어 줍는다.

〈광대의 춤(3) –습작일기〉 전문

김옥정의 시조를 주도하고 있는 의식은 남의 것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된 독특한 이미지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자아의식 불확실성에 대한 또 하나의 강경한 성토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기 질서의 모순을 통하여 하나의 부활을 꾀하려는 의식이 엿보인다.

'바람 든 흥타령' '녹슨 칼' '단숨에 버히리라' '어릿광대' 그러나 '주름살 / 분칠해 지운' / '고랑마다' '외로움이' '배어나와' '목을 맨 몸짓으로 / 흘린 시어 줍는' 그 몸짓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개인적인 것이다. 김옥정은 〈자화상〉을 노래하던 규방을 박차고 뛰어나와 〈세상구경〉을 하고나서 〈광대의 춤〉에 와서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과 아울러 시조의 틀에도 새로운 한 지평을 열고자 하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즉, 초장과 중장사이를 띄고, 중장과 종장을 붙이는 시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절절이 아려오는 / 못 태운 사랑 한 줌
차마 안타까워 / 발 돋움고 서성이다
허리 휜 / 제 그림자에 놀라 / 쏘아올린 불꽃덩이

빈 하늘 받쳐 이고 / 천형으로 얹힌 인연

호두마냥 여물리라 / 꽉 다문 / 의지로 선 채

목마름 / 달래가면서 / 익모초를 씹는 숙맥.

〈해바라기〉 전문

민초들의 온갖 애환이 담겨 있는 〈풀꽃들의 이야기〉 중에서 〈해바라기〉를 골랐다. 〈해바라기〉는 그 이미지의 파악이 그리 어렵지 않다. 〈해바라기〉는 뜨거운 사랑과 거룩한 성숙 같은 것을 다 함께 갈망하면서 삭막한 현실을 타개하려는 의지나 신념 등을 자신이나 혹은 그 주위에서 생활하는 어떤 여인의 비유로 짐작된다. 아무튼 〈해바라기〉는 전편에 흐르고 있는 외로움이 강물처럼 느껴진다. 또 전설을 도입한 〈달맞이꽃〉 '외로움 장대삼아 / 높은 하늘 질러보고 // 여울지는 달무리 곁에 / 바람결로 떠돌다가 // 옹달샘 / 얼비친 그림자 / 목이 타서 죽은 그녀' 에서도 〈해바라기〉와 같은 민초들의 외로운 모습은 역력히 엿볼 수 있다.

황사바람 너풀너풀 / 야단법석 진을 치는

뒷골목 담장 밑에 우중충한 한 뼘 땅을 아등바등 지켜 온 씀바귀, 사는 게 힘이 겨운 쑥부쟁이 울근불근 돋아나면, 따순 바람 한 번 보고 말겠다는 오랑캐꽃 꽁무니에, 달래, 냉이, 꽃다지 수줍게 돌아앉고, 하고픈 얘기 많은 이름 모를 풀꽃들이 은유법도 모르는지, 자금자금 달려나와

쨍하고 / 북, 장구를 치며 / 시끌벅적 떠든다.

〈목숨 · 1〉 전문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라 했던가? 그 속에는 검둥이, 흰둥이, 누렁이가 함께 살듯이, 황사바람 모질게 불어대는 아시아의 뒷골목인 우리 나라, 그 한반도를 굳건히 지켜온 배달겨레,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희망찬 봄이 되었건만, 너나 할것없이 모두들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씀바귀, 쑥부쟁이, 따순 바람, 오랑캐꽃, 달래, 냉이, 꽃다지, 하고픈 얘기, 풀꽃, 은유법 등이 유추하는 의미를 짐작해보면, 이 시조가 현 세태를 얼마나 깔끔하고 풍자적으로 비유 했는가를 깨닫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하다. 보기드물게 성공한 사설시조의 수작이다.

靑春도 가버린 이 가을 / 다시 도진 사랑이라

한 가락 하고 싶어 좀이 쑤신 청기와 장수 같은 박수무당 모본단 저고리에 양단치마, 치레하고 늙다리 낯바닥에 꽃단장을 하고서 비단부채까지 들어보지만

일없는 / 단속곳이 삐죽 빠져 / 헤벌쭉이 웃고 있네.

〈외눈으로 본 세상 · 1 –詩集을 내며〉 전문

제3시조집 표제가 된 '외눈으로 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더라도 그 정상을 파악하기 어려울 터인즉, 아마도 순탄하고 정상적인 세상으로 보이지 아니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물며 자신의 '詩集을 내며'라는 작품에 있어서랴! 규방의 답답한 심기를 훌훌 벗어 던지고, 삭막한 세상을 구경한 다음,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자신과 인간들의 광기 어린

삶의 몸짓을, 두 눈이 아닌 외눈으로 보고 사설시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지명知命을 훨씬 넘어 이순耳順을 바라보는 인생의 가을에 또 다시 살아난 시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기에 대뜸 초장에서 '靑春도 가버린 이 가을 / 다시 도진 사랑이라' 라 했고, 중장에서는 자기의 詩集을, 온갖 멋을 부리려는 박수무당에 비유하였으나, 결국 종장에 가서는 '일없는 / 단속곳이 삐죽 빠져 / 헤벌쭉이 웃고 있네.' 라 하여 초 · 중장과 상반된 시상으로 돌진하였으나, 그 겸손을 잃지 아니한 김옥정 특유의 수법이 나타나 있다.

저무는 길바닥에 나뒹구는 / 폐휴지 된 울 아버지

청춘을 팔아 모은 쌈지돈은 여권신장 외쳐대는 궁둥이 무거운 마나님께 사정없이 쥐어 주고 빗물 지칠 처마 밑도 없는 신세로 흐느끼질 못하네, 빈 주먹 거머쥔 채 남은 시절 삶아내어 쓴 소금을 찍고 있다.

먹으면 / 죽어지는 독주 한 양푼 자시고서
죽어 지오 죽어 지오.

〈외눈으로 본 세상 · 8 –울 아버지〉 전문

우선 이 시조는 쉽고 아름답고 서정적인 작품이다. 시조가 무조건 어려워서 특별한 지적 소유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반하여 이 작품의 경우는 다르다. 한국의 평범한 교양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접하고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학적 성공을 거두면서도 일반인들의 지적 감수성에 호소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미학적 보편성이야말로 이 작품이 지닌 우수성이라 할 수 있다. 초장에서는 아버지를 '길

바닥에 나뒹구는 폐휴지' 에 비유하였고, 중장에서는 젊어서부터 모아온 재산은 모두 다 마나님에게 주고 빈 털털이가 되어 여생을 '쓴 소금을 찍고 있다.' 고 하여 울 아버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을 여실히 형상화한 후, 종장에서는 '죽으면 / 죽어지는 독주 한 양푼 자시고서 / 죽어 지오 죽어 지오.' 라고 악담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악담은 바로 괄시받고 살아가는 '울 아버지' 에 대한 반어적 지극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꽃가마 타고 시집가던 / 순녀 마냥 곱던 지구

턱 높은 대청에 앉아 장죽을 두드리며 상놈 잡던 양반 마냥 문명이란 허울 좋은 이름 아래 시도 때도 없이 뺨따귀를 이쪽저쪽 후려치고 구정물에 담궜다 매운 소스 먹여가며 숨통을 조르고 에이즈 그 독한 연기로 이리저리 버무리며 희죽대던 인간들

요즈음 / 제 꾀에 제 발목이 잡혀
끙끙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 1 –고관 족속〉 전문

제2부 '인터넷에 올립니다' 에서는 고발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장형시조는 본래 민초들의 해학정신을 의식구조로 한다. 천박한 말속에 깃들어 있는 저항정신과 비판정신과 고백과 고발정신이 대체적인 내용으로 설정된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시인도 이 사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비판하고 고발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 시대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띠고 있다.

윗 시조에서는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고, 권세를 누리던 고위 관리들이 세월이 바뀜에 따라 그 비리와 부정이 탄로 날까 두려워 모순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여실히 풍자 고발하고 있는 현실 인식의 눈길이 참신하다. 원래 지구는 인간 존재의 고향이다. 인간은 그 자연의 이법과 순환에 따라 순리대로 살아가는 게 원칙이다. 이를 초장에 배치하여 놓았고, 중장에는 고관들의 모순된 생활상을 신랄하게 풍자하였으며, 종장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전전긍긍하는 고관들의 태도를 여실히 고발, 형상화하고 있다.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

무쇠 솥에 물이 끓듯 / 북적이던 우리 집

안방은 네 활개를 활짝 펴고 드렁드렁 코를 골고, 주인 잃은 사랑방은 외로워서 못 산다 앙살을 떠는데, 서재엔 먼지를 이고 앉은 책들이 고독을 씹다가 이빨이 부러졌다 툴툴대고, 적막은 오동나무 가지에 둥지를 틀었는데,

바람도 / 까치발로 서서 / 가만가만 지납니다.

〈인터넷에 올립니다 · 2 –우리집〉 전문

시조는 우리의 정서와 사상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이다. 소설이나 희곡도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지만, 시조는 틀과 언어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있다. 시조는 산문과 달리 율조의 언어로써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시조의 언어는 산문의 경우보다 더욱 함축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시조는 압축적이고도 집중적인 언어의 형태미를 가지게 마련이다. 시조의 언어는 말보다 노래에 더 가깝고, 상상과 감동을 표현한다. 그러므

로 주관적이며 영탄적인 정서의 표현이 시조를 통해 가능해진다.

전자(고관 족속)가 사회 고발이라면 후자(우리 집)는 가정고발이다. 초장에서는 북적이던 집을, 중장에서는 적막한 집의 상황을 형상화 한 다음, 종장에서 '바람도 / 까치발로 서서 / 가만가만 지납니다.' 라고 경건하게 마무리한 수작이다.

매연에 목이 졸려 / 수척해진 가로수

비정과 추리소설 주인공처럼 심상찮은 하늘을 향해 헛구역질을 하며, 주먹질을 하는데,

보신각 / 톡 터진 종소리가 / 새떼처럼 날고 있네.

〈며칠의 일기 · 1 –종소리〉 전문

손가락을 튕겨 보면 / 깨질 것만 같던 하늘
그리 맑던 얼굴빛이 / 무슨 심사 도졌는가
천 근의 / 憂鬱을 안고 / 바튼 기침 하고 있다.

〈며칠의 일기 · 2 –겨울 하늘〉 전문

'며칠의 일기' 는 대단히 감각적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운명은 생멸生滅의 굴렁쇠와 같다. 수없이 맞닥뜨리는 생멸生滅의 굴렁쇠!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졌다가도 다시 생겨나는 만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김옥정이 그려내는 일기의 소소한 일상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기 그지없다. 늘 다니던 길에서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간판

처럼 늘 걸려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곧 없는 것이고, 언뜻 보면 한순간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시조의 내용과 주제는 일상적인 언어의 의미 기능을 넘어서는 곳에서 성립된다. 시조의 대상이 되는 소재는 무수히 많다. 자연과 인생과 사회가 모두 시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 소재들이 모두 시조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조시인의 개인적인 체험과 사상과 상상을 통해서 시조의 주제는 성립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시조시인이 시조의 소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며, 새로운 의미 부여라고도 할 수 있다.

–종소리는, 초장에다가 '매연에 목이 졸려 / 수척해진 가로수'를 배치해 놓고, 중장에는 그 가로수가 '심상찮은 하늘을 향해 헛구역질을 하며, 주먹질(조물주에 대한 반항)을' 한다고 하였으며, 종장에서는 한껏 띄워 '보신각 / 톡 터진 종소리가 / 새떼처럼 날고 있네'란 참신하고 깜찍한 감각적 종장의 마무리가 경이롭다.

–겨울 하늘은 초장에다가 유리알 같은 하늘을 배치해 놓고, 중장에다는 '그리 맑던 얼굴빛이 / 무슨 심사 도졌는가'라고 의문을 설정한 다음, 종장에서 하늘이 '천근의 / 憂鬱을 안고 / 바튼 기침 하고 있다.'라고 감각적 의인화로 마무리하여 가슴을 울려주고 있다.

원래 장형(사설)시조는 양반의 횡포와 사회의 모순에서 그 반발로 발생한 서민문학이었다. 걸쭉한 풍자와 거침없는 해학 속에 솔직한 생활 현장의 고백이거나 모순에 대한 고발을 담아 구체적인 이미지를 일상의 언어로 표출함으로써, 노래에서 말로 넘어가는 산문 형태의 한 변형시조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뜻 있는 시조시인들에 의하여 그 형태와 내용과 문체와 표현방식 등에서 여러 가지로 실험 · 모색되고 있다. 김옥정도 특이한 소재

와 문체와 시어로 남다른 고백과 고발정신을 가지고 해학과 풍자와 역설 등을 활용하여 현실을 형상화함으로써 지루하지 않은 감동을 주는 작품들을 창작하고 있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경기시조 제 8, 9대 김석철 회장과 제 10대 김옥정 회장의 작가와 작품론을 두서없이 주마간산 격으로 일부를 기록해 보았다.

김석철 회장은 일찍이 미당 서정주 시인에게 사사하며 자유시에 몰입, 100여 명의 제자중의 한 사람으로 〈시문학〉에 추천되었으나,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깨닫고 겨레시(시조)로 선회하여 1980년 〈월간문학〉을 통하여 시조로 등단하였다. 미당의 여향을 받아서인지 불교적 자연 친화의 심상과 인간 내면의 성실성을 추구하는 순수 서정문학적 태도와 삶을 견지하면서 평생의 반려로 삼고 있다. 원래 너그럽고 온화하며 다정다감할 뿐만 아니라 근면 성실한 성격은 정년퇴임 후에도 성남 문원중학교 선생들로 하여금 김석철 사모회를 조직하게 만들어 때마다 모이기도 한다는 소식이다.

아무튼, 김석철은 초기엔 다소 서러운 원초적 불교적 본능과 자연친화적인 작품 경향을 보였으나, 그 후 자각으로 주제의식의 심화를 꾀하면서 내면세계 구축에 성실성을 보이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제 2, 3시조시집에선 전통의 계승과 건전한 순수서정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혜안을 지니고 모

든 갈등과 문제점들을 순리로 풀어가는 작품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긍정적 인생관으로 밝은 면을 찾고 사랑으로 화해하며 순응하는 작품이 많았다. 2003년의 제4시조시집 〈가을 산책〉에선 주로 자연친화 의식과 생활서정의 세계를 넓혀가는 경향이었으며, 2009년 제5시조시집 〈시간 위에서〉에서는 순수하고 조화로운 감성과 너그럽고 온화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의 작품세계를 읽을 수 있다. 우리민족 고유의 정서와 차원 높은 언어의 기교 등으로 한국문학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김옥정 회장도 1988년 현대시조 신인상으로 등단하기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자유시를 썼다. 그러다가 우리시(시조)로 등단한 이후 시조문학 창작에 심취하여 『끼리창작동인회』를 조직하고 모든 것을 팽개치고 2002년까 16회에 걸쳐 〈시조창작 강좌〉와 〈시조낭송회〉를 개최함으로서 우리시 발전과 그 저변확대에 큰 공을 세웠다. 그의 시조 경향은 대우주의 비밀과 대자연의 신비,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그 무엇보다도 발달한 인간지능으로 사람이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는 현실적 생활에서 상처 입은 정신세계를 기독교적 철학으로 치유해보려는 작품경향을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이것은 부조리한 인간세계의 모순에 대한 항거와 투쟁의 깃발이다. 생경한 시어를 조탁하여 이 땅의 골 깊은 여심의 생활과 애달픈 정한을 밀도 있게 형상화하여 사설시조의 새 지평을 열어놓은 것도 특기할 공적이다. 다만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시조문학 발전에 자못 안타까울 따름이다.

끝으로 다음을 참고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기시조시인협회에서 간행한 제1사화집부터 제 28사화집까지 홋수와, 회장, 제목, 발행 년 월 일, 발행처, 비고 등을 표로 보이면서 본고를 접는다.

〈표 – 1〉 경기시조시인협회 사화집 일람표

홋수. 회 장	제 목	발행 연 월 일	발행처	비 고
1. 유 선	지금은 비록 하늘을 못 날지라도	1987. 4. 10	청 맥	창간호 182면
2. 유 선	빛이 오는 소리	1988. 11. 20	한국문연	115면
3. 정운엽	새 움 트는 봄날에는	1991. 4. 15	동 학 사	182면
4. 유 선	못 다 채운 마음	1992. 9. 30	교 문 사	165면
5. 유 선	飛翔하는 나무들	1993. 9. 20	교 문 사	171면
6. 유 선	함께하는 사람들	1994. 9. 30	교 문 사	201면
7. 유 선	길섶에 핀 무궁화	1995. 9. 27	대 한	193면
8. 유 선	解 氷 期	1996. 9. 27	대 한	191면
9. 柳 善	경인시조문학	1997. 9. 27	대 한	200면
10. 유 선	경인시조문학	1998. 9. 27	대 한	208면
11. 유 선	경인시조문학	1999. 9. 27	대 한	210면
12. 김석철	경인시조문학	2000. 9. 25	대 한	255면
13. 김석철	경인시조문학	2001. 10. 25	태창문예	266면
14. 김석철	경인시조문학	2002. 11. 3	대 한	191면
15. 김석철	경인시조문학	2003. 11. 3	대 한	207면
16. 金玉貞	경인시조문학	2004. 11. 3	고 려 사	176면
17. 金玉貞	경인시조문학	2005. 11. 3	고 려 사	181면
18. 안희두	경인시조문학	2006. 11. 1	유신기획	150면
19. 안희두	경인시조문학	2007. 11. 1	유신기획	154면
20. 밝덩굴	경인시조문학	2008. 11. 8	고 려 사	230면
21, 밝덩굴	경인시조문학	2009, 11, 7	고 려 사	202면
22, 최오균	마디가 큰다	2010, 10, 29	다 시 올	191면
23, 최오균	경 기 시 조	2012, 2, 26	북도드리	189면
25, 서순석	경 기 시 조	2014, 2, 22	고 려 사	176면
26, 서순석	경 기 시 조	2014, 12, 12	고 려 사	190면
27, 서순석	경 기 시 조	2015, 12, 12	고 려 사	196면
28, 이현주	경 기 시 조	2016, 11, 19	대 한	282면

〈참고문헌〉

- 김석철, 시집『바다 風景』, (서울, 월간문학사, 1984).
- ——, 시집『바람처럼 구름처럼』, (서울, 정인각, 1989).
- ——, 시집『참 선비의 그 뜻은』, (서울, 한국시사, 1999).
- ——, 시집『가을 산책』, (서울, 정인각, 2003).
- ——, 시집『시간 위에서』, (서울, 정인각, 2009).
- 김옥정, 시집『광대의 춤』, (수원, 교문사, 1993).
- ——, 시집『세상구경』, (수원, 교문사, 1998).
- ——, 시집『외눈으로 본 세상』, (서울, 동방기획, 2003).
- 정경은, 『한국 현대 시조시인론』, (서울, 도서출판 월인, 2013).
- 한춘섭 외,『한국시조 큰사전』, (서울, 을지출판공사, 1985).
- 허영자 외,『한국시 대사전』, (서울, 을지출판공사, 2011, 4판).
- 경기(인)시조문학,『사화집 제1호 · 25호』, (서울, 청맥 외, 1987).
- 시조문학사,『계간 시조문학 2010 가을호』, (서울, 시조문학사, 2010).

문장 구조와 글쓰기의 실제
-작은 논리論理[1]에 의거한 문장 만들기

기전향토문화연구회 회장 | 밝 덩 굴

가. 들어가는 말

지난날과 달리 현대는 누구나 문자를 쓰고 구사하는 보편문자普遍文字, Universal Literacy시대라고 한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매일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한다.

그러면 문자란 무엇인가? 문자란 언어로 된 기호이다. 이 기호는 같은 문자를 공유하는 사람끼리의 소통하는 의미 전달체이다. 가령 '학교' 하면 '교육 학습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학생을 모아 일정한 교육 목적 아래 교사가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기관' 이라 정의한다. 더러는 정서문이나 철학문에

1) 논리학은 타당한 추론의 원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논증 또는 추론을 이끌어낸다. 여기서는 그 논리학이 좁혀진 어휘로 쓰이는 생각이나 추론이 지녀야 하는 단순한 원리나 법칙을 말한다.

서는 외부나 내부의 상황적 영향으로 배움, 상아탑 등의 비유적 의미로도 쓰인다. 그러면 같은 의미를 가진 'School'은 어떤가? 학교, 교습소, 시험장, 강당, 훈련장, 무리 등의 뜻이 있고, 문장 속에서는 더욱 변화가 생겨 상황적 의미로 나타난다.

글을 쓰는 목적은 내 생각이나 사고를 상대에게 알리는데 있다. 그러기에 같은 언어군에서는 어휘, 품사, 어절, 글월을 같은 생각으로 말하고 쓰고 한다. 그 기준이 잘못 된다면 글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작은 논리'에 근거한 문장 쓰기를 살펴보려고 한다.

나. 본 말

문장에 있어서의 낱말 및 어휘, 어휘의 문장에서의 호응관계, 단문과 장문 관계, 문단 가르기와 줄바꾸기의 법칙들을 짚어 보면서 문장 구조와 글쓰기의 질서를 살핀다.

1.낱말 및 어휘

(1) 낱말 및 어휘는 한글로 쓴다.

1948년 10월 9일. 한글전용법(법률 제6호)을 공표하였다. 그 원문은 '대한민국의 공문서는 한글로 쓴다. 얼마 동안 필요할 때에는 한자漢字를 병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얼마동안'이 벌써 68년이 지났으니 더 미룰 수

없다. 그리고 걱정할 일도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현실을 신문에서 조사해 보았다. 아래는 그 수치이다.

1950년대는 66% 가 한자漢子
1960년대는 46% 가 한자
1970년대는 20% 가 한자
1990년대는 4.5% 가 한자
2008년 7월 23일자 중앙일보에서는 약 14만여 자 중에서 145자가 한자이니, 그 비율은 0,001%였다.[2)]

시중에 나오는 책은 어떠한가? 신문보다도 더 한글전용이 되고 있음을 누구나 안다.

(2) 한자나 영문 등 외국어는 괄호 속에 넣는다.
a.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無窮花 三千里)
b.우리나라 무궁화 삼천리無窮花 三千里
c.우리 나라 무궁화 삼천리 無窮花 三千里

a처럼 써야 하며, b는 한자漢子를 작은 글씨로 처리함으로써 ( )부호의 기능을 하였다. 그리고 c처럼 쓰는 것은 글자 크기를 같게 함으로써 각각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는 국한문 병용이 되어 '무궁화 삼천리 무

2) 연대에 따라 낸 통계가 있었고, 필자가 수집해 놓았다가 열거하였다. 중앙일보 수치는 직접 낸 통계임.

궁화 삼천리' 로 읽어야 하고, 어절의 반복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든지, 술래잡기할 때에 외우는 주문 같아서 의미의 혼란이 온다.

2. 어휘가 문장 속에서 호응이 있어야 한다.

낱말 및 어휘는 문장 속에서 호응이 잘 되어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낱말 및 어휘가 잘못 쓰인다든지, 낱말의 의미가 문장 속에서 애매모호하게 나타난다든지, 어절이 문장 속에서 부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잘못 쓰이는 경우의 예를 몇몇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저희 나라는 좋은 나라다.
(2) 나와 당신은 행렬이 같소.
(3) 어머니께서 정한수 떠놓고 비신다.
(4) 프랑스의 애국가는 무엇인가?
(5) 영국의 태극기는 어떤 것인가?
(6) (시아버지 앞에서) 저희 남편이 몸이 아프세요.
(7) 구정도 세고, 신정도 센다.
(8) 민주주의는 인도주의적 지향이 강렬하게 넘친다.
(9) 철수는 지금 안 공부한다.
(10) 수원운동장은 못 넓다.
(11) 철수야, 문 닫고 들어와!
(12) '아내가 방에 들어간다.' 와 '아내 가방에 들어간다.'
(13) 다음 맞으면 영표(0), 틀리면 가위표(X)를 하라.

(14) 큰아버지이냐, 작은아버지이냐? 큰 아버지와 작은 삼촌이 왔다.

(15) 우리나라는 바야흐로 통일의 위업을 올릴 것이다.

(16) 이것을 말한 사람은 한 농부의 말이다.

〈문제 해결 및 해답〉

(1)은 '우리나라' 라는 엄숙한 큰 '울' 을 '저희' 로 낮출 수 없다.

(2)는 혈족 관계에서의 '돌림行列' 을 말하는 것이다. 이때는 '行' 자를 '항' 으로 써야 한다.

(3)은 약을 달이거나 정성을 다할 때 쓰는,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을 말하는 낱말로 대다수가 '정한수' 라 한다. '정화수井華水' 의 잘못표기된 낱말이다.

(4),(5)의 애국가는 나라를 사랑하자는 계몽적 애칭이고, 태극기는 태극문양이 그려진 국기를 상징하는 별칭이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이름이다.

(6)은 '아비가 몸이 아픕니다.' 로 써야하는데, 이를 압존법壓尊法이라 한다.

(7) '신정 구정' 이란 말은 없어졌다. 1985년 정부에서 우리 조상 대대로 세던 음력 정월 1일을 '민속의 날' 로 공표했기 때문이다. 다시 '설' 이 부활하고 지금 잘 시행되고 있다.

(8)은 '강렬하게' 가 '인도주의' 앞에 와야 잘 어울린다.

(9)는 '안' 부정문으로 '하다' 가 붙은 이름씨와 '하다' 사이에 쓰여서 '철수는 지금 공부를 안 한다' 로가 자연스럽다.

(10)은 '못' 부정문으로 움직씨에만 나타난다. '넓다' 는 그림씨라 부자연스럽다.

(11)은 두 방향의 풀이가 가능하다. 하나는 '문 닫고 들어올 수 있나?' 하

는 이치를 따지는 논리문에서는 문외문이 되지만, 생활문에서는 '문 닫고 들어와' 했지만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문 닫아' 로 다 인지하기 때문에 이를 '습관어' 라고 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한다.

(12)띄어쓰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

(13) '가위와 가새' 는 '가위' 가 표준말이고, '가위표와 가새표' 에서는 '가새표' 가 표준말이다.

(14)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백부伯父와 숙부叔父를 이르고, 큰 아버지는 키가 큰 아버지이고, 작은 삼촌은 키가 작은 삼촌을 이른다.

(15) '바야흐로' 는 '~할 것이다. ~하리라' 등의 서술어는 미래에 있는 일, 또는 해야 할 일에 대한 표현에서 잘 어울린다.

(16)말이 겹쳐 있어 부자연스럽다. 군살을 빼고서, '이것은 한 농부의 말이다.' 로 고친다.

3. 문장의 길이는 40~60자字 이내가 알맞다

문장 길이의 일반적인 문제점은 장문성長文性, 난해성難解性, 비논리성非論理性에서 오는 '이해 부족의 글쓰기' 에서 온다.

문장은 홑문장과 겹문장으로 이루어진다. 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씩 있어 '주어+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문장이고, 겹문장은 홑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하여 여러 겹으로 된 문장이다.

(1) 이니가 드디어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2) 저 소년은 꽤 똑똑하지.

(3) 대체 저것은 무엇일까?

(4) 나는 이제야 그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음을 깨달았다.

(5) 그는 이 어촌에서 태어났고, 일생을 이 고장에서 살았다.

(6) 직장이라는 사회에 첫 번째 관문을 뚫고자 유치, 초.중.고의 14년의 과정을 거치고 합.불합격의 기로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입사시험이라는 선발과정을 무난히 통과하여 승자의 기쁨을 만끽하고 오늘과 같은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지극하고도 정성스러운 뒷받침의 소산이었다고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런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사회의 직장인이 되어서 더욱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 되어드리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현 관점에 있어서의 가장 큰 목표이다.

(1)~(3)문장들은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하나씩 있기 때문에 홑문장이고, (4)문장은 한 개의 홑문장이 다른 문장 속에 한 성분으로 들어가 (5)문장과 같이 홑문장이 서로 이어지거나 하여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서 겹문장이다. (6)문장은 196자의 장문으로 오늘의 기쁨이 부모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며, 그 보답을 열심히 일한다는 두 개념을 쓰고 있다. 따라서 홑문장, 겹문장이 몇 번씩 반복되면서 난해한 문장이 되었다.

문장의 장단의 기준은 한마디로 무엇이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독자의 호흡단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정량적定量的 방법에 의해 제시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대체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분석의 대상이 된 현대 국어문장의 길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50개 문장을 랜덤 샘플링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며, 그 중앙치Median가 50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독후감	열린사회와 그 적들 구 운 몽	56	105	125	77	73	103	260	102	72	30
		27	14	12	40	25	27	19	34	13	8
대학생 수 필	자기 소개문 대학생활에 대하여	34	91	64	43	32	36	62	52	30	51
		37	21	29	27	7	30	55	56	15	20
활자화 한문장	3.1정신을 계승하는	42	142	115	34	173	55	95	121	84	139

따라서 50자 전후 곧 40~60자 문장을 표준문장이라고 볼 때 60자 이상은 장문이라 하겠다.[3] 이것은 문장을 단형화할 때 가능한 일이며, 단형화는 문장을 길어지지 않게 하려는 한 생각 한 문장—槪念 一文主義을 지키는 일이다.

4. 문단과 문단 가르기

문단이란 몇 개의 문장이 모여 작은 생각을 최소한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생각이 좀 넓고 커서 많은 생각을 나타낸다면 큰 문단이 된다. 예컨대, 소풍 다녀온 이야기를 글로 썼다고 하자.

출발에 대한 이야기, 목적지에 도착해서의 현장 체험, 귀로에 담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 셋으로 구분 되는 것이 큰 문단이 되고, 출발할 때는 희망이나, 친구와의 이야기는 두 작은 문단으로, 목적지에 가서는 체험교육, 놀이, 점심은 셋의 작은 문단으로, 그리고 귀로에서 환경 지키기, 돌아올 때의 감상으로 둘의 작은 문단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

3) 박갑수 '작문과 문장 길이의 문제' —한국정신문화원 '국어 문장의 실태분석과 작문교육 ' 7쪽

그러면 시조, 자유시, 수필, 논문은 어떠한가? 그 문단 나눔의 논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유 선 '고향 마을'

겨울이 깊을수록
꽃마을엔 환한 웃음

땀 냄새 고운 정이
켜켜이 쌓인 단란

들국화
이야기처럼
오순도순 사는 동네.

(2) 김소월 '산' 중에서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 산골
영 넘어 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
칠팔십 리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3) 한용운 '님의 침묵' 중에서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 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 숨의 미풍에 날려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4) 피천득 '찬란한 시절' 중에서

수공 가위와 크레용이 든 가방을 메고 서영이가 아침 일찍이 유치원에 가는 것을 보면, 예전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유치원에 다니던 생각이 난다.

나는 그때 동그란 도시락을 색실로 짠 주머니에다 넣어 가지고 다녔다. 그 도시락을 휘둘러서 동무들을 곧잘 때렸다. 하루는 유치원이 파하고 다들 집으로 가는데, 나를 데리러 오는 유모가 아니 오셔서 혼자 남아서 울고 있었다.

선생님은 나를 달래느라고 색종이를 주셨다. 그 빨간빛 파란빛 초록 연두 색깔이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던 일은 그 후론 없다.

(5) 문정복 '인간의 사유와 논리학' 중에서

논리학이란 무엇인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논리 정연한 이론이니, 논리적 귀결이니, 또는 비논리적 사고방식 내지는 비논리적 행위니 하는 말들을 듣고 또 말하고 있다. 이때 논리니 논리적이니, 또는 그 반

대인 비논리적이니 하는 말의 의미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논리학이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는 학문인가. 하는 데에는 얼핏 명확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다른 모든 학문도 그렇겠거니와, 논리학이 무엇인가는 논리학을 다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의 전부가 '논리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시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논리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비적 설명을 하는 것, 즉 논리학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앞으로 논리학을 연구하려는 이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고, 또 어렴풋이나마 그 윤곽을 알고서 연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본 서론에서는 논리학의 특성에 관한 몇 가지 점을 설명하고, 아울러 논리학의 잠정적 정의를 내려 보기로 한다.

(1)의 시조를 3장으로 나누어 쓰면 3행이 된다. 여기서 3연 7행인 것은 현대시조의 특성을 살린 '구별배행' 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2)의 자유시는 한 행이 한 줄로 되어있다. 한 행이 쓰여 지고, 줄을 바꾸어 쓰면서 왼쪽 시작점 첫 글자는 세로로 죽 보았을 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한 행 속에 축약된 문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게 산문 같으면 한 문단이 바뀌는 현상이기 때문에, 행을 바꿀 때마다 첫 글자를 한 칸 비우고 쓴다. (3)도 시인데, 두 줄이 한 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단이므로 앞 글자를 내어 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예는 한용운 시가 대표적이다.

(4)의 수필은 몇 줄 정도의 소문단으로 나누어졌는데, (5)의 논문은 대문단으로 나누어졌음을 볼 수 있다. 문학작품은 감성적인 글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편히 이해의 폭을 넓히려 하고, 반대로 논문은 읽는 사람이 꼭 이 글을 읽어야 겠다든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요하는 문장 쓰기이다.

5. 글쓰기의 처음 첫 자

서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옛날 글월 속에서는 구두점이나 띄어쓰기는 없었다. 그러면 글자를 다 안다고 해도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신문명이 들어오면서 글 쓰는 데도 원고지에다가 쓰는데, 출판 문화 쪽에서 먼저 시행해 오면서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우좌 방향이 좌우 방향으로 쓰는 관습이 정당성을 갖게 되어 일종의 관행성으로의 '통상법칙' 이 되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출발점의 구별, 문단 가르기를 함으로 이해의 폭을 줄였다.

(1) 법정 '무소유' 중에서

"나는 가난한 탁발승이오.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젖 한 깡통, 허름한 요포 여섯 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오."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 어록' 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았다.

(2) 밝덩굴 '계수 아버지' 중에서

킹콩 같은 걸음 소리가 구둘 장으로 오고, 기침을 크게 한 번 할라치면 으레 방구 소리가 동반되는데, 발자국과 장단이 맞추어지며 한 열 번은 그렇게 꾸어대며 걷는다.

이때, 동네 사람들은 흐뭇한 웃음을 웃는다. 누구 하나 경박한

걸음걸이라든가 방구 뀌는 주착 바가지라든지 하지 않는다.
어쩌면, 그렇게 인식된 생각의 바탕에는 계수 아버지의 그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보가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일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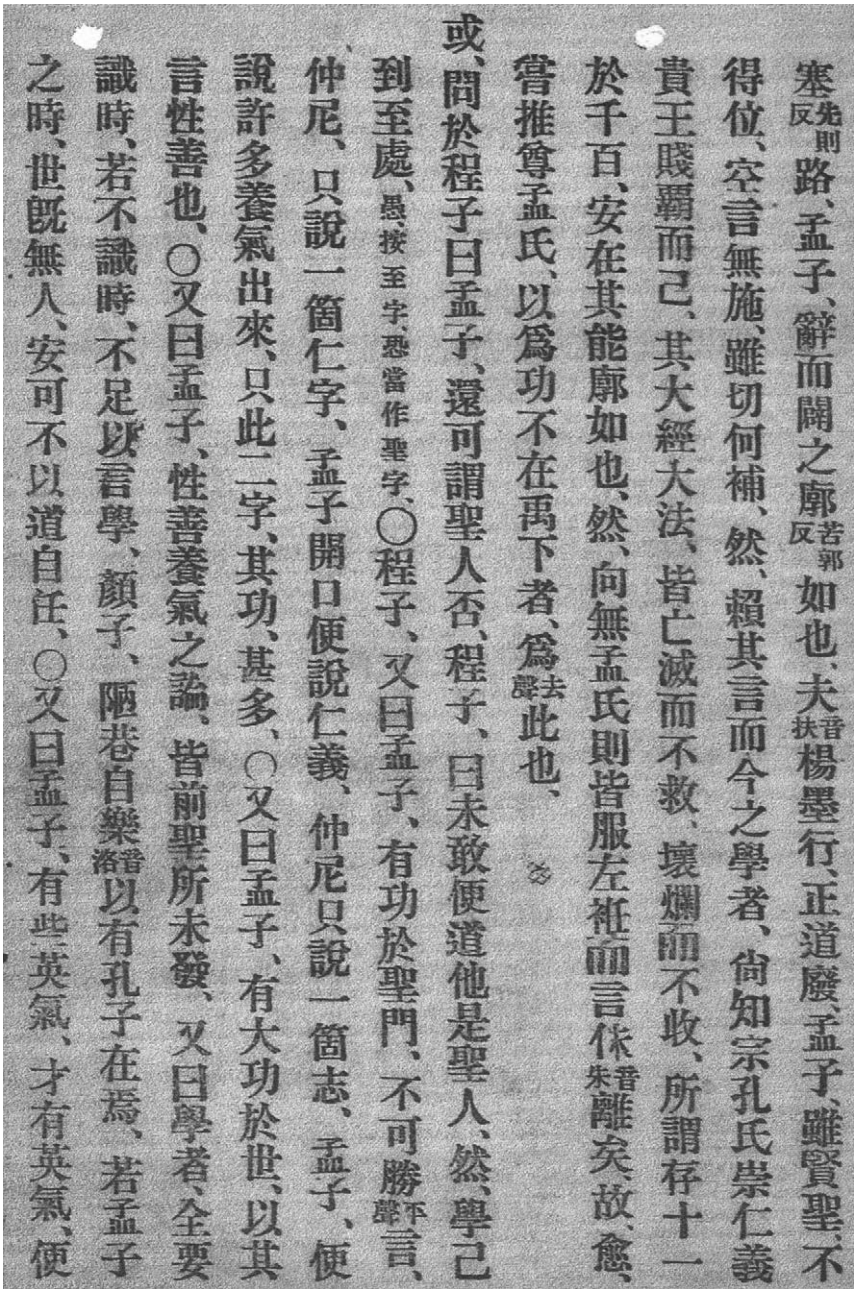
(3) 길대선 '진정 아름다운 사람은' 중에서

이 땅에 나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은 더없이 아름답다. 자기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따뜻한 가슴은 더욱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 그것은 곧 나를 살아가게 하는
무게 있는 삶이 되리라 믿고 싶다.

(4) 무명 씨 '편지'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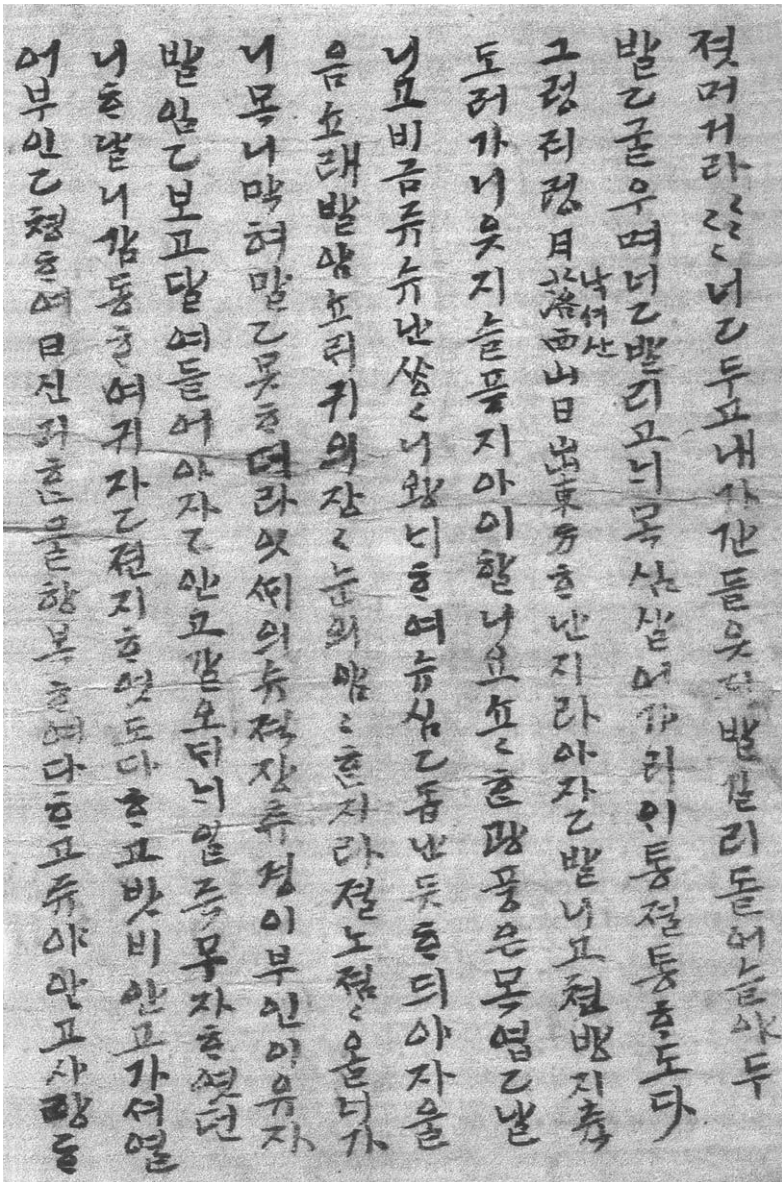
뒷동산에 단풍이 벌겋게 물들었다. 가을 하늘을 봐.
뭐 하고 있니? 우리 집 근처에
커피 카페가 생겼어. 그러니까 오는 11월 1일 12시에 거기
서 만나. 거기서 우리 실컷 떠들자. 아, 커피집 이
름이 뭐냐구? '뜰' 이야

(5) 홍순필 '정본 맹자 집주' 중에서


塞先則反路、孟子、辭而闢之廓苦郭反如也、夫音扶楊墨行、正道廢、孟子、雖賢聖、不得位、空言無施、雖切何補、然、賴其言而今之學者、尙知宗孔氏崇仁義貴王賤霸而已、其大經大法、皆亡滅而不救、壞爛而不收、所謂存十一於千百、安在其能廓如也、然、向無孟氏則皆服左衽而言休音朱離矣、故、愈嘗推尊孟氏、以爲功不在禹下者、爲去聲此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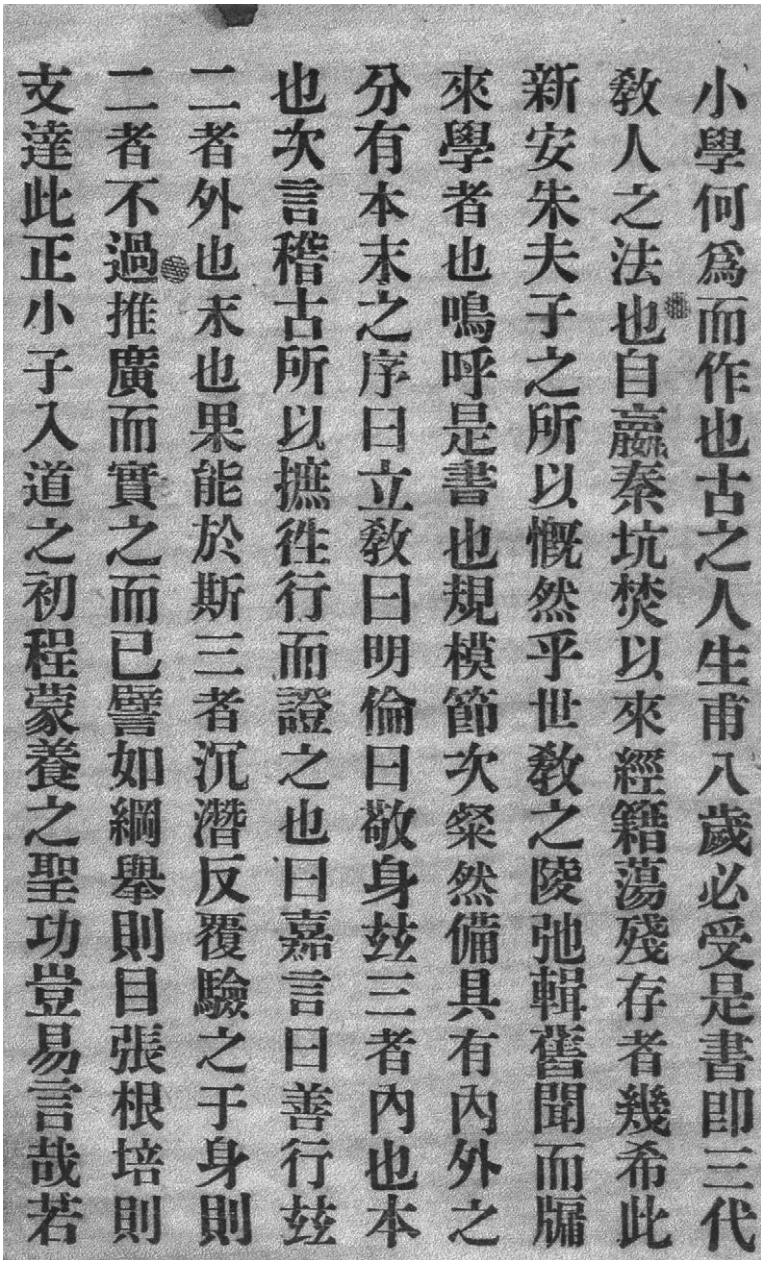
或、問於程子曰孟子、還可謂聖人否、程子、曰未敢便道他是聖人、然、學已到至處、愚按至字、恐當作聖字、○程子、又曰孟子、有功於聖門、不可勝平聲言、仲尼、只說一箇仁字、孟子開口便說仁義、仲尼只說一箇志、孟子、便說許多養氣出來、只此二字、其功、甚多、○又曰孟子、有大功於世、以其言性善也、○又曰孟子、性善養氣之論、皆前聖所未發、又曰學者、全要識時、若不識時、不足以言學、顔子、陋巷自樂音洛以有孔子在焉、若孟子之時、世既無人、安可不以道自任、○又曰孟子、有些英氣、才有英氣、便

(6) 작자 미상 '주봉전' 중에서[4]



4) 주봉전은 작가 미상의 고전 소설이며, 국문 필사본이다. 이본(異本)이 여럿 있고, 여기에 실린 것은 필자 소장본이다.

(7) 고유상 '원본 본의 소학 집주' 중에서


小學何爲而作也古之人生甫八歲必受是書即三代
教人之法也自嬴秦坑焚以來經籍蕩殘存者幾希此
新安朱夫子之所以慨然乎世教之陵弛輯舊聞而編
來學者也嗚呼是書也規模節次粲然備具有內外之
分有本末之序曰立教曰明倫曰敬身玆三者內也本
也次言稽古所以撫徃行而證之也曰嘉言曰善行玆
二者外也末也果能於斯三者沉潛反覆驗之于身則
二者不過推廣而實之而已譬如綱擧則目張根培則
支達此正小子入道之初程蒙養之聖功豈易言哉若

위 (1) 법정 '무소유' 는 시작하는 출발점 한 칸을 비우고 썼으며, 작은 생각으로의 소문단으로 갈라서 문단 구별을 하였고, (2)는 필자의 '계수 아버지' 인데, '아버지와 한겨울' 속의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지면 차지하기 특징은 바른 쪽 지면의 끝나는 곳에서 이가 빠진 것처럼 쓰여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할라치며' 가 쓰여질 자리에서 '할라' 만 쓰고 '치며' 가 다음 줄에 와야 하기 때문에 아에 '할라치며' 한 어절을 단 번에 읽을 수 있도록 옮기였다. '맞추어지며', '어쩌면', '어린애', '때문일' 도 마찬 가지이다. 이는 이상목 출판 인쇄의 아이디어이다.[5] 문단을 정상으로 갈랐다는 데에는 이상이 없으며 쉽게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면 바른 쪽의 이가 빠진 듯한 인쇄는 모양새에 문제가 있다.

위 (3)길대선 '진정 아름다운 사람' 은 출발점을 달리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할 때 '이' 가 오히려 앞으로 한 자 나오고, 문단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위 (5) '맹자 집주' 에서 이미 쓰여 지고 있음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시작할 때, 한 칸를 비우고 시작한다든지, 반대로 한 칸를 내어 쓰는 것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쓰는 것이니, 문단을 가른다는 원리는 같은 방법이다.

위 (6) '주봉전' 은 한글로 된 조선시대 소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문단 구별이 없고, 처음 첫 자를 쓸 때에 빈 칸을 두지 않았다. (7)의 '소학집주' 도 한문으로 쓰여 있는 (6)과 같은 방법의 쓰기이다.

---

5) 이상목. 시인, 수필가, 세무정보사 대표. 인쇄 편집 과정에서 지면 관계로 어절이 끊어질 경우에, 아에 그 어절을 몽땅 줄을 바꾸어 읽기 쉽게 한 아이디어. 이 책에서 처음 시행하였다.

다. 나오면서

지금까지, 문장을 씀에 있어서 문자는 한 기호이며, 그 기호에 의해 사람끼리 의사를 소통한다. 이 의사소통은 글을 쓸 때에 문장 구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며, 이 구조는 상대에게 가장 쉽게 이해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논했던 개략은 다음과 같다.

1. 낱말 및 어휘들은 한글로 쓴다.

⑴ 신문, 책들이 거의 100% 가깝게 쓰고 있다.

⑵ 부득이 필요할 때는 한자漢子나 외국어를 ( )속에 넣는다.

2. 한 문장을 이룰 때, 복잡하지 않게 쓴다.

⑴ 홑문장이 좋다.

⑵ 겹문장이면 여러 번 겹치지 않도록 한다.

3. 한 문장의 길이는 40~60자가 되게 한다.

4.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쓴다.

5. 문단 시작의 첫 글자는 빈 칸으로 한다.

6. 문단 가르기는 글의 성격에 따라 가른다.

⑴ 소론이나, 정서적인 글인 경우 소문단으로 한다.

⑵ 주로 학술적인 논문 등에서는 대문단으로 한다.

앙리 베르그송, 그가 쓴' 철학론 '–새로움은 시작에 있고, 이 시작은 멈추지 않고 이어진다.– 살고, 변하고, 흐른다–는 이 가장 단순한 운동 이야기기. 쉽고, 부담 없고, 그대로 이해되는 문장 구사의 담론은 수상 같은 실감과 소설 같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일까, 철학 전문가뿐만 아니라 풋내기까지도 애독자 층이 많다.

글은 작은 법칙에 따라서 쉽게, 간결하게, 자연스럽게, 이해되도록 쓰는 것이 가장 훌륭한 문장이다.

〈살펴본 책〉

경기대학교 '문장 작법' 경기대학교 출판국, 서울, 1988.

경기한국수필가협회 '경기수필19집' 신문사, 수원, 2002.

고유상 '원본 본의 소학집주' 회동서관, 서울, 1924.

고영근 남기심 박경조 '고등학교문법' 탑출판사, 서울, 1985.

김소월 '소월시 감상' 제일출판, 서울, 1961.

문정복 '언어와 논리' 형성출판사, 서울, 1987.

앤드루 래드포드 작, 서정목 이광호 임홍빈 역, '촘스키의 확대 표준 이론' 을유문화사, 서울, 1985.

오소백 '논문 작문' 세문사, 서울, 1984.

이우종 송순강 채규판 '글 쓰는 법' 세헌, 서울, 1985.

피천득 '인연' 샘터, 서울, 200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어문장의 실태분석과 작문 교육' 서울,1984.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 어문각, 서울, 1992.

———— '한글 313호' 한글학회, 서울, 2016.

한용운 '님의 침묵' 왕문사, 서울, 1976.

현혜경 유지현 '한국의 명문' 월인, 서울, 2002.

홍순필 '정본 맹자집주' 조선도서주식회사, 서울, 1923.

———————————

작자 미상 '주봉전' 고전소설, 국문 필사본, 조선시대.

水原華城 社稷壇에 대한 考察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김 훈 동

1. 연구개요

나라 자체를 부를 때에 과거에는 '사직' 이라고 했다. 중신들을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 불렀다. 국가의 경제적 기반이던 '땅과 곡물' 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사직제례는 왕도정치를 농본주의를 바탕으로 민생의 안정을 추구하고자 했던 조선왕조의 국가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사직제는 조선 시대의 기본 국가전례서인 『국조오례의』[1]에 가장 먼저 나올 정도로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시했던 행사이다.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사직에 대한 보다

1) 1474년(성종 5)에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8권 8책과 같은 해 간행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5권 2책을 말한다. 『국조오례의』는 오례(五禮) 즉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에 관한 의식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였고 『국조오례서례』는 의식 절차를 행하는데 필요한 참고 사항을 오례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도설(圖說)을 붙인 것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는 이유다.

사직은 형식적 변모를 거치면서도 경제공동체로서의 민족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국토와 생산물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전승되어왔다.

이젠 민족문화의 단절기인 일제강점기에 민족적 전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성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신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대부분의 문화공간을 변용하거나 파괴했기 때문이다. 민족혼 말살정책의 일환이다. 경복궁을 헐고 조선총독부청사를 지었다. 화성행궁 전각을 헐어 신풍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민족정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산맥에 쇠말뚝을 박는 등 우리민족의 자연과 문화를 파기하거나 훼손하였다. 사직단도 예외가 아니었다. 서울 사직단社稷壇도 국가의 성스러운 공간이 유흥의 공간인 사직공원으로 전락하였고 그나마 공원부지 일부를 학교부지로 사용하게 했다.

민주주의에 걸맞은 민족문화창달을 위해 우리민족의 전통을 새롭게 발굴하는 일은 후세가 할 일이다. 발굴은 고고학적인 연구 자세를 가지고 사라진 전통을 새롭게 되찾는 모든 작업을 말한다. 수원화성 사직단의 발굴과 조명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 삼국시대로부터 우리민족이 농업경제 공동체로서 행해왔던 제례문화가 사직이다. 사직제도도 많은 시대를 거쳐 오면서도 온전하게 이어 내려온 국토와 민생에 대한 민족정신을 담고 있다. 고려이후 유교적 사직제도의 정립기를 거쳐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중요성은 한층 높아졌다.

사직제는 조선 시대 국가 제사 가운데 종묘제와 함께 대사大祀[2]에 포함 된

---

2) 대사는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를 그 경중에 따라 대(大) · 중(中)소(小) 세 등급으로 나눈 가운데서, 종묘(宗廟), 영녕전(永寧殿), 사직(社稷)에 지내던 것이다. 소사는 국가에서 지내는 제사 중에 가장 작은 규모로써, 영성(靈星), 명산대천(名山大川), 사한(司寒), 마조(馬祖), 선목(先牧), 마사(馬社), 마보(馬步), 칠사(七祀) 등에 지내는 제사다.

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종묘제보다 격이 높은 제사였다. 사社는 토신土神이고 직稷은 곡신穀神이다.

공동체문화는 사회정체성 확립에 필수불결한 과제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직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함께 사직을 새로운 민족문화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학계에서 사직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자료도 흔치않다. 정조7년(1783)에 간행된『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가 유일하다. 왕의 꿈이 서린 수원시에서 사직단발굴과 함께 복원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일궈가야 할 필요가 있다.

2. 사직단의 상징

토지신인 사社와 곡물신인 직稷에게 제사하는 단을 사직단社稷壇이라고 한다. 사단社壇은 동쪽, 직단稷壇은 서쪽에 설치하였다. 토지와 곡식은 그 자체가 지배적인 생산수단과 그 생산물을 의미한다. 토지의 신과 곡물의 신에 대한 숭앙嵩仰은 고대로부터 중요시했다. 사직이 종묘[3]와 더불어 국가제사의 대종을 이루어 온 것은 그러한 인식에서 자연스럽게 발현되었을 것이다.

국가에서 대사大事를 일으켜 백성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사직에 고告 했다. 사社와 직稷을 같이 제사하는 것은 인간에게 토지와 곡식은 그 공리功利가 균

3) 종묘는 선왕(先王)의 신위(神位)를 봉안하는 왕실의 가묘(家廟). 국가의 중요한 일은 반드시 종묘에 먼저 고하는 의례절차를 거친 다음에 시행되었다. 왕권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하여 왕가의 선조를 제사지내는 사당이자 상징적인 성소(聖所)다.

등하므로 구복보공求福報功의 도에 딸라 사社에 대한 제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직稷에 대한 제사에 미치게 된다는 뜻이다. 사社[4]는 토지의 주主이니 땅은 넓어 다 공경할 수 없어 흙을 모아 사社로 삼아 그 공功에 보답하고 직稷은 오곡의 장長이니 곡식은 많아 널리 제사할 수 없으니 직신稷神을 세워 제사한다.

사직을 세우는 것은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고 공功에 보답하고자 함이다. 백성은 토지가 없으면 서지 못하고 곡식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어느 한 쪽만 공경할 수 없기에 사직을 세워 제사한다. 왕이 사직에 대한 제사를 올리는 이유다. 곧 사직은 국토와 곡식을 위하여 춘사추보春社秋報하는 제사다. 농업국가로서의 발전과 함께 국토 혹은 농업과 관련되는 신이 사제祀祭의 대상이 되었다. 사직단은 국토신國土神인 사社와 오곡신인 직稷을 모시고 제사 올리는 곳으로 두 신위神位를 함께 단을 쌓고 봉사하였다. 국사와 오곡은 국가와 민생의 근본이다. 왕이 나라와 민생의 안정을 기원하고 보우에 보답하는 뜻에서도 사직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올렸다. 동양의 천지인天地人 사상에 의해 사와 직은 하나로 합쳐져 토지와 여기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관장하는 지신地神으로 받들어져 국가적 제사[5]의 하나가 되었다.

주례周禮에 의하면 '좌조우사左祖右社'라 해서 나라를 세우면 도성의 궁문 밖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웠다.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의 공덕을 기리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기원했다. 종묘는 수도 한 곳에 세워졌다. 사직은 수도뿐만 아니라 지방행정 단위인 주현州縣에도 설치됐다. 주현의 사직 역시, 관아의 오른쪽에 세웠다. 제사는 국왕을 대신하여 그 지방 수

---

4) 왕이 군성(群姓)을 위해 건립한 사(社)를 태사(太社), 자기를 위해 건립한 사(社)를 왕사(王社)라고 한다.

5)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길례(吉禮)에서 각종 제사는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 · 기고제(祈告祭) · 주현제(州縣祭) · 속제(俗祭)로 구분된다. 사직은 종묘와 함께 대사에 속한다.

령이 지냈다. 사직제는 국가와 왕실의 오례五禮 가운데 길례吉禮에 속한다.

3. 사직단의 역사

사직에 제사[6]를 지낸 기원은 삼국시대부터다. 고려시대는 성종이 사직을 제도화한 이후로 각종 제의와 기우제祈雨祭,기곡제祈穀祭 등을 사직단에서 거행했다. 조선왕조 수립 후, 국도國都에 묘동사서廟東社西, 궁궐에서 묘좌사우廟左社右의 원칙에 따라 태조 3년(1394)11월에 경복궁 서쪽 인달방仁達坊으로 사직의 위치가 결정되어 다음해 정월부터 사직단의 축조가 착수되어 태종7년(1407) 5월에 완성됐다. 사직단이 완성되자 단위에 담장을 두르고 신실神室과 신문神門을 세웠다. 사직단에는 음력2월 중춘仲春, 음력8월 중추仲秋의 첫 번째 무戊자가 든 날과 동지 뒤의 세 번째 말일末日인 납일臘日에 제향을 받들어 국가와 민생의 안전을 기원하였다. 정월에는 기곡제, 가뭄, 홍수 등 천재지변이 발생할 때마다 기우제나 기청제祈晴祭를 올렸다.

제사의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1)홍수나 가뭄, 병충해, 전염병, 전쟁 등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처한 상황으로 매우 절박하고 급한 상황을 사직에 고하고 나라의 안위를 기원하는 기고제 2)봉책 · 관례 · 혼례 등 국가적 행사가 있을 때, 단壇의 보수공사가 있을 때 그 사유를 고하는 기고제 3)기

---

6) 각종의 제사는 천신에 대한 제사는 사(祀),지신(地神)에 대한 제사는 제(祭),인귀(人鬼)에 대한 제사는 향(享), 문선왕(文宣王)에 대해서는 석존(釋尊)이라고 구분. 문묘(文墓)는 공자(孔子) 즉 문선왕을 향사하는 사당이다.

고제를 지낸 후 그 기원이 이루어졌을 때 사직의 은혜에 보답하는 보사제報祀祭를 거행한다. 사직대제는 국가적 행사이니 만큼 많은 준비기간을 가지고 엄숙하게 거행되는 제의祭儀다.

사직신에 대한 제사는 종묘제향과 마찬가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직에 대한 제사는 종묘와 달리 제단祭壇을 만들어 제사하고 사당祠堂에서 하지 않는다. 이는 제단을 공중에 노출시킴으로서 상로풍우霜露風雨를 직접 받을 수 있게 하여 천지天地의 기氣에 달하고자 함이다.

4. 사직서의궤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는 국가의 최고 의례인 사직제사 의례절차, 사직 제도, 사직의 역사적 변화, 향사享祀 기록 등을 그림과 함께 편찬한 의궤다. 1783년(정조 7) 정조의 명령으로 처음 편찬되었다. 정조가 사직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직서에 머물 때, 사직서 영令 윤광호에게 『사직서의궤』를 가져오라고 명命했다. 윤광호가 없다고 대답했다. 정조는 종묘서宗廟署에도 의궤와 등록이 있는데 막중한 일을 담당하는 사직서에 등록謄錄은 부실하고 의궤가 없다는 것을 크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사직서社稷署의 제의祭衣,제식祭式, 단유와 관사館舍 및 기타 유래 사실들을 분류하여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사직서의궤』라고 명명하여 사직서에 보관토록 명령했다. 현재 『사직서의궤』는 규장각과 장서각에 2건이 보관되어 있다. 장서각본은 권수를 포함하여 총 6권5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책에는 첫머리에 사직서의궤의 편찬을 명하

는 정조의 전교와 목록 및 권수 도설圖說 제2책에는 권1 식례式例,권2 의절儀節,권3 고사 상故事上 제3책에는 권4 고사 중中 제4책에는 고사 하下 제5책에는 보유補遺편으로 1824년(순조 24)부터 1842년(헌종 8)까지 사직에서 거행된 각종 제사 기록이 수록되었다. 권수 도설은 사직단의 전경全景, 단유를 비롯하여 찬실攢室, 준뢰樽罍, 제기祭器, 악樂, 무舞, 악기樂器, 무기舞器, 제복祭服, 척도尺度 등에 관한 13개 항목의 도설로 구성되었다. 단유[7] 도설은 사단社壇, 직단稷壇과 그를 둘러싼 유, 담장의 모습을 세세하게 그리고 『국조오례의』에 있는 사직단 설명을 옮겨 놓은 도설이다. 찬실과 준뢰 도설은 사직제에 진설陳設하는 제수祭需와 술잔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덧붙여 놓은 도설이다.

정 조7년 계묘년(1783)1월 8일 사직서社稷署에 재숙齋宿할 때에 사직서의궤의 찬수撰修를 명命하는 전교.

"본서의 사체가 얼마나 막중한가. 그런데 고증할 만한 문적文蹟이 없고, 이른바 『등록謄錄』이라는 책자도 조각나서 온전하지 못한 책에 불과하다. 종묘서宗廟署로 말하면 『의궤』도 있고 『등록』도 있는데, 본서에는 아직까지 이러한 문적이 없으니, 크게 흠이 되는 일이다. 처음에는 겨를이 없었겠지만 후대에 어찌 그대로 답습하겠는가. 본서의 제의祭儀, 제식祭式, 단유壇壝, 관사館舍 및 기타 전해 오는 사실을 크건 작건 관계없이 같은 종류별로 모으고 차례를 매겨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이름을 『사직서의궤』[8]라 하라. 그리고 본서

---

7) 단유는 제단(祭壇) 주위에 나지막하게 둘러쌓은 담을 말한다. 단유 주위에 다시 담장으로 둘렀는데, 이것을 '원(垣)'이라고 하며 '유(壝)와 구분된다.

8) 전교 『승정원일기』, 이날 기사에 의하면 정조는 다음 날인 상신(上辛)에 기곡 대제(祈穀大祭)를 지내기 위해 이날 사직단에 나아가 사단을 봉심하고 제기를 간심하는 등의 절차를 행하고, 본서에 상고할 문적(文跡)을 가져오라는 명을 내렸다. 승지가 문적으로는 『등록(謄錄)』 3권만 있다고 하여 가져오자, 정조가 이것을 열람하고 전교를 내렸는데, 이때 내린 전교다.

에 보관하여 두고 여기에 계속해서 내용을 추가해 수록하도록 분부하라."

5.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사직단

을묘년(1795)7월13일 수원부 유수 조심태가 장계를 올렸다.

지금 본부의 판관 홍원섭의 보고서 안에 "본부의 사직단社稷壇은 팔달산八達山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터가 본래부터 기우뚱하게 기울어져서 매번 큰 비만 오면 항상 크게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직단의 서북쪽 한 모퉁이가 이미 허물어졌다고 하니 그대로 놓아둘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옛 터를 수리하는 일도 구차하기 때문에 수원부 노인들과 두루 돌아다니며 다시 가려잡을 만한 터자리를 널리 채택하여 보았는데, 북성 밖 광교산光敎山 아래 기슭의 정결한 곳인 북쪽으로 향해 앉은 자리에다 사직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러니 빨리 거행할 날을 택하여 음력 8월 상정일上丁日[9]에 제사지내는 추향秋享[10] 전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고 합니다. 사직단의 터자리는 본래부터 불편하였고 보고드린 것처럼 무너질까 하는 우려대로 이미 기우뚱하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나 옮겨 짓는 것은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되겠고 새로 가려잡은 땅은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좋다고 하여 집을 짓는 길일을

9) 그 달의 첫째 정(丁)일로 대개 이 날에 나라나 개인의 집에서 연제(練祭), 담제(祭) 등의 제사를 지낸다.

10) 음력 8월 상정일(上丁日)에 문묘(文廟)에서 공자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춘향(春享)은 음력 2월 상정일이다.

7월 18일로 뽑아서 정하였기에 까닭을 급히 아룁니다.

을묘년(1795) 7월 18일 진시辰時에 사직단 지을 터를 닦다. 8월 7일 사직단 신실神室 전사청典祀廳[11] 공사를 마치다. 부패장府牌將절충 이명혁李命爀 을묘년 7월에 임명되어 9월에 이르기까지 실사 50일, 병진년 8월에 실사 10일에 사직단 공사를 했다.

수원부를 처음 옮겼을 때 옛 사직의 단壇을 서쪽 기슭에 설치하였다. 성 쌓기에 이르러 돌뜨는 일이 가까워지고 또 울타리와 제단도 옮겨 새로 설치하여 이미 많이 기울어졌다. 그래서 을묘년(1795)가을에 다시 새 터를 성城북쪽 2리쯤인 광교산 서쪽 기슭[12]에 자리를 잡아 세울것을 장계를 올려 청하였다.

길일吉日을 택하여 단을 쌓았는데 단의 높이가 3척, 동서의 길이가 10척, 남북의 너비가 8척으로, 위쪽은 네모난 벽돌을 깔고 단 아래쪽 사면에는 대臺를 1층 쌓았다. 대 아래 네 뜰엔 4면의 담을 두르고 각기 홍살로 작은 문을 설치하였다.

동문 바깥 조금 떨어진 곳에 북쪽으로 1칸 신실神室을 지어 사직社稷의 위판位版을 넣어놓고 항상 자물쇠로 잠궈 놓았다. 남문 바깥 조금 떨어진 곳 서쪽으로 약간 아래쪽에 또 전사청 3칸을 세웠는데, 거기의 온돌1칸이 제사 지내는 관리가 재계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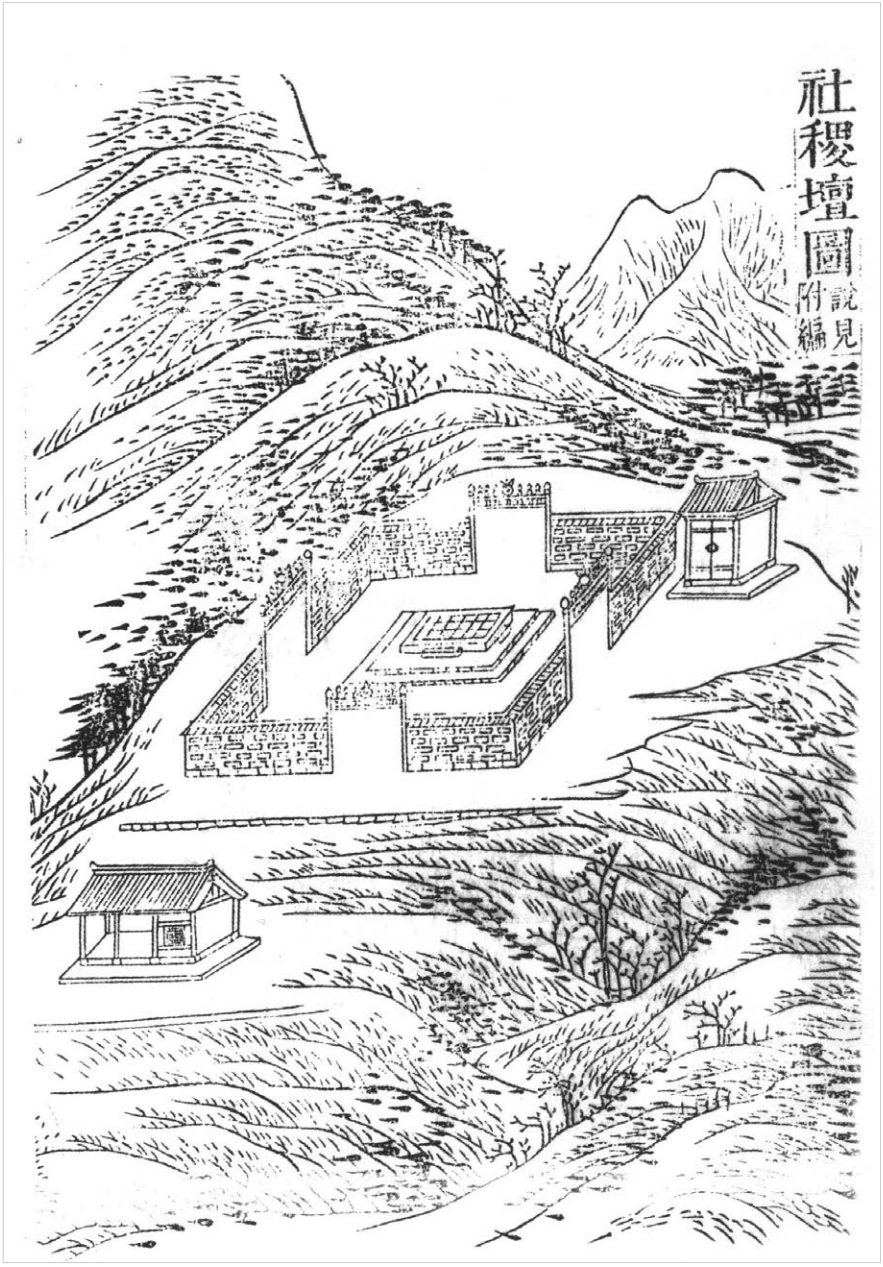
화성성역의궤에 실린 사직단도社稷壇圖 #1과 같다.

---

11) 전사청은 제사를 맡은 관아.

12) 1910년까지 보훈원 뒤 청련암 앞에 있었던 것으로 발굴조사 결과 밝혀져 앞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수원박물관 한동민 관장이 밝혔다.

■사직단도 #1



(출전 : 화성성역의궤)

6. 사직단의 기초 닦는 까닭을 알리는 고유문告由文

건륭 60년 세차 을묘7월 경술 삭 18일 정묘에 통훈대부행 수원부 판관 홍원섭은 감히 광교산光敎山의 신령께 밝게 고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토지신은 백성의 주인이요, 곡식신은 백성의 근본이라. 땅이 진실로 맞지 않는다면 신령인들 어찌 길이 안정하겠는가. 새로 읍을 지으니 사직단의 위치가 맞지 않으니 맞는 곳은 어디인가. 광교산 기슭일세.

북쪽에 거처하여 높으니 진실로 사직의 처음 바탕이네. 좋은 날 신령스런 구역에 옛것을 버리고 새로움을 도모하네. 두 개의 단에 사직신 모시니 천년 동안 부유富裕하게 하옵소서. 삼가 희생과 단술과 여러 가지 제물을 차려서 밝게 올리니 흠향하시기를 바랍니다.

7. 사직에 관련한 정조의 전교와 명령

정조는 사직을 중히 여기는 임금이었다. 사직단에 나아가 희생과 제기祭器를 살피고 단사壇司와 수복守僕에게 진설陳設방법 등을 물었다.

임금이 사단社壇에 나아가 직접 희생과 제기를 살피고, 다시 재전齋殿에 나아가 단사壇司를 소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직서社稷署에는 본래 재실齋室이 없기 때문에 으레 대차大次로 임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대차로 들어가지 않고 입직入直하게 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하니, 단사

가 대답하지 못하였다. 수복守僕에게 하문하니 숙묘조肅廟朝 때 정식을 삼았다고 앙대仰對하였다. 진설도陳設圖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제향의 진설은 모두 서쪽을 상上으로 삼게 되어 있는데, 유독 단향壇享에만 동쪽을 상으로 삼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하니 수복이 대답하기를, "신위神位가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동쪽을 상으로 삼은 것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단壇 위에 돌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돌인가?"하니 수복이 대답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사社가 있으면 석주石柱가 있다는 글이 있는데, 단 위의 돌은 대개 이를 모방한 것입니다."하였다.

정조는 지방 고을의 사직단을 보수하게 하고 매달 말 제사 유무有無를 보고하게 했다. 하교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단 제사壇享는 곧 옛날의 방구단方丘壇 제사이다. 질그릇과 표주박에 하잘것 없는 제물을 담아놓고 땅을 쓸어내고 제사를 지내지만, 밝은 신령은 세상에 가득차서 물처럼 모여드니, 주州·부府·군郡·현縣에서 사직단社稷壇을 모실 책임이 없지도 않다.

일찍이 선왕조先王朝에서 지방 고을들의 사직단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여 여러번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었다. 근래 들으니, 여러 도에서 사직단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제단을 둘러싼 담은 떨어져 나가고 홍살문은 허물어졌으나, 수령守宰들이 여러 성황당城隍堂의 제단같이 여기므로, 너무나 중요한 제사를 지내는 땅으로 하여금 나무하고 소 먹이는 장소로 만들었다고 하니, 사체事體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없다. 심지어 제사 예절을 의식대로 따르지 않고 제품祭品을 능히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따위는 이것으로써 미루어 알 수 있다.

대저 수령의 직책은 백성들과 사직을 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다하지 않으니 그밖의 나머지 일은 넉넉히 알 수 있다. 해당조로 하여금

거듭 각 고을에 관문關文으로 신칙하게 하여, 사직단을 보수하여야 마땅할 데는 즉시 수리하게 하고, 각각 지키는 군사를 두고 경계 표식을 세워 잡인들을 특별히 금지하도록 하라. 매달 월말에는 사직단에 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영문營門에 통보하고, 영문에서 예조儀曹에 전보轉報하여 근만勤慢 상황을 상고하게 하라. 이 밖에 제사 지내는 예절이나 제품 같은 것은 판당判堂이 기록하여 한통의 비밀 관문을 제출하도록 하라. 이것에 의해서 준행하게 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은 한탄이 없도록 하겠다."하고, 이어서 이것을 사직서社稷署의 의궤儀軌에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정조는 농사장려의 윤음을 내렸다.

"정월 원조元朝가 마침 상신일上辛日이기에 삼가 사직단에 나아가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제사를 거행하였다. 상신일이 원조에 당하여 몸소 제사를 지낸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성대하고 잦은 풍년이 들기를 바라는 축원은 어느 해인들 하지 않겠는가마는, 이해 이날 이 축원은 어느 해보다 갑절 더 간절하다. 대저 농사가 풍년이 드는 것은 오로지 농정農政의 권면에 달려 있다. 아, 너희 여러 도의 방백方伯으로 있는 신하가 만약 원조元朝에 농사가 잘 되기를 비는 내 마음처럼 마음을 갖는다면 비록 조금이나마 소홀히 하고자 하더라도 그럴 수 있겠는가. 반 걸음을 걸을 때에도 이를 생각하고 먹고 쉴 때에도 이를 생각하여 내가 거듭 유시하는 지극한 뜻에 부합하도록 하라."

정조는 반찬수를 정상대로 회복하고 음악도 종천처럼 연주하게 했다.

이어서 사직단의 보사[13]제報謝祭는 시향時享과 함께 지낼 것을 명하였다. 하

13) 보사는 기고제(祈告祭)를 지낸 후 제사의 효험이 나타나서 기원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보답으로 지내는 제사이다. 보사(報謝)라고도 한다.

교하기를, "오늘 내린 비는 어찌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모두 하늘에서 가만히 도와준 것이다. 예조에서 보답으로 사례하는 제사를 감히 늦추어 시행할 수 있겠는가. 하루만 지나면 8월인데 오늘 내린 비 말고도 밤이 되자 많은 비가 내리니 기우제는 정지하도록 하라. 사직단의 보사제는 특별히 길일을 가려야 할 것이나 시향이 가까이 있으니 별도로 지내면 더럽히는 것이 된다. 겸하여 행할 것으로 마련하고 희생과 폐백은 친행하는 예에 따르고 축문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는 뜻으로 하되 대제학을 불러 지어 올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축문에 첨가해 넣도록 하라."하였다.

정조는 권농勸農 윤음을 내렸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잘 되는 것은 왕자의 경사이며 농부들의 소원이다. 금년 이달 4일이 신일辛日이어서 그 점占이 풍년이 들 징조이다. 앞으로 신일에 몸소 사직단社稷壇에 나아가 곡식이 잘 되기를 빌어 백성들에게 근본에 힘쓰고 농사를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고자 하니, 서계誓戒와 재계齋戒를 잘하여 마음속의 정성이 위를 감동시키기를 바란다. 오직 너희 감사와 수령들은 각자 내 마음을 본받아 농사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풍년이 들어 많은 곡식을 거두는 기쁨이 있게 하라."

정조는 인정전에 나가 종묘 등의 제사에 쓸 축문을 쓴 후 종묘에 나가 참배했다.

인정전에 나아가 종묘·사직단·영녕전·경모궁에 쓸 향과 축문, 일곱 곳의 제사에 쓸 축문에 친히 서명하여 전각의 계단 아래서 경건히 전송하였다. 이어 종묘에 나아가 참배하고 제기와 제물을 살펴본 다음 망묘루望廟樓에서 재계하며 밤을 지냈다.

정조는 기곡제祈穀祭[14]의 향축香祝을 주관하고 사직단으로 가는 길에 부로父老을 불러 위로했다.

인정전에 나아가 친히 기곡제의 향축香祝을 주관하고, 인하여 사직단으로 가는 길에 종가鍾街에 이르러 연輦을 멈추고 공시인貢市人 및 오부五部의 부로父老를 불러 위로해 묻기를 "새해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각기 편안하게 살고 있느냐?" 하니, 부로들이 절하고 손을 비비며 축수하였다. 인하여 폐단을 묻고, 사직단에 이르러서 제기祭器와 희생犧牲을 살펴보았다. 상이 전생서 제조 이득신李得臣에게 묻기를 "한 해에 희생은 얼마나 쓰는가?"하니, 득신이 아뢰기를 "제주濟州의 소 35두와 거제巨濟의 소 5두이면 1년 동안 넉넉하게 차려 놓을 수 있는데, 양羊은 중국산 양만 쓰고 우리나라 양은 쓰지 않기 때문에 매양 구차하게 된 것이 걱정입니다."하므로, 상이 이르기를 "이제부터는 융통하여 차리도록 하라."하였다.

---

14) 기곡제는 1월 첫 번째 신일(辛日)에 그해의 농사가 잘되게 해 달라고 사직(社稷)에 가서 지내는 제사이다. 기고제는 일정하게 정해진 날이 없이 나라에 홍수, 가뭄, 질병, 병충해, 전쟁이 있거나 책봉, 관례(冠禮), 혼례 등이 있을 때 소원을 빌고 일을 아뢰기 위해 지내는 제사다.

8. 정조의 친림親臨 향사享祀

■ **정조 원년 정유(1777) 5월**

가뭄이 들어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우제[15]를 행하였다.

■ **정조 2년 무술(1778) 12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향사를 행하였다.

■ **정조 3년 기해(1779)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4년 경자(1780)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5년 신축(1781)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5년 신축(1781) 12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6년 임인(1782) 1월**

기곡제 1일 전에 상이 사직에서 친히 희생과 제기를 살폈다.

■ **정조 7년 계묘(1783)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8년 갑진(1784)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15) 기우제는 하지(夏至) 뒤에 예조에서 품지하여 재가를 받아 이틀 간격으로 시행하는데 1차에서 12차까지 지낸다. 이 중 사직단에서 지내는 기우제는 4차 기우제와 10차 기우제인데, 4차에는 정2품, 10차에는 의정(議政)을 보내어 지낸다.

■ 정조 9년 을사(1785)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0년 병오(1786)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1년 정미(1787)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3년 기유(1789)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5년 신해(1791)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6년 임자(1792)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7년 계축(1793)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8년 갑인(1794)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19년 을묘(1795)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20년 병진(1796)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22년 무오(1798)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 정조 24년 경신(1800) 1월

상이 사직에서 친히 기곡제를 행하였다.

9. 정조의 어제御製

■사직 기우제문16)(임인년1782, 정조 6) 6월

사는 나라와 더불어 존립하니 국사의 신이 실로 이를 다스리고 토지와 인민을 내가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재앙도 오직 신이 내리고 은택도 오직 신이 베푸십니다. 신은 어찌하여 나를 노여워하십니까. 때맞추어 기곡제를 올렸습니다. 석 달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양맥도 이미 시들었습니다. 마침내 소생할 수 있을지 한결같이 볕으로 말리기만 합니다. 절기가 삼복에 이르러 모낼 시기를 놓쳤습니다. 넓게 갈아 놓은 큰 밭은 강한 햇볕에 씻어 낸 듯합니다. 보습을 안고 호미를 거둔 채 하토下土의 백성들은 한숨만 내쉽니다. 벼도 없어 먹을 식량이 없으니 구학에 빠져 죽음이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근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어찌 재앙을 부른 원인이 없겠습니까. 누구의 허물인지 진실로 내가 압니다. 장차 그 경계를 분명히 보이고자 하여 가문이 서울에 가장 심한 것입니다. 정성을 두텁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큰비를 아끼시니 이 몸이 희생을 대신합니다. 신의 이치는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니 벌을 또한 어찌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내가 차마 하지 못할일은 내 허물로 인해 백성들이 벌을 받는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구휼해 주시기를 우러러 자애로운 신령께 호소합니다. 신령이 진실로 의지할 곳을 잃으면 누가 좋은 음식을 바치겠습니까. 생각건대 나라의 운명이 위기에

16) 사단(社壇)의 위판 제식(位版題式)은 북향인 정위(正位)는 국사지신(國社之神)이다. 동향인 배위(配位)는 후토씨지신(后土氏之神)이다. 직단(稷壇)의 위판 제식은 북향인 정위는 국직지신(國稷之神)이다. 동향인 배위는 후직씨지신(后稷氏之神)이다.

처하였으니[17] 속히 단비를 내려 주시어 남은 백성이 없게 하지 마소서.

이상은 국사[18]에게 올린 글이다.

엄하신 후토신이시여 천하를 잘 다스리시도다. 복을 구하고 공을 갚음은 옛 문헌에 기록된 바입니다. 내가 처음 제사를 올리고부터 신령의 응하심이 항상 이르렀습니다. 만물을 감싸고 길러 줌이 끝이 없어 뭇 생령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그 은혜를 막았습니까. 교활한 가뭄 귀신이 빌미가 되었습니다. 모진 목염이 사방에 극성하니 단비의 은택은 한결같이 막혀 버렸습니다. 못이 말라 고기가 입을 뻐끔거리고 숲이 불타는 듯하여 새들이 떨어집니다. 밭은 갈라지고 벼는 말라 죽어 농사는 그만두게 되었고 불쌍한 우리 백성들도 또한 심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보리는 낫질할 것이 없고 벼는 이삭 팬 것이 없습니다. 백성을 다 죽게 함이 어찌 하늘의 뜻이겠습니까. 재앙을 부른 까닭이 있으니 내가 부덕한 때문입니다. 이 심정을 두루 호소하였지만 아직 신령께서 은혜를 아끼시어 여전히 비가 넉넉히 내리지 않으니 여섯 가지의 인책[19]이 부끄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의 바람은 더욱 간절해

---

17) 『시경』《운한雲漢》에 나오는, 죽음의 운명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의 '대명근지(大命近止)'에서 유래한 것이다. 여기서는 가뭄의 극심함으로 인해 나라의 운명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쓰였다.

18) 조선은 1395년(태조 4)에 사직단을 세워 대사(大社)로 제사를 지냈는데, 사단의 정위(正位) 위판은 1431년(세종 13)에 황희(黃喜) 등의 건의에 따라 '태사지신(太社之神)'에서 '국사지신'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것은 "천자가 백성을 위해 세운 사(社)를 태사(太社)라고 하고 제후가 백성을 위해 세운 사를 국사(國社)라 한다."라는 『예기(禮記)』의 제법(祭法)을 따른 것이다. 뒤에 고종(高宗)이 1897년 대한제국(大韓帝國)을 선포한 뒤에는 황제의 예에 따라 다시 '태사지신'으로 명명하였다.

19) 탕(湯) 임금이 7년 한재를 당하여 상림(桑林)에서 비를 빌 때에 여섯 가지 자신의 과실을 들어 인책한 것을 말한다. 즉 정치에 절도가 없는 것, 백성을 병들게 한 것, 궁궐을 사치스럽게 꾸민 것, 여알(女謁)의 성행, 뇌물 수수, 참소하는 자들의 창궐 등이다.

집니다. 만약 또 지금을 놓친다면 모종하고 김매는 일 도무지 가망이 없으니 백성이 구학에 빠지는 불행을 장차 눈앞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진실로 믿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신령 또한 무엇이 이롭겠습니까. 북쪽 들창에서 제사드림은 나의 정성이 모인 것이니 큰비를 시원하게 내리시어 심하게 타 들어가는 전담을 적셔 주소서.

이상은 후토씨后土氏[20]에게 올린 글이다.

기장은 곡식의 으뜸으로 실로 우리 농사의 주장입니다. 존위가 태사와 나란하여 널리 시묘한 교화를 베푸십니다. 모든 풍성한 곡식은 신의 도우심 덕분이니 술을 빚고 단술을 만들어 어김없이 보답하는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봄의 가뭄이 이 늦여름까지 이어져서 붉은 땅에 연기가 일어나니 밝은 햇빛이 두렵기만 합니다. 가랑비나 혹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였으나 또한 잠시 동안일 뿐이었습니다. 보리 이삭엔 여문 낟알이 드물고 못자리는 불에 구운 듯합니다. 팔짱을 낀 채 방황하면서 농사일을 중지하고 파하였으니 불쌍한 저 백성들의 운명이 조석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내가 걱정되고 두려워 감히 편안할 겨를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 안 봐도 알겠으니 마치 농가에 와 있는 듯합니다. 허물을 부르고 재앙을 초래함은 참으로 나의 잘못임을 내가 압니다. 오직 어지신 신령께서는 재앙을 거두고 도와주심이 어떠하십니까. 재앙을 어찌 그치지 않으시며 복을 어찌 내리지 않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종자를 죽게 하였으니 저 가뭄 귀신을 어찌 용서하겠습니까. 보잘 것 없는 폐백을 이에 진설하여 신령의 가호를 받기를 원

20) 국사(國社), 국직(國稷)의 신좌(神座)는 모두 남쪽에 두고 북쪽을 향하게 한다. 후토씨(后土氏)는 국사에 배향(配享)하고, 후직씨(后稷氏)는 국직에 배향하는데, 각각 정위(正位) 왼쪽에 두되 북쪽 가까이에 세우고 동쪽을 향하게 한다.

합니다. 나의 간구함이 지극하여 주야를 다투는 실정입니다. 신께서는 호소를 들으시어 구름 수레 끌고 내려오시어 비바람을 불러 이르게 하여 세차게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소서.

이상은 국직[21]에게 고한 글이다.

아, 밝으신 후직이시여, 하토의 백성을 두루 길러 주시도다. 아름다운 종자를 내려 주시니 공이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사직단에 임하여 정성스런 제사로써 보답하고 무릇 재앙과 흉사가 있으면 여기에 하소연하고 아뢰었습니다. 더구나 한번 든 가뭄이 이미 석 달이 지났으니 긴 두레박 끈으로 물을 긷기 어렵고 낮은 밭고랑엔 먼지가 일어납니다. 삼농[22]이 폐하여 그만두게 되자 만백성이 괴로워서 신음을 토하고 물 마른 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죽을 때를 기다리니 위급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이 불쌍하여 내가 진실로 편안할 겨를 없이 폐백 드리기를 자주 하였습니다. 동교東郊와 남교南郊의 제단에 제사를 드리자 신령이 밝게 이르시어 장맛비도 내리고 가랑비도 내리게 하여 신령의 응험이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 또한 아름다운 은혜임을 알지만 어찌 고르게 넉넉히 적셔 주지 않는 것입니까. 하늘이 살펴 주지 않음이 아니고 신령이 친근하지 않음이 아니건만 오히려 은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정사가 어긋나고 정성이 부잘것 없으니 하늘의 꾸짖음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애통하기는 무고

---

21) 직단(稷壇)의 정위(正位) 위판이다. 중국은 '태직지신(太稷之神)' 인데 조선조에는 '국직지신' 이라 하였다. 직단은 국가에서 곡신(穀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 사직단 안의 서쪽에 있다.

22) 평지농(平地農) · 산농(山農) · 택농(澤農)이다. 또한 춘경(春耕) · 하운(夏耘) · 추수(秋收)를 가리킨다.

한 백성들이 함께 죄망에 걸려 서로 빠지는 것입니다. 후토의 신이 처음 곡식을 생산함이 오직 순수하게 베푼 덕인데 어찌 백성들을 굶주려 죽게 하여 그 인을 끝까지 이루지 않으십니까. 백성의 병듦이 갈수록 심해져서 내가 하소연하기를 거듭 하오니 빨리 큰비를 내리시어 이때를 넘지 말게 하소서.

이상은 후직씨后稷氏에게 올린 글이다.

■사직 기곡제문(무신년1788, 정조 12) 1월

나라가 있으면 사社가 있는 법, 모든 신령의 종주이시도다. 항상 무일戊日에 제사드렸는데 지금은 일찍 신일辛日에 드립니다. 공경히 대사를 치르면서 예전에 백성이 편안하였던 때를 생각합니다. 서직의 곡식이 향기롭고 금석의 악기를 이미 진설하였습니다. 누차 풍년의 경사를 내려서 길이 이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소서.

이상은 국사에게 올린 제문이다.

밝으신 후토여, 그 덕이 하늘에 짝하셨습니다. 포용하고 넓히며 광대하고 두터우시니 육부23)가 이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많은 백성들을 안집시키고 우리의 산천을 제자리에 있게 함은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풍년이 드는 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나의 작은 정성을 살펴서 농사에 어그러짐이 없게 하소서.

이상은 후토씨에게 고한 글이다.

백성은 식량을 하늘로 삼는데 그것을 맡은 신은 오직 국직이시니 존위가 태

23)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곡(穀)의 여섯 가지를 말한다. 부(府)는 재용(財用)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사와 나란하고 곡식은 당신을 말미암아 성대하게 됩니다. 나는 부끄럽게도 덕이 없는데 신께서 큰 책임을 맡겼으니 어찌 일자를 기다려 빌리오. 예를 매우 일찍 올립니다. 이로써 밝게 공을 베푸시어 곡식을 풍성하게 해 주소서.

이상은 국직에게 고한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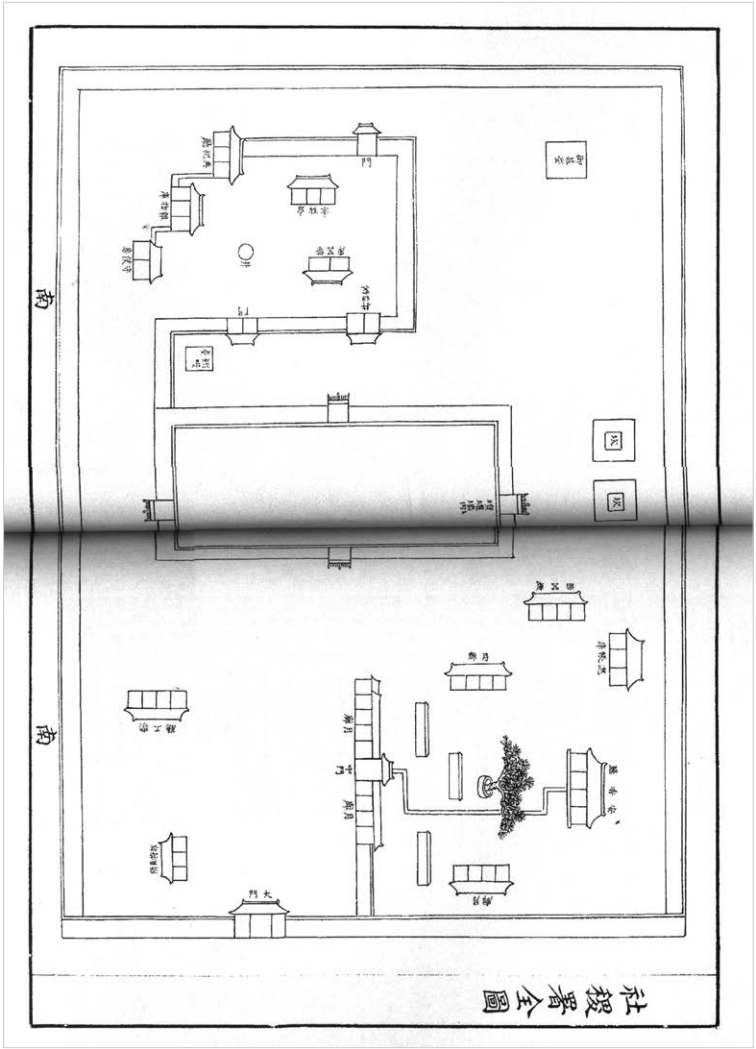
처음 백곡百穀을 파종하시니 후직이 임금다우시도다. 저 곡식에 싹이 트는 것을 보고 김매고 북돋는 것을 시작합니다. 농상[24]이 이미 정중앙에 있으니 상신일의 제사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을 내려서 길이 재앙이 없게 하여 천년만년토록 제기와 술잔이 가지런히 놓이게 하소서.

이상은 후직씨에게 고한 글이다.

---

24) 별 이름으로 방성(房星)을 말한다. 『국어國語』《주어 상周語上》에 '농상신정(農祥晨正)'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위소(韋昭)의 주에 "농상은 방성이다. 신정은 입춘 날 새벽에 방성이 남쪽 하늘 한복판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농사를 시작할 시기를 알려 주기 때문에 농상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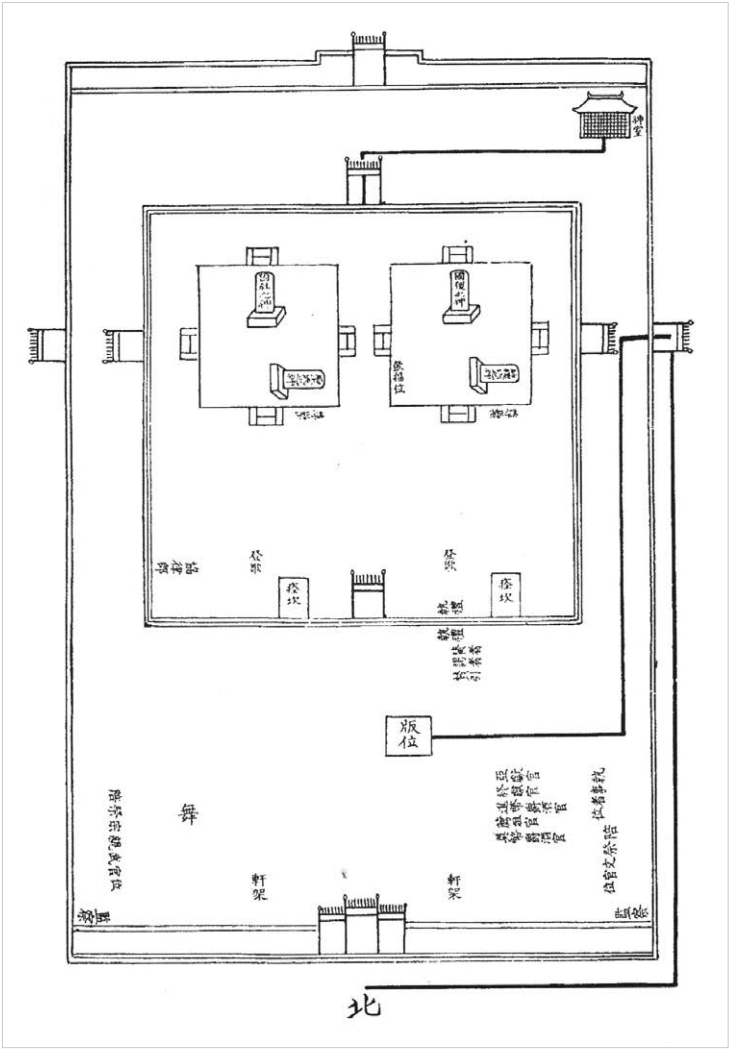
■사직서전도 #2 25)



내부명칭
대문(大門)
부장직수(部將直所)
악공청(樂工廳)
중문(中門)
월랑(月廊)
월랑(月廊)
월랑(月廊)
안향청(安香廳)
치장고(廚帳庫)
악기고(樂器庫)
단유장(壇壝墻內)
천만대(饌幔臺)
문(門)
전구가(牲臼家)
제기고(祭器庫)
재생정(宰牲亭)
정(井)
수복방(守僕房)
잡물고(雜物庫)
전사청(典祀廳)
문(門)
어막대(御幕臺)
감(炊)
감(炊)

25) 오세옥, 김기빈 역, 『사직서의궤』에서 인용하였다.

■단유도설(壇壝圖說) #3 26)



내부명칭

신실(神室)
국사지신(國社之神)
후토씨지신(后土氏之神)
준뢰(樽罍)
국직지신(國稷之神)
후직씨지신(后稷氏之神)
음복위(飮福位)
준뢰(樽罍)
등가(登歌)
등가(登歌)
협률랑(協律郎)
예감(瘞坎)
집례(執禮)
예감(瘞坎)
집례(執禮)
찬자(贊者)
알자(謁者)
찬인(贊引)
판위(版位)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진폐작주관(進幣爵酒官)
천조관(薦俎官)
전폐작주관(奠幣爵酒官)
집사자위(執事者位)
배제문관위(陪祭文官位)
헌가(軒架)
감찰(監察)
무(舞)
배제종친무관위(陪祭宗親武官位)
헌가(軒架)
감찰(監察)

26) 오세옥, 김기빈 역, 『사직서의궤』에서 인용하였다.

10. 마치면서

조선시대 국왕 가운데 정조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다. 소설이나 사극과 같은 대중매체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이해 수준이 높아진 탓도 있다. 정조가 세운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문예부흥기로서 정조시대를 부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직서의궤』는 시작단의 제도, 사직제의 의례 절차, 향사 기록, 고사, 제문 등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책이다. 사직은 토지신인 사社와 곡식신인 직稷을 가리키는데, 두 신의 신위와 제사 지내는 단을 만들어 모신 곳이 사직단이고, 사직신에게 국가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올리는 제사가 바로 사직제이다.

조선왕조실록이나 화성성역의궤 등을 통해 정조의 전교나 윤음을 보면 사직社稷을 얼마나 중시한 임금인가를 알 수 있다. 조선은 국가 주요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국가의 재정수입도 그해 농사가 풍년인가 아닌가에 달렸다.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농사를 권장하는 윤음이나 교서를 반포했다. 매년 첫 번째 신일辛日에는 사직단에 행차하여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를 올렸다.

백성사랑이 지극함도 엿볼 수 있다. 역사는 영문으로 History다. Story가 있다는 뜻이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Story만 이야기할 수 없다. 새로운 Story를 이어갈 때 역사의 폭과 깊이는 확장된다. 수원은 화성華城과 정조를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도시다. 광교산 기슭에 있던 사직단을 발굴 조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정조는 『존주휘편尊周彙編』을 편찬하고 대보단에 성심으로 배향하였다. 그는 성리학 이념에 충실한 군주였다. 그러나 정조는 주자학적인 방식으로만 사회를 이해하지 않았다.

화성성역의궤에도 사직단도社稷壇圖(#2, #3)가 있고 설명문과 제문祭文도 있다. 더욱이 수원은 정조가 세운 국립농업모범장이 있던 곳이다. 녹색혁명의 발원지이자 농업과학의 도시다. 사직단의 복원은 필연이다. 수원화성박물관이 주도하여 반드시 사직단이 세워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이근도, 『한민족의 사직대제』, 사직대제보존회, 1998

2. 박병선, 『조선조의 의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 김해영, 『조선초기 기전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4.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경기문화재단, 2001

5. 박문국 , 『조선의 왕 이야기』, 소라주, 2016

6. 김문식, 『정조의 생각』, 글항아리, 2011

7. 안대회, 『정조치세어록』, 푸르메, 2011

8. 김인걸 외, 『정조와 정조시대』, 서울대규장각, 2011

9. 오세옥, 김기빈 역, 『사직서의궤』, 한국고전번역원, 2012

10. 지두환 등, 『사직대제』, 민속원, 2007

11. 김동욱, 『종묘와 사직』, 대원사, 1990

바우덕이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에 대한 소고小考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김 용 대

Ⅰ.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오랫동안 지속되다보니 도시의 발달이 늦었다. 농촌과 산간, 어촌을 중심으로 띄엄띄엄 부락을 형성해서 살게 되기에 유랑예인집단들이 생겨나서 여기저기 부락을 찾아다니며 오락을 제공했는데 그런 대표적인 단체 중의 하나가 남사당패다.

유랑 민중놀이패는 신라 때부터 있었다. 자연 발생한 민중놀이 집단이 조선 후기에는 여자들이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서 출발하였으나, 조선말기 남자들만의 사당패가 생겨나 남사당패라 하였다.

우리의 민속놀이는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 강점기 때 그들의 우리민족 문화말살에 대한 치밀한 정책으로 인해 흐지부지 되거나 맥이 끊겼다. 남사당 풍물놀이도 마찬가지였다. 남사당은 각 방면에 기예가 뛰어날뿐더러 인

원이 많아야하기에 재구성하여 이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재건하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업적을 남겼다. 지금은 매주 2회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까지 하고 있다.

이 기회에 우리 고유의 놀이인 남사당 풍물놀이에 대한 기원과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의 과거와 현재를 대략 조명해보고자 한다. 우리 민속놀이를 발전시켜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Ⅱ. 남사당이란

남사당은 요란스런 옷을 입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팔고 노는 사내들의 패를 말한다. 남사당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40~5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남사당이란 1900년대 초 이전에 서민층의 생활군단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자연 발전적으로 생성된 민중놀이 집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단은 권력 주변에 기생했던 지배계층이 주관했던 관노나 관원놀이와는 달리 그의 유지와 구성이 어려웠을 것임을 집작할 수 있다.

특히 상민이라면 생산과정의 동력인 우마牛馬격으로 취급되었던 봉건체제하에서 지배층의 민중에 대한 생각은 상민들만의 이 집단적 연희장이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성은 맨 위에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 뜬쇠, 가열, 삐리, 저승

패, 등짐꾼 등으로 이루어졌다. 조직은 엄격하였고 모자란 인원은 가난한 농가의 아이나 고아, 가출아 등으로 충당하였다. 현재까지 이들의 은거지로 밝혀진 곳은 경기도 안성과 진위, 충남 당진, 회덕, 전남 강진, 구례, 경남 진양, 남해, 황해도 송화, 은율 등지인데 놀이가 거의 없는 겨울철에는 삐리들에게 기예技藝를 가르쳤다. 1920년대 이후 독립적인 존속이 어려워지게 되자 중매구와 걸립패와의 교습을 거치게 되고, 사당패, 솟대장이패와의 교류도 갖게 되면서 오늘의 형태로 변모했다.

발생 연유를 자세히 알려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는 방대하고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하기에 접는다.

Ⅲ. 조선시대 남사당놀이 관련 종목

조선시대에는 나례, 중국사신 영접행사 수륙제, 우란분제, 관아행사 읍치제의邑治祭義 동제, 사대부가의 잔치 등에서 연희를 제공했고 조선 후기에는 다양한 유량예인 집단들이 민가에서 연희를 공연하고 다녔다.
성현의 나례에서 연행된 연희를 보고 지은 관나희가 그를 증명한다.

궁궐의 봄빛이 채붕 위에 일렁이고
붉은 옷 노랑 바지 입고 종횡으로 오가네.
신묘한 방울놀이는 의료의 솜씨인 듯
줄 타는 모습은 비연처럼 날렵하네.

네 벽 두른 좁은 방에 인형을 놀리고

백 척 솟대 위에서 잔 잡고 춤추네.

우리 임금님 광대놀이 즐기지 않지만

신하들과 태평성대 누리려 함이라네.

–허백당집虛白堂集 권 7권–

이 시는 나례에서 방울받기, 줄타기, 인형극, 솟대타기 등이 공연되었음을 전해준다. 이것들은 대부분 남사당놀이에 해당한다. 이때 방울 받기를 하는 모습은 중국의 유명한 연희자인 의료처럼 잘한다고 비유했고, 줄타기 하는 모습은 중국의 조비연이 춤을 추듯이 날렵하다고 비유했다.

다음은 성현의 관괴뢰잡희觀槐儡雜戲로서 중국 사신 영접행사의 연희를 묘사한 것이다.

번쩍번쩍 금빛 허리띠 붉은 옷에 빛나는데

거꾸로 매달렸다 몸을 날리니 새가 나는 듯하네.

줄타기 방울받기 기술도 많은데

나무인형에 실 꿰어 신기한 동작 자유롭고

어찌 인형놀이가 오로지 아름다움만 추구한 것이리오.

한 고조는 평성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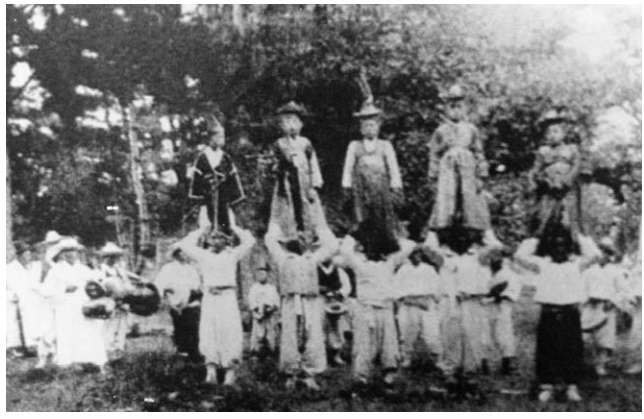
공경코자 조정에서 여러 예를 베푸노라니

중국 사신 눈이 커져서 마땅히 비난하리라.

–허백당집虛白堂集 권 14권–

마지막 행 '중국 사신 눈이 커져서 마땅히 비난하리라.'는 중국 사신이 자신을 영접하는 행사의 연희가 뛰어나서 눈을 크게 뜨고 놀라면서도 이런 잡희를 뭐 하러 성대하게 하느냐고 비난할 것이라는 성현의 유학자적 생각을 담고 있다. 중국 사신 영접 행사에서 연희된 땅재주, 줄타기, 방울받기, 인형극 등의 연희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남사당놀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기대상을 반영하여 새롭게 만들어 낸 인형극이 남사당패의 꼭두각시놀이다.

1. 놀이와 놀이패



조선시대 남사당패

연극, 음악, 무용은 물론 무예와 공예기술, 나아가 무속과 신앙의례, 음식 만들기를 포함하여 의식주의 해결과 관련된 갖가지 기능과 세시에 따른 연중행사와 잡다한 민중오락까지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무형문화자산들은 형태가 없다.

무형문화자산 가운데 민중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고 전계되어 전승된 것을 민속 문화 자산이라고 할 때, 그 중 두드러진 것은 놀이이다. 놀이는 인간은 '인간인 한에서만 놀이하며 놀이하는 한에서만 온전하게

인간이다.’ 라고 한 인간의 심미적 교육에 관한 프리드리히 실러의 말을 상기시키듯이 삶의 완전성을 향한 추구와 긴밀한 상관을 이룬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놀이의 담당자들은 그 존재 양태와 공연 방식에 따라 떠돌이 놀이꾼과 붙박이 놀이꾼으로 구분된다. 특정 지역에 토착하여 활동한 광대, 우인優人, 악공, 재인, 기녀, 당골 등 붙박이 놀이꾼들은 대체로 특정 수요자 층에 봉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삶과 연행演行을 한 여러 종류의 떠돌이 놀이꾼들은 적게는 수명에서 많게는 50명에 이르는 패거리를 이루어 철따라 떠돌며 민중과 더불어 애환을 함께 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사당패를 비롯한 떠돌이패들은 대체로 이들 재승齋僧 계통 연희자들의 후예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놀이를 본업으로 삼아 무리지어 민중의 삶 속에서 유랑하게 된 동기는 조선 초기인 1406년(태종 6년)과 1424년(세종 67년)에 단행된 사사혁파寺社革罷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사혁파는 각 사찰에 딸린 승려, 토지, 노비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각 종파에 속한 사원의 통폐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이로 인해 불사에 종사했던 재승들이 설자리를 잃고 환속하여 무당, 재인, 창우, 기녀 등 향인광대들과 자연스레 패거리를 이룬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놀이 담당자들과는 그 갈래와 성격이 다른 이들은 애초에는 사장社長이라 불렀다. 전란으로 인해 고향을 등지고 유랑 걸식하던 무리들을 일부 흡수하여 세를 불린 이 집단의 구성원 중 남자는 거사居士, 여자는 사당寺黨이라 일컫는 것은 임진란 전후의 일인 듯하다. 비승비속非僧非俗 또는 반승반속半僧半俗의 거사와 사당이 주축이 된 이 집단은 조선 중기와 후기에 접어들어 놀이 양상과 종목이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놀이꾼패거리들로 분화했다. 광대패, 굿중패, 사당패, 대竹광대패, 초란이패, 건립패(비나리패), 솟대

쟁이패, 풍각쟁이, 주매구패, 그리고 조선 말기나 대한제국에 접어들어 설립된 것으로 남사당패 등이 그것이다.

이들 떠돌이 기예 집단 중에서 단연 두드러질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그 원형이 유지되면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패거리가 남사당패다. 남사당패가 한국 전통 유랑 연희패를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다종다양한 갈래로 전개된 예인집단의 놀이 종목을 하나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종합했다는 데 있다.

특정 종목에 특화한 여타의 패거리들과 달리 분업화한 구성원들의 조직을 갖춘 남사당패의 연희는 갖가지 몸 특기의 춤사위가 더해진 판굿놀이인 첫째 마당으로 무동놀이와 상모놀이인 '풍물', 둘째 마당 접시돌리기 등의 '버나' 셋째 마당 땅재주놀이 '살판', 넷째 마당 줄타기인 '어름', 다섯째 마당 가면극의 '덧뵈기', 꼭두각시 인형극인 여섯째 마당 '덜미'로 각각 특화한 놀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밖에도 이들이 놀았던 종목에 한 때 선소리 산타령과 같은 민요나 시속잡가 창과 같은 환술幻術이 포함되었다는 보고까지 고려하면 가히 남사당놀이는 민중 가무악극歌舞樂劇의 종합 판이요, 그 결정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남사당패의 특징

재주, 곡예, 묘기, 서커스와 본질적으로 차별되지 않는 잡희의 수준에 머물렀던 여타 놀이패들의 공연 내용과 달리 남사당패의 특징은 재담과 대본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과 같이 짙은 문학적 성격이 가미된 극성劇性이다 가장 오래된 연극적 형식의 꼭두각시 인형극 '덜미'는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현대적인 예술 개념에 비추어도 손색없는 예술적 짜임과 미학적 특징까지 구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남사당패의 존재가 한국연희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잡다한 형태로 전개된 전통 연희의 여러 양상과 갈래를 양적으로 종합한 점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남사당놀이가 일부 종목에서 예술적 형식으로 고양된 질적 종합을 이끌어냄으로써 인간의 심미적 감수성에 보편적 공명을 불러일으킨 차별성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Ⅳ. 남사당패와 안성 청룡

경기도와 충청남, 북도가 교차하는 지점에 자리한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와 그 인근에 자리한 서운산 청룡사는 여러 떠돌이 놀이패 가운데 특히 사당패와 이 패거리에서 분화 발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남사당패의 발원지이자 독보적인 근거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인식의 원천은 민중놀이를 전승한 유랑 연예인들의 존재와 활동, 그들이 지어서 부른 창가의 노랫말을 전한 과거의 기록들이다.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감정기로 접어드는 시기에 남사당패를 언급한 학자와 연구자들이 남긴 기록에는 대부분 '안성 청룡'이 등장한다. 일제 강점기에 안성지역을 직접 찾아 민속을 조사했던 송석하가 1934년에 쓴 '민속 예술의 소개에 대하여'와 1950년대에 김태영이 쓴 '안성문화금석관' 등이 그것이다.

신재효의 '흥보가'는 놀부가 탄 세 번째 박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경기 안성 청룡사 등지에서 전전했음을 밝힘으로써 사당패와 안성 청룡을 결부 지었다. 1909년 10월 2일자 황성신문은 당대의 어느 재인을 비교하는 문맥에서 "비록 안성 청룡 바우덕이가 온대도……."라고 함으로써 당시 안성 청룡이 사당패 가창 문화의 한 중심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당패 지행업之行業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이능화는 "사당이라는 것은 본시 경기도 안성군 청룡사를 본거지로 삼았다." 라고 썼고, 죽지사竹枝詞의 형식에 맞춰 사당패를 노래한 최영년은 "거사와 사당이 그 뿌리를 경기도 안성 청룡사에 두어 스스로 한 마을을 이루었다." 라 했다.

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를 따른 것으로 보이는 백화랑은 경기도 안성군에 속하는 청룡사가 사노사비寺奴寺婢 출신인 사당패의 본원지라고 보고했고, 사당의 발생지는 거의 안성군의 서운산 청룡사가 주동이 되었다고 송석화는 그 산하山下에 있는 청룡리에서 일제 강점기에 기생학교가 기녀를 배출한 것과 흡사하게 사당을 양성하여 각지에 보내겠다고 했다. 안성 청룡이 과거 사당패의 뿌리 깊은 근거지였음을 확인한 김태영은 여사당의 시초가 안성 청룡으로 창시했다는 전언을 남기고 있다.

안성 청룡을 사당질의 근거지로 여길 수 있는 근거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 부른 속요의 노랫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진산타령'은 조선 후기에 주로 사당패들이 불렀던 선소리 산타령 중 하나인데 "경상도 해동문 거리의 경기 안성남사당은 청룡인데 황해도 구월산 성지불당星地佛堂에 거사사당居士寺堂이 많이 모여 밤이나 낮이나……."라 하였고, 미천한 신분으로 인한 사회적 멸시를 한탄하여 여사당들이 불렀다는 '여사당지탄가'의 첫 구절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 잡아 입고 안성 청룡으로 사당질 가세."도 안성 청룡이 사당패의 본거지임을 확인시켜 준다.

1. 안성남사당패의 구성

1900년대 초 이후 남사당패는 점차 소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었으나 걸림패 만은 그나마 명맥을 이를 수 있었음은 사찰과의 관계였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걸림패는 자기들은 남사당패와는 달리 불사佛事를 하는 불자佛子라고 주장하고, 남사당패 출신도 그들대로 자신들은 동냥은 하지 않았다며 걸림패와는 성격이 다름을 말하고 있다. 남사당패의 한 패거리는 맨 위에 꼭두쇠가 있고 그 밑에 곰뱅이쇠, 뜬쇠, 가열, 삐리, 저승패, 등짐꾼 등으로 이루어 졌다.

꼭두쇠란 패거리의 우두머리로 패거리의 대내외적인 책임을 지는 자로 그 능력에 따라 식구(단원)가 모여 들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였다고 남사당패인 안성의 정근배와 최상구 등이 증언했다. 이 조직은 일사불란하여 오히려 획일적이라는 평을 들을 만큼 엄격했다. 50명 내외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그들은 그 충원 방법으로 빈한한 농가의 어린아이를 부모의 승낙을 받아 데려가거나 가출 아이들이 대상이 되었다.

2. 기능

꼭두쇠는 반드시 한 사람이나 그를 보좌하는 곰뱅이쇠는 패거리의 규모에 따라서 두 사람일 때도 있다. 곰뱅이란 남사당패의 허가란 뜻으로 어느 마을에 갔을 때 사전에 놀이마당을 열어도 좋다는 승낙을 받는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다. 곰뱅이쇠가 들릴 경우 패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먹이는 일을 맡은 글(밥)곰뱅이쇠다.

실제 남사당놀이의 기능자 중 연희 분야의 선임자를 뜬쇠라 부르는 데 뜬쇠는 14명 내외로 아래와 같다.

- 상공운님 – 풍물잽이의 총수로 꽹과리 중 상쇠를 맡는 사람
- 징수님 – 징수 중의 우두머리
- 고장수님 – 장고잽이 중의 우두머리
- 북수님 – 북수 중의 우두머리
- 회적수님 – 날라리 땡각令角잽이 중의 우두머리
- 벅구님 – 벅구잽이 중의 우두머리
- 상무동님 – 동인(舞童 동구리라고도 함) 중의 우두머리
- 회덕님 – 선소리꾼 중의 우두머리
- 버나님 – 대접돌리기 등의 묘기를 하는 버나잽이 중의 우두머리
- 얼른쇠 – 요술쟁이 중의 우두머리
- 살판쇠 – 땅재주꾼 중의 우두머리
- 어름산이 – 줄타기 중의 우두머리
- 덧뵈기쇠 – 탈놀이인 덧뵈기에 나오는 탈꾼 중의 우두머리
- 덜미쇠 – 꼭두각시놀음 조종사 중 대잡이

뜬쇠들은 그들이 노는 연희의 규모에 따라 해당 연희에 기능을 익힌 몇 사람씩의 가열(뜬쇠 밑에서 재주를 익힌 사람들로 보통 15~20명으로 구성)을 두게 되는 데 첫 순서인 풍물놀이에서는 패거리 전원이 출연해야 되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 밖의 연희는 소질이 있는 몇 사람씩의 가열과 그 밑으로 초입자들인 삐리를 둔다.

삐리는 뜬쇠들의 판별에 의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연희에 배당되어 잔

심부름부터 시작하여 한 가지씩의 기예를 배워 가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은 가열이 되기 전까지는 여장女裝을 한 것이 특이하다.

그들의 꼭두쇠는 패거리들의 의견에 의해서 선출되는데 꼭두쇠가 노쇠하여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거나 잘못이 있어 식구(패거리)들의 신임을 잃게 되면 바꾸게 되며, 그 자격은 뜬쇠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추대를 받은 사람으로 선출방법은 협의를 통하여 다수결의 방식을 사용한다. 일정한 임기는 없었던 것으로 전한다.

일단 선출된 꼭두쇠의 권한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일상 단체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식구를 맞아들이고 쫓아내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점이다. 대개 뜬쇠 중에서 상쇠나 덜미쇠가 꼭두쇠로 추대되는 경우가 많았음을 남사당패 출신인 고 전근배, 최성구 등이 말한바 있다.

식구 중 패거리의 규율을 어기는 자가 생겼을 때 또는 꼭두쇠가 보아 마땅치 않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때의 징벌방법은 볼기를 치는 것이었는데 그 매는 벅구잽이가 치는 것이 통례였으며, 징벌의 다른 방법으로는 끼니를 굶기는 예도 있었다.

패거리의 규율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어느 패거리에서나 똑 같이 엄격했던 것은 무단으로 도망치는 자에 내려지는 벌로써 제일 준엄하였으며, 그 밖의 규율도 꼭두쇠의 전권에 맡겨지는 것이다. 꼭 지켜야 하는 것은 식구 간에 물건을 훔치지 말 것, 패거리 안의 이야기를 밖에 내지 말 것 등이었다.

숫동모男와 암동모女라는 이름으로 남색조직男色組織을 이루고 있었다는 삐리는 전원이 암동모 구실을 하였다. 꼭두쇠일망정 암동모를 하나 이상 차지할 수 없었고 삐리의 수효가 전체의 반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원이 쌍을 지을 수는 없었다 한다.

남사당패거리 사이에는 이 삐리의 쟁탈전이 치열한 것이었는데 자기 몫의

암동모를 갖기 위한 방편도 되겠지만, 그보다도 반반한 삐리가 많은 패거리가 일반적으로 인기도 좋은 것이어서 더욱 중요시 되었다.

그들이 한 마당의 놀이판을 벌이는데 일정한 보수는 없고 숙식을 제공받고 하룻밤을 놀고 다음날 마을을 떠날 때 마을 사람들이 자진해서 주는(의례 마을마다 얼마간의 노자를 주는 것이 상례였음) 노자가 수입이 되는 것인데 이밖에도 머슴이나 한량들에게 자기 몫의 암동모를 해의채解衣債를 받고 빌려줌으로써 작전作錢의 수단을 삼았음도 남사당패 출신 고 전근배 최성구 등이 증언하였다.

3. 상민놀이

겨울은 남사당패에 있어 최악의 계절이었다. 이들은 그 지역에서 겨울을 나며 개인기가 없는 가열패들과 삐리들에게 기예를 가르쳤다.

연희대상 지역은 농어촌의 마을과 대처일지라도 성곽 밖의 서민층 마을에 머물렀다. 그 활동 시기는 모심는 계절부터 추수가 끝나는 가을까지를 전성기로 볼 수 있다.

농군들이 일하는 동안은 풍물을 하다가 일이 끝나면 저녁 식사 후 다시 풍물놀이로 시작해서 버나, 살판, 어름, 덧뵈기, 덜미 등으로 횃불이나 관솔불을 피워놓고 밤늦도록 같이 놀았다.

남사당놀이의 놀이판 형식을 마당굿으로 표현한다. 이 마당굿 역시 그 놀이가 잘 되고 못되고는 1차적으로 연희자에게 돌려지는 것이지만, 엄격히 노는 자와 보는 자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마당굿이라 하겠다.

어느 마을이나 보편적으로 4물(쇠, 징, 북, 장구)이 있고 풍물잽이도 있지



조선시대 남사당 풍물놀이

만, 당시의 유일한 민중놀이 집단인 사당패를 맞아들임으로써 비록 하룻밤이나 상민들만의 놀이판을 펼 수 있었고, 또 그들 놀이판을 통해서 서로의 의지를 하나로 조화시키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남사당패를 맞아들인 것은 민중의 뜻이지만, 그들이 놀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양반과 권력자들의 속셈이 있다. 그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소 지출은 되나 농군들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부릴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농군뿐만 아니라 전체 서민의 반감을 둔화시킬 수 있는 피차간의 관계였다.

이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가 1년 중 한 겨울이었기에 이 동안은 비축해 놓은 것으로 연명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패거리가 뿔뿔이 흩어져 걸식을 하고 다음해 봄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

이들 패거리가 마을에 들어갈 때 서민들로부터는 환영을 받았으나 양반들로부터는 심한 수모의 대상이 되었기에 함부로 어느 마을이나 출입할 수는 없었다.

두레(농민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만든 조직)가 있는 시기에는 반드시 그 마을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고갯마루에서 황기黃旗를 흔들며 신명지게 풍물을 울리고 온갖 재주를 보여준다. 이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패거리들을 끌어들일 의사가(지주들의 사전 양해가 있어야) 결정되면 농기를 흔들어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낸다.

두레가 없을 때는 마을에서 제일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서 온갖 재주를 보여 주며, 한편으로는 곰뱅이쇠가 마을로 들어가 그 마을의 최고 권력자인 양반이나 지주 등에게 자기들의 놀이를 보여 줄 것을 간청한다. 허락이 나면 '곰뱅이 떴다' 라며 의기양양하게 길 군악(단악가락이라고도 함)을 울리며 마을로 들어간다. 그리하여 남사당패의 여섯 가지 놀이가 진행된다.

4. 옥관자玉貫子 하사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홍보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바우덕이(김암덕)는 조선 고종대의 실존인물로 온갖 기예를 자랑하며 오늘날로 보자면 '연예인 스타' 로 자리매김 했다고 볼 수 있다. 바우덕이는 여자로써 최초로 15세에 꼭두쇠로 추대되어 단체를 이끌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당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고 있었는데 바우덕이의 안성남사당패가 최고의 공연을 펼쳐서 노역자들을 기쁘게 해주었고, 흥선대원군은 감사의 표시로 당상관 정3품의 벼슬에 해당하는 옥관자玉貫子를 수여하였다. 바우덕이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를 홍보하는 인터넷에도 그리 나온다.

윤범하가 쓴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에는 석정농악대가 옥관자를 하사 받았다고 하였으나 현재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이상철은 윤범하가 쓴 책은 고증 없이 논술되었기에 폐기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청룡사 마을에 학자들과 함께 찾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바우덕이가 이끌었던 남사당패가 옥관자를 하사받았다는 증언을 채록했다 하였다. 따라서 바우덕이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단과 지역 주민들은 바우덕이가 이끈

안성남사당이 옥관자를 하사 받았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5. 안성남사당과 바우덕이 김암덕

안성시에서 동남쪽으로 30리가량 가면 청룡사靑龍寺란 큰 절이 있다. 이 절을 중심으로 40여 호 옹기종기 모인 마을 청룡리가 우리나라 유랑예인 집단 남사당패男寺黨牌의 본거지였으나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 청룡리 마을은 해마다 초겨울이면 후조인 양 들어와 한겨울을 동면하고 봄이면 또 떠나가는 남사당패의 은거지였다. 50명이나 되는 단원을 거느린 꼭두쇠 '바우덕이'는 본명이 김암덕으로 남자만의 세계인 남사당패에 하나 뿐인 여자였으나 그는 가히 사내들을 휘어잡을 만한 치마 두른 남자였다고 한 촌로는 전했다. 쇠소리가 나는 독특한 음성은 떠돌이패일망정 옆 사람들이 오금을 못 폈다 했다.

지금도 안성 지방에서 간혹 들을 수 있는 노래로 화려했던 남사당 꼭두쇠 '바우덕이'의 행적을 알 수 있다.

이런 패거리의 꼭두쇠 바우덕이는 어떤 여자였던가. 그녀는 1847년에 출생하였다. 바우덕이가 다섯 살 무렵, 홀아비로 머슴살이 하던 그녀의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으면서 바우덕이를 남사당패에 따라가라 했다는 풍문이다.

그 후 어린 여아 바우덕이는 사내들 틈에 끼여 선소리를 익혔고, '줄타기' '새미'를 배워 일곱 살 되던 해부터는 충분히 제 구실을 할 수 있었다. 팔도를 누비며 마을에서 마을로 떠돌던 안성남사당패는 바우덕이로 해서 그 인기가 대단했다. 열 살이 되고, 열다섯 살이 되던 해, 그때까지 안성남사당패

의 꼭두쇠였던 윤치덕이 사망하자 새 꼭두쇠를 정했는데 모든 면에 특출하여 남사당패 전통에 유례없이 바우덕이(김암덕)가 된 것이다. 바우덕이의 인기를 이용하여 그를 앞장세움으로써 득을 볼 수 있다는 뜬쇠들의 의견이었을 수도 있다.

꼭두쇠가 된 바우덕이는 이름만의 꼭두쇠가 아니었다. 사내 꼭두쇠가 인솔할 때보다도 잠자리도 편하게 얻어냈으며, 곰뱅이(연희장소)를 트는 데도 남다른 수완을 발휘했다. 바우덕이를 꼭두쇠에 앉힌 후로 안성남사당패는 일약 번창할 수 있었다.

훤칠한 키에 노리끼리한 눈동자의 바우덕이는 치렁치렁한 댕기를 날리며 뭇사내의 동경의 대상이 되어갔다. 어느 동네 어느 장터고 가면 '남사당패 왔다' 가 아니고 '바우덕이 왔다' 로 통했다. 뛰어난 기량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내들의 가슴을 태우고 보는 사람들을 매혹시켰다. 그만큼 주변의 인기가 높았다.

그랬던 바우덕이가 스물한 살이 되던 해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거동이 어렵게 되자 청룡리 본거지로 옮겨 죽을 날만 기다렸다. 폐병을 얻은 것이다.
같은 안성남사당패였던 서른 살이나 손위로 평소에는 생심도 못 내던 뜬쇠 이경화가 행중을 벗어나와 동냥과 품팔이로 바우덕이를 지켜주었다. 바우덕이의 마지막 반려자가 되어 여생을 지켜준 것이다. 그렇게 바우덕이는 23세에 요절하여 지금도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의 산 중턱에 소박하게 묻혀있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안성청룡 바우덕이
바람결에 절도 떠나간다.

안성 바우덕이패는 일명 개다리패라고도 하였다. 바우덕이가 사망하자 안성 개다리패가 흐지부지되자 안성복만이패가 뒤를 있는데 꼭두쇠는 안성 출신 김복만이었고 1935년대에 가장 활발하였던 패거리가 되었다. 이후 여주 출신 원육덕이가 안성 복만이패 사람들을 다시 모았는데 1939년에는 만주 북간도까지 거서 활동하다가 해산되었다. 이원보패는 앞의 패거리들이 다 없어진 뒤에도 끝까지 남았던 패거리였다. 꼭두쇠 이원보는 안성에 살면서 끝까지 남사당패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는 직접 웃다리 가락을 치며 서울 근교까지 가서 활동했다.

바우덕이 묘비 제막식

- 때 – 1990년 11월 11일 11시
- 곳 –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 주관 –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 후원 – 안성시, 안성문화원





바우덕이 사당과 묘비

6.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1) 보존회

안성 남상패의 명맥은 조선 말기의 바우덕이 → 김복만 → 원유덕 → 이원보 → 김기복으로 이어지고 해산되어 다시 결성되는 수난을 거듭하면서도 끈질기게 이어왔다. 현재는 전수조교인 성광우와 이상철(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이 이끌고 있다.

실질적으로 자생적인 남사당패는 1930년대까지이고 그 뒤 걸립패와 함께 하는 등 심한 변질과정을 겪으면서도 1940년대 까지는 그 자취를 보였으나 그 뒤로는 발자취가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제의 한민족문화 말살정책으로 인해 혹독한 탄압을 받아 거의 단절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1982년도에 들어서자 김기복(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1호 기능보유자–2016.8 작고)씨와 오함헌 씨가 안성남사당을 재건하기 위해 되살리기 운동

을 펴기 시작하였다. 안성 내에 흩어져 있는 기예인들 42명을 파악하고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를 발족하여 오늘날 큰 발전에 이르렀다.

(2) 대통령 표창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경기도 무형문화재 상쇠 김기복(당시 회장 오함헌)이 이끈 안성남사당 풍물놀이가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여기에 고무되어 이후 번성할 수 있었다.

(3) 1994년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 명단

상쇠 김기복 (66세), 부쇠 정진태 (72세), 중쇠 성관우 (12세), 징수 박상오 (56세), 징수 박찬식 (53세), 징수 홍덕표 (35세), 장고 오함헌 (77세), 장고 박만창 (66세), 장고 김기향 (61세), 장고 하영주 (21세), 장고 표효순 (17세), 장고 하영란 (18세), 장고 유승옥 (24세), 장고 김용민 (35), 북수 송영홍 (67세), 북수 송기상 (56세), 북수 배경남 (61세), 상벅구 전원근 (59세), 벅구 이민조 (65세), 벅구 이지호(40세), 벅구 박필석 (67세), 벅구 김연수 (58세), 벅구 김진철(24세), 벅구 최은희(20세), 벅구 김종철(69세), 벅구 서은석(25세), 벅구 연우흠(20세), 벅구 이상철 (22세), 벅구 윤덕근 (56세), 벅구 윤태중 (28세), 기수 김동안 (66세), 날라리 이상천 (69세), 날라리 이종국 (37세), 양반광대 유효석 (61세), 마당쇠 안창선 (71세), 새미 전두용 (9세), 새미 우성민 (14세), 무동 김은진 (17세), 무동 이정아 (13세), 무동 김승희 (13세), 무동 채경숙 (13세), 무동 김하늘 (11세) – 42명

7.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의 여섯 가지

남사당패는 마을에서 주는 저녁밥을 먹고 어두어지면 놀이판으로 잡은 넓은 마당에 횃불을 밝히는데 겨울에는 장작불로 했다.

풍물을 울리며 풍물잽이들이 주로 단악가락(행진곡)으로 마을의 크고 작은 길을 고루 돌면 마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큰 행렬을 이루면서 길놀이를 하게 된다.

한편 놀이판에서는 사전에 줄타기의 줄이 매여지고 꼭두각시놀음의 포장막과 버나, 살판, 덧뵈기 등과 큰 멍석 5-6장을 연희할 마당 한가운데에 깐다. 큰 마당가로는 '두레기'와 '영기令旗'를 모두 세워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면서 잔치분위기를 이룬다.

(1) 풍물(農樂)



풍물놀이

첫 번째 놀이인 풍물은 중부지방에 전승되고 있는 '웃다리 가락(남부지방은 아랫다리 가락이라 함)을 바탕으로 짜임새 있는 진풀이와 무동 등 체기體技 및 묘기를 보임으로써 연희적 기능을 더해주고 있다. 역동성과 기민성을 함께 하는 풍물은 한민족의 숨은 기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2) 버나(대접 돌리기)

버나란 쳇바퀴 통을 10㎝ 정도와 두께로 자르고 양쪽 둥근 면에 헝겊을 댄 둥글납작한 것을 앵두나무로 깎은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다.
버나는 묘기이기는 하지만, 돌리는 사람인 '버나잽이'와 '재담'(대사)을 받아 주는 역할의 '매호씨'(어릿광대)와의 사이에 주고받는 익살스런 사설과 노래가 있어 묘기보다는 극성이 짙은 '어릿광대놀이'라 하겠다. 돌리는 물체에 따라 '대접 버나', '칼 버나' 등이 있다.

(3) 살판(땅재주)

잘하면 살판이요 못하면 죽을 판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붙여졌다. 본디는 솟대장이패의 주된 놀이 중의 하나였는데 이것이 남사당놀이에서도 보이고 있다.
그 연희자도 역시 솟대장이패 출신에서 충원되었다. 오늘날의 텀블링을 연상케 하는 이 체기도 버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살판꾼 한 사람의 놀이가 아니라 서로 재담을 주고받는 상대역인 매호씨(어릿광대)의 익살스런 사설과 악사樂士의 장단에 맞춰 정해진 차례대로 진행된다.
'앞 곤두'(앞으로 손 짚고 회전), '뒷 곤두'(뒤로 손 짚고 회전), '번개곤

두’ (공중회전) 등 10여 종이 있다.

(4) 어름(줄타기)


줄타기

어름판처럼 위험하다는 뜻에서 어름이라 표현하고 있다. 남사당놀이에서의 줄타기는 초청에 의하여 관가나 양반가에 불려 다녔던 광대패의 줄타기와는 달리 일정한 보수 없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역시 민중 취향으로 짜여 있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어름산이와 매호씨가 재담을 주고받으며 악사의 장단에 맞춰 줄타기가 진행되는데 줄 위에서 재담뿐만 아니라 가창歌唱도 하고 몇 가지의 무언극도 하는 등 극성이 짙다.

(5) 덧뵈기

다섯 번째 순서인 가면극의 명칭을 덧뵈기라 함은 ‘덧(쓰고) 본다’, ‘곱본다’ 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즉 탈을 쓰고 노는 놀이라는 뜻이다.

덧뵈기는 다른 지역적 가면극에 비하여 의식성이나 행사성에 관계없이 그때 그 때 지역민의 갈구와 흥미에 영합하면서 다분히 현장성을 가지고 즉흥



덧뵈기

적으로 짜여 지는 것이다.

춤보다는 재담과 동작이 우세하여 나타나는 풍자극으로 다분히 양반과 상민(놈)의 갈등을 상민의 편에서 의식적인 저항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네 마당으로 구성된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마당씻이
- 둘째 음탈잡이
- 셋째 샌님잡이
- 넷째 먹중잡이

먼저 첫 마당에서 놀이판을 확보하고, 둘째 마당에서 음탈을 잡고 셋째마당에서는 샌님을 불식(부조리한 점 따위를 말끔히 떨어 냄)하고 끝 마당에서 외래문화, 특히 외래 종교를 배척한다는 내용이다.

가면은 샌님, 노친네, 취발이, 말뚝이 먹중, 옴중, 피조리, 꺽쇠, 장쇠 등 11개 인데 바가지 위에 종이떡(종이와 풀을 섞어 갠 것)으로 요철凹凸을 나타내고 눈구멍과 입구멍을 뚫어 낸 다음 아교阿膠, 백분白粉, 광물성 분말염료를 배합하여 만드는 전래 도료인 아교단청阿膠丹靑으로 각기 가면의 특징을 나타낸다.

(6) 덜미(인형극, 꼭두각시놀음)

남사당놀이의 마지막 순서이며 한국의 전통 인형극 가운데 대표 격이 되는 꼭두각시놀음을 남사당패 연희자들은 '덜미'라 부르고 있다. 목덜미(인형의 목)를 쥐고 막대기를 쥐고 조종하는 장두인형杖頭人形을 뜻하는 말이다.

실제로는 장두괴뢰杖頭傀儡(머리 큰 꼭두각시, 허수아비) 이외에도 현사괴뢰縣絲傀儡, 주선괴뢰走線傀儡, 포대괴뢰布袋傀儡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줄거리를 보면 봉건적 지배 계층의 횡포에 대한 저항과 파괴 승에 대한 풍자를 통한 외래 종교에 대한 비판, 서민들의 처절한 염원들이 회화되어 있는 것으로 40여 개의 인형과 10여 개의 소도구에 의하여 각기 독립, 연관된 2마당 7거리를 노는 것이다.

연출 방식은 포장으로 사방을 가리고 전면에 무대 면이 되는 공간을 통하여 인형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조종사인 대잡이가 중심이 되고 그 양 옆에 대잡이손이 앉아 인형의 등장과 퇴장을 돕는다. 포장 밖 무대 면을 향하여 비스듬히 앞자리에 재담을 받는 소리꾼인 산받이(인형과 대화자)가 앉고, 그 옆으로 꽹과리, 징, 북, 장고, 날라리 등의 악사가 앉아 인형놀이를 진행시킨다. 인형과 소도구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로 깎아 아교단청으로 그렸으며 크기는 20㎝에서 1m 정도다.

8. 안성남사당패의 짜임과 놀이

(1) 치배(풍물놀이에서 타악기를 치는 사람을 통틀어 이름)의 짜임

1) 기

가. 농기 – 1명

나. 단기 – 1명

2) 영기

가. 파랑기 – 1명

나. 빨강기 – 1명

3) 날라리(호적, 세납, 태평소)

4) 쇠 – 상쇠, 부쇠, 중쇠

5) 징 – 상징, 부징

6) 장고 – 상장고, 부장고, 삼장고, 사장고, 꼬리장고

7) 북 – 상북, 부북, 삼북, 사북, 꼬리북

8) 벅구(소고) – 상벅구, 부벅구, 종벅구, 중벅구, 사벅구, 꼬리벅구

9) 무동 – 상무동, 종무동, 삼무동, 사무동, 오무동, 육무동, 칠무동,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에서 벅구와 무동의 숫자는 육벅구, 칠무동을 기본으로 한다.

10) 새미 – 무동 뒤에 늘 따라다니며 무동과 같이 움직인다.

9. 안성남사당 풍물놀이패의 특징

안성남사당패는 떠돌며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주는 지극히 뛰어나 어느 동리의 풍물놀이도 견줄 수 없었으며, 웃다리 가락의 모체로 그 순수성을 지켜왔다.

- 웃다리 가락은 힘차고 섬세하며, 느리고 빠른 가락이 고루 쓰이고 있다.
- 웃놀음인 상모놀이와 아랫놀음이 고루 발달되어 있다.
- 오방진, 사통백이, 가새백이 같은 진풀이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 깨끼춤, 쾌자춤, 쩍쩍이춤, 등의 무동춤과 단무동, 맞무동, 삼무동, 사무동, 오무동, 육무동, 칠무동의 무동 타기가 발달되어 있다.

10. 판제와 놀이판

(1) 판제

한 틀은 50여명으로 상쇠가 잽들이의 우두머리가 되며 그 밑에 질서정연한 틀을 거느린다. 남사당패를 상징하는 기를 든 길잡이, 농기와 영기 기잡이, 땡각, 양반광대, 등이 차례로 선다. 그 뒤를 이어 상쇠, 부쇠, 중쇠 뒤에 징수님, 부징이, 상장고님, 부장고, 종장고가 뒤를 잇고 이어 북수님, 부북, 종북과 상벅구님 외 다섯 명과 맨 뒤에는 상무동님 등 일곱 명이 선다.

(2) 놀이판

놀이판은 길놀이와 판 놀이로 나눈다. 어두워지면 풍물잽이들은 복색을 차려입고 사물을 울리며 마을을 돌기 시작한다. 이것은 놀이판에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길놀이로 간단한 벅구놀이와 풍물과 새미놀이 등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집집마다 들어갔을 때는 돌림벅구와 마당 씻기를 해준다. 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 보게 할 목적으로 노는 자와 보는 자의 동질성을 꾀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평등사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한마당이라 볼 수 있다.

이어서 미리 준비된 놀이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판 놀이가 시작된다. 길놀이 행렬이 놀이판에 이르면 뒤따랐던 마을 사람들은 둥글게 자리 잡는데 안쪽의 놀이판이 되고 바깥쪽은 관중석이 된다.

(3) 옷차림

쇠, 징, 장고, 벅구 등의 잽이들은 등거리 잠뱅이에 검정더거리를 입고 빨강과 노랑색 띠를 둘렀으며, 상쇠만 같은 복색에 빨강, 노랑, 파랑, 색주를 두르는 게 본디였으나 당시는 파랑, 빨강, 노랑의 세 색깔을 띠고 있다. 머리에는 다 같이 쇠털벙거지를 썼으며 나비상을 했다.

무동들은 빨간 치마, 노랑 저고리에 댕기로 여장을 했으며, 늘 무동의 뒤를 따르는 새미는 장삼 고깔에 다릿바를 매고 기잡이, 맹각, 날라리 등의 옷은 등거리잠뱅이이고 머리엔 꽃 수건을 두르고 빨강과 노랑 색주(물을 들인 명주)를 띤다.

양반광대는 바지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에는 정자관程子冠을 쓰

며 지팡이와 부채를 든다. 위의 옷은 우리나라 전통사상과 깊은 관계가 있다. 삼색주(3색의 명주)에 있어 파랑은 하늘이고 빨강은 땅이고 노랑은 사람을 상징하며 천지인 삼신을 뜻한다. 따라서 천부삼인天府三印의 파랑, 빨강, 노랑은 삼신사상을 보이는 것으로 천부도天府圖라고 한다.

천부도는 삼신일체三神一體로 하느님을 상징하며 몸체는 하나이고 쓰임에는 삼신이 되는 우주조화의 원리를 가리킨다.

현재 안성남사당 공연은 고사웃 머름(줄타기), 풍물놀이(무등놀이와 상모놀이), 살판(땅재주놀이), 버나(접시돌리기), 덧뵈기(탈놀이), 덜미(인형놀이), 마지막으로 관객과 함께하는 뒤풀이로 진행된다.

먼저 얼음산이가 3m 높이의 줄에서 아슬아슬하게 재주를 부릴 때면 매호씨라 부르는 꼬마양반이 북채를 잡고 반주를 넣으며 능청스럽게 서로 입담을 주고받아 관중은 혼이 빠진다. 얼음산이가 줄 위에서 폴짝폴짝 뛰어 오르기도 하고, 무릎으로 줄을 감고 기어가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굽히고 다리를 절며 줄을 탄다.

앞으로 가기, 장단 줄, 거미줄늘이기, 뒤로 훑기, 콩 심기, 화장사위, 함흥댁 맏아들, 억척애미 화장사위, 처녀 총각, 외로 오르기, 허궁잽이, 가세트림, 회호궁쟁이, 쌍허궁쟁이, 양반 병신 걸음, 양반 밤나무 지키기, 녹두장군 행차 등 의 기예가 숨 돌릴 틈이 없다.

관객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줄타기가 끝나면 핵심인 풍물놀이가 이어진다. 25여 명의 단원이 꽹과리와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의 악기를 가지고 진풀이, 새미놀이와 선소리로 이어진다. 전에는 풍물놀이가 제일 먼저였으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바뀌었다.

이어서 접시놀이와 땅재주놀이가 끝나면 뒤풀이로 장식한다. 음악이 울려

퍼질 때 풍물패들이 모두 나와 공연장에 앉아 있는 관중들을 마당으로 끌어내어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어우러진다.

11.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안성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놀이 공연은 안성시 보개면의 남사당 전용공연장에서 유료로 매주 토요일은 4시, 일요일은 2시에 하는데 많은 관람객이 즐긴다. 이와는 별도로 매년 1회 안성맞춤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연다. 2016년에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성대하게 열렸다.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는 물론, 현장에 대장간과 유기전, 주막거리에 점집까지 꾸며 1865년의 안성 장 풍경을 재현하기도 했다.

행사기간 중 외국 민속놀이 단을 초대하여 함께 펼쳤는데 나라는 인도, 말레이시아, 러시아, 이스라엘, 베트남, 폴란드,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터



외국 민속놀이단

키로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누적 관람객 수는 무려 64만 3천 명이었고 농특산물 판매고는 19억 8천만 원이나 되었다. 바우덕이 안성남사당은 무형문화재를 알리는 일만 아니라 지역 농민들을 위한 행사도 되었다.

Ⅴ. 나가며

남사당패는 조선시대 후기에 성했다.

안성남사당패는 경복궁 중원사업 때 불려가서 동원된 노역자들에게 월등한 기량으로 놀이를 베풀어 사기를 북돋아 준 공로로 흥선대원군으로 부터 옥관자를 하사받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사기가 충만하였으며 바우덕이의 인기몰이가 더해져 크게 번성하였다. 그러던 것이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우리 고유 문화말살 정책으로 인해 다른 놀이와 함께 남사당도 사라지거나 흐지부지 되었다.

1982년에 들어서면서 지역에서 안성남사당을 재건하기 위한 운동을 펴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89년 제30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가 당당히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를 계기로 2001년부터 안성 시청에서 대대적으로 재정비하여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라 하여 지역의 큰 행사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9월 30일에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제되는 영광을 안았다.

2016년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경기도 10대 축

제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또한 대한민국 축제 콘테스트 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를 계승 발전시켜 여기까지 온데는 남사당 풍물놀이 보존회의 끈기와 열정적인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는 많이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놀이 단까지 초청하여 펼치는 축제는 거의 없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안성남사당 풍물놀이는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의 축제로 꾸준히 이어질 것이기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현재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단원 명단을 수록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으나 협조가 안 되어 싣지 못했다. 끝으로 본 연구 자료를 정성껏 챙겨준 안성문화원 김태인 사무장님과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남사당을 활발히 이 끌고 있는 이상철님이 적극 도와주시어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힌다.

〈참고 문헌〉

- 강전섭, 「경복궁 연건가」, 한국학보 제 38호, 1986. 3.
- 송석하, 「민속 예술의 소개에 대하여」, 1934.
- 김태영, 「안성문화금석관」, 1950.
- 국림국악원 편, 「조선시대 음악 풍속도2」, 민속원, 2004.
- 윤광봉, 「유랑예인과 꼭두각시놀음」, 밀알, 1994.
- 윤범하, 「안성남사당 풍물놀이 –천둥소리 쇳소리야–」 이가책, 연도미상.
- 전경욱, 심우성, 손태도, 정형호, 김한영 「남사당 전통과 담론 –지역문화 자산의 전승과 과제를 중심으로–」 참빛아카이브, 2014.

백제 하남 慰禮城의 위치와 우리말 소릿값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임 종 삼

Ⅰ. 들어가는 말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위례성으로 읽을 것인가? 위예성으로 읽을 것인가? 또한 그 위치는 어디인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인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인가? 그 오랜 숙제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말 문법에 따르면 백제 慰禮城의 소릿값은 위예성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慰禮城의 소릿값을 위례성으로만 읽고 적는다. 삼국시대에도 慰禮城의 소릿값이 위례성이었을까?

학계에서는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의 위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라는 주장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이라는 주장으로 크게 갈린다. 그런 까닭으로 백제 하남 慰禮城의 위치와 소릿값에 대

한 연구는 필요하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의 세력이다. 패수浿水, 예성강와 대수帶水, 한강하류를 건너 하남河南과 한산漢山에 정착한 일백가一百家의 세력이다. 말이나 수레를 타고 육로로 남하한 것이 아니라 목선을 타고 해로로 남하한 세력이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는 각각 해빈海濱 彌鄒忽과 하남河南 慰禮城에 터를 잡았다. 마한 연맹체의 맹주인 마한 목지국 진왕의 동의를 구하고 도움을 받았다.

백제의 시조 온조가 하남 慰禮城을 세운 것은 BC 18년 온조왕 1년이었다. 이어 온조가 하남 慰禮城을 한산 慰禮城으로 옮긴 것은 BC 5년 온조왕 14년이었다.[1] 삼국사기는 하남 慰禮城의 건도建都와 한산 慰禮城의 천도遷都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온조왕 1년, 왕은 10臣과 왕모王母 소서노의 도움으로 하남河南에 慰禮城을 세우고 도읍하였다.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웠다.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다 실패하였다.
>
> 온조왕 13년 2월, 왕모王母가 돌아가니 나이 61세였다.
>
> 7월에 한산漢山 아래에 책柵을 세우고 慰禮城의 민호民戶를 옮겼다.
>
> 8월에는 마한馬韓에 사신을 보내어 천도遷都를 고하고 강역을 확정하였는데 북은 패하浿河에 이르고 남은 웅천熊川에 한하며 서는 대해大海에 이르고 동은 주양走壤에 이르렀다.
>
> 9월에는 성궐城闕을 세웠다.
>
> 14년 정월에 천도遷都하였다.

---

1)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1996. p.14.

온조왕 13년 7월, 왕은 河南 慰禮城의 민호를 漢山(광주,성남)으로 옮긴다. 한산(남한산) 아래에 나무 울타리를 세우고 이주시킨다. 여기서 漢山은 지금의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를 가리킨다. 유사 이래 경기도 광주시와 성남시의 이름은 한산이었다. 김부식이 지은 三國史記와 김정호가 제작한 新羅九州郡縣叢圖의 기록에 따른다.

지금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에는 溫祚王祠와 온조왕 우물이 존재한다.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는 온조왕의 사당이다. 무려 2천 년 전의 역사가 광주시 남한산성 행궁에 존재하는 것이다.

온조왕사는 1638년 조선 인조 16년에 건립되었다. 온조왕사를 남한산성 행궁에 세우기 전, 이곳에 어떤 유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자세하지 않다.

1795년 정조 19년, 정조임금은 온조왕사의 현판을 숭렬전崇烈殿으로 바꾸어 달았다.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에 전사한 이서 장군을 온조대왕과 함께 배향하는 것이다. 온조대왕과 수어사 이서 장군의 위패를 함께 모신 곳이기에 숭렬전이었다.

이후 광주시에서는 숭렬전에 제향하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지금도 광주시에서는 해마다 숭렬전(온조왕사)에 제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제 최초의 도읍 하남 慰禮城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고 두 번째의 도읍 한산 慰禮城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 백제의 初都 하남 慰禮城이었으며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이 백제의 次都 한산 慰禮城이었음을 고증코자한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일본서기의 기록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Ⅱ. 문헌 탐색

A. 慰禮城의 우리말 소릿값

1.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위예성

백제 하남 慰禮城의 음가는 위예성이다. 다음은 한글 맞춤법 제5절 머리소리 법칙이다

> 제5절 머리소리 법칙 제11항, 한자음의 [랴, 려, 료, 류, 리, 례]가 낱말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본디 소리대로 적는다.

> 제5절 머리소리 법칙 제11항 [붙임], 다음과 같은 말은 둘째 소리마디의 [ㄹ]이 준 것을 인정한다. 홀소리나 [ㄴ] 받침 뒤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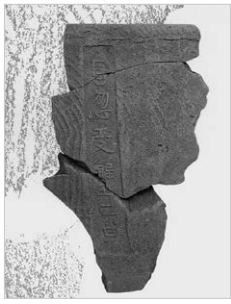
한자 禮의 우리말 소릿값은 '예'와 '례'이다. 예기, 예절 등의 '예도 예'가 우선이고 제례, 허례 등의 '예도 례'가 그 다음이다. 그러므로 慰禮城의 음가는 위예성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慰禮城의 음가를 위례성으로만 읽는다.

머리소리 법칙 제11항 [붙임]으로도 慰禮城의 소릿값은 '위예성'이다. 禮가 홀소리 '위' 다음에 오기 때문이다. 나열과 대열, 선율과 운율, 婚禮, 喪禮 등이 그 예이다. 그러므로 慰禮城의 음가는 위예성으로 읽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慰禮城의 음가를 위례성으로만 읽는다. 삼국사기를 역주한 이

병도의 표기를 그대로 따른다. 그를 식민사관 학자로 비난하면서도 그가 역주한 표기를 그대로 따라 쓴다.

광개토태왕비는 고구려의 초도初都를 홀본忽本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초 오녀산성에 세운 도읍의 이름을 홀본忽本이라 하였다. 홀본이라는 표기는 삼국사기의 표기 졸본卒本과 그 음가와 의미가 조금 다르다. 홀본은 '고을의 본부'로 해석되지만 졸본은 '졸병의 본부'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를 기술한 김부식이 고구려의 도읍지 忽本을 卒本으로 낮추어 기록하였던 것이다.

어원상으로 보면 홀본忽本은 '고을(골)의 본부'라는 뜻이다. 덧붙여 설명하면 홀본은 비열홀比烈忽, 별고을, 안변, 내미홀內彌忽, 안물골, 해주, 내혜홀奈兮忽, 안에골, 안성, 달홀達忽, 달고을, 고성, 마홀[2]馬忽, 말고을, 포천, 매홀買忽, 물고을, 수원, 매소홀買召忽, 물늪골, 소래, 잉홀仍忽, 냇고을, 음성 등으로 부르던 고구려 여러 고을의 본부라는 뜻이었다. 삼한시대 벽골제[3]壁骨堤의 벽골壁骨, 볏고을, 김제과 같은 쓰임으로 본다. 골骨, 홀忽은 고을(고흘)과 같은 소릿값이다. 골은 '고을'의 준말이며 홀은 '고흘'의 끝소리 준말이다.



마홀(馬忽)



벽골제(壁骨堤)

2) 馬忽, 반월산성 출토 기와명문, 포천문화원 제공.
3) 벽골제(壁骨堤), 삼한시대의 저수지, 전라북도 김제에 위치함.

2. 처소격 조사로 보면 위에성

처소격 조사로 보면 백제 하남 慰禮城의 음가는 위에성이다. 다음은 국어문법론[4]이 기록한 한글 조사의 쓰임이다. 주격主格과 대격對格, 목적격, 처격處格이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주로 살펴보았다.

우리 국어의 격조사는 다른 어느 품사보다도 그 독립성이 약하다. 그러나 그 문법적 기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무릇 조사 없는 국어는 생각하기 어려운 정도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국어의 대표적인 것은 주격主格, nominative case, 대격對格, accusative case, 속격屬格, genitive case, 처격處格, locative case, 방위격方位格, directional case, 구격具格, instrumetal case, 공동격共同格, comitative case, 호격呼格, vocative case 등이 있다.

1. 주격조사(主格助詞) '이/가'

어떤 명사가 그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를 주격조사라 한다. '이/가'로 대표되는 것이 주격조사이다.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누나[가] 전화를 했다.

2. 대격조사對格助詞 '을/를'

명사로 하여금 목적어가 되게 하는 조사를 대격조사라 한다. '을/를'로 대표되는 것이 대격조사이다. 따라서 대격조사를 목적격조사로 부르기도 한다.

---

4) 국어문법론(1), 이익섭,남기심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1990.

대격조사는 목적어에 쓰이므로 이 조사가 쓰인 명사를 지배하는 것은 타동사여야 한다.

*나는 오늘 코끼리[를] 보았다.

*우리는 배낭[을] 메고 뛰었다.

3. 처격조사處格助詞 '에'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범위를 나타내 주는 조사를 처격조사라고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사람, 물건이 있는 곳, 즉 처소處所를 나타내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조사가 처격조사이다. 에(서), 에게(서), 께, 한테, 더러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에] 가다.

*언덕 위[에] 집을 짓다.

그런데 처격조사 '에'와 관련되는 형태로 '에게'가 있다. 이 조사는 종래에 여격조사與格助詞라 부르면서 별개로 처리하여 왔다. 여격dative이란 무엇을 주는 대상을 가리키는 격이다.

*나[에게] 그 책임은 있다.

*왕[에게] 선물을 드려라.

'에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조사로 '한테'가 있다. 이들은 그 기능에 차이는 없다. 그렇지만 '에게'는 문어체文語體에 많이 쓰이고 '한테'는 구어체口語體에 많이 쓰인다.

고구려시대 경기도 안성군의 지명은 내혜홀奈兮忽이었다. 내혜홀은 안골, 안에골의 우리말 표기이다. 내혜홀奈兮忽에 쓰인 兮는 어조사이다. 설명을 덧



안성천



내혜홀초등학교

붙이면 우리말의 어조사 '에'의 한자 표기이다. 이 지명은 慰禮城을 위에성으로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예이다. 다음은 고구려시대 경기도 안성시安城市[5]의 지명 내혜홀이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삼국시대 안성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다. 4세기 이전에는 백제 지역이었으나 5세기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남하정책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때 안성은 내혜홀, 양성은 사복홀, 죽산은 개차산군이었으며 6세기에 신라가 한강유역까지 진출하면서 신라의 영토에 편입되는 등 삼국의 세력판도에 따른 변화를 겪었다.

경기도 안성은 서해 바닷가에서 가장 깊숙한 내륙에 위치한다. 서해에서 잡은 생선을 실은 고깃배나 소금배가 안골에 이르자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 그런 까닭으로 안성의 옛 이름은 안골〉안에골〉내혜홀이었다. 칠장산에서 발원하는 안성천이 안성시와 평택시와 아산시를 거쳐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까닭이다.

---

5) 안성시(安城市), 안성시청 홈페이지, 2015.

안성시安城市의 옛 이름은 내혜홀奈兮忽 또는 내혜홀內兮忽6)이었다. 내혜홀奈兮忽의 내奈, 어찌와 내內, 안의 음은 같다. 그러므로 내혜홀奈兮忽은 안에골內兮忽, 내에골이며 안에골은 곧 안골, 안성이다.

예禮와 혜兮는 삼국사기에 위예성慰禮城과 내혜홀奈兮忽 등으로 쓰였다. 필자는 위예성과 내혜홀을 '위에성'과 '내에홀'로도 읽는다. 한자를 국자國字로 썼던 삼국시대의 우리말로 본다. '예와 혜'를 우리말의 처소격조사 '에'와 '혜'로 보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어디에'를 발음할 때는 '어디예'로 소리 나고, '안에'를 발음할 때는 '안혜'로 소리 나는 까닭이다. 우리말의 처소격조사 '에'는 앞 글자의 받침여부에 따라 '예'와 '혜'로 소리 난다.

慰禮城과 奈兮忽은 삼국시대의 지명이다. 慰禮城은 백제의 도성都城 이름이고, 奈兮忽은 고구려시대 경기도 안성군의 지명이다. 현재의 한글로 표기하면 慰禮城은 위에성上黨城으로 쓸 수 있고, 내혜홀奈兮忽은 안에홀內ㅅ忽로 쓸 수 있겠다.

내혜홀은 고구려시대 경기도 안성의 지명이다. 내혜홀의 음가는 안에홀內ㅅ忽이며 안에골은 안골 곧 안성이다. 경기도 안성이 서해바다에서 깊숙이 들어온 안골이라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혜홀의 '혜兮'를 우리말의 처소격조사 '에'에 비정할 수 있는 것이다.

---

6) 내혜홀(奈兮忽). 경기도 안성군 내혜홀초등학교의 교명,

3. 天祭를 올리던 성소로 보면 위례성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7]에 온조우물[8]과 위례산성이 있다. 또 위례산 정상에 8각 기단 석축[9]이 남아있다. 8각 석축의 기단은 제왕이 하늘에 제례하던 천단天壇으로 추정된다. 이때에는 慰禮城의 소릿값을 위례성으로 읽어야 한다. 慰禮城의 의미를 '하늘을 慰勞하여 祭禮하는 城'으로 보는 까닭이다.



위례산


8각기단 석축

필자는 천안시 직산읍을 백제(십제)의 초도 하남 위례성으로 본다. 그리고 천안시 직산읍 입장면 호당리虎黨里 일대를 백제(십제)의 영역으로 본다. 호당리에 터를 잡은 온조계의 5호들이 마수성馬首城, 용인에 머물러 비류계와 연합하려는 왕모 소서노를 시해한 것으로 본다. 그 까닭은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가 5호五虎에게 시해되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근거한다. 천안시가 세운 위례산성 우물의 표지석[10]에 기록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

7) 위례산,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
8) 온조우물,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
9) 8각 기단 석축,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
10) 위례산성 우물의 표지석,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

백제 시조 온조왕이 밤이면 용이 되어 이 우물로 들어가 부여 백마강으로 가서 국정을 살피고 날이 밝으면 용이 되어 다시 이 우물로 나와 전선을 지휘하여 고구려 군사를 물리쳤다 함.

위례성산 우물은 온조 우물 또는 용샘로 불린다. 20년 전에는 지름이 약 10m 정도의 크기였으나 지금은 토사가 쌓여 1/3로 바짝 줄어들었다. 온조왕이 용이 되어 드나들었다는 용샘에는 용 대신 도롱뇽이 온조 우물을 지킨다.

B. 삼국사기의 기록 河南 慰禮城

1.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

하남 위례성과 한산 위례성의 위치는 백제 건국의 정설과 백제 건국의 이설에 들어난다. 또한 백제 초기의 역사 연표에서 그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백제 초기의 역사 연표이다. 삼국사기, 한국성씨총람, 한국인명대사전[11]에 실린 역사연대표를 참조하였다.

2. 백제 건국의 정설

삼국사기는 BC19~18년간의 '백제 건국의 정설'[12]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

11)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명대사전 편찬실, 신구문화사, 1986.
12) 백제 건국의 정설,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1996. pp.9~11.

〈백제 건국 초기의 역사 연표〉

연대	간지	국명		국 사
		고구려	백제	
BC 19	임인	유리왕 1		9월, 고구려 동명왕이 승천하고 아들 유리가 즉위함. 동명왕의 차자 비류(沸流), 온조(溫照) 형제 남하함.
18	계묘	2	온조왕 1	온조, 10臣과 왕모(王母) 소서노와 도읍 하남(河南) 慰禮城을 세움. 동명왕묘(東明王廟)를 세움. 비류,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다 실패함.
17	갑진	3	2	3월, 말갈(靺鞨)의 침범을 경계하여 병기(兵器)를 수선하고 양곡(糧穀)을 비축함.
16	을사	4	3	9월, 말갈(靺鞨)이 북쪽 토경을 습격함.
15	병오	5	4	낙랑(樂浪)에 사신을 보내어 수교함.
11	경술	9	8	2월, 말갈이 대부현(大斧峴)의 백제 군사를 격파하고 도성 하남 慰禮城을 포위함. 7월, 마수성(馬首城)을 쌓고 병산책(甁山柵)을 세워 낙랑과 불화(不和)함 .
9	임자	11	10	10월, 말갈이 북쪽 토경을 습격함
8	계축	12	11	4월,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을 습격케 함 7월, 독산(禿山), 구천(狗川)에 책(柵)을 구축하여 낙랑과의 통로를 막음
6	을묘	14	13	5월, 王母 소서노가 5虎에게 시해당함. 7월, 한산(漢山)에 책(柵)을 세우고 慰禮城의 민호(民戶)를 옮김,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遷都를 고함.
5	병진	15	14	1월, 하남(河南)에서 한산(漢山)으로 遷都함. 7월,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漢城)의 민호(民戶)를 옮김.
4	정사	16	15	1월, 궁실(宮室)을 세움.
2	기미	18	17	1월, 낙랑이 慰禮城을 불태움. 4월, 국모 소서노의 묘(廟,사당)를 세움.
1	경신	19	18	10월, 말갈을 칠중하(七重河)에서 격퇴하고 말갈 추장(酋長)을 사로 잡음.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추모鄒牟니 혹은 주몽朱蒙이라고도 한다. 주몽은 북부여에서 망명하여 졸본 부여으로 왔는데 졸본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다. 부여왕은 주몽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알고 그의 둘째 딸을 주몽의 처로 삼았다. 얼마 아니하여 부여왕이 돌아가니 주몽이 그 왕위를 이었다. 주몽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라 하고 차자는 온조라 하였다.

주몽이 북부여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琉璃가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 두려워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열 명의 신하와 함께 남행하였는데, 따라오는 백성이 많았다.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岳, 삼각산?용인부아산?에 올라 가히 살만한 곳을 살펴보았다. 비류는 해변에 살기를 원하였으나 열 명의 신하가 이렇게 간하였다.

"생각하건데 하남河南의 땅은 북은 한수漢水를 두르고, 동은 고악高岳에 의지하였으며, 남은 옥택沃澤을 바라보고, 서로는 대해大海를 격하였으니 그 천험지리天險地利가 얻기 어려운 지세라 여기에 도읍都邑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비류는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따라 온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해빈 미추홀彌鄒忽, 인천로 가서 살았다. 이에 온조는 하남 慰禮城광주?,직산?에 도읍을 정하고 열 명의 신하로 보좌를 삼아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안거할 수 없으므로 돌아와 慰禮城을 보았는데 도읍이 안정되고 백성이 편안한지라 참회하여 죽으니 그 신민이 모두 慰禮로 돌아왔다. 올 때에 백성百家이 모두 즐겨 따랐으므로 후에 국호를 백제百濟라고 고쳤다. 그 세계世系가 고구려와 한 가지로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로써 성씨를 삼았다.

3. 백제 건국의 이설

삼국사기는 BC 19~18년간의 '백제 건국의 이설'[13]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시조는 비류왕으로서 아버지는 우태優台니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이고 어머니는 소서노召西奴니 졸본인卒本人 연타발延陀勃의 딸이다. 소서노가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비류요, 차자는 온조였다. 우태가 죽자 소서노는 졸본으로 돌아와서 과부로 지냈다. 그 뒤 전한, 건소 2년 2월에 주몽이 남으로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소서노를 취하여 그녀를 왕비로 삼았다.

처음 소서노는 주몽의 건국에 내조의 공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주몽의 총애가 특히 두터웠고 비류와 온조도 자기 친아들 같이 대우하였다. 그런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씨에게서 낳은 유류孺留가 오자 그를 태자로 삼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가 온조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여기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가재를 기울여서 도와 방업을 이룩해 그 근로가 많았다. 대왕이 세상을 싫어하자 나라는 유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한갓 혹과 같이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 남쪽의 복된 땅을 얻어 도읍을 여는 것만 같지 못하다.'

마침내 비류는 아우 온조와 함께 무리를 이끌고 패수浿水, 예성강와 대수帶水, 한강하류를 건너서 미추홀彌鄒忽, 인천에 정착했다.

---

13) 백제 건국의 이설,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1996. pp.11~12.

4. 백제 건국의 정설과 이설의 재해석

다음은 '백제 건국의 정설과 이설'을 필자의 시각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 고구려의 초도 졸본卒本, 忽本을 떠나 남하한 비류와 온조는 처음 한사군의 거점이었던 대방고지帶方故地, 재령?에 도읍코자 하였다. 그러나 낙랑태수가 이들의 도읍을 경계하므로 그들은 또다시 소금배로 지금의 황해도 예성강浿水과 강화도 한강하류帶水를 건너 경기도 남양만에 이르렀다.
>
> 경기도 남양만에서 잠시 쉬고 남하하여 충청도의 아산만에 다다른 일행은 우선 먹을 것을 구하였다. 그리고 내륙으로 드는 하천을 따라 올라 오산의 독산禿山과 수원의 구천狗川, 황구지천에 이르고 마침내 부아악負兒嶽, 용인 부아산에 이르러 도읍할 터를 찾았다.
>
> 이때에 나이 든 비류는 바닷가에 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는 따라온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 갈라섰다. 형 비류는 해빈海濱 彌鄒忽인천로 가고 나이 어린 온조는 왕모 소서노와 10명의 신하의 도움으로 河南직산에 도읍 慰禮城을 세웠다.

위의 기록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남 慰禮城의 위치이다. 삼국사기의 역자 이병도는 河南 慰禮城의 위치를 '漢江의 南쪽'으로 번역하였다. 漢水의 남쪽인 '경기도 광주시와 남한산성 일대'로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河南 慰禮城의 위치를 하팔현河八縣, 평택시의 남쪽인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으로 본다. 그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택시의 옛 지명은 하팔현河八縣이었다.

삼국시대 경기도 평택시의 지명은 하팔현河八縣이었다. 하팔현은 아산만에 딸린 8개의 하천을 가리키는 지명이다. 황구지천, 오산천, 위천, 천,청룡천,

입장천,성환천,안성천이 그것이다. 지금도 안성천의 북쪽인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의 지명은 河北이다. 그러므로 안성천의 남쪽인 천안시 직산읍을 河南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한강의 남쪽 지명은 한산漢山이었다.

경기도 광주시와 남한산성 일대의 지명은 유사 이래 漢山이었다. 그러므로 하남이 아니다. 한강의 남쪽 지명이 漢山이라는 것은 삼국사기와 신라구주군현총도가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비류와 온조가 남하한 도패대이수渡浿帶二水는 뱃길이었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 세력은 처음 낙랑의 대방고지(황해도)에 도읍코자 하였다. 그러나 낙랑태수가 싫어하므로 그들은 다시 패수와 대수를 건너 남하하였다. 그 길은 말과 수레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나룻배와 소금배를 이용하여 남하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

아산에서 인천을 오고가는 뱃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들 물에 배를 띄우면 한 물에 간다.'

밀물과 썰물에 배를 띄우면 아산에서 인천을 하루에 오고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넷째, 아산온양지방의 거북놀이 사설에는 압록강이 등장한다.

비류와 온조 세력이 해상으로 남하하였다는 근거는 거북놀이에 담겨있다. 아산온양지방의 거북놀이 사설에는 '이 거북이가 압록강에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밥도 좋소 술도 좋소 곡식일랑 담아주소' 라는 사설이 등장한다. 아산온양 거북놀이 사설에 주목하는 까닭이다.

다섯째, 비류와 온조가 갈라선 곳은 부아산負兒山 아래의 갈래길이다.

비류와 온조가 갈라선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면 구갈동이다. 이곳에 비류와 온조가 도읍 세울 땅을 찾으려고 올랐다는 부아산이 위치한다.

지금도 이 지역의 이름은 구갈동, 신갈동, 상갈동, 하갈동으로 나뉘어 불린다. 경부고속국도와 영동고속국도가 동서남북으로 나뉘는 갈래 길이다. 이곳에서 갈라선 비류는 해빈 미추홀인천시으로 가고 온조는 하남 慰禮城직산읍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왕모 소서노는 이 곳 용인 석성산성주산 아래에 마수성용인시을 세우고 형제의 통합을 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갈라 선 정치권력은 끝내 통합되지 못했다. 비류와 온조의 통합을 꾀하던 왕모 소서노의 노력은 더 큰 갈등을 불러왔다. 온조 측의 5虎 장군에게 소서노가 시해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여섯째, 하남 慰禮城의 민호를 한산 慰禮城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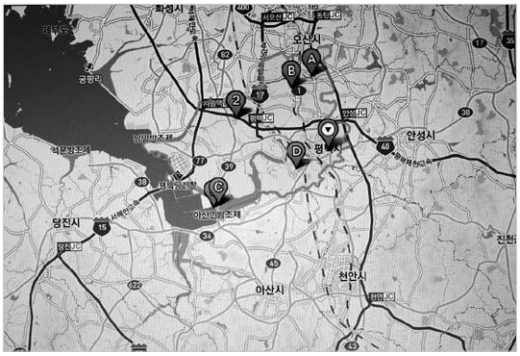
BC 6년 온조왕 13년 5월, 왕은 漢山남한산에 柵을 세우고 河南 慰禮城의 민호를 漢山으로 옮겼다. 이어 온조왕 14년 1월, 왕은 하남 慰禮城에서 한산 慰禮城으로 천도하였다. 이곳이 바로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漢山 慰禮城이다. 지금의 남한산 남한산성이 한산 慰禮城이다.

일곱째, 한성漢城의 민호를 강서북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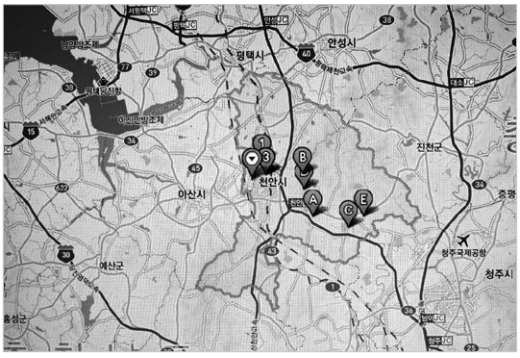
BC 5년 온조왕 7월, 왕은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의 민호를 그리로 옮겼다. 장차 國都로 삼을 만한 漢城(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한강 서북으로 이주시켰던 것이다. 이로써 백제의 500년 도읍지 한성은 백제의 세 번째 국성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5. 하남 慰禮城과 한산 慰禮城

삼국사기에 의하면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 세력을 받아들인 것은 마한이었다. 마한의 진왕은 하남河南, 직산과 미추홀仁州, 인천에 터를 잡으려는 이들의 도읍을 방해하지 않았다. 마한 54국의 하나인 백제伯濟로 받아들여 땅을 나누어 주고 정착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훗날 백제百濟는 수천의 기병騎兵을 양성하여 한반도 중남부의 선주민인 마한 53국을 흡수하였다. 마한의 입장에서 보면 배은망덕한 행위였다.



하북(河北)



하남(河南)

마한 연맹체의 맹주로 성장한 백제는 마한 53국을 지방 분권화하였다. 53국의 영주를 신지로 임명하고 백제의 속민으로 삼았다. 이들이 바로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討토한 백잔百殘과 이잔利殘이었다. 광개토왕의 공격에 쫓겨 열도로 망명하고 남은 백제百濟를 돕는 이제利濟이었다.

BC 18년, 백제 온조왕은 하남河南, 직산에 慰禮城을 세웠다. 기원전 18년에 세운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

었다. 유사 이래 경기도 광주군의 지명은 한산漢山이었고 충청도 천안시 직산읍의 지명은 하남河南이었다.

하남河南을 한강의 남쪽으로 해석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은 틀린 것이다. 漢江의 남쪽이라면 漢南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경기도 하남시河南市의 이름도 재고하여야 한다. 한강의 남쪽이라는 이름의 한남시漢南市로 바꾸어야 옳은 것이다.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에 백제의 시조를 추모하는 온조왕사溫祚王祠가 있다. AD 1429년 조선 세종 11년, 명군 세종대왕이 건립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근거없는 장소에 온조왕사를 세울 리는 없는 것이다. 이후 직산읍의 온조왕사는 AD 1597년 정유재란 때 소실되었다. 그리고 2015년 소실된 온조왕사를 천안시가 복원해 세웠다.

한산漢山이 경기도 광주군이고 하남河南이 충청도 직산이라는 사실은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叢圖가 증명한다. 신라구주군현총도는 현재의 경기도 광주군과 서울시를 한산漢山으로 기록하고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도 직산읍을 하팔현河八縣으로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와 충청도를 경계하는 안성천의 북쪽은 河北이고 안성천의 남쪽은 河南인 것이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경계하는 하팔현의 河八은 8개의 하천을 가리킨다. 아산만에 딸린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한천,청룡천,입장천,성환천,안성천이 그것이다. 이 들 8개의 하천은 아산만에서 삽교천과 합류하여 서해바다로 흘러 나간다.

평택의 옛 지명은 하팔현이었다. 8개의 하천이 흐르는 땅이어서 하팔이었다. 안성천의 북쪽인 경기도 평택은 하북河北이었고 안성천의 남쪽인 충청도 직산은 하남河南이었다. 지금도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에는 하남河南의

짝꿍인 하북河北이 살아있다. 안양시 범계와 평택시 하북을 오고가는 경기시외버스 300번 노선에 그 근거가 남아있다.



하북



하북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에는 충청남도 기념물 제148호로 지정된 慰禮山城이 존재한다. 이 산성에는 하늘에 제례를 올리던 팔각석축八角石築과 온조우물溫祚井이 남아 있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군 남한산성면 남한산성에는 온조왕사溫祚王祠=숭렬전와 온조우물溫祚井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백제 慰禮城의 위치는 두 곳으로 보아야 한다. 백제의 初都 하남 慰禮城과 백제의 次都 한산 慰禮城으로 보아야 한다.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의 위례산성은 하남 慰禮城, 경기도 광주군 남한산성면의 남한산성은 한산 慰禮城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위예성慰禮城의 의미는 산위에 세운 도성이라는 우리말 이름이다. 위예성의 성격을 우리말의 처소격인 위에성으로 보아야한다. 평지가 아닌 산위에 세운 도성을 가리킨다.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이 '홀본忽本 서성산西城山 산상에 도읍을 세웠다上而建都' 는 광개토왕비문의 기록에 근거한다.

위례성慰禮城의 의미는 '하늘을 위로慰勞하여 제례祭禮하는 성城이다. 왕이 하늘에 제례하던 장소라는 한자식 이름이다. 산 정상에 팔각제단의 석축을 쌓아 하늘에 제례하던 산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백제의 慰禮城을 읽을

때에는 두 가지 음으로 읽어야한다. 때에 따라 위예성과 위례성으로 구분하여 읽어야 하는 것이다.

6. 하팔현의 해운 조창 하양창

고대로부터 하팔현(평택지방)에 딸린 아산만은 해운 조창漕倉의 중심 기지였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하양창河糧倉과 공진창貢進倉을 두어 충청지방에서 거둔 세곡稅穀과 특산물을 도성 개성과 한성으로 실어 날랐다. 또 호남에서 올라온 세곡을 고려의 도성 개성과 조선의 도성 한성으로 실어 날랐다.

고려시대의 조창 하양창河糧倉에 하팔河八과 하남河南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하남河南 慰禮城의 위치는 한수漢水, 한강의 남쪽이 아니라 하팔河八의 남쪽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팔은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북부를 흐르는 8개의 하천을 가리킨다. 경기도 남부와 충청도 북부지방을 흐르는 8개의 하천이다. 그 이름은 황구지천, 오산천, 진위천, 한천, 청룡천, 입장천, 성환천, 안성천이다. 이 들 8개의 하천은 하양창河糧倉이 위치하였던 사섭포, 공진창이 위치하였던 백석포를 지나 아산만[14]으로 흘러 나간다.



아산만

백제의 시조 비류와 온조

14) 아산만, Daum지도.

일행이 남하한 길은 육로가 아니라 해로海路였다. 패수浿水와 대수帶水의 '도패대이수渡浿帶二水' 였다. 도패대이수渡浿帶二水는 어디인가? 패수는 예성강이고 대수는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강화도 어귀였다. 칠중하임진강와 한수한강가 만나는 강화도 어귀의 염하강이 대수帶水이었다.

삼국사기를 역주한 이병도는 이 부분에서 번역의 오류를 범하였다. 백제의 초도 하남河南, 직산 慰禮城의 위치를 한산漢山, 광주 慰禮城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남河南의 위치를 한수漢水의 남쪽으로 보았던 것이다. 하남이 한수漢水의 남쪽南方이었다면 그 기록은 분명코 한남漢南 慰禮城으로 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유사 이래 경기도 광주지방은 한산漢山이었고 경기도 평택지방은 하팔河八이었던 것이다. 하팔과 한산의 지명은 청구도 신라구주군현총도에 근거한다.

C. 거북놀이 사설에 담긴 鴨綠江

백제는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의 세력이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압록강 주변에 도읍을 세웠다. 고구려의 초도 홀본의 서성산도 고구려의 차도 집안 국내성도 모두 압록강을 젖줄로 삼았다.

왕모 소서노를 모시고 남하한 비류와 온조왕자는 최초 황해도 대방지역에 터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웃한 낙랑태수가 그들의 정착을 싫어하므로 다시 남하하였다. 패수浿水, 예성강와 대수帶水, 한강하류를 건너 남하하여 하남河南, 직산과 한산漢山, 광주에 정착하였다.

고구려에서 남하한 비류와 온조는 각기 해빈海濱 미추홀인천과 하남河南 慰禮城에 도읍을 세웠다. 이때에 비류와 온조를 따라 바다를 건너온 백성은 1

백가였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백가제해百家濟海의 百濟라고 명명하였다.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서 의견이 크게 둘로 나뉜다. 비류와 온조가 남하한 방법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다. 하나는 비류와 온조가 말을 타고 육로로 남하하였다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배를 타고 해로로 남하하였다는 해석이다. 그러므로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의 위치를 보는 입장도 다르다. 한강 북쪽인 경기도 북부로 보는 입장과 안성천 남쪽인 충남 직산으로 보는 입장으로 크게 나뉜다.

이병도 역주의 삼국사기에 따르면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의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와 남한산성 일대이다. 고구려를 떠난 비류와 온조 세력이 말을 타고 육로로 남하하였다는 입장이다. 비류와 온조가 한강의 북쪽인 북한산 어디쯤에 터를 잡았다가 한강을 건너 남한산에 도읍하였다는 해석이다. 하남을 한강의 남쪽으로 본 것이다.



온조왕사당

농촌경제학자 김성호의 주장에 따르면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은 충청남도 직산이다. 비류와 온조가 소금배를 타고 해로로 남하하였다는 해석이다. 비류와 온조가 아산만으로 들어와 안성천을 거슬러 위례성직산을 세웠다는 해석이다. 하남을 하팔현경기도 평택시의 남쪽인 충청남도 직산으로 본 것이다.

필자는 위의 두 가지 해석에서 농촌경제학자인 김성호 씨의 주장에 따른다. 그것은 삼국시대 경기도 평택시의 지명이 하팔현河八縣이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여기서 하팔현의 하팔은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8개의 하천을 가리킨다.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叢圖의 기록에 따른다.

위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하팔현의 하팔은 경기도 평택지방을 가리킨다. 경기도와 충청도를 가로질러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안성천을 가리킨다.

충청남도 직산이 하남 慰禮城이었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의 사실로도 넉넉히 증명된다.

첫째는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에 전래하는 거북놀이에 있다.

둘째는 충청남도 위례산에 위치한 온조우물과 위례산성에 있다.

셋째는 세종대왕이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에 세운 온조왕사당[15]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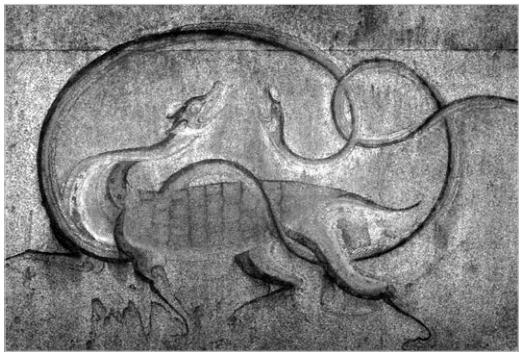
필자는 온양아산거북놀이에 등장하는 거북놀이 사설에 주목한다. 온양아산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거북놀이에는 고구려의 근거지인 압록강鴨綠江, 芭比鴨水이 등장하고 북쪽을 상징하는 거북神龜, 현무이 등장한다. 또한 만주 지방의 주요 밭작물인 붉은 수숫잎이 등장한다.

추석 무렵에 연희演戱되는 거북놀이는 충청도와 경기도 남부지방에 집중된다. 아산만에 가까운 농어촌지방에 집중한다. 이는 충청남도 아산이 고향인 조선의 수군명장 이순신장군의 거북선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또 붉은 수수 잎은 중국의 영화감독 장예모가 영상화한 만주의 '붉은 수수밭'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온양아산민속이 기록하는 거북놀이[16]의 사설과 디지털천안문화대전이 기록하는 거북놀이[17]의 형상은 다음과 같다. 두 자료집에 등장하는 거북이의

---

15) 온조왕사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166.
16) 거북놀이, 온양아산민속(1집 집단민속놀이), 온양문화원홈페이지.
17) 거북놀이, 천안향토문화백과, 디지털천안문화대전, 2015.



거북((神龜,현무)

이동 경로에 주목한다. '이 거북이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라는 사설에 주목한다. 거북놀이의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사설은 온양아산거북놀이뿐만 아니라 이천거북놀이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거북놀이를 연희하는 것은 어른들이 아니다. 10여세 남짓한 청소년들이 거북놀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이다. 설명을 덧붙이면 청소년인 비류와 온조왕자가 처음 시작하였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온양아산민속에 기록된 거북놀이 사설과 천안향토문화백과에 기록된 거북놀이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아산 거북놀이 사설

주인! 주인! 문 여시오 수명장수 들어가오
주인! 주인! 문 여시오 만석 거북이 들어가오
주인! 주인! 문 여시오 문 안 열면 난 갈라오
이 거북이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아산 땅에 오느라고 배가 고파 쓰러졌소
먹을 것이 있거들랑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술도 좋고 밥도 좋소 곡식일랑 담아 주소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백석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천석 거북아! 놀아라!

거북아! 거북아! 놀아라 만석 거북아! 놀아라!

아산 거북놀이 모습

배역	인원	복 장
거북	2명	*맷방석에다 수수 잎을 꽂아 거북의 등판을 만들고 그 안에 두 명의 힘 좋은 청년이 들어가 몸 위에 뒤집어 쓴 후 앞의 사람은 거북의 머리가 되고 뒤의 사람은 거북의 꼬리가 된다. 꼬리가 된 사람은 60㎝ 정도의 나무막대기 끝에 수수 잎을 묶어서 가랭이 사이에 끼고 흔들어 거북의 꼬리를 흉내 내고 머리가 된 사람은 머리에 바가지로 만든 모자를 쓰고 머리를 거북처럼 천천히 흔들며 앞으로 걸어 나간다.
길 열이	3~5명	*수수 잎으로 몸을 감싼 후에 머리에다 뒤집어쓰고 수수 빗자루를 양손에 잡고 연희한다.
동네사람들	다수	*이들은 수수 잎으로 다리를 두르고 거북의 주위를 따르며 춤을 추고 논다.
풍물	8~16명	*상쇠와 부쇠 징, 장고, 북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동리에 따라 벅구잽이도 편성한다. 이들도 다리를 수수 잎으로 감싼다.

거북놀이는 8월 한가위 명절을 기하여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감사하기 위한 민속놀이로서 널리 행해졌다. 그러나 이 놀이는 일정한 것이 아니라 기능보유자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연출되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었던 거북놀이 형태는 다음과 같다.



거북놀이

D. 마수성과 병산책의 위치와 역할

BC 11년 백제 온조왕 8년, 왕은 마수성과 병산책을 세워 낙랑樂浪과 불화하였다. 온조왕이 세운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甁山柵은 어디인가?

필자는 마수성과 병산책을 지금의 용인시 석성산石城山과 부아산負兒山으로 본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 8년 7월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18]

> 8년 7월, 마수성馬首城을 쌓고 병산책甁山柵을 세웠다. 낙랑태수가 사신을 보내 고하기를 근자에 사빙을 보내어 우호를 맺었기에 일가와 같이 여겼는데 지금 우리의 강역 가까이 성책을 만드는 것은 혹시 잠식할 생각이 있어서가 아닌가?
>
> 八年 秋七月,築馬首城, 堅甁山柵, 樂浪太守使告曰, 頃者, 聘問結好, 意同一家,今早我疆, 建立城柵, 或者其有, 蠶食之謀好

삼국사기의 역자 이병도는 삼국사기 번역본에서 '마수성과 병산책의 위치는 未詳이다.' 고 첨삭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료 수집의 부족에서 오는 해석의 오류이다. 그 이유는 백제의 마수성이 용인시 석성산石城山, 聖住山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위치는 영동고속국도의 들머리인 용인시 석성산 마성馬城 터널 상부에 위치한다.

온조왕이 세운 마수성과 병산책은 경기도 용인시 석성산을 가리킨다. 일부 학자들이 막연히 추정하는 한강 북쪽의 어디쯤이 아니다. 꽃봉오리를 빼어 닮은 석성산石城山, 城山이 곧 병산甁山이다. 석성산의 북쪽 봉우리에 할미성老姑城으로 불리는 고성이 있다. 또한 그 옆에 왕모 소서노가 나이 어린 온조

---

18)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1996. pp.13~14.

를 업고 10명의 신하와 함께 올랐다는 부아산負兒山이 있다. 마성IC, 마성터널, 마가저수지, 마성저수지, 마성리, 마평리 등의 지명이 마수성의 위치를 증거하는 것이다.



마성IC


할미성(노고성)

노고성할미성이 있는 석성산성주산은 용인시의 진산이며 소서노가 올랐다는 부아산은 유도대학으로 이름난 용인대학교의 진산이다. 이로 보면 백제 건국의 역사는 백제의 초도 하남직산 慰禮城을 위협하는 말갈, 낙랑과의 투쟁의 역사이다.

E. 할미성 설화에 담긴 백제 건국의 역사

경기도 용인시 석성산에는 할미성 설화가 살아있다. 할미성은 곧 마수성인데 할미성 설화는 백제 건국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이채롭다. 지금도 할미성 설화는 '용인 할미성 대동제'로 전승되고 있다.

1. 할미성 설화

용인시 석성산성주산에 위치한 할미성은 마고선인麻姑仙人이라는 할머니가 쌓은 것이라 하여 노고성老姑城 또는 마수성馬首城이라고도 불린다. 이 성을 어느 때 어떤 목적으로 쌓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 다만 大東野乘 제8권 54호에 간단한 기록이 있다. '이 성은 할미성인데 구전하는 설화가 있다' 는 간단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대동야승은 조선시대의 야사野史 · 일화逸話 · 소화笑話 · 만록漫錄 · 수필隨筆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龍仁市誌가 기록하는 '할미성 설화' 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옛날 아주 옛날에 슬하에 남매를 둔 노부부가 있었다. 노부부는 아홉 해나 가뭄이 들어 슬하의 자식 한 명을 죽여야 하는 형편에 놓였다. 이에 노부부는 아들과 딸을 불러놓고 내기를 걸었다. 하룻밤 사이에 아들은 성을 쌓고 딸은 나막신을 신고 한양을 다녀오는 내기였다. 그리고 내기에 지는 사람의 목을 베기로 하였다.

노부부는 내심 아들보다는 딸이 내기에 져서 죽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도와 성을 쌓기 시작하였다. 아들이 남쪽에서 성을 쌓기 시작하자 할머니는 북쪽에서 성을 쌓았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딸이 돌아오는 길목을 지키면서 초조한 마음에 흙을 한 줌씩 쥐었다 놓았다. 할아버지가 쥐었다 놓은 흙이 산봉우리가 되어 아흔 아홉 봉우리가 될 때에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딸이 돌아와 버렸다.

이 때 아들은 약속한 성을 다 쌓지 못하였다. 할머니는 북쪽의 성을 다 쌓았으나 아들은 남쪽의 성을 다 쌓지 못하였다. 그래서 노부부는 내기에 진 아들을 죽이게 되었다.

아들의 목을 베자 천둥번개가 치며 9년 가뭄 해소의 장마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할아버지와 딸도 벼락을 맞아 죽었다. 한꺼번에 아들과 딸과 할아버지를 잃고 혼

자 남아 애통하게 살던 할머니는 죽은 후에 산신이 되었다. 용인의 진산인 성주산(聖住山) 수호신이 되어 용인지역의 상산 신령이 되었다.

2. 할미성 대동굿

어진 용龍이 편히 누운 형국이라 명당과 명소가 많은 곳으로 알려진 용인의 진산은 석성산石城山=聖住山이다. 이 산의 높이는 해발 471m이고 정상 8부 능선에 성책土城〉石城이 있고 마가실로 이어진 해발 349m 높이의 북쪽 봉우리에 석성 할미성老姑城=馬首城이 있다.

성주산 8부 능선에 동문 석축이 남아 있는데 그 크기는 가로 7보, 세로 3보이다. 동문의 내부에는 꽤 넓은 공터가 있어 통화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성은 최초 백제의 토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에는 몽고군과 항쟁을 벌인 고려의 석성으로 활용되었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에는 수도 한성을 지키는 석성으로 활용되었다.

9부 능선 지점에는 바위샘과 함께 삼국시대의 암기와 숫기와 파편이 토출되는 좁은 공터가 있다. 아마도 이곳이 곡창과 병기를 비축하던 창고터가 있던 곳이 아닌가 생각된다. 산의 정상에는 봉수터와 기우제 터가 남아 있으나 군부대의 통신시설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할미성마수성은 성주산 북쪽 봉우리에 있다. 할미성이라는 명칭 이외에 노고성老姑城, 마성馬城으로 불리는 이 성은 백제 최초의 석성 마수성馬首城으로 보인다. 백제 온조왕 8년, 왕이 낙랑과 말갈의 침입을 대비하여 도읍 하남직산 慰禮城의 북쪽에 세운 마수성에 비정된다.

석성산성주산 정상에서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북쪽 봉우리의 형태는 말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미 한양대 발굴 조사팀도 이 할미성을 답사하여

이 성이 백제 초기의 마수성에 비정한 바 있다. 이 성의 전체적인 형태 또한 말머리와 유사하다. 말머리의 형태를 한 산봉우리를 따라 쌓은 까닭이다. 성 아래로 영동고속도로가 지나며 에버랜드로 진입하는 마성IC와 마성馬城 터널이 위치한다.

할미성노고성이 말머리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마수성馬首城'이라는 명칭이 붙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석성산성주산 부근의 지명이 마가실 서낭[19], 마성IC, 마성터널, 마성저수지, 마가저수지馬加池, 마평馬坪, 마성리 등으로 보아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석성산를 중심으로 한 용인시 처인구, 기흥구가 백제의 읍성 마수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지금의 용인시 처인구는 병마를 기르던 백제 초기의 군사용 방목지로 추정된다. 지금도 이곳에는 대한민국 육군 3군 사령부인 선봉대가 위치하는 까닭이다.



석성산(성주산)



마가실 서낭

백제시대 용인시의 명칭은 모로성牟盧城이었다.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을 때에는 용구현龍駒懸이었으며 신라의 영토가 되었을 때는 구성현驅城懸으로 불렸다. 모로성이나 용구현이나 구성현은 모두 말馬의 다른 표현이다.

---

19) 마가실 서낭, 용인시 처인구 마성리.

할미성 대동굿은 정월과 백중 전후에 이루어진다. 먼저 횃불을 만들고 소를 잡아 산신제를 올리며 산신제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산신제에는 고구려 토기의 전형인 네 귀가 달린 떡시루와 작은 모형의 무쇠 말 3개 또는 9개를 놓는다. 할미성 대동굿은 풍년을 기원하고 홍수를 막는 보막이 줄다리기로 끝을 맺는다. 줄다리기에 쓰인 줄은 성주산 할미성 마가실 서낭의 당나무에 돌리는 것이 이 굿의 특징이다.

할미성 대동굿은 백제 건국 설화와 일치하는 모티브를 갖고 있다. 가뭄 9년으로 농사짓기 어려움과 고구려를 떠나 백제를 세우기 9년간의 어려움, 성 쌓기 내기에 실패하여 죽은 아들과 도읍 세우기 내기에 실패하여 죽은 아들 비류, 남쪽과 북쪽의 두 성을 이어 쌓지 못한 아쉬움과 비류와 온조 형제가 慰禮城과 미추홀로 갈려 통합하지 못한 아쉬움, 죽어서 성주산의 산신이 된 마고할미와 죽어서 백제의 시조모가 된 소서노 할미 등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는 구조로 되어 있다.

할미성 대동굿은 용인시와 용인문화원 그리고 남자 무당 유성관에 의하여 해마다 재현된다. 용인 할미성 대동굿 전수자인 유성관은 광개토왕을 신장으로 모시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백제 건국의 역사와 할미성 설화〉

내용	할미성(老姑城) 설화	백제 건국초기의 역사	비류와 온조의 입장
발단	가뭄으로 겪은 9년간의 어려움.	고구려를 떠나 도읍을 세우기까지 겪은 9년간의 어려움 .	고구려를 떠나 도읍을 세우기까지 겪은 9년간의 어려움.
	두 성을 서로 이어 쌓지 못한 아쉬움.	비류와 온조는 의견차이로 따라온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과 위례성으로 갈림	비류와 온조는 의견차이로 따라온 백성을 나누어 미추홀과 위례성으로 갈림.
전개	성 쌓는 내기의 결과에 따라 살고 죽는 아들과 딸	*해빈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다 실패한 비류 *하남 위례성에 번듯한 도읍을 세운 온조	*형 비류는 해빈 미추홀에 도읍을 세우려다 실패하여 죽음. *나이 어린 온조는 어머니 소서노의 도움으로 하남에 도읍 위례성을 세움. *비류를 따르던 백성이 위례성으로 돌아옴.
	아들이 쌓은 남쪽의 허술한 책(柵)과 어미가 쌓은 북쪽의 튼튼한 성(城)	마수성(馬首城)과 병산책(甁山柵)을 세워 낙랑과 말갈의 교통을 막음	
절정	아들의 목을 베자 천둥번개가 치며 9년 가뭄 해소의 장마가 시작됨 그 와중에 할아버지와 딸도 번개에 맞아 죽음.	*王母 소서노가 5虎에게 시해당함. *온조왕은 한산(漢山)에 책(柵)을 세우고 위례성의 민호(民戶)를 옮김.	
결말	혼자 남아 애통하게 살던 할머니도 죽어 석성산(石城山,聖住山)의 산신이 됨.	*온조왕은 국도를 하남(河南)에서 한산(漢山)으로 옮김.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漢城)의 민호(民戶)를 옮김. *궁실을 세움.	*국도를 하남(河南)에서 한산(漢山)으로 옮김. *강서북에 축성하고 한성(漢城)의 민호(民戶)를 옮김. *궁실을 세움.
	할미는 석성산(石城山,聖住山)의 산신 마고선인(魔姑仙人)이 됨.	*온조왕은 어머니 소서노를 국모(시조모)로 모시고 사당(廟)을 세움.	*온조왕은 어머니 소서노를 국모(시조모)로 모시고 사당(廟)을 세움.



마가실 산신제



할미성 대동굿

3. 백제 건국의 역사와 할미성 설화

백제 건국의 역사를 석성산 할미성 설화와 비교하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하남에 위례성을 세운 온조왕과 용인에 마수성을 세운 소서노 왕모의 흔적이 발견되는 것이다. 다음은 백제 건국의 역사와 할미성 설화를 비교한 자료이다.

F. 독산책과 구천책의 위치와 역할

백제 온조왕이 세운 독산책禿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의 위치는 어디인가? 삼국사기의 역자 이병도는 삼국사기의 번역본에서 온조왕 11년에 쌓은 독산책禿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의 위치를 미상未詳이라고 첨삭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료의 부족에서 오는 해석의 오류로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백제의 禿山柵과 구천책狗川柵이 오산시와 수원시에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백제 온조왕이 말갈과 낙랑의 교통을 차단코자 독산과 구천에 책柵을 세웠다는 기록에서 독산책과 구천책의 위치는 오산시의 독산성과 수원시 고색

동의 황구지천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려 2천 년 전의 이름이 아직도 옛 이름 그대로 독산과 구천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등장하는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은 지금의 오산시 독산禿山이며 화성시 황구지천黃狗之川이었음을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 온조왕 11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20]

> 온조왕 11년 여름 4월, 낙랑이 말갈을 시켜 병산책甁山柵을 파하고 1백번인一百番人을 살해하였다. 이에 동년 7월에는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에 책柵을 세워서 이 요새로 낙랑과의 통로를 막았다.
>
> 溫照王十一年夏四月, 樂浪使靺鞨襲破甁山柵, 殺掠一百番人, 秋七月, 設禿山, 狗川兩柵, 以塞樂浪之路

삼국시대 이래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의 이름은 지금까지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으로 그대로 전한다.

경기도 오산시 독산성禿山城과 수원시 고색동古塞洞의 황구지천이 바로 그곳이다. 일부 학자들이 막연히 주장하는 한강 북쪽의 그 어디쯤이 아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원수 권율이 왜군을 물리친 장소가 독산성이며 수원시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아산만으로 흐르는 하천의 이름이 황구지천이기 때문이다.

수원시 고색동에는 황구지천을 따라 해자垓字를 세웠던 土城이 존재한다. 이 토성의 이름이 오래된 요새要塞 곧 고색古塞이다.

독산禿山은 옛 이름 그대로 김칫독, 쌀독의 독산이다. 그리고 지금의 황구지천의 옛 이름은 구천狗川이었다. 그러므로 AD 8년 계축년에 백제 온조왕

---

20) 김부식 지음, 이병도 역주,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1996. pp.13~14.

이 낙랑과 말갈의 교통로를 막기 위해서 구축한 독산책과 구천책은 지금의 독산성과 황구지천에 쌓은 성책이라고 보아 무리가 없다.

구천狗川은 글자 그대로 개천이다. 구천은 곧 개천의 이두향찰식으로 표기일 뿐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구천은 두 글자가 덧붙은 황구지천皇口之川, 黃狗之川으로 바뀌어 불린다. 조선 후기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임금이 화산릉 참배를 위해 구천에 놓은 다리의 이름이 대황교大皇橋이었다. 이후 구천은 황제가 건너던 개천이라는 이름의 황구지천皇口之川, 黃狗之川으로 바뀌어 불리게 된 것이다.

백제 온조왕이 독산과 구천에 책柵을 세운 것은 낙랑과 말갈의 협공을 막으려는 수단이었다. 내륙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북쪽의 낙랑과 동쪽의 말갈의 협공을 방어하던 성책이었다. 말갈로부터 백제의 토경을 지키기 위한 성책이 용인시에 위치한 마수성과 병산책이었고 낙랑으로부터 백제의 토경을 지키기 위한 오산시의 독산과 수원시의 황구지천에 세운 성책이 독산책과 구천책이었던 것이다.

독산禿山은 말 그대로 독산이다. 산의 이름이 술독, 쌀독의 이름에 붙이는 독산이다. 이는 곧 독산에 위치한 독산책禿山柵이 고대로 부터 세곡稅穀 사창社倉의 역할을 담당하던 성책이었음을 의미한다. 경기도 수원의 광교산에서 발원한 황구지천은 수원의 너른 들판을 지나 독산을 감아 돌고 진위천, 안성천과 합류하여 아산만으로 흐른다. 그리고 독산에 세운 독산책은 수원에서 생산 된 벼를 모아 아산만의 하양창으로 실어 나르는 사창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독산성 부근의 화성시 정남면 사창리에 조선시대의 사창터가 남아 있어 이를 증거한다.

독산禿山은 병산甁山, 한산漢山과 마찬가지로 백제 초기의 외자 산 이름이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다음은 독산성이 세곡을 관리하던 사창이었음을 고증

하는 자료이다. 독성이 독산성으로 불린 까닭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경기도 화성시 용주로 136번지 위치한 용주사가 펴낸 '龍珠寺의 말사 보적사'에 기록된 내용이다.

> 독산성은 백제 때의 산성으로 도성의 문호와 관련된 전략상의 요충지였다. 임진왜란 때인 1593년, 광주목사 권율權慄은 군사 2만 명을 이끌고 북상하다가 이 성에 진을 치고 왜적을 물리쳤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
> 장군이 이 성에 주둔하고 있을 때에 왜장이 성안으로 마실 물 한 지게를 올려 보냈다. 독산성에 물이 부족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물 한 지게의 전략으로 권율을 조롱하며 항복을 재촉하였던 것이다.
>
> 이에 광주목사 권율은 검은 말 몇 필을 장대로 끌어 올려 말 잔등에 흰 쌀을 끼얹어 목욕을 시키도록 하였다. 그러자 멀리서 이 장면을 목격한 왜장은 깜짝 놀랐다. 왜장은 성안에 말을 씻을 정도로 물이 많다고 착각하였던 것이다.
>
> 그 후 나라에서는 도원수 권율의 전승을 기념하여 독산성에 세마대洗馬臺를 세우고 병기 창고를 두어 군사훈련지로 삼았다. 산 이름도 세마산으로 개칭하였다.
>
> 독산성에 있는 보적사는 백제시대의 절이었으나 고려시대에 수축되었다고 전한다. 어느 해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많은 해였다. 이때에 보적사 경내의 바위틈에서 쌀알이 물처럼 솟아 나와 굶주린 고을 백성을 구제하였다. 그래서 절의 이름이 보적사報積寺라고 칭명하였다고 한다.

위의 기록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독산성이 백제 때의 산성이라는 것이고 그 둘은 보적사 경내의 바위틈에서 쌀알이 물처럼 솟아나와 굶주린 고을 백성을 구제하였다는 기록이다. 흉년에 고을 백성이 굶주리자 독산성에 보관하던 세곡을 풀어 구제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산

성은 곧 사창의 쌀을 보관하던 독禿, 독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독산성

이 기록에서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독산책이 바로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162-1에 위치한 독산성임을 알 수 있다. 독산성은 최초 백제의 토성이었다. 간장독, 술독, 김칫독, 쌀독의 독산이었다. 지금의 독산성은 임진왜란 후에 돌로 다시 쌓은 석성이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등장하는 구천狗川이 어디인가를 알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필자는 백제 진사왕이 머문 구원狗原을 지금의 수원水原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백제 온조왕이 낙랑과의 교통을 막기 위하여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에 책柵을 세웠다는 기록에 근거한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등장하는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의 지명은 지금도 독산禿山과 황구지천皇口之川, 黃狗之川으로 불린다. 삼국사기의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은 한산漢山, 광주시, 부산釜山, 오산시과 함께 옛 이름 그대로이니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지금의 황구지천皇口之川, 黃狗之川의 본 이름은 본래 구천狗川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화산릉 행차에 이르러 구천狗川은 황구지천皇口之川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역 사람들은 옛 이름인 구천狗川으로 더 많이 부른다.

구천이 황구지천으로 개칭된 것은 정조임금 때의 일이다.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찾아 성묘하던 화산릉 행차에 기인한다. 화산에 묻힌 사

도세자의 융릉으로 향하는 어가의 행렬이 구천狗川을 건너면서 구천狗川은 황구지천皇口之川으로 바뀌어 불렸다. 바로 '황제皇帝의 행렬이 들어口 가는之 개천川'이라는 의미로 변경되었다. 화산릉으로 향하던 어가의 행렬이 건너던 돌다리 또한 대황교大皇橋로 칭명되었다. 이 명칭은 지금의 수원시 대황교동이라는 마을 지명으로 남았다.

황구지천은 수원시 광교산 자락에서 발원하는 세 줄기의 물줄기가 대황교동에서 모여 이루는 개천이다. 지금도 수원의 너른 들을 흐르는 개천의 이름은 구천狗川, 유천柳川, 원천遠川인 바, 구천狗川이 흐르는 너른 들은 곧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등장하는 구원狗原이요. 구원狗原은 곧 지금의 수원水原에 비정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정조임금은 수원에 화성행궁을 세우고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또한 만석거 축만제 등의 저수지를 세워 벼농사를 장려하였다. 대한민국의 농촌진흥청이 수원에 있는 것도 정조임금의 치적의 결과였다. 1970년대 대한민국의 국민을 배부르게 하였던 통일벼의 탄생이 수원시 농작물 연구소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지금의 水原은 백제의 狗原이었으며 삼국시대에도 수원은 벼농사의 메카였던 것이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은 도읍 하남 慰禮城이 정돈되자 곧 바로 慰禮城의 북쪽에 마수성과 병산책을 세워 樂浪과 靺鞨의 침입을 막았다. 그리고 마한馬韓과 친교하며 독산禿山과 구천狗川에 책柵, 울타리을 세워 낙랑과 말갈의 교통로를 막았다. 독산禿山에 책柵을 세워 하팔현河八縣, 평택과 분양만分陽灣, 아산만으로 이어지는 뱃길을 감시하고 구천狗川에 책을 세워 당항성黨項城, 남양만과 미추홀彌鄒忽, 인천로 나가는 통로를 장악하면 경기 남부의 산물은 모두 백제의 소유가 되고 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되자 백제 온조왕의 처사에 분개한 낙랑태수는 慰禮城

을 불태운다. 이제까지 낙랑의 영지로 다스려오던 기전畿甸〈京畿의 땅을 백제 온조왕에게 빼앗기는 사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곧 온조왕의 의도가 장차 낙랑에 대항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수원시 고색동古塞洞에는 백제의 구천책狗川柵에 비정되는 토루土壘가 존재한다. 당초 장방형의 고총으로 인식되었으나 발굴 결과 무덤이 아니었다. 단지 후대에 묻은 3구의 인골 이외에는 이렇다 할 유물이나 토석이 출토되지 않았다.


황구지천

이후 수원시에서는 이 토루를 황구지천을 따라 구축되었던 요새要塞로 보았다. 이것이 근세에 이르러 수원-남양을 잇는 도로 공사에 의하여 끊겨진 구천책의 잔재로 보았다. 이 마을의 이름이 고색동古塞洞이라는 데에서도 이미 그 의미를 넉넉히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적의 침입을 막아내던 구천책의 잔재는 황구지천을 따라 상하 10㎞ 길이로 연결되어 있다. 수원시 서둔동의 여기산麗妓山에서 시작하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서편의 산등성이를 지나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능묘가 있는 화산과 독산성으로 이어진다. 본디 사도세자와 정조대왕의 능묘를 세운 화산릉 터는 수원고읍성이었다. 황구지천을 따라 쌓은 토성이 백제 온조왕이 쌓은 구천책狗川柵으로 보인다.

G. 삼국유사의 기록 慰禮今稷山

삼국유사에 따르면 백제의 초도 하남 慰禮城은 충청남도 직산稷山이다. '慰禮今稷山' 이라고 기록한 일연 스님의 저서 삼국유사에 근거한다. 稷山이라는 명칭이 이미 백제의 사직社稷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삼국유사의 기록 慰禮今稷山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은 비류와 온조 세력이 육로로 남하하였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고구려 광개토왕이 궁솔수군躬率水軍 하여 百殘과 利殘을 토하였다는 광개토왕비문 등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구려는 步騎의 나라이기도 하였지만 水軍의 나라이기도 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H. 동국사략의 기록 河南慰禮城今稷山縣

다음은 東國史略[21]이 기록한 '彌鄒忽今仁川府, 河南慰禮城今稷山縣' 이다. 비류가 거주한 彌鄒忽은 지금의 인천시이고, 온조가 도읍한 하남 慰禮城은 지금의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라는 기록이다.

百濟始祖溫祚立. 漢鴻嘉三年新羅始祖四十年. 父高句麗王朱蒙以在東扶餘時. 所娶禮氏女子. 類利爲太子. 溫祚與兄沸流. 恐不相容南行. 沸流居彌鄒忽今仁川府. 溫祚都河南慰禮城今稷山縣. 國號百濟. 初以烏干等十人從行. 初號十濟後以百姓樂浪從改百濟. 後徙南漢山城今廣州. 又徙南平壤城今漢京

---

21) 東國史略, 조선 태종의 명에 의해 권근(權近), 하륜(河崙) 등이 지은 편년체(編年體)의 역사책.

동국사략의 기록 河南慰禮城今稷山縣을 믿지 못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 또한 광개토왕비문이나 삼국유사, 동국사략 등의 기록을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I. 광개토왕이 討한 其國城

광개토왕비문 제2면 3행에는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의 국성國城을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其國城賊不服氣敢出交戰王威赫怒渡阿利水...

그 국성의 적이 불복하여 감히 싸우고자 대들므로 왕이 얼굴을 붉히고 노하여 아리수를 건넜다.

百殘主困逼獻出男女生口一千人細布千匹

백잔주가 곤핍하여 남녀생구 1천명과 세포 천 필을 바쳤다.

백제의 위세는 제13대 근초고왕과 제14대 근구수왕 대에 최전성기를 누렸다. 濟·倭연합군을 결성하여 가야(변한)와 탐라(제주)를 정토하고 신라(진한) 마저 백제의 영토로 삼으려고 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자신들의 본류였던 고구려를 공격하여 백제의 영토를 크게 넓혔다.

AD 371년, 백제 근초고왕 여구餘九와 태자 여수餘須는 고구려의 남경 평양

성을 공격하였다. 이에 고국원왕[22] 사유斯由, 쇠는 노구의 몸으로 백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다 전사하였다. 고국원왕이 전사하자 고구려 왕가와 고구려 인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사건이 장차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에게 백제의 국성 한성을 빼앗기는 것이다.

고구려는 이때의 일을 복수하고자 국력을 키운다. 백제 정토를 위한 웅재대략雄才大略을 세운다.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이 그 기틀을 다지고 광개토태왕과 장수왕이 웅략대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된다.

AD 396년, 고구려 광개토왕은 百濟와 利濟를 討하였다. 광태토왕비문에 등장하는 백잔은 百濟의 殘黨, 이잔은 利濟의 殘黨이란 표현이다. 백잔은 백제의 잔당이고 이잔은 백제를 이롭게 돕는 이제의 잔당이다. 이제利濟는 곧 이잔利殘이며 백제에 흡수된 마한의 세력이다.

백잔은 광개토왕비문 제1면 8행에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으로 등장하고 이잔은 광개토왕비문 제1면 9행에 '永樂六年王躬率水軍討利殘'으로 등장한다. 광개토왕이 몸소 수군을 지휘하여 백잔의 영역인 이잔을 討하였다는 기록이다.

여기서 기국성其國城은 백제百濟의 국성國城인 한성漢城이고 아리수阿利水는 지금의 남한강으로 파악된다. 광개토왕이 감히 고구려에 대항하는 백제를 치고자 아리수를 건너 백제의 국성 한성을 공격하자 백잔주가 곤핍하여 남녀생구 1천인과 세포 천 필을 바치며 노객이 되겠다고 항복한다.

필자는 백제의 도성都城 한성漢城을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로 본다. 송파구 풍납동의 몽촌토성[23]과 풍납토성[24], 강동구 석촌동의 백제 고분군 지역

---

22) 고국원왕(故國原王), Daum백과사전 브리태니커.
23) 몽촌토성, 서울 송파구 오륜동 88-3번지.
24) 풍납토성, 서울 송파구 풍남동 96번지.

으로 본다. 그리고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南漢山城 행궁行宮을 한산漢山 위례성慰禮城으로 본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그 하나는 백제의 도성 慰禮城을 '우리말의 처소격인 '위에성上黨城' 과 '하늘을 慰勞하여 祭禮하는 위례성' 의 의미로 보기 때문이다. 광개토태왕비 제1면 3행에 등장하는 추모왕이 홀본 서성산 산상에 도읍을 세웠다(…忽本西城山上而建都)는 기록에 근거한다.

위의 기록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西城山上而建都' 이다. 고구려의 시조 추모왕이 엄니대수를 건너 비류곡 홀본 서성산 산위山上에 도읍을 세웠다는 표현이다. 설명을 덧붙이면 서성산 산정에 慰禮城위에성, 위례성 곧 상당성上黨城, 윗마을을 세웠다는 표현이다. 백제시대 청주시의 지명은 상당현上黨縣이었으며 청주시 상당산성에 상당上黨 마을이 위치한다. 산위에 도읍을 세우는 것은 고구려, 백제 왕가가 갖는 하나의 특징이었다.

광개토왕비문에 의하면 고구려 광개토왕은 백잔과 이잔을 토하면서 궁솔수군躬率水軍과 보기오만步騎五萬의 전략을 썼다. 광개토태왕의 전략은 고기잡이 어선이 던지는 쌍끌이 그물에 비유된다. 두 마리의 양몰이 개 '콜리' 가 전력 질주하는 장면이 저절로 떠오른다.

고구려 광개토태왕의 공격에 백제 아신왕이 굴복하지 않았다. 국성 한성漢城의 군사를 모아 고구려 광개토태왕에 대항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아리수를 건너 기국성其國城, 한성을 압박하였다.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백제의 국성 한성을 압박한 전략은 양면작전이었을 것이다. 아리수남한강 수운水運의 거점도시 미성味城, 충주시과 서해 해운海運의 거점도시 관미성關彌城, 강화읍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백제의 한성漢城, 몽촌토성을 압박하였을 것이다.

고구려군의 한성 압박에 놀란 백제 아신왕은 마침내 광개토태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男女生口 1천명과 細布千匹을 바쳐 대왕의 노객奴客이 될 것을 맹세를 하였다. 이에 고구려 광개토태왕은 종족種族의 예의로써 용서하고 아신왕의 목을 베지 않았다. 그 대신 장수將, 잔주제殘主弟 및 대신大臣 십인十人을 인질로 잡았다. 그리고 해마다 조공할 것을 서약 받고 집안 국내성으로 환도하였다.

그러나 백제 아신왕 여방은 왜倭 응신천황 예전여전과 은밀히 연락하여 고구려에 배반하였다. AD 397년 5월, 태자 전지직지를 왜에 보내어 화통하고 고구려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고자 계획하였다. 제 · 왜연합군을 결성하여 이후 4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이 사실은 고구려 광개토왕비문의 기록에 따른다.

제 · 왜연합군은 AD 399년 영락 9년, AD 400년 영락 10년, AD 404년 영락 14년, AD 407년 영락 17년에 고구려와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고구려 광개토태왕은 신라 내물왕, 실성왕과 손을 잡고 제 · 왜연합군을 격파하였다.

J. 장수왕이 討한 백제의 北城과 南城

AD 469년, 고구려 장수왕 57년 8월, 백제 개로왕이 고구려의 남변을 침략하였다. 고구려 광개토왕에게 백제의 북쪽 토경을 빼앗긴지 어언 80년이 되는 시점이었다. 젊은 패기의 백제 개로왕은 이미 83살로 연로한 고구려 장수왕의 나이를 노려 근초고왕대의 위세를 되찾고자 하였다. 한수漢水 이북의 백제의 옛 땅을 되찾고자 고구려의 남변을 공격하였다.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AD 469년 개로왕 15년 9월, 왕이 장수를 보내어 고구려의 남변을 침공하였다. 10월에는 쌍현성雙峴城을 수리하고, 청목령靑木嶺에 대책大柵을 설치하고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사졸士卒을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백제 개로왕이 되찾은 쌍현성과 청목령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그 위치는 경기도 개성부근의 마식령산맥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강원도와 황해도의 도계를 따라 남서진하여 경기도 개성과 강화도에까지 이르는 산맥을 가리킨다.

백제 개로왕의 도전에 고구려 장수왕은 진노하였다. 선왕 광개토왕이 개척한 고구려의 토경을 침범하는 백제 개로왕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겼다. AD 396년 영락 6년, 광개토왕이 討한 백제의 침미다례강화도?, 곡나황해도, 현남충청도, 지침충청남도 서부, 동한강원도의 인민을 다스려 온지 이미 80년이 되었던 것이다.[25]

AD 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 9월, 왕은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침공하였다. 백제왕의 거처인 한성을 함락하여 제왕 여경을 죽이고 남녀 8천명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는 이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AD 475년, 개로왕 21년 9월, 고구려왕 거련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왕도 한성을 포위하였다. 왕은 성문을 닫고 버틸 뿐 나아가 싸우지 못하였다. 고구려인이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협공하고 또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질러 성문을 불태우니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나아가 항복하려는 자도 있었다. 왕은 궁박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수십 명의

25) 침미다례 , 완역 일본서기, 전용신 譯, 1993, 일지사, p.173.

기병을 거느리고 문을 나서 서쪽으로 달아났으나 고구려인이 쫓아가 살해하였다.

고구려의 대로 제우, 재증걸루, 고이만년 등이 병사를 거느리고 와서 북성北城, 북한산성을 쳐서 7일 만에 함락하고 이어 남성南城, 한성, 남한산성을 치니 성중이 흉흉하였다. 왕이 도망해 나갔는데 고구려의 장수 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을 하여 예의를 갖춘 후에 침을 세 번 뱉고 그 죄를 세어 책망하였다. 강 건너 아차성 밑으로 박송縛送하여 살해하였다.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국성 한성을 공취한 전략은 양면작전이었을 것이다. 육로로는 백제가 청목령에 세운 대책大柵을 넘어 북한산성으로 공격하였고, 해로로는 서해 해운海運의 거점도시 관미성關彌城, 강화읍에서 출발하여 백제의 북성北城, 北漢山城을 공취하였을 것이다. 이어 아리수남한강 수운水運의 거점도시 미성味城, 충주시에서 출발하여 백제의 도성 남성南城, 南漢山城을 협공하였을 것이다.

위의 두 기록으로 장수왕이 토한 백제의 北城은 北漢山城이었으며 南城은 南漢山城이었음이 확실하여졌다. 북성은 오늘날의 강북이고 남성은 오늘날의 강남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백제의 국성 한성은 조선의 국성 한성이었으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한성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산성


남한산성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침공은 청후금이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조선의 인조임금은 병자호란을 당하여 한성 궁궐을 빠져나와 남한산성 행궁에서 청나라 군사와 대치하였다. 그러므로 백제 군사가 고구려 군사에 끝까지 대항한 장소는 천혜의 요새였던 남한산성南漢山城26)일 수 밖에 없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에도 청淸의 군사가 점령하지 못한 일당백의 요새였던 것이다.


웅진성(공산성)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500년 도읍지였던 한성 백제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때에 고구려 군에게 살해되거나 포로가 되지 않은 백제의 왕족과 귀족들은 또다시 열도로 망명하였다. AD 396년, 광개토왕 6년의 망명에 이은 두 번째의 망명이었다. 개로왕의 태자 문주와 병관좌평 해구 등이 웅진熊津, 고마나루)에 백제를 다시 세웠다.

백제 제21대 개로왕의 이름은 여경이었다. '적선지가積善之家 필유여경必有餘慶' 의 격언에서 따왔을 그의 이름 '여경餘慶' 이 오히려 무색하다.

고구려 장수왕의 정토에 한성 백제가 멸망하자, 개로왕의 아들 문주文周가 倭 웅략천황雄略天皇의 도움으로 웅진에서 백제를 되살렸다. 열도 천황가는 열도로 귀화한 백제 왕가와 인민의 나라이었으므로 백제의 종가宗家이었다. 그러므로 쓰러져가는 백제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26) 남한산성,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563번지.

백제 문주왕文周王은[27] 고마나루熊津를 새 도읍으로 정하고 대두산성大豆山城을 쌓아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문주왕이 쌓은 대두산성이 어디인지는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여 쌓은 것으로 보아 고마나루의 북쪽인 두잉지豆仍只에 위치한 산성일 가능성이 높다.

삼국시대의 두잉지는 지금의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이다. 그렇다면 문주왕이 석축한 대두산성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청송리의 운주산성雲住山城일 것이다. 시도 기념물 제79호로 지정된 운주산성에서 백제시대의 토기 조각이 출토되므로 백제의 산성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백제 왕가는 이미 그 위세와 인민과 재물을 모두 잃었다. 열도 왜로 망명하고 남은 허울뿐인 제왕이었다.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웅진성공산성[28]에 백제를 다시 세운 문주왕의 죽음에 있다. 백제 문주왕 여도餘都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병관좌평 해구에게 시해되었던 것이다.

AD 538년 백제 성왕 16년, 왕은 도읍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한다. 왜와 화통하기에는 해상 교통이 좋은 사비가 유리하였던 까닭이다. 이어 백제의 국호를 남부여南扶餘[29]로 바꾼다. 고구려와 신라가 백제의 국명을 백잔百殘으로 낮잡아 부르는 것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이후에도 웅진 백제 왕가는 끊임없이 흔들린다. 신라와의 전투에서 성왕 이하 수많은 왕족과 귀족이 전사하고 그 후에도 남부여의 권력을 놓고 왕족과 귀족이 서로 반목하고 대립한다. 왕을 암살하고 귀족을 살해하는 불안한 사태가 계속된다. 이에 북부여와 고구려에 뿌리를 두었던 백제 왕가와 귀족은 또다시 분열하여 남하한다. 일의대수一衣帶水로 불리는 현해탄을 건너 열

---

27) 문주왕(文周王), Daum백과사전 브리태니커.
28) 웅진성,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80.
29) 남부여, 백제의 부여시대 국명.

도에 뿌리를 내린다. 그중에는 대부大夫 관직의 아배대마려신阿倍大麻呂臣30)도 있었다. 일본말로 아배阿培와 아배安倍의 소릿값은 같다.

아배대마려신은 대마大麻, 삼베를 관리하는 관직이었으며 일본 수상 아배安倍의 조상이었다. 한반도를 공격하고 혐한론을 주장하는 일본 극우파의 조상이 바로 열도로 망명한 백제 왕가의 후손들이다. 일천육백 년 전의 고향인 백제를 끊임없이 되찾으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침공으로 백제 오백년 도읍지인 한산 한성과 한산 위례성은 폐허가 되었다. 근초고왕의 석묘를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의 수많은 백제 고분31)이 파괴되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1917년의 지도에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의 백제 고분은 290여기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불과 8기의 고분이 원형을 잃은 돌무지로 남아있을 뿐이다.

K. 일본서기가 기록한 백제의 大城과 尉禮

일본서기는 한성 백제의 멸망32)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왜 웅략천황雄略天皇33)—대박뢰유무천황大泊瀨幼武天皇 20년의 기록이다.

웅략천황 20년 겨울, 고(구)려왕이 크게 군사를 일으켜 백제를 멸망시켰다. 그때 조금

30) 아배대마려신(安倍大麻呂臣),일본서기, 전용신 譯, 일지사, p.310.
31) 백제고분,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32) 한성 백제의 멸망, 완역 일본서기, 전용신譯, 1993, 일지사, pp.253~254.
33) 웅략천황, 완역 일본서기, 전용신譯, 1993, 일지사, pp.253~254.

남은 잔병들이 창하倉下에 모여 있었다. 군량은 이미 다하여 근심하고 울 뿐이었다. 고(구)려의 여러 장수가 왕에게 "백제인의 심정은 뜻밖으로 이상합니다. 신이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스스로 무디어집니다. 다시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청컨대 쫓아 없앱시다." 라고 말하였다.

왕(장수왕)이 "불가하다. 과인은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官家로서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들어왔다. 또 그 왕이 천황을 섬기고 있다. 이웃의 나라가 다 아는 바다."라고 말하였다. 드디어 그만 두었다.

(百濟記에 말하였다. 개로왕 을묘년 겨울, 狛(박,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大城을 친지 7日 7夜에 왕성이 함락하여 드디어 위례尉禮를 잃었다. 국왕 및 대후, 왕자 등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

21년 春 3월, 천황은 백제가 고(구)려에 의해 파멸하였다고 듣고 구마나리久麻那利, 웅천)를 문주왕에 주고 그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그 때 사람들이 다 "백제국은 일족이 이미 망하여 倉下에 모여 걱정한다 하였지만 실은 천황의 덕으로 다시 그 나라를 일으켰다."라고 말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고구려 장군들이 건의한 말에 장수왕 거연이 장군들에게 대답한 말이다.

> 백제인의 심정은 뜻밖으로 이상합니다. 신이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스스로 무디어집니다. 다시 퍼지는 것이 아닙니까? 청컨대 쫓아 없앱시다.

고(구)려 장군들은 창하에 모여 울며 근심하는 백제의 병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잔병들을 내버려두면 그들은 다시 힘을 모아 고

구려를 칠 것이다. 그러니 잔병을 열도로 쫓아 보내 후환을 없애자고 하였다. 그러자 고구려 장수왕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불가하다. 과인은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官家로서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들어왔다. 또 그 왕이 천황을 섬기고 있다. 이웃의 나라가 다 아는 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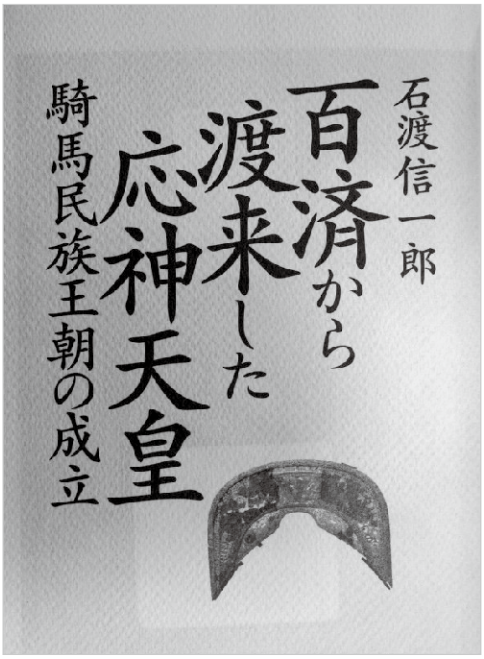
고구려 장수왕 거연의 생각은 부하 장군들의 생각과 달랐다. 백제의 잔병들을 열도로 쫓아버리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제 · 왜 연합군이 되어 고(구)려를 다시 침입할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또 백제국은 일본국의 관가인 바, 이웃나라 한 · 중 · 일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백제의 종가宗家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왜倭 제15대 응신천황 예전譽田,餘田 이후로 일본이 백제의 큰 집이 되었다는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백제 제15대 침류왕 여전餘田 이후로 일본이 백제의 종가라는 것이다.

그 둘은 고구려군이 정토한 성곽과 기간이다.

> 狛(박,고구려)의 대군이 와서 大城을 친지 7日 7夜에 왕성이 함락하여 드디어 尉禮를 잃었다. 국왕 및 대후, 왕자 등 모두 적의 손에 죽었다.

위의 기록에서 백제의 大城은 곧 漢城이고 尉禮는 곧 慰禮城이다. 이로 보면 백제는 국성 漢城을 大城 또는 韓城으로도 쓴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성과 위례를 분리하여 기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城은 백제의 도성 漢城이고 尉禮는 백제의 궁성 南漢山城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응신천황

광개토태왕비에 등장하는 백잔과 이잔은 열도로 망명하지 않은 백제와 이제의 세력을 의미한다.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의 공취에 굴복하여 고구려의 지배를 받는 세력을 가리킨다.

AD 391년 광개토왕 원년부터 AD 491년 장수왕 말년 까지만 해도 그 기간이 무려 101년이다. 고구려의 지배에 저항하였던 백잔과 이잔의 세력은 무려 100여 년 동안 열도로 망명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남은 백잔과 이잔의 세력이 겨우 백제의 이름을 이어갔던 것이다.

고구려 광개토왕의 치세에 열도로 건너 간 백제의 아직길사와 왕인박사는 태자 토도치菟道稚의 스승이 되었다. 왜 제15대 응신천황 예전여전의 부름을 받고 열도로 건너갔다. 왜왕 응신천황의 태자 도도치의 스승이 되어 한자와 여러 전적典籍을 두루 가르쳤다. 그래서 태자 토도치는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후 왕인박사는 열도 서수書首의 시조가 되었다. 이들이 바로 미개한 倭를 깨우친 백제 도래인이다.

일본의 일부 사학자들은 왜왕 응신천황이 백제 도래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왕 응신천황은 누구인가? 필자는 백제 제15대 침류왕이 곧 왜 15대 응신천황이라고 주장한다.

위의 기록에서 응신천황의 태자 토도치菟道稚의 이름이 특이하다. 토도치라니? 그런데 토도치를 이두향찰식으로 읽으면 토도치는 '토끼 같은 내 새끼'라는 말이 된다. 응신천황의 눈에는 왕인박사에게 배워 모르는 게 없는 태자 토도치가 토끼처럼 귀여운 내 새끼였다. 우리말에 '치'는 깔치, 덮치, 멸치, 꽁치 등으로 쓰인다. 비속어卑俗語로 깔치는 여자 애인이고 덮치는 남자 애인이다.

왕인박사에게 전적을 익혀 똑똑하기 짝이 없던 태자 토도치는 응신천황의 귀여움을 독차지하였다. 그러나 응신천황이 죽은 후 태자 토도치는 열도의 천황이 되지 못한다. 가형인 인덕황자에게 황위를 넘기고 자살하여 죽는다. 태자 토도치가 황위에 오르지 못하고 자살하여 죽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사유의 단서는 고구려왕[34]이 왜왕 응신천황에게 보낸 표表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일본서기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응신천황 28년 가을 9월, 고(구)려왕이 사자를 보내 조공하였다. 그리고 표表를 올렸다. 그 표에 "고려왕이 일본국에 가르친다."라고 하였다. 그때 태자 토도치랑자가 그 표를 읽고서 화를 내어 표의 무례함에 대해 高麗使를 책하고 그 표문을 찢어 버렸다.
>
> 廿八年秋九月,高麗王遣使朝貢.因以上表.其表曰,高麗王敎日本國也.時太子菟道稚郎子讀其表, 怒之責高麗之使,以表狀無禮,則破其表.

왜 응신천황 28년은 AD 427년으로 고구려 장수왕 5년의 일이다. 고구려 장수왕이 일본국을 가르치고자 보낸 칙서勅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태자 토도치가 화를 벌컥 내며 찢어버린 장수왕의 표表는 무엇이었을까? 혹여 인

34) 고구려왕, 일본서기, 전용신 譯, 일지사, p.180.

덕仁德황자를 열도의 태자로 삼는다는 내용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인덕황자의 정체는 또 누구인가? 필자는 倭 제16대 황위에 오른 인덕천황의 정체에 주목한다.

황자 인덕仁德,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 응신천황의 태자 토도치를 제거하고 열도 천황에 오른 그는 누구인가? 고구려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 담덕談德의 아우였을까? 아니면 AD 396년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인질로 데려간 백제 아신왕 방芳의 아우였을까? 그도 저도 아니면 그 누구였을까?

필자는 여기서 열도 제21대 웅략천황雄略天皇–대박뢰유무천황大泊瀨幼武天皇의 정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어려서幼 거친 여울瀨, 물살을 건너 열도에 정박한泊 倭 웅략천황은 과연 누구인가?' 웅략천황 무武의 정체가 누구인가는 독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일본서기 인덕천황–대초료천황[35]의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Ⅲ. 맺는말

A. 백제 하남 慰禮城의 우리말 소릿값

백제 하남 위례성의 소릿값은 두 가지이다.

하나,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백제 慰禮城의 소릿값은 위예성이다. 禮의 음

35) 인덕천황(仁德天皇), 일본서기, 전용신 譯, 일지사, pp.183~205.

가가 '예, 례' 두 가지이지만 禮가 홀소리 '위' 다음에 오기 때문에 위예성이다. 慰禮城을 위례성으로 읽는 것은 이병도가 역주한 삼국사기 역본譯本 때문이다.

설명을 덧붙이면 백제 慰禮城의 소릿값은 위에성이다. '위예' '위에'의 '에'는 우리말의 처소격 조사이다. 청주시 상당구의 백제 지명 상당현上黨縣의 상당성上黨城, 윗마을과 같은 의미의 '위에성'이다.

상당현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의 백제의 지명이다.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산 28-1의 상당성上黨城에 그 이름이 남아있다.



상당산성



위례산성

해발 491m의 상당산 상당성은 한마디로 위에성이다. 평지에 위치한 청주시에서 바라보면 다락방과 같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백제의 慰禮城을 위에성에 비정할 수 있겠다. 한자 上은 '위, 하늘, 임금'을 의미하고 黨은 '무리, 마을, 일가, 친척 등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둘, 천제를 올리는 곳으로 보면 백제 慰禮城의 소릿값은 위례성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에 온조우물[36]과 위례산성이 있다. 또 위례산 정상에 8각 기단의 석축이 남아있다. 8각 석축의 기단은 제왕이 하늘에 제례

36) 온조우물,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 위례산.

하던 천단天壇이다. 백제의 도성 위례성慰禮城을 '하늘을 慰勞하여 祭禮하는 城'으로 보는 까닭이다.

B. 하남 慰禮城의 위치

백제의 초도 河南 慰禮城의 위치는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동국사략의 문헌에 따르면 하남 위례성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이다. 그 외 어떠한 주장도 위 문헌의 기록을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학자 이병도가 비정한 경기도 광주시와 남한산성 일대는 하남 위례성이 아니라 한산 위례성인 것이다.



온조우물



직산

고구려를 떠난 비류와 온조 일행은 말이 아니라 배를 타고 해로로 남하하였다. 압록강을 오르내리던 소금 배를 타고 서해바다로 남하하였던 것이다. 비류와 온조 세력이 말이나 수레를 끌고 육로로 남하하였을 것이라는 해석은 선입견 때문이다. 그 근거는 고구려 제15대 미천왕[37] 을불의 전력에 있다.

---

37) 미천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미천왕, 재위 300~331. 호양왕好壤王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을불乙弗 · 을불리乙弗利 또는 우불憂弗. 서천왕의 손자이며, 고추가 돌고咄固의 아들이다. 293년(봉상왕 2) 아버지가 봉상왕에 의해 반역 혐의로 죽임을 당하자 피신해 머슴살이 · 소금장수 등으로 전전하다가, 300년 봉상왕이 폐위 당하자 국상 창조리倉助利 등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었다.

고구려 제13대 서천왕의 손자인 을불은 제14대 봉상왕의 학정을 피하여 잠적한다. 을불의 아버지 고추가 돌고를 반역 혐의로 죽인 봉상왕의 눈을 피하여 떠돌이 생활을 한다.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남의 집 머슴과 소금장수를 하며 신분을 숨기며 살았다. 그러다가 봉상왕의 학정에 반기를 든 재상 창조리에 의해 고구려 제15대 미천왕으로 추대된다.

압록강을 오르내리며 소금장수를 하며 살았던 미천왕 을불, 이 기록에서 고구려는 수레의 강국일 뿐 아니라 배를 이용한 해상의 강국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구려 광개토왕이 수군을 궁솔하여 백제의 이잔을 토하였다는 광개토왕비문이 보충한다.

고구려를 떠난 비류와 온조 일행은 최초 대방지역에 터를 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웃한 낙랑태수가 싫어하므로 또다시 남하하였다. 그 길이 바로 도패대이수이었던 것이다. 비류와 온조 일행이 배를 타고 남하하였다는 근거는 서해 바다 곳곳에 흔적으로 남았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그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경기도 남양만의 왕모대와 제부도의 왕지물이에 주목한다.

경기도 남양만의 왕모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쟁투하던 당항성 부근에 위치한다. 왕모대는 당항성에 딸린 포구였다는 사실이다. 왕모대 전설에 의하면 왕모대는 옛날 어느 왕의 어머니가 쉬어간 지명이다. 왕모대는 백제의 시조모 소서노가 쉬어간 지명에 추정된다.



왕지물이



왕모대

제부도의 왕지물이는 고대 어느 왕이 머물렀다는 지명이다. 왕지물이는 비류와 온조가 머물러간 지명에 추정된다. 이후 수군을 궁솔하여 백제 이잔利殘, 마한을 토討한 고구려 광개토태왕이 머물렀던 지명으로 짐작된다.

제부도 왕지물이에 누에섬과 고두섬이 있다. 누에섬은 그 형상이 누에를 꼭 빼어 닮아 누에섬이다. 그리고 고두섬은 교실 두 칸 정도의 아주 작은 섬이다. 그런데 고두섬에 전하는 전설이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다. 그 사연은 이렇다. 화성시문화원이 발행한 향토자료집과 현지 주민의 구전 설화에 근거한다.

> 옛날 어느 왕이 이곳에 이르렀다. 신하들이 주변의 섬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섬은 누에섬입니다. 누에를 닮아 누에섬이라고 부릅니다. 저 섬의 이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되물었다. 고것 두 섬이냐? 그 이후로 왕이 지적한 섬의 이름은 고두섬이 되었다.



고두섬



누에섬

둘째, 아산온양 민속자료집에 등장하는 거북놀이 사설에 근거한다.

온양아산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거북놀이에는 고구려의 근거지인 압록강鴨綠江, 芭比鴨水이 등장하고 북쪽을 상징하는 거북神龜, 현무이 등장한다. 또한 만주 지방의 주요 밭작물인 붉은 수수 잎이 등장한다.

아산지방의 거북놀이 사설에 거북이의 이동 경로가 드러난다. '이 거북이가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배가 고파 허기졌소.' 라는 사설이 등장한다. 거북이가 압록강을 건너왔다는 사설은 이천거북놀이에도 등장하는 것이다.

셋째, 하양창과 공진창의 위치는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이다.

고대로부터 아산만 밀두리는 해운 조창漕倉의 중심 기지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하양창河糧倉과 공진창貢進倉을 두어 충청지방에서 거둔 세곡稅穀과 특산물을 도성으로 실어 날랐다. 그 유적은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의 공진창터[38]와 공세리 성당에 남아 있다. 또 호남에서 올라온 세곡을 고려의 도성 개성과 조선의 도성 한양으로 실어 날랐다. 고려시대의

38) 공세리성당,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해운 사창 하양창河糧倉에 하팔河八과 하남河南의 의미가 담겨 있다.


공진창터


공세리 성당

넷째, '도패대이수渡浿帶二水'의 패수浿水와 대수帶水는 예성강과 한강 하류이다.

패수는 지금의 예성강이다. 그리고 대수는 아리수남한강와 웃리하북한강가 합수되는 두물머리에서 강화도 어귀까지의 한강 하류가 대수帶水이었다.


강화도


초지진

다섯째, 고구려 장수왕 때 인천광역시의 지명은 매소홀買召忽=買沼忽이었다. 그리고 신라 경덕왕 때 인천광역시의 지명은 소성邵城=沼城이었다. 그러므로 광개토태왕비문에 등장하는 미추성은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아산시 인주면이다. 삼국사기와 신라구주군현총도에 근거한다.

고려시대에 인주는 둘이었다. 지금의 인천시는 인주仁州이었고 지금의 아산시 인주면은 인주군仁州郡이었다. 행정구역상으로 삼국시대의 주州는 시도

市道의 개념이었고 군郡은 읍군邑郡의 개념이었다. 그러므로 미추홀은 인천광역시, 미추성은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으로 보아야 한다.

고구려는 해수海水에 면한 고을을 내미홀內彌忽, 해주, 관미성關彌城, 강화 등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담수淡水에 면한 고을은 매홀買忽, 수원, 어사매於斯買, 횡성 등으로 표기하였다. 해수에 면한 고을은 미彌, 담수에 면한 고을은 매買로 분명히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매홀買忽, 수원은 물골이며, 소성邵城=沼城, 소래은 늪성이고, 매소홀買召忽=買沼忽, 소래은 곧 물늪골이다.



인천광역시 능허대


아산시 여민루

늪성이라는 필자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39]이다.

여섯째, 아산만에 위치한 평택항과 당진항은 해양 씰크로드였다.

평택항이나 당진항을 의상과 혜초가 당나라로 들어간 항구로 보는 학자들이 있다. 경주–상주–보은–청주–천안–아산–당진–평택–남양은 신라新羅에서 당唐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었다. 최근 평택시는 아산만의 평택항을

39) 소래습지생태공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154번길 77.



소래포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실크로드의 첫 출발지로 홍보한다. 경기도 화성시 서부에 위치한 남양만은 통일신라시대의 당은군唐恩郡이었다.

우리말에 미투리와 상투가 있다. 상투는 혼인한 남자가 묶어 올린 머리이고 미투리는 코가 삐죽한 짚신이다. 이 말에 근거하여 미추성을 다시 읽어보면 그 음가는 미투성이다. 미彌는 바닷가를 의미하고 투추는 두頭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밀물머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가 미추성에 부합한다.

또한 미추성彌鄒城이 그 위치가 분명한 비성沸城〉湯井城, 온양과 나리성那利城〉奈兮忽, 안성 다음에 등장하므로 확실하다. 광개토태왕 비문에 등장하는 지리적 순차에 의해서도 딱 들어맞는다.



평택항



당진항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공세리성당貢稅里聖堂[40]이 들어앉았다. 공세리성당이 건립된 장소가 바로 조선시대의 공진창이 있던 자리이다. 토성土城 위에 석성石城을 둘러쌓고 수만 석의 세곡을 산처럼 쌓아 두었던 공세리의 백석포와 밀두리의 사섭포가 바로 미추성彌鄒城이었다. 미추성彌鄒城을 아산시 인주면仁州面 밀두리에 비정한다.

C. 한산 慰禮城과 한산 漢城의 위치

고구려 장수왕의 공략에 한성 백제가 멸망한 이후, 왕자 문주가 웅진熊津, 공주에 도읍을 다시 세웠다. 필자가 백제의 국성 한성漢城, 서울 몽촌토성과 한산 위례성慰禮城, 광주 남한산성을 구분하는 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의 시조를 모신 온조왕사—숭렬전崇烈殿[41]이 남한산성에 존재한다.

숭렬전崇烈殿은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 내에 있는 사당이다. 1972년 5월 4일 경기도의 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되었다.

이 건물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드리던 사당이다. 조선 인조 16년에 온조왕사로 건립했다. 이후 남한산성을 수축하고 병자호란 때 싸우다 죽은 수어사 이서를 함께 배향하였다. 1795년 정조 19년에 왕이 사액하여 숭렬전으로 그 이름을

40) 공세리성당(貢稅里聖堂),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성당길 10.
41) 숭렬전(崇烈殿),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바꾸었다. 성곽의 북서쪽 산 능선 아래 남향으로 지어진 작은 건물이다. 담장 안에 근래에 새로 복원한 강당과 그 북쪽에 담장으로 막아 구성한 사당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조왕사(숭렬전)


남한산성 행궁

둘째, 남한산성은 백제의 국성도성 한성을 호위하는 최고의 요새였다. 유사시의 도성이자 궁성이었다. 이후 남한산성은 고구려와 신라, 고려와 조선의 요새로 그 역할을 다하였다. 병자호란 때에 인조는 남한산성南漢山城42)에 머물러 청나라의 군사를 막아냈다.

남한산성南漢山城은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는, 남한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성이다. 병자호란 때 조선의 왕 인조가 청나라에 대항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19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공원화된 후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가 되었다.

남한산성의 역사는 삼국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되기도 했던 남한산성은 백제의 시조 온조왕이 세운 성으로 알려졌으나, 신라 시대에 쌓은 주장성이라는 설도 있다. 조선 시대에 인조와 숙종 때에 각종 시설물을 세우고 성을 증축하여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 직전인 1907년

42) 남한산성(南漢山城),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에 일본군에 의해 다수의 건물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1963년 1월 21일 남한산성의 성벽이 국가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고, 1971년 3월 17일 남한산성은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제158호), 5년 후인 1976년 7월 1일 관리사무소가 개소되었다. 1999년에는 남한산성 역사관이 개장하고, 2014년에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한산성



남한산성 수어장대

셋째,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는 백제의 유적이 즐비하다.

한성 백제의 국성도성은 한성몽촌토성이었고 궁성은 위례성남한산성 행궁이었다. 후기 백제의 국성도성은 거벌성대전이었고 궁성은 웅진성공주이었다.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이 건재한 서울시 강동구, 백제 고분이 즐비한 서울시 송파구 일대가 백제 500년 도읍지 한성이었다.



백제고분



풍납토성

넷째, 백제 침류왕枕流王[43]이 진晋에서 들어온 호승 마라난타를 불러 한산漢山=남한산에 불사佛寺를 세웠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침류왕, 7월에 사신을 진晋에 보내어 조공하였다. 9월에 호승 마라난타가 진에서 들어오니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내宮內에 두고 예경하므로 불법이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2년 봄 2월에 한산(漢山)에 불사(佛寺)를 세우고 10명의 승려를 두었다. 왕이 11월에 죽었다.

枕流王, 秋七月, 遣使入晉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二年,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冬十日月, 王薨.



아무포(법성포)



마라난타

43) 침류왕(枕流王), 삼국사기, 김부식 지음, 이병도 譯, 을유문화사, 1996.

백제 침류왕과 호승 마라난타를 불러 한산漢山=남한산에 세운 불사는 백제 최초의 사찰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절이다. 호승 마라난타를 맞이하여 궁궐에서 예경하며 세운 사찰이다. 그러므로 그 성격은 국찰國刹이거나 왕흥사王興寺이다. 또 사찰도 궁궐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호승 마라난타가 세운 백제 최초 불사의 이름을 아미사阿彌寺로 추정한다. 침류왕의 아들 아미왕의 이름과 호승 마라난타가 오고간 백제시대의 포구 아무포阿無浦, 법성포에 근거한다.

일본서기는 백제 제17대 아신왕의 이름을 아화왕阿花王, 아화왕阿華王, 아미왕阿美王으로 기록하였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아신왕阿莘王, 아방왕阿芳王으로 기록하였다. 본시 아화왕阿華王, 阿花王이었을 것이나 아화阿華와 글자가 유사한 아신阿莘으로 표기한 삼국사기의 오류 또는 비하의 표기로 본다.

필자는 일본서기의 기록 아미왕阿美王의 이름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운 불사의 이름을 아미사阿彌寺로 추정한다. AD 365년 백제 침류왕 2년, 왕이 漢山남한산에 세운 사찰의 이름을 아미타여래불阿彌陀如來佛을 의미하는 아미사로 추정한다. 또한 그 위치를 남한산성 내에 위치한 온조왕사숭렬전로 본다. 온조왕사숭렬전의 건물은 상하 두 채로 건립되었는바, 위쪽은 온조대왕을 기리는 온조왕사였고 아래 건물은 백제 왕가의 융성을 기리는 아미사阿彌寺였다고 본다.

경기도 광주시는 백제의 시조 온조대왕의 혼을 기리는 숭렬전 제향[44]을 갖는다. 해마다 음력 2월 초하루와 8월 초하루에 남한산성 행궁 내 숭렬전에서 갖는다. 조선시대 남한산성 축성의 총책임자였던 왕족 이서李曙 장군

---

44) 숭렬전 제향, 연합뉴스 보도자료 | 입력 2014.09.03 14:16.



숭렬전(온조왕사) 제향

의 신위도 함께 모신다. 숭렬전의 원래 이름은 온조왕사溫祚王祠45)였다. 정조 19년(1795년)에 왕이 '숭렬崇烈'이라는 현판을 내린 이후 온조왕사는 숭렬전으로 불리고 있다.

경기 광주시, 온조대왕을 기리는 '추계 숭렬전 제향' 거행. 조○○ 광주시장을 비롯, 유림,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날 행사는 전폐례奠幣禮–초헌례初獻禮–아헌례亞獻禮–종헌례終獻禮–음복례飮福禮–망료례望燎禮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향의 초헌관으로 조○○ 광주시장, 아헌관에는 박○○ 문화원장, 종헌관은 박○○ 유도회장이 맡아 제를 올렸다. 이날 제향에서 조 시장은 "백제를 창건한 온조대왕의 불굴 의지와 이서장군의 구국정신은 우리가 가슴깊이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는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를 백제의 국성도성 한성으로 본다. 송파구에 위치한 몽촌토성과 풍납토성을 백제의 도성 한성漢城으로 본다. 그리고 온조왕사숭렬전와 남한행궁南漢行宮이 있는 남한산성을 백제의 궁성 위례성慰禮城으로 본다.

백제의 도성 한성漢城은 한강漢江과 성내천城內川에 빙 둘러있다.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해자垓字로 둘러있어 외적의 침입을 막기에 훌륭하다. 또한 한강으로 곧게 뻗은 성내천은 뱃길로 한강과 서해바다에 열려있다. 그

45) 온조왕사(溫祚王祠,숭렬전), 경기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717.

장소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몽촌토성[46]과 풍납토성이다. 88서울올림픽대회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던 잠실종합운동장과 올림픽공원이 바로 그 자리이다. 조선의 도성 한성의 대문은 남대문인 숭례문[47]이고 백제의 도성 한성의 대문은 서울올림픽 기념문인 세계평화의 문[48]이다.


숭례문


세계평화의 문

백제의 도성 한성몽촌토성과 궁성 위례성남한산성은 불과 19㎞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 남한산성에서 몽촌토성에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하철 8호선으로 불과 1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말을 타고 가면 1시간의 거리이고 속보로 걸으면 5시간의 거리이다.

서울시에서는 이 코스를 위례성 둘레길로 개설하여 놓았다. 몽촌토성에서 남한산성을 잇는 위례성 둘레길에 거여동巨餘洞이 있다. 거여동의 거여巨餘는 임금의 행차에 대령하던 거여車輿, 수레가 아니었을까?

---

46) 몽촌토성,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47) 숭례문(崇禮門), 서울 중구 세종대로 40.
48) 세계평화의 문,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공원.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몽촌토성역평화의 문까지의 거리는 불과 8.0km이다.



거여역



임금의 수레

남한산성 서문우익문에서 서울시 송파구에 신축한 123층의 롯데월드타워가 발아래로 내려다보인다. 그 곁으로 푸른 숲과 한강물에 둘러싸인 몽촌토성이 보이고 백제왕들의 적석총이 보이고 올림픽공원으로 조성된 세계평화의 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저곳이 백제의 도성 한성漢城이었다.

필자는 남한산성 수어장대에서 몽촌토성역세계평화의 문까지의 구간을 걸어 보았다. 위례성남한산성에서 한성몽촌토성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보았다. 그 코스는 남한산성 수어장대–남한산성 서문–마천역–방이역–몽촌토성역세계평화의 문이었다. 수어장대에서 마천역까지는 40분, 마천역에서 몽촌토성역평화의 문까지는 70분이 걸렸다. 도보로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1시간 50분의 가까운 거리였다.

백제의 제왕들도 이 길을 이용하여 한산 위례성남한산성 행궁에서 도성 한성몽촌토성 관청으로 출근하였을 것이다. 남한산성 서문 아래에 위치한 마천역馬川驛과 거여역巨余驛, 巨輿驛이 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마천역과 거여역에 말馬과 수레輿를 두어 왕들의 출퇴근을 도왔을 것이다.

백제 도성 한성의 풍납토성은 광나루에[49] 위치한다. 그 이름이 바람을 들인다는 풍납風納이지만 사실은 조세 물품을 수납하는 포구였다. 풍납風納을 풍납豊納으로 바꾸어 쓰면 그 의미가 정확하겠다. 풍납토성은 백제 도성 한성의 물류 창구였던 것이다. 대외 수입과 수출의 물품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나갔던 것이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에 있었던 나루터.

양진楊津 · 광장廣壯 · 광진廣津 · 광진도廣津渡 등의 명칭으로도 불리었으며, 진취락津聚落을 형성하였던 곳이다. 한강의 중하류에 위치한 광나루는 교통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되는 영남로의 주된 간선로는 아니었으나, 부산으로 향하는 도로의 길목에 위치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파발로가 지나서, 광나루의 교통 기능은 지속적으로 중요시되었다.

광진원廣津院이 광나루 북쪽 언덕에 위치하였으며, 도승渡丞이 있어 사람들의 내왕을 조사하기도 하였다. 당시 좌도수참전운판관左道水站轉運判官이 겸직으로 이 지역의 조운을 관장하였을 정도로, 광나루는 서울 주변의 중요한 나루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백제 초기 몽촌토성 · 풍납토성 등과 연결되는 아차산성이 있으며, 삼국시대의 서울~부산간 교통로도 이 지역을 지나고 있어, 광나루는 고대부터 교통

49) 광나루(廣津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Daum.

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광진교 · 천호대교가 건설되어 강북과 강남을 연결해주므로 나루터의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3번국도와 강변도로가 지나고 있어 여전히 교통이 좋은 지역이다. 조선시대에는 양주목楊州牧에 속하였으나, 1895년 행정단위의 개혁에 의하여 한성부 양주군에 속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개편 때 고양군 독도면에 속하였다가, 1949년 면 전체가 서울로 편입됨에 따라 성동구에, 1995년에는 분구에 따라 광진구에 속하게 되었다.



몽촌토성


백제고분과 롯데빌딩

필자는 백제의 국성 한성漢城을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 비정한다. 123층 롯데빌딩이 들어 선 곳이 바로 백제 한성의 중심지였다.

경동철도의 부설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신 금 자

Ⅰ. 序論

서울의 남쪽 관문이자 경기도 도청 소재지인 수원水原은 경기도의 행정·문화 · 금융 · 교육의 중심지이다. 특히 교통지리적인 측면에서 수원은 우리나라 철도(국철, 전철, 고속철) 및 자동차 교통(국도, 고속도로)이 동서남북으로 모두 통과하는 곳으로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국철 경부선, 경부 고속철도 등이 모두 수원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분당선이 성남에서 경부선 수원역까지 연결되고, 신분당선이 동부에서 용인, 성남을 거쳐 서울 강남까지 연결된다. 또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인 1번국도, 42번, 43번 국도가 동서남북으로 도심을 가로질러 통과한다.

교통의 발달사는 시대적 변천과 역사를 같이 하고 있다. 수원지역의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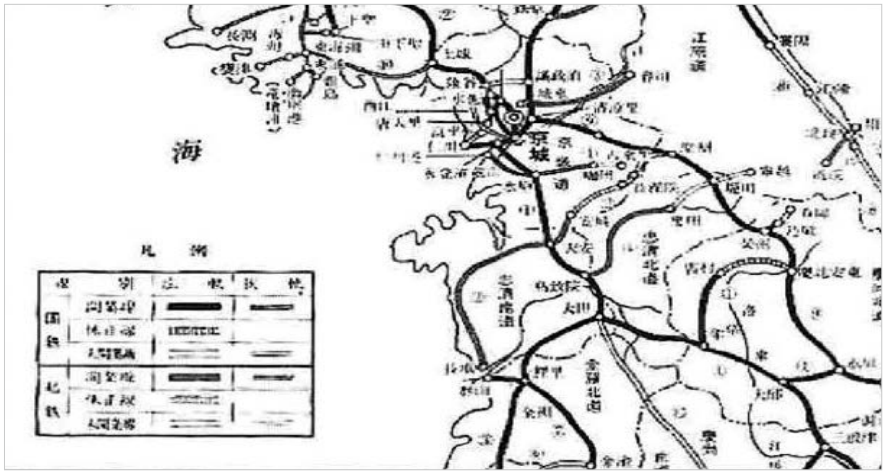
은 일제강점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수원에는 의미 있는 두 철도가 건설되었는데 바로 수려선水驪線(수원–여주)과 수인선水仁線(수원–인천)이다. 이 두 철도의 특색은 철도와 레일 사이의 너비가 표준인 1,435미터보다 좁은 철도로 운행되는 소형열차인 협궤철도挾軌鐵道라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시대, 쌀과 소금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탈의 역사적 증거이다. 이 두 철도를 합쳐 일명 경동철도라 불렸는데 이는 철도를 건설한 주체가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朝鮮京東鐵道株式會社였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식민지시대 수원의 철도교통현황과 특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수려선水驪線이 만들어지고 변천하는 과정, 수인선水仁線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다가 없어지는 과정 등 식민지 시대 수원지역의 전반적인 철도교통, 특히 경동철도京東鐵道 전반을 살펴보고 철도기능변화과정 파악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Ⅱ. 경동철도京東鐵道의 건설 배경

철도는 근대 자본주의資本主義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대규모의 상품 유통과 시장 형성 수단으로서 산업발달을 뒷받침한 가장 중요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이다.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기에 건설된 조선의 철도는 대부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라 계획 · 시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인 1920년대 말까지의 조선철도망은 경부선京釜線, 경의

선京義線, 경원선京原線, 호남선湖南線, 함경선咸鏡線 등 한반도를 X자로 교차하는 간선철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군사철도의 성격이 강했다.



일제하 경인지역의 철도 노선도

하지만 조선을 확실히 식민지화한 1920년대 중반 이래 일제는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여 식민지 수탈을 고도화하고 본토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인 철도망의 확충이 시급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협공당하여 엔권円圈내에서 최대한 물자를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기 때문이다.[2)]

이러한 이유로 1927년 조선총독부는 민간에서 제기된 건의들을 토대로 '조선국유철도 12개년계획' 朝鮮國有鐵道 12個年計劃을 확정하였다. 이 '12년 계획' 의 핵심은 1927년부터 12년간 3억 2천만엔을 투자하여 국유철도 5개선

---

1) 鮮交會, 『朝鮮交通史』, 1986, 수원을 중심으로 여주까지의 수려선과 인천까지의 수인선이 사철 협궤열차였음을 알수 있게 하고, 여주에서 점동리(원주군 점동면 흥호리)까지 미개업선이었음을 표시하고 있다.

2)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64~165쪽.

860마일(1,384㎞)을 신설하고, 기존에 부설되어 있던 주요 사설철도 5개선 210마일(338㎞)을 매수하여 국유화한다는 것이었다.[3]

〈일제시대 사설철도 노선 개요 및 부설 목적〉[4]

회사명	구간	거리(㎞)	영업 기간	건설목적유형	철도의 역
全北鐵道	이리-전주	24.8	1914-1927(국철 매수)	①②	전주 동산농장이 주동
价川鐵道	신안주-천동	36.6	1916-1933(국철 매수)	③	광산회사(철광)의 직영
朝鮮中央鐵道	대구-포항 경주-울산	147.4	1917-1928(국철 매수)	①②	경주지역 관광수송도 도모
朝鮮鐵道 〈黃海線〉	토성-사리원/ 은진/장연	278.5	1919-1944(국철매수)	②	재령평야와 해주항 일대 교통확충
朝鮮鐵道 〈忠北線〉	조치원-충주	93.4	1921-1946(국유화)	②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연결
南朝鮮鐵道	송정리-담양 마산-진주	105.9	1922-1931(국철 매수)	①	호남-영남 종관철도를 계획
圖們鐵道	회령-동관진	57.9	1920-1929(국철 매수)	①	만주 간도지방과의 국경연락
朝鮮京南鐵道	장호원-천안-장항	214.0	1922-1946(국유화)	②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및 항구 연결
新興鐵道	서호리-함흥-사수 /부전호	16.5	1923-1945(북한 귀속)	③	부전산맥 수력 전력 개발
金剛山 電氣鐵道	철원-내금강	116.6	1924-2945(북한 귀속)	②③	수력발전사업의 부업으로서 전철로 등산객 수송
朝鮮鐵道〈慶北線〉	김천-안동	118.1	1924-1940(국철 매수)	②	점촌-안동은 1944년 철거
朝鮮鐵道〈咸北線〉	고무산-무산	60.0	1927-1944(국철 매수)	②	임업자원 및 철광석 개발
朝鮮京東鐵道	여주-수원-인천항	125.4	1930-1946(국유화)	②	남한강 유역과 경부선 및 인천항 연결
朝鮮平安鐵道	진남포-용강온천	35.7	1938-1945(북한 귀속)	③	광량만 소금수송
西鮮中央鐵道	승호리-성천-북창	108.9	1939-1945(북한 귀속)	③	평양 탄광개발
多獅島鐵道	신의주-남시-다사도	58.0	1939-1945(북한 귀속)	③	부동항인 다사도와 연결
平北鐵道	정주-수풍	115.1	1939-1945(북한 귀속)	①③	압록강댐 건설 및 만주 연결
端豊鐵道	단천-홍군	80.3	1939-1945(북한 귀속)	③	장진강 수력 전력개발
京春鐵道	성동-춘천	93.5	1939-1946(국유화)	①	강원도청 소재지 춘천과 연결
三陟鐵道	묵호-도계	41.4	1940-1946(국유화)	③	삼척 탄광개발
韓鮮마그네사이트	여해잔-용양	59.7	1943-1945(북한 귀속)	③	함경북도 자원개발

※ 건설 목적 유형

①국철건설을 선행 혹은 대행하여 간선 혹은 亞幹線的인 역할 수행 ②특정 지역 교통 수송망 확립을 목적으로 부설된 지역철도 ③자원개발 등 특정한 수송사명을 지니고 건설된 산업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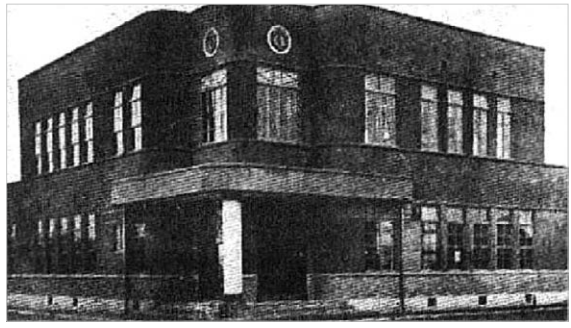
---

3) 정재정,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47~155쪽 / 철도청 『한국철도 100년사』, 1979, 459쪽.

4) 鮮交會, 『朝鮮交通史』, 1986, 6~7쪽 ; 도도로키 히로시, 2000년 석사학위논문, 19쪽 〈표3〉 재인용.

이 계획에 의해 철도국유화 작업이 시작된 이후 사설철도의 신설은 지역철도에 거의 한정되었다. 남한강 유역에는 일반지역교통 개선을 목적으로 한 노선이 3개 건설되는데 조선철도朝鮮鐵道의 충북선忠北線(조치원–충주), 조선경남철도朝鮮京南鐵道의 경기선京畿線(천안–장호원)과 바로 조선경동철도朝鮮京東鐵道의 수려선水驪線(수원–여주)이다. 이들 노선의 건설목적은 하나같이 남한강 유역의 곡창지대 교통개발과 강원도 영서남부지방의 오지개발에 있었다.[5]

교통개발이란 미명하에 건설된 수려선水驪線은 여주, 이천 등 경기도 내륙지방에서 생산되는 미곡을 수송할 목적으로 건설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기서 수송된 미곡들은 수원역을 거쳐 경부선을 이용,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보내지게 된다.


일제시대 수원시 수원면 매산리 164번지에 위치한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 전경

일제의 전략적 접근에 의해 개발되었으나 철도부설이 그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1926년경에 수원, 원주, 여주, 이천, 인천 등지의 상공인들이 경동철도 부설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했는데[7] 원주에서는 수원~강릉 구간의 철도부설을 촉구하기 위해 교섭위원을 철도국에 파견하는가 하면, 이

5) 도도로키 히로시, 「朝鮮鐵道 12年 計劃線」, 滿朝鮮鐵道新報社, 1927, 161~171쪽, 석사학위 논문 24쪽 재인용.
6) 鮮交會 『朝鮮交通史』, 1986. 朝鮮總督府 鐵道局 『朝鮮鐵道 40年 略史』, 1939, 68쪽.
7) 東亞日報》, 〈水原江陵間鐵道促成 – 原州서 市民大會〉, 1926년 1월 30일. 《東亞日報》, 〈京東鐵道敷設을 猛進的으로 運動 – 利川君民大會에서〉, 1926년 2월 19일. 《每日申報》, 〈京東鐵道〉, 1926년 4월 16일. 《朝鮮日報》, 1926년 2월 22일.

천에서도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수원, 인천, 용인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이 경주되었다.[8)]

하지만 경동철도京東鐵道의 자본과 경영이 일본인 위주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된 목적은 일본자본의 내륙진출과 미곡의 반출에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내륙 운수업의 독점을 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지역의 화주荷主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조선운송회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기존의 우마부牛馬夫들이 대거 일거리를 잃고 생계가 막연해졌는데, 그 수가 수원 – 이천 간에만 700여 명에 달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다.[9)]

경동철도京東鐵道의 전체 계획선 중 1단계 수려선水驪線의 부설이 완료되면서, 자연스럽게 2단계 수원水原–인천仁川 구간의 추진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사실 수원水原–인천仁川간 철도의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인 논의도 이미 1926년부터 계속되어 왔다. 특히 수인선 부설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것은 인천상업회의소仁川商業會議所였다. 인천상의仁川商議는 한반도 중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써 강원도 등 내륙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경부선 및 경인선의 수송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주안朱安 등 서해안 관염官鹽의 내륙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10)]

더구나 인천지역 상공인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머물지 않고 더욱 구체적으로 1926년 5월경 일본인 사업가가 주식회사를 추진하였으나[11)] 이 계획은

---

8) 甄洙燦, 仁川史學 제10집 (2003. 2), 京東鐵道(水驪 · 水仁線)의 부설과 변천, 915쪽.

9) 《東亞日報》, 〈龍仁 一群 三百 車夫 失業 연선으로 칠팔백명이 되어 – 京東鐵道 開通 影響〉, 1930년 10월 10일.

10) 실제로 仁川商議는 1926년 1월 25일 조선총독부에 〈仁川에서 水原을 거쳐 동해안 강원도 江陵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를 제출하였다. / 仁川府, 《仁川府史》, 1933, 819~821쪽.

11) 《每日申報》, 1926년 5월 25일자.

결실을 보지 못하고 같은 해 10월, 인천과 수원지역의 상공인들이 공동으로 경동철도기성회京東鐵道期成會를 결성하기에 이른다.[12] 아울러 인천상업회의소仁川商業會議所는 1927년 1월에 재차 수인선水仁線 부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하였는데[13]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받은 경동철도사가 1928년 수려선水麗線을 인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수려선 개통 후 경동철도사가 내륙의 자동차운수업체 인수에 매달리면서 수인선은그 추진이 한동안 중지되었고 수려선이 완전 개통되고 경동철도사의 자동차운수업체 인수가 마무리 된 1935년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협력 하에 총독부로부터 수원水原–인천仁川간 철도 수설인가鐵道數設認可를 얻게 되었다.[14]

이런 우여곡절 끝에 수인선은 착공한지 1년 2개월 만에 개통을 완료하고 총독부의 영업개시 허가를 얻어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15]

Ⅲ. 수려선水驪線의 부설과 폐지

수려선水驪線의 부설은 경기도 내륙의 곡창지대와 경부철도를 연결하여 미

12) 《每日申報》, 1926년 10월 22일자.
13) 《每日申報》, 1927년, 1월 20일자.
14) 《朝鮮中央日報》, 〈水原仁川간의 鐵道數設認可〉, 1935년 10월 3일 ; 〈수원 인천간에 새 철도〉. 《신한민보》, 1935년 10월 31일자.
15) 《朝鮮總督府官報》 제3168號, 1937년 8월 6일 ; 〈水原 ~ 仁川間鐵道 今日부터 運數開通 – 西海岸 干潟地를 橫斷〉. 《東亞日報》, 1937년 8월 7일자.

곡米穀의 반출을 원활히 하고 일본인日本人의 진출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실 조선총독부는 1926년 일본, 대만 지역에 비해 뒤떨어진 철도망을 정비확충하기 위해 〈조선철도 12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하였다.

이 계획의 핵심은 군사, 정치적인 성격보다 경제개발에 중점을 둔 전국적인 철도망 확충이었는데, 이는 조선점령이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들어가 경제침탈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에서 생산되는 자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수려선水驪線의 부설도 바로 이러한 목적이었으나 건설주체인 경동철도의 재정은 여유롭지 못했다.

〈수원 여주간 노선 및 정차장〉16)

정차장명	구분	연장(㎞)	역간거리(㎞)
水原	정차장		
本水原	정차장	3.0	3.0
園川	정차장	6.5	3.5
新葛	정차장	12.5	6.0
漁汀	임시 정류장	15.9	3.4
三街	정차장	21.8	5.9
龍仁	정차장	24.1	2.3
痲坪	임시 정류장	28.4	4.3
陽智	정차장	31.9	3.5
霽日	임시 정류장	35.4	3.5
午川	정차장	40.0	4.6
標橋	임시 정류장	45.7	5.7
酉山	정차장	49.4	3.7
利川	정차장	53.1	3.7
茂村	임시 정류장	57.6	4.5
梅柳	정차장	64.4	6.8
神垈	임시 정류장	69.7	5.3
驪州	정차장	73.4	3.7

16) 『조선총독부관보』 1177호, 1930년 12월 4일. 《동아일보》 1930년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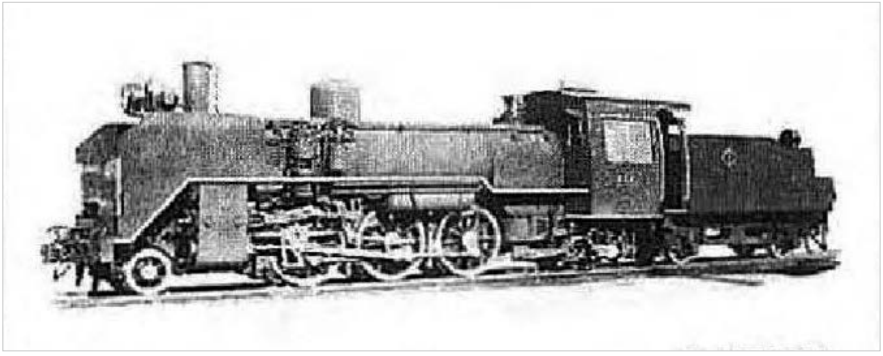
자본금은 기껏 300만 엔에서 출발했으며 수인선이 개통될 당시에도 500만 엔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총독부 사철보조금과 사채, 차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였다. 1920년 3월 3일 조선경동철도주식회사는 수원에서 여주까지 73.4㎞ 구간의 면허를 얻어 1930년 12월 1일 수원-이천 사이 53.1㎞ 14개 정거장停車場(驛)을, 1년 후인 1931년 12월 1일에는 이천-여주 사이 20.3㎞구간 4개 정거장을 개통시켰는데 당초 자본금은 300만 엔, 차입금은 130만 엔이었다.[17]

투자는 일본인 자본가 다가와 죠이치로田川 常一郎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은 후에 조선평안철도朝鮮平安鐵道, 鎭南浦 ~ 龍崗溫泉와 서울의 철도차량공장인 용산공작주식회사龍山工作株式會社를 경영한 사람이다. 수려선水驪線은 당초 표준궤도 규격으로 면허를 받았다. 하지만 건설주체인 조선경동철도가 타 사설철도에 비해 재정기반이 약해 자본이 부족하여 규격이 작은 762㎜ 협궤로 건설되게 된다.

수려선水驪線을 건설한 경동철도주식회사가 철도의 종점으로 여주를 삼은 것은 기존의 남한강 수운과의 연결 때문이었다. 조선경동철도는 여주까지의 철도노선 개통 이듬해인 1932년 여주 하항河港에서 원주 부론면 흥호리興湖里까지 선박 3척으로 하루 4왕복의 영업을 개시했다. 경동철도가 여주 흥호리를 겨냥했던 이유는 이미 조선시대 세곡을 보관하던 흥원창興原倉이 있던 곳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일제시대 영서지방의 물자 집산지 기능을 한 것이다. 하지만 경동철도주식회사는 1935년 7월 5일 이미 여주에서 흥호리興湖里 대안인 고점면占東面까지 노선 연장 면허를 얻었지만 수인선이 부설되기까지 미루다가 1941년 태평양전쟁이 터지자 무산되었다.

---

17) 中村進吾, 『鮮內鐵道沿線要覽』, 1932, 159쪽. 도도로키 히로시. 2000년 석사학위논문 재인용.



662형 협궤 기관차18)

이후 경동철도주식회사가 1942년 조선철도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가 1946년에 국유화되었다. 해방 이후엔 미곡수송의 의미도 거의 사라진데다가, 교통 편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이용객과 화물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인선(수원-인천)의 역할 또한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들어 버스와 트럭에 수송시장을 빼앗겨 계속 적자운행을 하다가 1972년 3월 31일 운행을 마지막으로 선로를 폐지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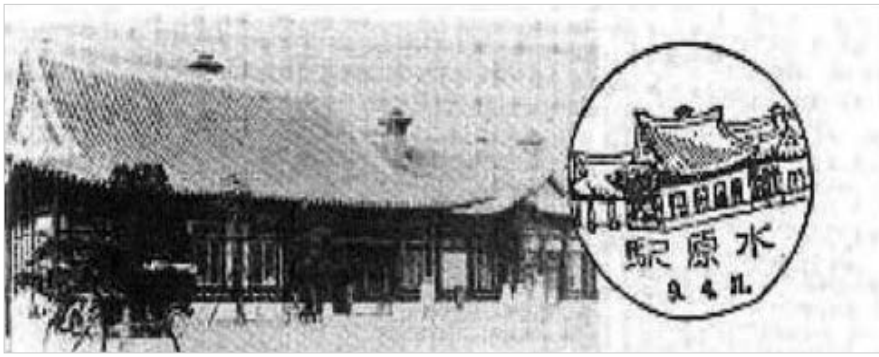
Ⅳ. 수인선水仁線의 부설과 폐지

수인선水仁線의 설립목적은 당시 여주, 이천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던 최고

18) 鮮交會, 『朝鮮交通史』, 1986.

품질의 쌀을 일본 본국으로 보내는 한편, 강원도 벽지의 풍부한 물자를 인천항으로 수송하는 동시에 군자君子·소래蘇萊·남동南洞 등지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산간 오지에 수송하는 데 있었다.

또한 조만간에 개장이 될 인천 송도유원지에 철도편을 연결시킴으로써 위락인구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의 경제를 촉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다.[19] 실제로 수인선 개통 후 화물의 수송량이 늘어나 인천항역 구내 야적장에는 강원도 지방에서 벌채한 원목이 가득 쌓였고, 경기남부의 곡물과 서부의 소금이 창고에 가득 채워졌으며 결국 철도라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조선의 자원은 이출移出이라는 이름으로 수탈당하고 말았던 것이다.[20]



1928년 8월에 준공된 전통가옥 형태의 水原驛舍[21]

수인선水仁線의 부설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곳은 1926년 1월 25일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동해안 강원도 강릉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를 제출한 인천상업회의소仁川商業會議所이다. 이 〈요망서〉에서 인천상의仁川商議는 한반도 동서를 관통하는 철도를 건설함으로서 강원도 내륙의 개발을 촉진

19) 화성군사편찬위원회, 『화성군사』, 1990, 508쪽.
20) 이창식, 『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130~131쪽.
21) 鮮交會, 『朝鮮交通史』, 1986.

할 수 있고 경부선과 경인선의 수송 부담을 분산하는 동시에 주안朱安 등 서해안 내륙의 관염官鹽을 내륙 깊숙이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2](별첨자료 1 참고)

이어서 이듬해 1월, 인천상업회의소仁川商業會議所는 재차 수인선 부설을 당국에 제출하는데[23] 이러한 여론은 수인선水仁線 건설을 추진 중이던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에도 자극이 되어 1928년 수려선을 인천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24]

그러나 실제적으로 수인선 부설문제는 수려선이 완전히 개통되고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東鐵道株式會社의 자동차 운수업체 인수가 마무리되는 1932년경에야 다시 검토되는데 경동철도회사가 당국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함에 따라 관망에 그치다가 1934년쯤 수려선의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채산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당국에 정식 부설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경동철도주식회사는 인천지역 상공인들의 협력을 얻어 1935년 9월 23일 총독부로부터 수원-인천간 철도부설 허가를 얻게 되고[25] 1936년 5월 16일 인천 화정花町 매립지에서 성대한 기공식을 갖고 6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년 2개월만인 1937년 8월 6일 정식 운행에 들어갔다.

수인선은 총연장 52㎞의 협궤 열차로 10개의 정식 정차장과 7개의 임시 정류장을 두었으며 수원-인천 간을 1시간 40분 정도에 달렸다. 수인선의 개통이후 수원-인천 간의 인적 · 물적 교류는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경

22) 仁川府, 『仁川府史』, 1933. 819~821쪽, 견수찬.
23) 《동아일보》, 1927년 5월 8일, 〈水仁鐵道 不遠間 認可 - 京阪資産家의 應援下〉.
24) 《중외일보》, 1928년 11월 19일, 〈경동철도의 인천연장 출원〉.
25) 《조선중앙일보》, 1935년 10월 3일, 〈水原仁川間의 鐵道敷設 認可〉.

동철도주식회사는 폭주하는 화물을 감당하기 위하여 창고시설과 인입선을 확충하고 역사驛舍를 증축하는 등 사세를 확장해 갔다.[26]

특히 내륙의 곡류와 해안가의 소금이 속속 집하되면서 인천과 수원지역의 경기는 크게 나아졌으며 1940년대가 되면서 화물과 여객증가에 고무되어 광궤화廣軌化 및 노선 개량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27] 이듬해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결실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수인선은 수원과 인천 간의 여객수송은 물론 각종 화물을 운송하게 되어 항도港都 인천과 내륙의 요충지인 수원 사이에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를 1일 생활권으로 압축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37년 개통 당시의 수인선 노선 및 정차장〉[28]

정차장명	구분	연장(㎞)	역간거리(㎞)
水原	정차장	0	0
古索	정차장	3.9	3.9
梧木	임시 정류장	5.8	1.9
漁川	정차장	10.7	4.9
野牧	임시 정류장	13.7	3.0
濱汀	임시 정류장	15.1	1.4
一里	정차장	20.1	4.9
城頭	임시 정류장	21.6	1.6
元谷	정차장	27.9	6.3
新吉	임시 정류장	29.2	1.3
君子	정차장	32.4	3.2
蘇萊	정차장	38.6	6.2
論峴	임시 정류장	41.5	2.9
南洞	정차장	42.4	0.9
文鶴	임시 정류장	45.8	3.4
松島	정차장	47.0	1.2
仁川港	정차장	52.0	5.0

26) 수원시, 『수원시사』, 1986, 1256~1257쪽.
27) 《매일신보》, 1940년 10월 4일자, 〈水仁線廣軌改替와 港驛改策新要望〉.
28) 『朝鮮總督府官報』, 제3168호(1937. 8. 6) : 견수찬, 앞의 논문, 927쪽, 〈표3〉 전재.

수인선은 해방 이후 1946년 5월 10일에 사설 철도 및 부대사업 일체에 대한 국유화 조치로 다른 사설 철도와 함께 국유화되었으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증기기관차가 객차 6량, 화물차 7량을 달고 수인선 15개 역을 하루 평균 7차례 운행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염전지대의 물량확대와 편리한 교통의 요구가 증대되자 이용객과 화물운송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졌다. 또한 자동차의 등장과 서울 중심으로 교통 흐름이 재편되면서 적자가 늘어나자 1973년 11월에 그때까지의 종착역인 남인천역이 문을 닫고 송도가 종착역이 되었다.

이어 당시 철도청은 1977년도부터 화물운송을 중단했으며 1979년엔 송도-남인천간 5.9㎞의 운행을 중단하였고 1983년부터는 운행 횟수를 1일 3회로 줄었다. 통과역 지위도 계속 낮아져 1955년에는 보통역 9개에 간이역 1개였지만 1985년엔 보통역 1개에 간이역 10개로 변경되었다.

이어 1992년 7월 소래역-송도역 운행이 끊기고, 수인선 복선전철화 계획이 구체화된 1994년 9월에는 한양대 안산캠퍼스-송도역 26.9㎞ 구간을 폐쇄하여 수원-한양대역까지 운행하다가 이마저도 다시 1995년 12월 31일 고별운행을 끝으로 폐선이 된다.

Ⅴ. 경동철도京東鐵道의 역사적 의의

경동철도의 중심은 수원이다. 수려선과 수인선의 연결로 인해 수원을 중심으로 동서東西 간 물적·인적 교류를 일으켰다. 이는 경부선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남북 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수원이 동서남북을 잇는 구심점 역할을 한 일대 사건이랄 수 있다.

물론 수인선 철도가 일제치하 식민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지역의 지하자원과 여주 · 이천지역의 미곡, 서해안 염전지대의 소금 등을 운송하기 위한 편의수단으로 건설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인선 협궤열차 마지막 운행 모습

또 경동철도의 건설로 인해 인천과 경부선 연변 각처에서 발착되는 화물을 영등포 또는 용산을 경유해서 우회 수송하던 종래의 불편과 불이익이 제거되는 한편, 인천의 상권 확립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경동철도 건설의 배경임에 틀림없다.

곧 수려선의 폐선은 여주·이천 지역의 미곡을 인천이나 수원으로 기차를

통해 더 이상 운송할 필요성이 없어졌음을 뜻한다. 날로 발전하는 도로교통과 인천항을 통해 미곡을 운송할 이유가 없어졌고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금도 수인선을 통해 운송할 필요가 없어졌다. 호남 및 충청 지역에서도 대량의 소금이 생산되었기 때문이다. 수려선과 마찬가지로 수인선의 기능 쇠퇴는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그에 따른 도로교통의 발달, 지역구조의 변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국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인선이 통과하는 지역은 대부분 낙후되었는데 설상가상 1977년 수원-인천 간 45번 국도의 포장완공은 수인선의 화물운송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면서 결정적인 폐선의 계기가 되었다.

경동철도가 일제의 전략적 필요성에 의해 건설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인 민초들과 그 역사를 함께 해왔으며 그 추억을 아직까지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내세우고 문화적 가치를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 또한 크다.

10여 년 전, 오늘날 차분히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역사와 문화가 서린 곳은 손에 꼽힐 정도다. 그래서 충분히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협궤열차를 경제적, 문화적 산물로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없애 버렸다는 시실이다. 이를 교훈삼아 문화적 가치가 충분한 유산은 각계각층의 연구나 토론을 거쳐서 잘 보존하는 것도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참고도서 및 논문〉

- 이창식「日帝下 水驪 · 水仁線의 鐵道考」,『畿甸文化』3, 畿甸鄕土文化硏究會, 1988.
- 이창식『일제강점기 민생실록 수원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수원문화원, 2003.
- 이진호「기전지방의 경인 · 경부철도사」,『기전문화』6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1989.
- 이심석「수인 · 수여선 철도경영에 대한 소고」,『한국철도』66 · 67, 철도청, 1971.
- 尹玉炅「水仁線 鐵道의 기능변화에 관한 연구」,『地理敎育論集』28, 서울대 지리교육과, 1992.
- 이승환 · 최기주「수원지역 철도교통수단의 확충방안 연구」,『아주대학교논문집』, 1995.
- 도도로키 히로시『수여선 철도의 성격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 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 甄洙燦「京東鐵道(水驪 · 水仁線)의 부설과 변천」,『인하사학』10집, 2002.
- 洪承疇「國鐵과 電鐵과 挾軌線의 요람 '水原驛'」,『한국철도』, 1985.
- 정재정「경부철도 부설에 나타난 일본의 한국침략 정책의 성격」,『한국사연구』44, 1984.
- 정재정『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조선총독부『조선철도사』, 1937.
- 이배용「독립협회 전후 일제의 이권강점」,『한국사』41.
- 鮮交會『朝鮮交通史』, 1986.
- 수원시『수원도시변천사』, 2004.
- 김경림「日帝下 朝鮮鐵道 12年 計劃線에 關한 硏究」,『經濟史學』12, 1988.
- 화성군사편찬위원회『화성군사』, 1990.

〈별첨자료〉

■별첨 1)

인천에서 수원을 거쳐 동해안 강원도 강릉에 이르는 횡단철도 부설 요망서

이유

1. 조선의 중앙지점에서 서해안부터 동해안을 관통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2. 영등포 ~ 수원간은 매년 홍수로 인해 철도 피해가 많아 교통운수상 불편이 적지 않아, 枝線부설이 가장 긴요함.
3. 경부 경의본선은 단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호경기가 될 때 물자수송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여 극단적으로는 소금값을 폭등시키고 또한 貨車 쟁탈전을 演出하는 등 지난해야 實例가 많이 있으며, 더구나 産米增殖이 실현되는 날이 되면 수송상의 불편이 한층 심해지므로 철도수송상의 결함은 무엇보다도 龍山을 중계하는데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경부선 안에서 미곡생산지에 대해 수송상 최적지위에 있는 水原으로부터 支線設置는 焦眉의 急務임이 인정된다.
4. 현재 京釜沿線으로부터 인천에 도착하는 화물은 穀類 중심으로 12만 7천톤에 이르고, 또 인천으로 발송되는 것은 소금 및 여러 잡화류 등 19만톤이다. 이들 화물수송에 곤란과 혼잡을 수원 ~ 인천간 直路지선의 부설로 완화시켜야 한다.
5. 소금 수급의 독립은 조선총독부가 열성적으로 노력해야 할 바이다. 專賣局 朱安出張所의 관리에 속하는 旣成 염전은 1,086町步에 이르고, 장래 증설될 蘇萊面 예정지 500여 町步를 합해 약 1,600정보에 달하게 될 때에는 1억 3천만斤을 생산하게 된다. 이것이 配給上 本路線의 신설을 가장 긴요한 일로 하게 하는 것이다.
6. 소금 需用은 경부선을 주로 하고, 현재 釜山 부근은 靑島鹽 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朱安 염전이 완성되면 당연히 官鹽 공급지가 된다. 또 동해안 어장에는 많은 소금을 신속히 공급해야 하는 실정인 바, 이것 역시 청도염 대신 관염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7. 강원도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산업발달이 늦은 바, 본 노선이 개통되면 곡류, 생우, 목재, 해산물 등 다수의 물자를 볼 수 있음은 명확하다.
8. 산미증식계획에 기초한 토지개량 면적은 충남, 경기, 평안, 황해 등 네 道가 총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 생산품이 다량 인천항에 집중되어 철도수송의 곤란이 생길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정조와 위항문학委巷文學
- 중인 시문학을 중심으로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 권 영 호

1. 들어가는 말

정조는 글쓰기를 좋아하였다. 봄나들이 때 경복궁은 물론 창덕궁이나 한양이 내려다보이는 인왕산의 세심대, 필운대를 찾아 신하들과 시를 짓곤 하였다. 이즈음, 불과 지척거리인 인왕산 북쪽에선 중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담소 나누며 시를 지어 주고받곤 하고, 남쪽에선 임금이 신하들과 연못에서 고기를 낚으며 시를 지어 풍류를 즐겼으니 그 시대를 머리로 그려 상상컨대 이는 시 문화 중흥의 엄청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런 연유를 살펴보면, 조선 전기부터 국가적인 행사 내지 연회석상 등에서 군신이 시문을 창화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현재 규장각에는 중복 편찬한 것을 제외하면 세조 · 성종 · 선조 연간 각1종, 영조 연간 19종, 정조 연간 35종 등이 남아있는데 정조의 것이 월등히 많다. 다른 임금

들보다 특히 정조대에 풍성한 시문학을 가져오게 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일단은 정조의 폭넓은 글의 세계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조선 중기를 거치면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국난을 겪어 국토는 황폐화 되고 국민은 도탄에 빠져 호구지책도 해결하지 못해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선조, 숙종,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사회가 점차 안정되고 생계수단의 여유를 찾게 되자 중인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하여 신분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이에 더불어 글쓰기는 사대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생활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중인들에게도 글 쓸 기회가 온 것이다.

골짜기 많기로 유명한 인왕산 기슭에는 중인 출신 지식인들이 모여 시를 지으며 서로 즐겼다. 경치가 수려하여 굽이굽이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들만의 서재를 짓고 이집 저집 돌아다니며 문학을 함께 하였다. 이들이 소위 '위항 시인'이다. 위항 시인들은 저마다 시사詩社라는 시문학 동인을 만들어 문학적 교우 관계를 넓혀 나가며 조선 중 · 후기에 위항문학의 꽃을 피웠다.

정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서재를 가졌다. 홍재弘齋라는 호에서 알 수 있듯이 세손 시절부터 자신의 서재에 편액을 걸고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는 홍재弘齋의 의미를 넓고 큰 서재의 뜻에서 나아가 증자曾子가 말하는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어 세상을 크게 보고 멀리 생각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싶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안에는 선정을 베풀기 위한 고뇌도 함께 담겨 있다할 것이다.

정조는 11살 때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켜본 비운의 아들로서 왕권을 이어 받았지만 그 과정이 반대파 노론의 끈질긴 모함으로 순탄하지 않았을 뿐더러 즉위하고서도 밤중에 습격을 받는 등 반대파들의 위협으로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다. 밤늦도록 책을 읽으며 정사를 보기도 하였다. 그런

연유에서 인지 정조는 여느 임금보다 술과 담배를 즐겼다. 정조의 주량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자신을 보러 다녀갔던 날에는 그 기쁨을 즐기기 위해 술을 하였는데 그 양이 홍로(증류주의 일종) 큰 병 하나였고 상당한 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않았다한다. 본인이 술을 즐길 줄 알았기 때문에 취기로 생기는 일은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는다" 불취무귀不醉無歸는 정조가 그만큼 술을 사랑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술이라는 윤활유를 사용해서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던 붕당 사이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정조는 술과 함께 담배도 좋아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사람의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였다.

정조는 가슴이 꽉 막히는 듯 한 느낌이 드는 울화병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를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여 약을 구해 먹어도 낫지 않았으나 오로지 담배 한 모금으로 막힌 가슴을 달래곤 하였다. 그런 정조였기에 담배를 장려하여 농민들이 벼농사보다 상품작물이 되는 담배농사에 치중하다 보니 지력이 약해지고 식량이 부족하게 되어 드디어 전국 각지에서 담배농사를 금해야한다는 상소문이 올라오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정조는 담배를 여러 가지 식물중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남령초'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렇듯 술과 담배를 좋아했던 이면의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애틋한 정과 반대파에 대한 무마 내지 분노의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정조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정情을 그리는 글이 별로 없다. 국왕으로서의 위엄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지만 노론을 의식했을는지도 모른다. 고독을 표현할 수 없었던 정조는 꿈이 담긴 수원 화성을 오가며 그 한을 달래곤 하였던 것 같다.

반면 중인들의 인왕산 시문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시사詩社의 그 기원은 중국 진晉 대의 왕희지의 난정시사蘭亭詩社로부터 고려시대 기

로회耆老會, 죽림고회竹林高會가 있었고, 조선시대 낙송루시사洛誦樓詩社, 자각시사紫閣詩社와 죽란시사竹蘭詩社, 연산군 때의 학시사鶴詩社를 거쳐 조선 중기 이후로 넘어와 옥계시사玉溪詩社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정조 대는 시와 글씨 못지않게 그림도 번성하였다. 글을 쓰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글을 썼다. 이들은 이웃에서 어울려 지냈는데 시 · 글씨 · 그림을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3절絕이라 불렀다. 삼절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같은 무렵에 실학파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실학파 중에서도 글 잘 쓰기로 이름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사대부 출신이었다.

사대부와 중인은 단절된 상태는 아니고 가끔은 같이 어울렸다. 중인시사 모임에 절친하거나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대부를 가끔 초대하기도 하였다. 인왕산 자락에 임금과 중인들의 시의 화음이 울려 퍼졌는데 그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인의 신분상승 노력이라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중인의 신분상승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단편적이나마 정조의 시와 문집 그리고 위항시인들의 모습, 그들이 만든 시모임인 시사詩社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위항문학과 인왕산

가. 위항문학

위항委巷 또는 여항閭巷이라 하는데 꼬불꼬불한 거리나 골목의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를 말한다. 양반은 마당이 넓은 집에 살았고 좁은 골목에 모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대부분은 중인계급 이하의 천민이 살았던 거처를 일컫는다.

조선 후기 서울을 중심으로 중인 이하 계층이 주도한 한문학 활동을 위항 또는 여항문학이라고도 하며 한문학은 양반 사대부들이 한자를 빌려 정서와 생활정서를 표현하는 상층 계층의 예술이라 하겠다. 18세기부터 중인 이하의 상인 · 천민까지 한문학 활동에 참여하고 19세기에는 시단의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된다. 위항시인들이 주축 되어 형성된 시사詩社는 16세기 중반이 그 시초이고 17세기의 준비기를 거쳐 18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위항문학을 통한 신분상승 운동으로까지 확산되니 이에 고무되어 위항문학운동은 절정에 이른다. 18세기 말 옥계시사玉溪詩社 일명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를 중심으로 전성기를 이루어 위항시인들의 정신적 지주 구실을 하다가 19세기 말 개항기에 육교시사六橋詩社에 이르러서는 개화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위항시인들은 시사詩社를 조직하고 공동시집을 발간하며 자기들만의 전기傳記를 만들어 중인 역사를 정리 · 요약하였다.

시사詩社는 17세기 말 숙종 대의 임준원林俊元, 이경연李景淵 등이 모여 살면서 돌아가며 시회詩會를 열어 시를 짓고 학문이나 덕행을 닦았다. 이들이 주축이 되어 오늘날 백일장에 해당하는 백전白戰이라는 시경연대회를 열었는데 수백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백전은 당시 위항문인들의 큰 잔치였으며 위항문학의 핵심이 되었다.

옥계시사의 중심인물이었던 박윤묵朴允默, 조수삼趙秀三 등은 19세기 중반까지 생존하여 다음 후배 시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이후 서원시사西園詩社, 비연시사斐然詩社, 직하시사稷下詩社 등으로 이어지는데 1870년 개항 직후

결성된 육교시사六橋詩社는 청계천 고가에 있는 일명 수표교水標橋의 별칭으로 청계천 하류에서 여섯 번째 다리라는 뜻으로 장소가 중인 계층의 집단 거주지인 청계천 고가 부근이다.

이들의 주도 인물들은 전대前代의 경아전京衙前이나 규장각의 서리書吏들이 중심이다. 나중에 재산을 많이 모은 기술 직종인 세칭 의역중인醫譯中人으로 대체되는데 맹주는 강위姜瑋 변진환邊晉桓, 백춘배白春培 등 다수이다. 전대의 시사들이 시인으로서 위항문학을 통한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면 육교시사에 이르러서는 북학北學의 종장 김정희金正喜 문하에서 성장한 의역중인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은 개화파로 부상하여 개항후 정국 변수로까지 작용하면서 개화정책 수행에 막후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동시집으로는 조선 중기 1660년(현종 1) 최기남崔奇南, 남응침南應琛, 정예남鄭禮男, 김효일金孝一, 최대립崔大立, 정남수鄭枏壽 등의 육가잡영六家雜詠과 이보다 한 단계 진전된 작품 모음집인 1712년(숙종 38)에 간행된 홍세태洪世泰의 해동유주海東遺珠이다.

해동유주는 김창협金昌協의 협조로 48가 230여 수의 시를 1책으로 묶은 공동시집으로 위항시집의 효시이다. 1737년(영조 13)에는 고시언高時彦에 의해 소대풍요昭代風謠가 간행되고 60년 후인 1797년(정조 21)에는 풍요속선風謠續選이 간행되었다. 옥계시사의 송석원이 중심이 되어 333명의 위항시인 시작품 723수를 운각활자芸閣活字를 사용하여 3책으로 간행하였다. 1844년(헌종 10)에는 조희룡趙熙龍에 의해 호산외기壺山外記가 간행되고 1857년(철종 8)에는 직하시사 주관으로 풍요삼선이 간행되었다.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은 18년 후인 1862년 직하시사 동인인 유재건이 284항목 308명의 위항시인 전기를 10권 3책으로 엮어낸 것이다.

18세기 이래로 위항문학은 서얼들의 신분상승을 통하여 중인 계층으로 새

롭게 부상하여 퇴색해가는 양반 사대부 문화를 대체하는 중인 문화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중인들은 갑오경장 국권상실의 격변기를 거쳐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서는 문화운동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나. 위항문학의 중심 인왕산

한양을 남촌과 북촌으로 나누면 그 중간지대인 청계천 일대가 위항이었으며 좁은 집이 모여 있던 누상동·누하동을 중심으로 한 인왕산 일대도 위항이었다. 청계천 일대는 재산이 넉넉한 중인들 역관이나 의원 또는 상인이 주로 살았으며 인왕산 주변에는 서리書吏나 아전衙前 등의 중인이 살았다. 조선시대 왕족과 양반 관료는 경복궁·창덕궁을 연결하는 직선 이북지역 즉 지금의 율곡로 계동·가회동·원서동·안국동의 북촌이 그들 거주 지역이었다.

인왕산은 경치도 좋아 한양의 명승지로 꼽힌다.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攷의 국도팔영國都八詠에는 필운대弼雲臺, 청풍계淸風溪, 반송지盤松池, 세검정洗劍亭이 포함되었으니 인왕산 자락의 명승지가 한양 명승지의 절반을 차지한다. 인왕산은 경치가 좋은 명승지면서 경복궁에서 가까운 주택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살았다. 명승지에 비해 이름난 정자가 적은 것은 임금이 사는 경복궁이 너무 가까워 높은 곳에서 궁궐을 내려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이 정궁이었던 조선 초기에는 경복궁 옆 동네에는 관청만 있을 뿐 주택은 많지 않았다. 안평대군의 별장인 무계정사가 인왕산에 있었지만 경복궁이 내려다보이지 않는 옆자락이었다. 그의 살림집은 시냇물 소리가 들린다는 뜻의 수성동水聲洞 기린교麒麟橋 부근에 따로 있었다.

유득공의 아들 유본예가 한양의 명승지와 동네를 소개한 한경지략漢京識略에 그와 관련한 기록이 있다. "수성동은 인왕산 기슭에 있는데 골짜기가 깊고 그윽하다. 물 근처 바위도 좋은 경치가 있어서 더울 때 소풍하기에 가장 좋다. 이 동네는 옛날 안평대군이 살던 집터라고 한다. 개울을 건너는 다리가 있는데 이름을 기린교라고 한다."

한편 골짜기가 많기로 유명한 인왕산 기슭에는 중인 출신 지식인들이 모여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다.

3. 중인계층의 신분상승 노력

사실 위항문학이 중인들끼리 어울려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소통의 장으로 그 폭을 넓혀갈 수 있었던 것은 중인 자신들의 신분상승 노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반 사대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학(글짓기)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중인 모임의 시사詩社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신분계층은 크게 양반 · 평민 · 천민으로 나뉘고 실제로 양반과 평민 사이에 중인이 있었다. 중인은 과거시험을 거쳐 선발한 전문직 관원이다. 양반은 승진할 때마다 다른 관청으로 옮겼기에 직업의 전문성이 약했지만 중인은 평생 한 직장 한 분야에서만 근무했기에 전문성이 강했다. 결국 해당 관청의 실무는 중인이 도맡아 처리하였다. 관청의 책임자는 중인의 실무능력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평가 받았다. 중인 관원을 선발하는 과거는

잡과雜科라 하여 천시하였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역譯, 의醫, 음양陰陽, 율律의 4과를 설치하고 합격자에게는 진사 수준의 백패白牌를 주었다. 그러나 진사 합격자에게 주는 백패는 국보國寶를 찍었지만 잡과 합격자에게 주는 백패는 예조인禮曹印만 찍어 기술직을 차별화하였다.

잡과에도 채택되지 않은 과목은 예조에서 취재取才하는 형식으로 선발했는데 의학 · 천문학 · 지리학 · 율학 · 산학 등을 전공한 기술관과 화원 · 악공 등의 예능인이 대상이었다. 중인은 그야말로 전 방위 지식인이었다. 중인은 비록 신분은 낮았지만 재산을 모은 사람이 꽤 많았다. 인왕산의 호걸 임준원은 한때 가난하여 내수사 서리로 취직하였지만 큰 재산을 모으자 곧 사임하고 가난한 중인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 문학 모임인 시사詩社를 결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있었기에 중인의 세력이 결집될 수 있었고 여러 대에 걸쳐 시사를 결성하여 문화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의 중인 신분은 좁은 의미의 중인으로 불리던 기술관 이외에 양반에서 탈락된 서얼庶孼 그리고 '이吏' 신분인 이서吏胥를 통칭한 것이다. 이 중에서 기술관과 서얼에 대하여서는 중서中庶를 같이 부르는 관례가 생겼는데 양반층의 일부에서는 이러한 중서의 병칭으로 말미암아 의역중인醫譯中人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자도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중인 이하에서는 의역중인을 가장 높은 계층으로 인식하여 그들을 가리켜 「하대부일등지인下大夫一等之人」으로 지칭하였다. 정조는 역관譯官에 대한 양반사대부들의 모멸적인 대우를 시정하라는 명을 내리고 의역중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나라의 풍속이 신분계층을 중시하고 양반중심이어서 선비가문 이외에는 의역醫譯이 그 다음이다. 사족이어야 경대부卿大夫가 되는데 사족이 아니면서 경대부의 자격이 있고 정옥頂玉을 달 수 있는 것은 의역중인 뿐이다.'

의역중인의 우대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킴으로써 의관醫官과 더불어 역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조는 중인배가 서학에 탐닉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중인 처지가 비양반非兩班 · 비상인非常人으로 중간에 처하여 있어 교화하기 어려운 존재로 파악하고 아울러 사부士夫도 상천常賤도 아니고 불우한 환경에 처하여 실지에 뜻을 두지 못하고 좀 재능이 있는 사람도 맡은바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망상을 갖고 새로운 것만 숭상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당시 선비의 신분인식의 한 예로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의 총론을 보면 ①양반 : 품관과 사대부 ②중인 : 서얼과 잡색인 ③하인 : 경외이서京外吏胥 및 노비의 세 계급으로 분류하고 그 안에서도 계층이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인의 범주에는 서얼과 잡색인이라 하여 기술관을 포함시키고 또한 경아전까지를 지칭한 듯하고 외아전外衙前은 경외이서京外吏胥라하여 하인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성균관 유생 중 한 사람은 사대부를 제일 위에 꼽고 그 다음에 의역중인 마지막으로 서리 · 도예徒隷 · 공사천公私賤을 한데 묶어 하인이라 하고 향리鄕吏 교생校生이 스스로 중인이라 하지만 하인일 뿐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중인계층에서는 후기에 이를수록 직업이 분화되고 상호간에 출입이 빈번하여 실제로 가업이 역관과 서리를 겸하는 예도 있었다.

서얼들의 허통운동許通運動1)이란 부계父系의 사대부 신분에서 허락되지 않으려는 상승에의 집념이고 그들에게 실제로 부여되는 중인 직에 떨어지지 않으려는 안간힘인 것이다. 신분상승 운동이 가장 활발하였던 서얼의 통청운동通淸運動2)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

1) 벼슬 진출을 허용하는 것.
2) 서얼의 문무핵심 관직 진출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

간리奸吏에 대한 계속되는 비판 속에서 상주 수사首史 이삼억李三億은 1728년(영조 4) 복호헌의復戶獻議[3]를 올려 서리의 녹봉을 내려주지 않는 것을 논하고 삼대 포상책의 하나인 복호復戶[4]를 베풀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그 방법으로는 주부州府 100결씩 토지를 배당하여 공비公費에 충당하게 해 달라하였다. 이 건의는 채택되어 다음해인 1792년 봄에 복호의 조치와 함께 향리 자손의 잡역을 면제받는 특전을 얻어내었다. 당시 중서배中庶輩들은 조상의 관직을 이어 받음으로써 신분의 상승을 꾀하였다. 따라서 남직濫職을 막으려는 당국의 노력이 계속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인층은 갖은 수단을 다하여 청현지직淸顯之職을 받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종국에는 시험을 치루는 관료를 벌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다.

아울러 중서인中庶人에 대한 관직을 넘겨주는 현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 시기에 와서 활발하게 신분상승운동을 벌인 것은 서얼이었다. 그들은 영조시대를 갱장更張의 시대로 파악하고 탕평책의 취지에 편승하여 자신들을 궁핍한 사람들로 자처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 예로 1724년 영조가 즉위한 직후 정진교鄭震僑 등 260여 명의 서얼 유상들은 정식 절차에 의한 그들의 상소 전달이 여의치 않자 왕의 행차를 틈타 나무 막대기에 궁인포원窮人抱寃이란 네 글자를 매달아 시위함으로써 왕의 주목을 끌기위한 계책을 쓰기도 하였다. 탕평책을 표방했던 영조는 이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그들의 요구에 호응하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명분론 위에 서 있던 사대부층이 이에 동조하지 않아 개중에는 왕의 면전이라 동조하는 척 하는 이도 있었으나 거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조판서 이주진李周

3) 향리들의 신분개선을 요구했던 상소를 모아 놓은 것.
4) 충신·효자·절부에게 호역을 면제하여 주는 일.

鎭 같은 인물은 동조의 정도를 넘어 적극적인 찬성론을 펴서 서얼뿐만 아니라 여항의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재능에 따라 등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에 불과하지만 사대부들의 공통된 경향이었고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벌 있는 서얼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내세우기도 하였다.

① 사대부와 똑같이 벼슬길을 열어 달라.

② 서자庶子가 있음에도 양자養子를 하는 관습을 고쳐 경국대전 원칙에 따라 달라.

③ 호부호형號父號兄하게 해달라.

이러한 구호는 뒤로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며 순조 때 이르러서는 청현직[5]을 목적으로 맹렬한 운동을 하게 된다. 지방 서얼의 관심사는 향안동록鄕案同錄과 향교에서의 서치序齒[6] 문제였다. 그것은 1772년(영조 48) 12월 경상도 서얼 유생 전성천全聖天 등 3000여 명의 상소로써 표면화되었다. 영조는 이들의 요구를 타당하다고 여겨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채제공蔡濟恭이 반대 의견을 펴고 영조는 불간섭하고자 하였으나 서얼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다음해인 1773년에는 경상도 업유인 황경헌黃景憲을 소두疏頭로 다시 상소하여 드디어 영조의 마음을 움직여 영조는 「허요불허청許要不許淸」이라는 인조 이래의 굳어진 관계를 깨고 성대중成大中 등 10여 명을 청직淸職에 임용하여 통칭의 문을 열어 놓았는데 대직臺職을 허통하는 선례를 남겨 그 후의에 작용하였다.

영조의 이 허통의 문제는 정조에게 과제가 넘어가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유업인 이 문제가 유명무실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

5) 관직의 품계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
6) 나이가 많고 적은 순서.

있다고 통탄하고 절목節目을 만들라고 하명했다. 이때에 이루어진 허통許通 조치가 1777년 3월의 이른바 정유절목丁酉節目이다.

이 절목은 모두 아홉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조에서 5조까지는 文·蔭·武 삼관에 있어 서용敍用의 상한선과 허통의 한계를 그 시대와 실정에 맞추어 세목화細目化한 것이고, 여섯째 항목은 서얼중의 유일遺逸에 대한 배려이며, 일곱째는 고착된 문벌을 기정사실로 맹문화함과 동시에 서얼에게도 본가의 문벌에 따라 차등을 두는 조치이며, 여덟째는 서얼이 강성해져서 적통嫡統을 넘보는 등의 명분을 부수는 소란을 막으려는 조치이며, 아홉째 조항은 지방 서얼에 대한 배려이나 오히려 그로인한 명분의 해이를 우려하여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정조는 감사監司와 수령들에게 지방의 서얼소통을 엄명함과 동시에 중앙의 각 해당 관서에도 임용을 촉구하였다. 서얼의 처지를 이해하고 궁인窮人으로서의 불청객이 됨을 우려하였다. 정조 사후 순조가 즉위하자 서얼의 허통許通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조판서 윤행임尹行恁은 갱장更張의 뜻에서 서얼의 막힌 뜻을 풀어야 할 것이라며 허통許通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하였다. 이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다가 꽤 오랜 시간이 경과된 1823년(순조 23) 7월 김희용金熙鏞을 소두疏頭로 한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해서 · 관동 등 육도六道 유생 상소로써 격렬하게 재연되었다. 그 상소는 전과 다를 바 없으나 요구사항은 더욱 심화되고 노력이 강성하여 그 전의 슬픈 상소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동원된 인원이 만 명에 육박하였다. 이에 위기를 느낀 성균관 유생은 스트라이크로 맞서 소회를 올리고 김희용金熙鏞 등의 상소문을 축조 비판함으로써 반론을 폈다.

반말하는 성균관 유생들에게까지 서얼들이 접근해 와서 달래고 어르고 위협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성균관 유생들은 그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

울 정도였다. 순조는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영의정 남공철南公轍에게 공론에 부치게 하였는데 의견을 피력한 관리들은 원칙적으론 찬성하는 경향이었고 회피는 하였으나 반론을 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찬성 반대의 다수의 의견을 묶었는데 결국 논의의 초점을 청현직淸顯職에 있음을 알았다. 실제 있어서 청현직은 고사하고 정유절목의 규정된 일반직도 허통되지 않고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순조는 위의 서얼의 주장과 논의를 종합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는바, 이때 이루어진 것이 1823년 11월 계미절목癸未節目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미절목癸未節目은 정유절목丁酉節目에 의거하여 허통許通의 문을 조금 넓히고 세분화한데 불과한 것이었다. 이 절목 역시 제도상의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다가 1827년(순조 27)에 순조가 다시 그 허통許通의 실현을 촉구했다. 그 이후에도 이 문제는 같은 행적을 되풀이 하면서 공전하다가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으로 제도상으로는 신분차별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지만 천시의 관념과 인습은 그대로 존속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허통의 과정에서 파생될 명분의 해이도 두려운 일이었겠지만 위정자로서 보다 긴박한 문제는 체제의 해체를 우려한 것이다.

영 · 정조 두 왕의 탕평책湯平策에 편승하여 거세게 일어난 서얼의 허통운동許通運動은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인권운동이라 볼 수는 없으며 양반(사대부) 신분에의 강열한 집념으로 상승하려는 노력에 불과하였으며 그 결과 제도상으로나마 그 문호를 넓혀 놓긴 하였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몇몇 문벌 있는 서얼에게만 국한되었고 그들이 소기한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지는 못하고 말았다.

4. 정조 시, 문집

정조는 군왕으로서 조선을 통치하였던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학문과 문학, 예술을 넘나들며 조선 문화의 부흥을 주도해 나갔던 인물이다. 그는 시문집의 간행을 명령하고 지시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군왕 스스로 각종 시문의 선발작업을 수행하고 또 서문을 지어 책의 취지와 성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군왕은 도서고금을 통해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

세손 시절부터 승하하기 직전까지 정조의 손에는 전적典籍들이 떠난 날이 없었다고 한다. 하루도 독서를 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신하들 보다 해박했다고 하니 과연 정조는 군왕이면서 동시에 학자이기도 하였다. 위로 「시경」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명 · 청시대의 시문과 정조 당대의 조선 문인들의 시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공식문자인 관각문자館閣文字에서 일반문인들의 시문, 심지어 당시 유행했던 패관소품문에 이르기까지 정조의 문학적 관심은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정조는 세손 시절부터 직접 각종 서적을 편찬하였으며 1784년(정조 8) 규장각 제도가 완성된 이후로는 규장각의 각신들을 동원하여 여러 종류의 시문 선집과 개인문집, 실기류 등을 지속적으로 편찬 · 간행하였다.

정조가 시문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은 문풍을 통해 세교世敎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풍의 변화를 통해 정치 · 사회 · 현실 역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정조의 직접 주도한 각종 서적의 편찬 · 간행이야말로 정조의 문화정책이 이루어 놓은 최고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규장각을 중심으로 편찬 · 간행한 서적은 납본 절차를 갖추고 수집된 자료와 서적을

규장각 각신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정조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 마땅히 우리나라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하여 중국을 능가하는 조선의 학술과 문화를 조선의 서적을 통해 집결하고자 하는 정조의 포부가 담겨있다. 정조의 개인문집 「홍재전서弘齋全書」에는 정조가 직·간접으로 간여하여 편찬했던 각종 서적의 서목과 해제가 실려 있는 「군서표기群書標記」가 들어 있다. 군서표기에는 어정서御定書와 명찬서命撰書 147종 2828권에 대한 해제가 실려 있는데 경經·사史·자子·집集에 걸쳐 고루 수록되어서 학문 전 분야에서 편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조는 "나는 젊어서부터 몹시 시를 좋아하여 위로는 「시경」 삼백편에서 시작하여 아래로는 송·명의 여러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울타리를 엿보고 그 정수를 엮고자 하였다." 정조는 이 말과 같이 그 관심을 실천하여 실제로 중국 역대의 시를 선발한 시집을 연찬하기에 이른다. 1792년(정조 16) 정조는 「시경」의 「국풍國風」으로부터 명의 전후칠자前後七子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명시名時를 집대성하여 560권의 방대한 책 「시관詩觀」을 완성하였다. 중국 역대 명시名詩의 전집 「시관」을 통해 먼저 중국시의 집대성을 마련한 정조는 여기서 나아가 중국의 시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전범이 되는 시인을 선정하고 그 시인의 시 가운데서 다시 정수精髓를 선발하는 시선집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두보杜甫와 육유陸游의 시선집, 두율분운杜律分韻, 육율분운陸律分韻, 두륙분운杜陸分韻, 두륙천선杜陸千選이 그 예이다.

정조는 "율시를 취한 다음에야 시의 온전한 본체를 볼 수 있고 운을 나눈 다음에야 시의 실제 쓰임을 찾을 수 있고 법을 알게 된 다음에야 시의 참된 요체를 상세히 할 수 있다."하고 하였다. 요컨대 율시의 운을 통해 시의 요체를 배울 수 있고 율시의 압권인 두보율시의 성운을 통해 시의 정도正道를

배울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다. 당의 두보의 율시 송의 육유의 율시는 곧 율가律家의 대장大匠이다. 정조는 시의 내용과 형식을 모두 완비한 두보와 육유의 시를 모범으로 삼아 명 · 청의 문예사조에 영향을 받아 점점 쇄진하여 가는 당대 시풍을 교정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조대 이전까지는 시작時作의 모범으론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육유를 두보와 나란히 중시함으로써 조선후기 시단의 육유입두陸由入杜의 학습절차를 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정조는 중국 시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시를 선발한 조선시선집도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래서 정조는 옛사람의 문장을 가려 뽑는 것은 가장 어렵다하고, 음조와 시격을 위주로 뽑으면 시의 사정을 놓쳐 버리기 쉽고 시의 사정을 위주로 하면 음조와 시격을 놓치기 쉽다 하였다. 정조가 한시체 중에서 율시, 율시 중에서 특히 칠언율시를 시의 정화로 여겼음은 이미 두보와 육유의 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오언보다는 칠언절구에 능한 우리나라 한시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선 시집은 정조가 조선 초부터 뽑은 것이 아니라 박은에서 시작하여 김창흡까지 선발하였다는 점이다.

조선의 한시는 성종 연간 황정견 진사도를 배운 박은 등의 해동강 서시파를 거치고 이어 해동서시파에 반발하여 당풍을 일으키고 삼당시인三唐時人을 거치고 다시 당풍의 폐혜로 나타난 의고주의擬古主義를 비판하여 송시풍으로 전환한 김창협, 김창흡 형제를 거치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렀음을 율영[7]은 보여주고 있다.

---

7) 율영 : 당·송·명·조선의 칠언율시를 뽑아 한시대 마다 각각 한편으로 만든 선집으로 총 79인을 선발하였다.

정조의 시선집 편찬에는 군주로서 시교詩敎를 강조하는 입장이 일관되게 표명되었지만 그 속에는 조선뿐 아니라 중국까지 아우르는 한시 문학의 집대성을 향한 포부와 열망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정조는 일련의 관각문 선집을 체계적으로 편찬 · 간행함과 더불어 문인들의 개인적인 글쓰기에 모범이 될 만한 문장선집 또한 편집 · 간행하였다. 「사기」와 「한서」 당송 팔대가의 문장이 다투어 문장론의 관점에서 거론되고 창작의 준칙이 되었다.

정조는 조선의 시인 가운데 박은을 가장 좋아하였는데 그 이유는 정조가 생각하는 시의 모범에 동방의 시성詩聖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미 허균이나 김창협 등도 중국의 강서시파江西詩派를 배우되 당풍 唐風을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박은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박은을 당인의 정경情境과 송인의 사실을 겸비하였던 점, 두보의 시를 가장 잘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조를 박은의 시가 보여주는 '종일縱逸', '천성天成' 이야말로 정성正聲 바로 치세治世의 화평한 시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조는 중국 역대의 시 문학을 섭렵하여 선집을 편찬 · 간행을 직접 주도하였다. 아마도 정조는 중국 명시의 바탕 위에 조선시의 전개를 이어나가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규장각에는 갱재축賡載軸, 연운축聯韻軸 등이 다수 남아있다. 국가적인 공식행사 내지 연회석상 등에서 군신이 시문을 창화唱和하는 것은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시문은 대부분 조선 후기의 것인 바, 특히 영 · 정조 연간에 이루어진 시축 · 시첩 중에서 같은 행사에서 작성된 시문을 중복 편찬한 것을 제외하면 정조대의 것이 단연 많다. 이는 정조가 시문쓰기 특히 신하들과 어울려서 시 짓기를 좋아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열성어제列聖御製와 개인문집에는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거나 신하가 지어

올린 시문 또는 신하가 올린 시문을 보고 지은 임금의 창화 시문이 실려 있어 군신 간의 창화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갱재축에 수록된 시문을 살펴보면 정조가 1781년(정조 5)부터 1795년(정조 19)까지 국가의 중요행사를 거행하면서 지은 어제시 및 악장과 연구聯句 제신諸臣들이 갱진賡進한 시편과 연구 등을 모아 1795년 9월에 간행하였는바, 총 3책으로 제1책은 정조의 어제시가 주로 수록되고 제2책은 내원內苑과 세심대洗心臺에서 신하들과 수창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제3책에는 1795년 윤2월에 화성에서 자궁慈宮인 혜경궁 홍씨의 주갑연周甲宴을 열 때 지은 어제시와 악장樂章 제신들의 갱진시 등이 실려 있다. 「화성봉수당진찬갱재축乙卯」는 화성 봉수당에서 진찬연을 베풀 때에 지은 정조의 악장과 어제시로 현재 수원화성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정조 연간의 군신이 창화한 시문도서는 보감찬집청갱재축寶鑑纂輯廳賡載軸 36건에 이른다. 여기에는 정조의 어제시 1수와 서명응徐命膺, 이복원李福源 등의 15수가 실려 있는 군신화창의 시로 이 중에서 정조와 이복원의 시를 보면,

列朝盛德事 彘煥可能忘 열조성덕사 위환가능망
縱有名山秘 惟憑寶鑑詳 종유명산비 유빙보감상
諸臣摸日月 小子寓羹牆 제신모일월 소자우양장
一統書成後 治謨萬世長 일통서성후 치모만세장

열성의 성덕에 관한 일이
우뚝히 빛나니 잊을 수 있으랴
명산에 비장한 실록이 있더라도
오직 보감을 의지하여 상세해지네

제신들은 선왕 모습을 더듬어 찾고
소자는 선왕 그리는 마음을 깃들이네
일통의 책이 이루어진 뒤에는
치도가 만세토록 영구하리라

穆穆吾王孝　先休懼遠志　목목오왕효 선휴구원지
事如今日待　文始十有詳　사여금일대 문시십유상
寶牒徵姬籙　奎章仰舜牆　보첩징희록 규장앙순장
書成仍獻祝　於萬簡編長　서성잉헌축 어만간편장

공경스런 우리 임금 효성이여
선대의 아름다움 멀어지면 잊을까 저어했네
사업은 오늘을 기다렸던 듯
문장은 비로소 십조를 상세하게 했네
보첩으로 선대의 족보를 징험하고
규장으로 선조를 추모하여 우러르네
보감이 완성되어 축수를 올리나니
만년토록 서적은 장구하리라

정조는 열성의 성덕을 기록한 도서 중에서 실록이있지만 비장되어 있어 살펴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조보감國朝寶鑑」을 의지할 뿐이라고 한 뒤 여러 신하들이 보감을 찬집하여 올리니 치도가 만세토록 영구해지리라고 하였다. 이복원은 선조를 사모하는 정조의 효심을 기린 뒤 이제 「국조보감」이 완성되어 선원세보璿源世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열성의 성덕을 기록한 이 책

은 만년토록 전해질 것이라고 하였다.

태학은배시집太學恩杯詩集은 정조가 1798년 성균관에 은배를 하사하자 태학생 249명과 조신朝臣 33명의 응제시를 모아 1799년에 간행한 책이다. 학자를 우대하고 학문을 진작시키려는 정조의 의도를 엿볼 수 있고 또한 태학생 및 제신들의 응제시를 통하여 그들의 시문 역량과 포부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응제시는 대부분 은배를 내려 학문 장려와 학자 양성에 진력하는 임금을 칭송하는 한편 임금의 큰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는데, 서상사생西上舍生 이운영李運英의 칠언절구와 검교대교檢校待敎 이존수李存秀의 시경체 사언고시四言古詩를 차례로 본다.

盛事先朝留魯泮 隆恩今日頌周詩 성사선조유노반 융은금일송주시
盈盈瀉出黃封酒 恭祝吾王萬壽巵 영영사출황봉주 공축오왕만수치

선조의 성대한일 반궁에 머물더니
오늘날 은택내려 주시를 칭송하네
황봉주를 찰랑찰랑 따라서 내려주니
우리 임금 만수하길 공손히 경축하네

樂彼之泮 藹藹吉士 或肆之筵 或授之簋 낙피지반 알알길사 혹사지연 혹수지간
何錫予之 恩杯輝煌 金玉其彩 追琢其章 하석여지 은배휘황 그옥기채 추탁기장
其刻維何 鹿鳴之詩 宜言飮酒 備言宴私 기각유하 녹명지시 의언음주 비언연사
躍魚飛鳶 于天于淵 遐不作人 君子萬年 약어비연 우천우연 하부작인 군자만년

즐겁도다 반궁이여 무수한 선비로다

잔치도 베푸시고 제기도 하사하셨네

무엇을 주셨는가 찬란한 은배로다

금옥을 꾸미시고 문장을 새기셨네

무엇을 새겼는가 녹명의 시편이네

술병을 내리시고 잔치를 베푸셨네

물고기와 솔개는 하늘과 연못에 있네

인재 양성 아니하면 군자가 만수하리오

이운영李運英은 태종 · 세종 · 효종이 태학에 갑匣 백준白樽 · 화종畵鍾 등을 하사하였던 고사를 본받아 은배를 하사한 성덕을 칭송하고 임금의 만수무강을 축수하였고 이존수李存秀는 녹명鹿鳴의 '아유가빈我有嘉賓'을 은배에 새겨 성균관에 하사한 임금의 성덕을 기리는 한편 작인지화作人之化 곧 인재 양성을 중요정책으로 삼은 정조의 치적을 칭송하였다.

군신창화 시문은 일차적으로 군신의 문학적 소양은 물론이고 당대의 정치적 상황, 각종 의식의 진행 및 출판 등의 문화적 상황 등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군신이 특정한 행사에서 지은 다양한 시문을 통하여 집단적인 문학의 창작 향유 내지 공통의 지향점을 파악할 수 있다.

군신이 국가적 행사나 화합 등의 행사에서 지은 시문들은 대부분 임금의 성덕을 기리거나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런 경향으로 주제나 형식적 측면에서 문학적 의미가 없다고 폄하할 수도 있으나 당시의 시문을 제작한 문인들 대부분이 그 시대의 최고의 운사이거나 국정 운영자로 그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국가적 행사에서 시문을 짓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지은 시문들은 문화사적인 면과 관각학문이라는 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조 연간의 시축 3종의 '내원상화內苑賞花'는 단순히 군신 간의 우의를 다지는 행사가 아니라 문치文治를 지향하고 문치가 융성한 현실에 대한 자부심을 극도로 표현한 것이다. 1779년 3월에 꽃구경과 낚시자리를 베풀자 서명응徐命膺은 "송나라의 조정에서는 문치가 매우 성대하여 꽃구경을 하거나 낚시할 때 가까운 신하들을 인접하고 조용히 대접하였는데 오늘의 일도 또한 이 예禮를 모방한 것"이라고 진언하였다. 다음은 홍재전서에 실린 정조의 시와 군신간에 주고받은 시 몇 편을 전재한다.

성城을 순시하고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에 이르러 활을 쏘아서 무武를 숭상하는 뜻을 보인다. 내가 마침 세 번 정곡을 맞혔는데, 내사內使와 외사外使도 각각 그와 같았으므로, 셋째 구절에서 주례周禮 오사五射의 전주箋註를 인용하여 사실을 기록하다.

歷遍春城日未斜	춘성을 두루 보고도 해가 아직 한창이라
小亭雲物轉晴佳	소정의 풍경은 한결 더 맑고 아름다운데
鑾旂慣報參連妙	난기가 계속 삼련[8]의 적중함을 보고하니
萬柳陰中簇似花	수많은 버들 그늘 속에 살촉이 꽃 같구려

채좌성蔡左相이 화성華城에서 지은 병진축丙辰軸의 시운詩韻에 화답하다.

---

8) 삼련(參連) : 『주례(周禮)』 지관(地官) 보씨(保氏)의 오사(五射) 가운데 하나로서, 화살 하나를 먼저 쏘고 그 후 화살 셋을 연해서 쏘는 것을 말한다.

駐轡臺前路　지지대 앞에 말고삐를 멈추고
迢迢望華陰　멀리 화성의 북쪽을 바라보니
稻秔千畝闊　벼 논은 일천 이랑이 열려 있고
桑柘萬家深　뽕나무 아랜 일만 가호가 깊구나
已見城爲鐵　성은 철벽같음을 이미 보았는데
思聞俗讓金　풍속은 돈을 서로 사양한다 하네
先王富敎意　선왕의 백성 부케 하고 가르친 뜻
一曲想薰琴　훈풍금[9] 한 곡조를 생각하노라

위는 '지지대遲遲臺에서 화성을 바라보다' 는 시운이다.

화성華城의 장대將臺에서 성 안의 군사 훈련을 친히 사열하고 시를 지어 문미門楣 위에 제題하다.

拱護斯爲重　나라를 지켜 보호함이 중한 것이라
經營不費勞　경영엔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다오
城從平地迥　성은 평지로부터 아득히 멀고
臺倚遠天高　대는 먼 하늘 의지해 높기도 하여라
萬堞規模壯　오만 방패들은 규모가 장대하고
三軍意氣豪　삼군은 의기가 대단히 호쾌하도다

---

9) 훈풍금(薰風琴) : 순(舜) 임금이 처음으로 오현금(五絃琴)을 만들어 타면서 남풍시(南風詩)를 지어 노래했는데, 그 시에 "남풍의 훈훈함이여, 우리 백성의 노염을 풀 만하도다. 남풍이 제때에 불어옴이여, 우리 백성의 재물이 풍부하리로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 한데서 온 말이다.

大風歌一奏　대풍가 한 곡조를 연주하고 나니
紅日在鱗袍　붉은 아침 햇살이 인포에 비추이누나

春日遲遲上北臺　봄날에 더디더디 북쪽 대를 오르노니
此行非是趁花開　이 길이 꽃 핀 경치 찾아온 게 아니라오
新詩更續觀華曲　새로운 시 지어서 관화곡을 다시 잇고
萬歲長斟萬壽杯　만세토록 길이 만세의 술잔 따르리라

미륵현彌勒峴이 화성華城의 경계가 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현륭원顯隆園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이면 고개 위에 올라서 오래도록 현륭원을 바로 보며 선뜻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부인府人들이 돌을 모아 그 곳에 대臺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길에 보니, 그 대를 지지遲遲라 하였으므로 첫 구절에서 그것을 언급하였고, 자궁慈宮께서 화성에 행행하셨을 때 진찬進饌하는 날의 악장樂章에 관화곡이 있었으므로 맨 아래 구절에서 또한 그것을 언급하였다.

자궁慈宮의 60회 탄신誕辰에 축수의 잔을 올리고, 삼가 기쁨을 기록하는 정성을 서술하여 이 자리에 참예한 여러 빈객들에게 보이다.을묘년

吾東初有慶　우리 동방에 처음으로 경사 있어
花甲萬年觴　회갑일에 만세의 축수 올리노니
是日虹流屆　이 날 자궁께서 탄강하시었기에
如雲燕賀張　구름처럼 모여 축하를 펼치도다
含飴長樂殿　장락전에선 손자들과 벗을 삼고
被管老萊章　노래자의 효행은 피리에 올렸네

觀華仍餘祝　화성 땅 구경하고 넘치는 축복 속에
覃恩曁八方　깊은 은혜가 팔방에 미치는구나

皇皇瞿瞿更依依　놀라 허둥지둥하고 또 다시 사모하여라
若覿如聞未忍歸　보인 듯 들린 듯 하여 차마 못 돌아가겠네
岨矣高山天與宅　우뚝하여라 높은 산은 하늘이 내린 집이요
怳然原廟月遊衣　어슴푸레 원묘에선 달마다 의관을 내온 듯
煙花袍笏羅千嶂　화려한 경치 일천 산은 포홀이 늘어섰는 듯
鏘鑰金楊冠兩畿　금성탕지 요새는 경기 좌우의 으뜸이로다
歷騁霸陵還有意　패릉을 달려갔다 와서 또 뜻한 것이 있어
城隍少駐六龍飛　육마의 어가를 성황당에 잠시 멈추었노라

위는 '어가가 홍범洪範, 봉조鳳鳥 등 여러 산을 순행하고 밤에 화성華城의 행궁行宮으로 돌아오다' 는 시운에 화답한 것이다.

新豊樓下路逶遲　신풍루 아래는 길이 꼬불꼬불 더디어라
爲誦南來北望詩　남녘서 북녘 바라보는 시를 외워나 보자
長樂鐘聲和不遠　장락궁 종소리가 알건대 멀지 않으니
那堪回首寢園辭　머리 돌려 침원을 어이 하직한단 말인가

이십일 일이 어느 날이던고. 와서 초상肖像을 참배하고 젖은 이슬을 밟아보니, 어버이 사모하는 정이 더욱 간절하였다. 화성華城에 돌아와서는 비 때문에 어가御駕를 멈추었는데, 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이 마음에 맞아 앉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나 지지대遲遲臺에서 머물렀

다. 구불구불 길을 가는 도중에 어버이 생각이 계속 마음에 맺히어 오랫동안 그 곳을 바라보면서 일률一律의 시로 느낌을 기록하다.

晨昏不盡慕	혼정 신성[10]의 사모함 다하지 못하여
此日又華城	이 날에 또 화성을 찾아와 보니
霩霖寢園雨	침원엔 가랑비 부슬부슬 내리고
徘徊齋殿情	재전에선 방황하는 마음이로다
若爲三夜宿	사흘 밤을 견디기는 어려웠으나
猶有七分成	그래도 초상 한 폭은 이루었다오
穚首遲遲路	지지대 길에서 머리 들고 바라보니
梧雲望裏生	바라보는 속에 오운이 일어나누나

5. 위항문학 모임詩社

위항문학은 1712년(숙종 38) 창랑滄浪 홍세태洪世泰가 『해동유주海東遺珠』라는 최초의 위항시집을 발간할 때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의 도움이 컸는데 그 이후 속속 배출된 위항시인 대부분들도 사대부들과 친교를 원했고 시를 지어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숙식을 같이 하면서까지 사대부에게 가까이에서

10) 혼정 신성(昏定晨省) : 저녁이면 어버이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새벽이면 어버이에게 문안드리는 것을 이른 말이다.

시를 배우기도 하였다. 그만큼 사대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시사詩社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동인 모임으로 중국 진晉 대 왕희지王羲之의 난정시사蘭亭詩社를 기원으로 고려와 조선 16세기를 거쳐 정조대에 옥계시사를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시기적으로는 욕가잡영 1660년(현종 1)이 먼저요 그 다음 홍세태(1653~1725)의 염곡칠가 조희룡趙熙龍(1781~1866)이 주축이 된 벽오사, 옥계시사 1786년(정조 10) 그리고 정조 이후의 직하시사 1857년(철종 8) 순이다.

가. 옥계시사玉溪詩社

옥계시사는 1786년(정조 10) 천수경千壽慶(1758~1818)이 중심이 된 문인들의 모임이다. 중인계층들이 인왕산 아래 옥류동玉流洞의 송석원에서 결성하였다 하여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라고도 한다. 글을 좋아하는 정조의 문풍진흥책과 시대사조에 힘입어 생겨난 시회詩會로써 정조에서 순조 초에 걸쳐 위항문학의 중심이 되었다.

사대부문학이 중심을 이루던 조선사회에 중인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위항문학(또는 여항문학)이 등장하여 문학활동의 집결체 구실을 한 것이 바로 옥계시사이다. 옥계시사의 주요 인물로는 맹주인, 천수경을 위시하여 장혼張混, 김낙서金洛書, 왕태王太, 조수삼趙秀三, 차좌일車佐一, 박윤묵朴允默 등이다. 그들은 매일같이 천수경의 거처인 송석원에 모여 시문을 즐겼다. 당시 서울 서쪽 금교 입구金橋入口에서 서북으로 몇 리가면 옥류계玉流溪가 흐르고 곧이어 인왕산인데 이 옥류계 부근이 이른바 옥류동이라 약칭하였다. 당시 이 일대는 이서吏胥계층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풍농월吟風弄月을 일삼

는 한 무리의 풍류객들이 옥류계의 물가에 모여 살고 있었으니 그들이 옥계시사의 일원이었다. 이 부근의 서대西臺(필운대弼雲臺)에는 이미 40여 년 전에 이정린李廷麟의 적취원積翠園이 있어 서원풍류西園風流의 찬란함이 있었으므로 그 유풍을 받아 옥계시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천수경은 송석도인松石道人이라 스스로 칭하고 옥류계 꼭대기에 초옥草屋을 짓고 문인재자文人才子와 더불어 일석성회日夕盛會하여 시를 읊고 주고받으며 옥계사의 맹주가 되었다. 인왕산 아래 서촌西村에 있다하여 서사西社, 서원시사西園詩社라고도 부른다. 그의 취미가 화초 가꾸는 것으로 특히 도행난국桃杏蘭菊을 사랑하였고 네 계절 푸르고 변치 않는 청솔과 바위가 좋아 송석松石이라 불렀다 한다. 송석원이라는 편액을 추사 김정희金正喜의 친필로 받아 걸고 그 옆에는 우혜천又惠泉이라는 샘이 있어서 그들 시우詩友의 즐거움을 더하였는데 이 샘 이름 역시 추사에게서 유래하였다 한다.

송석원의 이웃에는 장혼張混의 이이엄而已广이 있었는데 자호自號이기도 한 이이엄은 한유韓愈의 시에서 취했다고 한다. 자신이 15~16세부터 노닐던 옥계 위에 드디어 이사와 살게 되어 그 참회를 되새기며 시로 읊기도 하였다. 이이엄의 맞은편에는 수리數里 왕태王太의 옥반산방玉磐山房이 있었는데 옥계에 걸린 반磐(고악기의 일종)과 같아서 옥반산방이라 이름 지었다 한다. 이외에 호고재好古齋 김낙서金洛書, 일섭원日涉園 창재敞齋 이경연李景淵의 옥계정사玉溪精社도 이웃에 있었다. 이들 외에 금리錦里 이의수李宜秀, 목헌睦軒 김태욱金泰郁, 화화방畵畵舫 노윤적盧允迪 등의 중요한 구성원들도 여기 와서 조촐하게 즐겼고 여기 참가자들은 수백인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들은 신분과 거주지, 취미가 같고 또한 나이가 비슷하여 물 좋고 풍류를 기약하며 동참하였다.

병오년(1786년) 장혼이 선창하여 위세 큰 모임은 오래지 못하나 오로지 문학으로 만남만이 영세할 수 있다고 서두를 시작하여 결사의식을 갖고 글

로써 맹서하여 수계첩修稧帖을 만들어 옥계의 물가에서 문文으로 맺되 덕德으로 규범을 삼는다 하였다. 그 후 1793년(정조 17) 천수경에 의하여 보다 활기를 띄우는 송석아회松石雅會를 열게 되어 활발한 시문학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시사의 결성은 옥계사 위로 속출되는 수많은 위항시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옥계사의 시우詩友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뒤 홀로 1849년(헌종 15)까지 살아남아 전설상의 인물로 대접 받은 옥계사의 막내 존재 박윤목은 나중에 여러 시사의 초청을 받으며 지나간 날의 옥계사의 시편과 망우亡友들과의 추억을 시에 붙이고 이미 쇠퇴한 송석원을 안타까워하면서 지난 한 시대의 번창했던 선인들의 시정을 되새기는 시들을 많이 남겼다. 특히 그의 칠현도도시七賢悼悼詩는 옥계사의 핵심 맴버를 한 사람 한 사람 추모하여 개개인의 풍모風貌를 시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각시에 나타난 시인의 상징적 모습과 시인 평을 곁들여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송석원松石園 천수경千壽慶

高臥山頭五十春 松資石骨極淸新 고와산두오십춘 송자석골극청신
滿園花竹知何限 西社風流作主人 만원화죽지하한 서사풍류작주인

인왕산 꼭지에 은거 오십년
그 모습 솔바위 닮아 청신을 주했네
뜰엔 화죽 가득 가이없고
서사 풍류의 주인 되었네

천수경은 호고애시好古愛詩 했다하며 농공가農工賈의 어려운 길에서 글 읽는 길을 택하여 독학으로 뜻을 품었으나, 헛되이 늙어가며 글방의 선생을 업으로 삼은 위항지사委巷之士로서의 풍모를 칭찬하였다.

호고재好古齋 김낙서金洛書

五車勸學已成家 久仰詞壇亦燄斜 오차권학이성가 구앙사단역치사
詩問詩魂何處是 黃泉無路寄悲歌 시문시혼하처시 황천무로기비가

다섯 수레의 무적 섭렵하여 일가 이루어
사단의 앙모 오래더니 그 기치 기울었네
시혼 어드매 있는지 물으려해도
황천 가는 길 아지 못해 슬픈 노래 부치네

김낙서는 규장각 서리이며 옥계시사의 고풍스런 노인으로 불렸다. 그의 자호 호고재에서 알 수 있듯이 고행古行, 고심古心, 고모古貌하였고 문장도 옛시를 즐겼다 한다. 당대의 문장이었던 연천淵泉 홍석주洪奭周는 그의 문장은 생각이 깊어 원망스럽지 않고 한가롭게 지내면서도 거칠지 않았다고 평하였다.

이이엄而已广 장혼張混

搜羅千古在心胸 揮塵高談若有鋒 수라천고재심흉 휘진고담약유봉
居室行裏皆帶筆 十年無日不詩宗 거실행리개대필 십년무일불시종

가슴엔 천고를 그득 품고

티끌헤처 쏟는 고담 칼날과 같네

거실엔 행리마다 붓 매달고

십년 세월 빠짐없이 시종되었네

장혼은 규장각 서리로 연천 홍석주, 풍고 김조순, 추사 김정희 등 당대 문사들이 그의 학식을 알고 잘 대접하였다한다. 특히 연천과는 조선祖先 4대에 걸친 연분으로 더욱 친밀하였는데 그 장혼에게 보낸 답서에서 "자네의 글은 시에 가장 장長한데 시 중에서도 사언고체四言古體에 더욱 장하여 위진오언魏晉五言을 품고 있는 것 같네… 자네의 시를 금세의 시가 아닐세"라고 평하였다. 그의 전기에서는 경사자집經史子集 사부서四部事에 널리 통하고 좋은 시를 썼기에 그의 시가 한번 나오면 다투어 서로 전하면서 읽혀졌다고 고인古人의 시풍을 전하고 있다.

또한 규장각 정조의 문체반정文體反正의 표적이던 패관소설稗官小說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하며 「수허전을 읽고」라는 독후감에서 "나는 평소에 패관전기를 즐기지 않아서 쉰일곱이 되도록 「삼국지」 등 몇몇 외엔 보지 못했다."고 스스로 패관소설류를 배척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금리錦里 이의수李宜秀

玉燭新書括古今 靑燈編校幾年深 옥촉신서괄고금 청등편교기년심

天門如海終難進 蓬篳誰知愛戴心 천문여해종난진 봉필수지애대심

고금신서 옥촉에 읽고

청등에 편교하기 그 몇 년이던가

천문에 바다 같아 끝내 나아가기 어렵고

가난한 이 마음에 실은 사랑 뉘라서 알리오

수헌睡軒 김태욱金泰郁

但愛金樽有酒多 醉餘痛哭又長歌 단애금존유주다 취여통곡우장가

白楊荒草春秋奠 爭似生前一區羅 백양황초춘추전 쟁사생전일구라

아끼는 건 금촌에 가득한 술뿐

취해 통곡하며 긴 노래 한가락

봄 가을 알리는 백양 황초

살아생전 한 구비 비단폭 이루려는 듯 싶네

수리數里 왕태王太

弓劍南華痛哭餘 塩西學束書約 궁검남화통곡여 염서학속서약

白頭短褐歸來日 依舊靑山一草廬 백두단갈귀래일 의구청산일초려

남녘의 무관은 통곡한 나머지

보잘 것 없는 음식으로 서학에 책 묶어 제사지냈네

흰머리 짧은 옷으로 돌아오던 날

청산에 두고 간 초가는 옛과 같네

왕태는 승국묘예勝國苗裔(고구려 왕조의 후손)라고는 하지만 매주가賣酒家의 술 심부름꾼으로 천인신분에 가까웠다. 생업 틈틈이 글공부를 하여 시로써 이름이 알려지고 특히 모시집구毛詩集句 한편에 강개비분慷慨悲憤을 토로하였다.

화화방畵畵舫 노윤적盧允迪

詩家自是有天材　慧思精情汩汩來　시가자시유천재　혜사정정율율래
操紙立成如影響　蕭君刻燭不須催　조지입성여영향　소군각촉불수최

시인이란 스스로 하늘이 내린 재목
혜사 정정이 물 흐르듯 하네
종이 잡고 시 한수 메아리 같아
각촉하여 재촉할 것 없네

박윤묵朴允默

규장각 서리로 정조의 총애를 받았으며 김조순金祖淳, 서준보徐俊輔, 윤정현尹定鉉, 박기수朴綺壽 등 사대부들이 학식을 미리 알고 잘 대우해 주었다. 아담한 시문과 속진俗塵을 뛰어넘는 서법으로 높이 평가 받았다. 평생 시를 좋아하며 60년 동안 한결 같았다. 참되고 정성스러우며 과장이 없어 한마디로 공자가 시경을 논평한 이른바 사무사思無邪의 경지에 다다랐으니 사람됨을 알 수 있다고 극찬하였다.

차좌일車佐一

선인간宣仁間의 송도삼절松都三絕 중 한 사람인 차천로車天輅의 후예로 가장 가벌家閥이 좋았다. 비분과 고뇌를 시로 풀었으며 시집으로 사명자시집四名子詩集이 전한다.

옥계시사의 시모임은 당시에는 무기 없이 맨손으로 겨루는 싸움이라는 백전白戰이라 하였는데, 시인들이 글재주를 다투는 싸움을 의미하였다. 순라도 백전에 간다고 하면 잡지 않았다고 한다. 매년 봄가을 좋은 날에 서문으로 날짜를 정하여 약속하고 모이는데 그 수가 수백인에 달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두 사람 몫의 점심을 갖고 왔다고 한다. 남북 두 패로 갈라 남제南題는 북운北韻을 북제北題는 남운南韻을 써서 시를 지었는데 그 쌓인 시축詩軸이 소 허리에 찰 정도였다. 노복에 지워 당대 제일 문명文名이 있는 사대부에게 글의 심사를 부탁하였는데 이를 맡은 사대부는 글재주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영광으로 알았으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사대부들과 위항시인들은 시모임을 함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었고 심암心菴 조두순趙斗淳 취기醉箕 홍재철洪在喆 같은 이는 칠송정시회七松亭詩會에 술을 보내고 각기 시 한 수씩 부쳤다는 기록도 있다.

나. 벽오사碧梧社

벽오사는 6대에 걸쳐 의원 노릇을 한 초산樵山 유최진柳最鎭(1791~1869)의 집 이름이 우물가에 늙은 벽오동 나무가 있어 벽오당이라 했는데 그 집에서

모인 시사詩社에서 벽오사라 이름 붙였다. 화원 조희룡趙熙龍(1789~1866)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며 많은 중인 친구와 사귀었다. 그는 선배 중인 42명의 이야기를 엮어 56세에 『호산외기壺山外記』를 저술하였다. 59세에는 다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 '벽오사'라는 문학동인을 조직했다. 벽오사의 주축 인물은 벼슬이 주부主簿인 이기복, 동추同樞 김익용, 첨추僉樞 조희룡, 산인散人 유최진, 호군護軍 이팔원이였는데 화원 유숙이나 경아전 나기羅岐도 자주 회동하였다.

서화가 우봉又峰 조희룡은 중인 출신으로 오위장五衛將 벼슬을 지냈을 뿐 이렇다 할 이력이 없다. 그러나 시서에 능한 당대의 문사였다. 그는 중인 문학 모임인 벽오사의 중심인물이며 한때 헌종은 그에게 금강산 명승지마다 시를 지으라는 명을 내리기도 하였다. 벼슬을 못한 역대 중인들의 삶을 기록한 『호산외사壺山外史』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추사의 충실한 제자로 글과 그림이 추사를 빼닮았다는 논평을 듣기도 하였다. 1851년 추사가 북청으로 유배 가는 사건에 연루되어 측근인 우봉도 신안군 임자도에 3년간 유배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는 매화 그림을 잘 그렸는데 화면을 꽉채우는 파격적 구도와 강한 필치의 줄기 춤추는 듯 한 예쁜 꽃송이들이 어울려 압도하는 감동적 명작으로 당대의 누구도 이르지 못하는 높은 경지의 문인화가로 아마도 글 짓는 것보다 화가로써 더 알려졌었는지도 모른다.

유최진(1791~1869)은 병음시초病吟詩艸라는 문집을 남겼는데 연도별로 편집되어 있다. 정미년(1847년)에 지은 작품을 모은 정미집에 벽오사약碧梧社約이란 글이 실려 있다. 벽오사를 결성하게 된 취지와 규약을 기록한 글이다. 서문에서는 병 때문에 친구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자 친구들이 유최진의 집에 모여들었다. 옛 시인들이 시사를 결성했던 뜻에 따라 벽오사를 조직했다

고 했다. 옛사람의 진솔한 뜻을 본받아 몇 가지 조약을 정하였는데 '사철의 아름다운 날에 가려 모인다. 밥은 소채를 넘지 않고 술은 세순 배를 넘기지 않으며 안주는 세 가지를 넘지 않고 차는 계산에 넣지 않는다. 마음대로 책을 읽고 흥이 나는 대로 시를 읊으며 한계를 두지는 않는다.' 등의 내용이다.

이들은 한해에 몇 번씩 모였는데 1855년 단오 때는 모여 시를 읊으며 놀았다. 또한 화원 유숙을 불러 그 모습을 그리게 하고 유최진이 설명을 달았는데 재미있게 묘사하고 있다. 을묘년(1855) 창포절에 친구 석경石經 이기복과 서원西園 송단松壇에서 놀기로 약속했는데 아침에 비가 와서 다섯 노인과 다섯 젊은이가 시냇가 초당에 모이게 되었다. 아침 가랑비가 잠시 그치고, 바람이 부드러우며 날씨가 맑아졌다. 나란히 시를 읊으며 무릎은 마주하고 앉아 즐겁게 이야기 했으니 참으로 쉽게 만날 수 없는 모임이었다. 혜산 유숙에게 부탁해 붓으로 작가의 초상을 그리게 했는데, 마치 등불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것 같아 수염과 터럭까지 그대로 남으니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될 정도였다. 주인 자리에 방관을 쓰고 담배를 피우는 이는 산초 유최진이고 곁에 앉아 손으로 염주를 세는 이는 한치순이다. … 얼굴을 돌리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마구 떠드는 이는 우봉 조희룡이다. 벽오사 동인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자 주인 유최진은 1869년 대보름날에 「벽오사소집도」와 다섯 동인의 시문과 시를 첩帖으로 만들었다. 이를 「오로회첩」이라 한다. 79세 된 유최진은 이미 병이 깊어 손자에게 글을 쓰게 하면서 8년 전의 대보름날을 회상했는데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 마지막 글이 되었다.

"신유년(1861) 대보름날 비가 내렸는데 네 노인이 잇달아 찾아왔다.(줄임) 손꼽아 헤어보니 벌써 9년이나 되었다. 우봉 조희룡이 먼저 하늘로 갔고 석경 이기복도 이어서 세상을 떠났다. 미출 김익용은 몹시 늙어 기력이 없는데다 가는귀가 먹었다. 만취 이팔원은 우환이 얽혔다. 나는 빈궁한 홀아비

로 살고 있다. 오늘 저녁에 보름달이 환하건만 함께 감상할 사람이 없어 등불을 걸고 홀로 누웠다. 정신이 또렷해 잠도 오지 않으니 긴 시를 지어 오늘 저녁의 감회를 기록한다."하였다.

벽오사는 이렇듯 모임이 오래 지속되며 인간으로서의 자아 개념이나 주체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사대부 문화를 근간으로 문화인의 지위에 도달하는 순간 사대 문화를 뛰어넘지 못하고 단절된 모습으로 자신들만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의 부재로 한계를 드러냈다.

다.『염곡칠가鹽谷七歌』홍세태洪世泰

유하柳何 홍세태洪世泰(1653~1725)는 무관이었던 홍익하洪翊夏의 아들로 5세에 책을 읽고 7,8세에는 글을 지을 만큼 일찍부터 문장에 재능을 보였으나 중인신분으로 자라면서는 글재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는 1675년(숙종 1) 을묘식연시에 잡과인 역과譯科에 응시하여 한학관漢學官으로 뽑혀 이문학관吏文學官에 제수되었다. 1682년 통신사 윤지완尹趾完을 따라 일본에도 다녀왔다. 그의 재능에 걸맞게 외국에 보내는 글짓기를 담당하는 제술관製述官에 임명되었으나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다. 영의정 김수창의 셋째 아들 김창흡(1653~1722)이 1682년에 낙송루洛誦樓라는 시방詩房을 꾸리자 노론계열의 시인들이 자주 모였는데 한동네 역관시인 홍세태, 이규명 세 사람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친구가 되었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글을 읽고 짓는 것 뿐 아니라 글씨도 잘 써야 했는데 세 가지를 잘하면 시서화詩書畵 삼절三絕이라 칭송받았다. 홍세태는 일본 가서 그림을 많이 그려 주었으며 일본 화가의 그림을 구해오기도 했다. 눈 내

리는 강가에서 노인이 혼자 낚시질하는 그림을 김창흡에 선물하자 김창흡은 그 그림을 낙송루에 걸고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이규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김창흡은 기사환국 사건에 연루된 김수창이 유배되어 사약을 받고 죽으니, 그 슬픔에 못 견디어 결국 영평에 은거하자 한양에 홀로 남은 홍세태는 임준원의 도움을 받으며 위항시인들의 모임인 낙사洛社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홍세태는 50세쯤 되었을 때 북악산 아래에 집을 짓고 유하정柳下亭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좌우에 등잔과 책을 놓고 그 사이에서 시를 읊었는데 살림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썰렁하였다. 아내와 자식들이 굶주려도 그는 마음에 두지 않고 8남2녀나 되는 자식들은 하나둘 병들어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위항시인 정내교는 스승 홍세태를 처음 만나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 내가 처음 유하정에서 공을 뵈었을 때 공의 나이가 벌써 쉰이나 되었다. 수염과 머리털이 희끗희끗한데다 얼굴빛은 발그레해서 마치 신선을 바라보듯 하였다. 이 해에 온 중국 사신을 글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의주까지 와서 우리나라 시인의 시를 보여 달라고 청하였다. 조정에서는 누구의 시를 가려 뽑을 건지 어려움에 부닥쳤는데 당시의 재상이 공을 추천하였다. 임금께서도 "내 이미 그의 이름을 들었다"하셔서 얼마 안 되어 이문학관吏文學官에 뽑혔다가 승문원 제술관製述官으로 승진하였다.

김창협은 '천기天機가 깊은 자만이 참다운 시를 지을 수 있다'는 천기론을 내세운 문인이었는데 홍세태는 1705년에 낙사 동인인 최승태의 시집에 서문을 써주면서 위항시인과 천기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 시는 하나의 소기小技이다. 그러나 명예와 이욕에서 마음에 얽매인 바가 없지 않고는

잘 지을 수가 없다. 장자莊子가 말하길 "욕심이 많은 자는 천기가 얕다"하였다. 예로부터 살펴보면 시를 잘하는 사람은 산림초택山林草澤에서 많이 나왔다. 부귀하고 세력 있는 자라고해서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로 미루어보면 시는 작은 것이 아니다. 그 사람됨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시를 통해서 사람됨까지도 알아볼 수 있다는 말은 개성을 담아야 한다는 뜻이다. 벼슬을 얻기 위해 과거시험에 몰두한 양반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학문을 하거나 시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권력에 욕심을 가질 수 없었던 위항시인들이 더 좋은 시를 지을 수 있다는 논리다. 김창협의 권유로 홍세태는 '모래를 헤쳐 금을 가려내듯' 사람들이 입으로 외우기 알맞은 시를 찾아 10여 년 동안 중종 때의 박계강朴繼姜, 정치鄭致 유희경劉希慶, 백대붕白大鵬, 최기남崔奇男, 임준원林俊元, 윤홍찬尹弘璨, 유찬홍庾纘洪 등 48명의 시 234편을 골라서 책에 실린 시인의 후손들이 출판비를 모아 1712년 간행하였다. 또한 이 문집은 위항시 계열의 시집인 소대풍요昭代風謠, 풍요속선風謠續選, 풍요삼선風謠三選 등의 효시가 되었다.

홍세태는 69세 되던 해에 자서전적인 시 염곡칠가를 지었다. 이 시는 1719년 울산 감목관監牧官으로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7수의 연락시를 지어 자신의 평생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염곡칠가의 그 첫 번째 노래는 이렇다.

有客有客李道長　유객유객리도장
自謂平生志概忼　자위평생지개강
讀書萬卷何所用　독서만권하소용
遲暮雄圖落草莽　지모웅도락초망

誰敎騏驥伏鹽車　수교기기복염차

太行山高不可上　태행산고불가상

嗚呼一歌兮歌欲発　오호일가혜가욕발

百日浮雲忽陰結　백일부운홀음결

객이여 객이여 그대 의자가 도장이라지

스스로 평생토록 강해한 뜻 지녔다고 하네

독서 만권 어디에 쓸 것인가

늙어가며 웅장한 뜻 풀더미에 떨어졌네

누가 천리마를 소금수레 끌게 했는가?

태행산이 높아서 올라갈 수 없다네

아아! 첫째 노래여 노래를 부르려하니

뜬구름이 밝은 해를 가리는구나

자기 같은 천리마에게 소금수레나 끌게 하는 사회가 바로 그가 인식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천기를 잘 보전하여 시를 지으라고 권하였다.

數年邦厄荐饑疫　수년방액천기역

我獨何能免漂迫　아독하능면표박

蘧居不死誠自幸　궁거부사성자행

眼看積殍橫九陌　안간적표횡구맥

春陰連日不見陽　춘음연일부견양

破窓夜眠聆雨滴　파창야면령우적

嗚呼六歌兮歌激昂 명호육가혜가격앙

漆室之壷況廟堂　칠실지호황묘당

여러 해에 액이 거듭되니 백성들은 주리고 병 들었네

어찌 나만 홀로 떠도는 삶을 면할 수 있으리

가난하게 살면서도 죽지않는 것이 다행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굶주려 죽은 시체가 거리에 쌓인 것

봄날이 잇달아 흐려 햇빛을 보지 못하더니

비오는 소리가 한밤중에 찢어진창으로 들리네

애통하여라 여섯번째 노래여 노래는 격앙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근심 조정에서 어찌 알겠는가

염곡칠가의 일부로 당시 백성의 비천한 삶을 그린 것이다. 그의 시는 우울한 내용이 많고 하인 출신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라. 육가잡영六家雜詠

육가잡영은 조선 중기 1660년(현종 1) 위항시인 정남수, 최기남, 남응침, 정예남, 김효일, 최대립 등 6인의 시를 모은 시집을 말하며 동인지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문집은 운각필서체자芸閣筆書體字로 절구絕句 고시古詩 율시律詩 오언五言 칠언七言 회문절구回文絕句 장단구長短句 등 각체를 모아 실었기 때문에 육가잡영이라 한다. 편집에는 정남수와 남응침이 주축이 되었다.

권두에 이경석李景奭이 1658년(효종 9)에 쓴 서문이 있고 권말에 1660년 서호산인西湖山人이 쓴 발문이 있다. 여섯 사람의 시가 실려 있는데 각종의 시의

형식이 정남수의 시 51수, 최기남의 시 53수, 남응침의 시 43수, 정예남의 시 21수, 김효일의 시 41수, 최대립의 시 51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의 형식이 제각각으로 다양하다. 정남수는 호가 행림杏林으로 태의동추太醫同樞를 지냈다. 서문에서 이경석은 그의 시를 일컬어 '풍정風情이 뛰어나고 호기가 치솟는다' 고 하면서 시재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최기남은 호가 구곡龜谷으로 사대부들 사이에 널리 이름을 얻었다. 그는 육가잡영에 가장 많은 시를 수록하고 있다. 간행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남응침은 호가 송파松坡로 태의太醫를 지냈다. 이경석으로부터 시어가 풍부하고 시의詩意가 원만하다는 평을 받았다.

시선집 육가잡영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육가六家는 여섯 사람의 시인이라는 뜻이니 별 문제가 없지만 잡雜이라는 글자는 뒤섞였다는 뜻도 있고 잡스럽다는 뜻도 있으며 잡놈이란 뜻도 있다. 대제학을 지낸 남용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육가잡영』은 '여섯 잡놈이 읊은 시' 라는 뜻이다. 그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대표작을 모아 기아箕雅라는 시선집을 간행하였는데 기아의 아雅는 사대부의 시라는 뜻이다. 이 시집에는 451명의 양반 사대부 시인들 뒤에 우사羽士 도사 3명, 납자衲子 승려 19명, 잡류雜流 6명, 규수 7명, 불성씨不姓氏 3명의 시가 편집되어 있다.

불가의 스님은 조선시대 팔천八賤 사노비, 광대, 무장, 백정, 승려, 기생, 상여꾼, 공랑 가운데 하나로 천대 받았다. 남용익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중인은 도가의 도사나 불가의 스님보다도 낮고 천했다. 그가 뽑은 잡류는 풍월향도의 유희경과 백대붕 『육가잡영』의 최기남, 김효일, 최대립 등이였다. 잡류 뒤에는 여성이 있고 그 뒤에는 역적이어서 성을 삭제한 허균, 박성길, 이계가 있을 뿐이었다. 그의 기준에 의하면 중인들은 팔천 가운데 하나인 스님보다도 못하지만 여성이나 역적보다는 조금 나은 잡놈일 뿐이었다. 『육가

잡영』은 서문을 쓴 이경석은 절구絕句와 고시古詩 장단율이 뒤섞여 있다는 뜻도 있다고 하였다. 이들은 사대부가 흔히 짓던 5 · 7언 절구나 율시뿐 아니라 3 · 5 · 7언, 6언율시, 3언절구, 집구集句, 회문回文 등 다양한 시체를 실험적으로 지었다.

정예남은 호가 서주西疇이며 의학에 조예가 깊었다. 김효일은 호가 국담菊潭이며 금루관禁漏官을 지냈다. 최대립은 호가 창애蒼崖로 역관을 지냈다. 뛰어난 시재詩才를 지녔으며 홍세태 등과 낙사시사洛社詩社의 구성원이었다. 육가잡영은 위항문학 초기의 대표적 문학 업적이다. 다음 세대의 위항시인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음은 물론 약 200년간 활발하게 전개된 위항문학은 개인 창작활동 보다는 무리지어 시사에 참여하거나 동인그룹을 형성함으로써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임진왜란 즈음 태어난 중인들이 남청동에서 한시를 지었는데 모임의 주역이 최기남이었다. 그는 집이 가난해서 조선의 부마 신익성의 집 궁노宮奴로 들어갔다. 서리 일을 보는 틈틈이 경전을 연구했으며 서당을 열어 위항 자제들에게 글을 가르쳤다. 그와 함께 시를 지었던 친구 · 후배들은 모두 한문에 능통하였다. 이들은 궁에서 숙직하는 날 시를 짓고 날씨 좋은 날 악공을 불러 풍류를 즐기며 시를 짓기도 했다. 『육가잡영』의 중심인물인 최기남의 서당 제자인 임준원을 비롯해 최기남의 아들 최승태, 최승윤과 손자 최세연, 외손자 김부현 등이 모여 낙사를 구성했다. 이들은 중인들이 개인시집을 출판하지 못해 이름도 없이 묻혀 버리는 현실을 가슴 아파하며 1737년에 임순원과 역관 고시언이 주동하여 161명의 시 685수를 편집해 소대풍요昭代風謠라는 9권2책 분량의 시선집을 간행하였다.

최대립의 시 한 수를 들여다본다.

상실후야음喪室後夜吟

睡鴨薰消夜已闌 수압훈소야이란
夢回虛閣寢屛寒 몽회허각침병한
梅梢殘月娟娟在 매초잔월연연재
猶作當年破鏡看 유작당년파경간

언제면 날이 새려느냐 향도 꺼지고
꿈깨니 텅 빈 방안에 병풍이 싸늘하다
매화나무 가지 끝에 고운 새벽달
님과 헤어지던 그날도 저러했지요

마. 위항시인 뒷바라지한 마성린과 천재 시인 장혼

1) 마성린

마성린馬聖麟 · 1727~?은 대대로 호조와 내수사의 아전을 해오던 집안에서 태어나 넉넉한 살림으로 위항시인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의 문집인 『안화당사』 뒷부분에는 스스로 엮은 연보 「평생우락총록平生憂樂總錄」이 실려 있는데 보기 드물게 위항시인의 생장지와 교육, 교유관계, 모임장소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마성린은 1727년 3월 28일 한양 황화방 대정동(지금의 중구 정동) 외가에서 태어나 외가와 두석동 본가 나방동 외종가를 다니면서 자랐다. 어릴 때 인왕산 누각동 김첨지 집에서 글을 배웠고 중인 자제들과 어울려 글을 짓고 놀았는데 문덕겸, 최윤벽, 최윤황, 김순간, 김봉현 등과는 평생을

친구로 나중에 백사와 구로회동인이 되었다. 15세에 첨지 한성인의 여섯째 딸과 혼인하였고 유세통 형제와 더불어 유괴정사에서 글씨공부를 하였는데 유괴정사는 필운대 아래 적취대 동쪽에 있는 첨지 박영이 살던 곳이다. 어린 나이에 선배들과 어울렸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매번 꽃이 피고 꾀꼴새가 우는 날이거나 국화가 피는 중양절이면 이 일대의 시인, 묵객, 금우琴友, 가옹歌翁들이 모여 거문고를 뜯고 피리를 불거나 시를 짓고 글씨를 썼다. 그중에서도 여러 노장들이 매전 시회詩會 때마다 나에게 시초詩草를 쓰게 하였다.
>
> 선배들이 흥겹게 시를 읊으면 나이어린 마성린은 옆에서 받아썼다. 10여 년 공부 끝에 마성린은 명필로 이름을 날렸다. 나중에 필운동으로 이사했으며, 인왕산 언저리에 살던 겸재 정선의 문하에 들어 산수화를 배웠다. 24세에는 친구들과 더불어 인왕산 명승지인 곡성 갓바위, 필운대, 적취대를 돌며 시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 필운대 아래 북동으로 이사해서는 정원 있는 초가였는데 이를 안화당安和堂이라 이름 짓고 시인, 가객歌客, 화사畵師, 서동書童들이 날마다 모여들었다. 50세가 되어서는 신윤복의 아버지인 신한평이나 김홍도 같은 화가와 함께 중부동에 살던 강희언의 집에 모여 그림을 그리거나 화제畵題를 써주었다.

이효원, 최윤창과 함께 김순간의 집인 시한재是閑齋에 모여 국화꽃을 구경하였는데 그때 뜻밖에도 거문고 타는 이휘선과 가객 김시경, 화원 윤도행이 느닷없이 찾아와 밤새 촛불을 밝혀 놓고 시와 노래, 글씨와 그림을 즐겼다. 이날 모임을 기록한 시첩이 『청유첩淸遊帖』이다. 마성린은 58세에 다시 승문원 서리로 들어갔는데 늘그막에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져서 집안에 전해 내려오던 명필들의 작품을 재상 집안에 팔아 넘겼다. 가난한 위항시인들의 후원자 노릇하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것이다.

옥류동에 사는 천수경이 1791년 위항시인 7~80명을 불러 왕희지의 난정고사蘭亭故事를 본받아 풍류모임을 열자 마성린도 초청받고 시축을 써주었다. 이때부터 최윤창, 김순간 등 서사西社 동인들과 자주 옥류동 송석원으로 찾아가 후배들과 어울리면서 위항시사의 주축이 서사에서 옥계사쪽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2) 천재 시인 장혼張混

장혼(1759~1828)은 통례원通禮院 우통례右通禮를 지낸 장우벽張友壁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지극한 효자로 이름이 났으며 시 짓기에도 천재적 소질을 보였다한다. 아버지 장우벽은 날마다 인왕산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고 그는 글을 웬만큼 알았지만 총명한 아들을 서당에 보내지 않았다. 문장을 잘 지어도 쓸데가 없는데다 오히려 중인 신분의 한계를 탄식하며 처절하게 살아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혼의 어머니 곽씨가 집에서 아들에게 글과 역사를 가르쳤다. 아버지는 떠돌아다녔으므로 장혼이 집안일을 도왔고 여섯 살 때 개에게 물려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

1790년(정조 14) 감인소監印所를 설치하자 대제학이던 오재순吳載純의 추천으로 교서관校書館 사준司準이 되어 서적 편찬에 종사했다. 1816년(순조 16)까지 근무하면서 사서삼경을 비롯한 수많은 어정서御定書를 교정하였으며 , 『육교전서』 등 문집류를 수정 · 교열해서 간행하였다. 1786년(정조 10) 여름에 천수경과 더불어 옥계시사를 결성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으며 1979년(정조 21)에는 풍요속선風謠續選을 간행했다. 또 이이엄이라는 목활자를 만들어 이것으로 수많은 책을 인쇄하고 위항시인의 문집도 간행하였다. 그가 펴낸 책은 호산외기 등 많으나 대표적으로 『이이엄집而已广集』이 전하고 『비단집篚段集』 20권이 있었다하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이이엄집』은 14권8책

으로 금金, 석石, 사絲, 죽竹, 포匏, 토土, 혁革, 목木으로 분책되어 있다. 오언고시,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오언배율 등 대부분 뛰어난 역작시다.

장혼은 인왕산 옥류동에 집 짓고 살기를 소원하였다. 옥계시사의 맹주 천수경이 옥류동 집을 지어 위항시인들이 모여드니 장혼도 친구 따라 인왕산 자락에 집을 지으려고 대지를 물색하다 옥류천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려진 낡은 집을 찾아냈다. 대지를 구입해 놓고도 집 지을 비용이 없어 오랜 기간 동안 비용을 마련하면서 아침저녁 마음속으로 집 짓는 설계를 하니 마음은 무척 기뻤을 것이다. 그는 옥류동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 옥류동은 인왕산의 명승지 가운데 한 구역이다. 옥류동의 현세는 덮는 듯이 서북쪽을 숨기고 입을 벌린 듯이 동남쪽이 트여 있다. 등 뒤로는 푸른 절벽의 늙은 소나무가 멀리 바라보이고 앞쪽으로는 도성의 즐비한 집들이 빼곡하게 내려다보인다. 평평한 들판이 오른쪽에 얽혀 있고 긴 산등성이가 왼쪽에 높이 들려 있어 한차례씩 오가며 마치 서로 지켜주는 것 같다. 그 가운데로 맑은 시냇물이 흘러가는데 꼬리는 큰 시내에 서려 있고 머리는 산골짜기에 닿아 있다. 졸졸졸 맑게 흐르는 물소리가 옥구슬이 울리고 거문고와 축祝을 울리는 듯하다 비라도 올라치면 백 갈래로 물길이 나뉘어 내달려서 제법 볼만하다.(후략)

장혼이 말한 옥류동은 명승지이면서도 시장이 가까워 사람들이 어울려 옥류동이라는 이름 그대로 물 흐르는 소리가 옥구슬 구르듯 집 짓고 살기에 알맞은 동네였던 것 같다. 그는 옥류동 집터를 처음 찾아낸 기쁨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 옥류동의 길이 끝나가는 산발치에 오래전부터 버려진 아무개의 집이 있었다. 집은 비

좁고 누추했지만 옥류동의 아름다움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 잡초를 뽑아내고 막힌 곳을 없애자 집터가 10무畝 300여 평 남짓 되었다. 집 앞에는 지름이 한자 반 되는 우물이 있는데 깊이도 한자 반이고 둘레는 거의 세 곱절쯤 되었다. 바위를 갈라 샘을 뚫자 샘물이 갈라진 틈으로 솟아나왔다. 물맛은 달고도 차가웠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았다. 우물에서 네댓 걸음 떨어진 곳에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어 여러 사람이 앉을 만 했다.

그가 원했던 집은 번드레한 주택이 아니라 기와도 얹지 않고 백토도 바르지 않고 그 대신 좋아하는 꽃과 채소를 심고 해와 달, 비와 바람이 차례로 찾아들게 하는 소박한 집이었다. 그런 집을 짓고 스스로 이이엄而已广이라 칭하고 위항시인들과 더불어 술자리와 시를 즐겼다.

그의 호는 이이엄이다. 그는 계속 '그만而已' 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더니 "나는 천명을 따르면 그만이다. 그래서 내 집 편액을 이이엄而已广이라 했다." 이이엄은 당나라 시인 한퇴지의 시에서 '허물어진 집 세칸이면 그만 破屋三間而已' 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그가 인왕산 자락에 사들인 땅은 300여 평밖에 안 되지만 그는 인왕산을 백배로 즐겼고 자신이 인왕산에서 찾아낸 열 가지 아름다움을 옥계사 동인들과 공유하였다. 골짜기 안의 채마밭洞田圃에서 사람 사는 모습을 찾아내고 밤낮 쉬지 않고 흐르는 샘물一泉流晝夜 흐렸다 맑았다하는 산기운一山氣陰晴에서 자연의 움직임을 찾아냈다.

서른이 되기 전에 『평생지』를 써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집을 설계했던 장혼은 자기 뜻대로 세칸 집에 만족하며 살았다. 그의 집이 비바람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으므로 남들은 그가 가진 것 없음을 비웃었지만, 그 자신은 69세 되던 해 입춘절에 "굶주림과 배부름, 추위와 더위, 죽음과 삶, 재앙과 축복은 운명에 따르면 그만이다. 聽之命而已"라고 자부한 뒤 이듬해에 세상을 떠났다.

6. 맺음말

이상에서 인왕산을 중심으로 한 중인들의 시문학과 당시의 정조 시 · 문집을 개괄하여 보았다. 위항문학이란 사상적으로는 주자성리학의 발전, 사회적으로는 양반문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중인들이 귀족문학이라 할 수 밖에 없는 한시의 시단에 참여함으로써 형성되었던 문학이다. 따라서 그 발생도 중인신분의 뚜렷한 하락과 시기를 같이하며 18세기 와서는 활발한 시문학운동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독특한 문학사상이나 문체, 문장론 등 독자적인 문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층계층의 상층문화에 대한 동경과 모방에서 출발한 것이며 그것이 점차 성장되어 백전白戰과 같은 큰 규모의 시회詩會로 발전하여 문단의 일익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한편 문망 있는 사대부들은 백전에서 위항시인들이 지은 시를 첨삭 심사함으로써 자신들의 문명文名을 더욱 높이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다. 요즈음이라면 정조가 성황리에 치러지는 백전에 친히 참석하여 축사라도 한마디 했을 법도 하다. 그러나 시대 상황으로 신분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이토록 뒤안길 위항문학이 활발히 전개된 배경을 살펴보면, 먼저 정조의 글에 대한 애착이다.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규장각을 설치하여 당 · 송 · 명의 중국 글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 편집 · 편찬함으로써 중국 시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정조 본인은 당의 두보나 송의 육유의 시를 좋아했던 것 같다. 거기다 정조는 술과 담배를 신하들과 어울리며 글짓기를 즐겼다. 다음은 사회변화에 따른 실학사상의 도입이다. 과거의 전통이나 스승의 주장에 맹종하지 않고 성리학이나 유교문화의 관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서양문물

의 도입과 도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사업이 점차 발달하면서 시대 변화에 맞는 문화적 욕구이념으로 현실대안을 찾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호란과 왜란을 거치면서 혼란했던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신분질서의 재편이 요구되었고 영 · 정조의 탕평책에 힘입어 중인세력의 확장 내지 신분상승의 의지가 표출되었던 것이다.

아무튼 위항문학은 시대를 넘어 오랫동안 지속되진 못하였다. 한문시 문학으로 전개되었다고는 하나, 갑오경장, 일제강점기의 잠복기를 거치면서 정서적으로 현대시 태동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할 것이다. 끝으로 군신이 화답하면서 시문을 주고받은 갱재축賡載軸에 대해 자료 수집하여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참고문헌〉

1. 정옥자, 조선후기의 『문풍과 위항문학』, 1975.
2. 허경진, 조선의 중인들, 알에이치코리아, 2015.
3. 설민석, 역적의 아들, 휴먼큐브, 2014.
4. 김남기, 조선시대 군신의 창화와 그 의미, 2006.
5. 박철상, 서재에 살다, 문학동네, 1914.
6. 강혜선, 정조의 시문집 편찬, 문헌과 해석사, 2000.
7. 정동유, 주영편(晝永編), 휴먼니스트, 2016.
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홍재전서, 뿌리문화사, 1998.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역대 회원 명단

2016. 12. 30 현재

직 책	성 명	비 고	직 책	성 명	비 고
회 장 (초대)	오 상 근	수원상공회의소 사무국장	회 장 (2대)	이 창 식	경기도신문 주필
이사장 (초대)	이 질 현	서울농과대학 교수	부 회 장	최 범 훈	경기대학교 교수
연구위원	안 익 승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연구위원	최 홍 규	수원대학 교수
연구위원	이 훈 섭	경기대학교 교수	연구위원	이 재 은	경기대학교 교수
연구위원	정 재 구	경기대학교 교수	연구위원	김 건 영	경인일보 편집국장
연구위원	김 윤 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연구위원	이 홍 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연구위원	강 대 욱	경기도 학예담당관	연구위원	이 형 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행정원
연구위원	이 인 녕	경기도향토사료관 연구관	연구위원	박 용 익	용인군향토문화연구회장
연구위원	이 승 언	시흥군지 상임위원	연구위원	신 현 정	가평문화원 이사
연구위원	이 인 수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연구위원	김 영 복	의정부시 총무과
연구위원	맹 인 재	한국민속촌 사장	연구위원	이 제 재	오산여자중학교장
연구위원	이 진 호	지적기술연구원 교수	연구위원	임 재 영	향토사학가
연구위원	심 백 장	문학평론가	연구위원	이 홍 환	향토사학가
연구위원	최 현 수	부천역사연구소장	연구위원	고 준 환	경기대학교 법학과
연구위원	홍 석 창	동탄감리교회 목사	연구위원	정 동 일	고양신문 연구원
회 장 (4대)	유 선	시조시인	회 장 (5대)	밝 덩 굴	한글연구가
연구위원	윤 수 천	아동문학가	상임위원	임 종 삼	아동문학가
연구위원	신 금 자	독서신문 편집위원	연구위원	김 동 훈	홍익대학교 교수
연구위원	전 영 택	부산디지털대학 강사	연구위원	임 병 호	경기일보 논설위원
연구위원	염 상 균	향토사학가	연구위원	김 훈 동	수원예총 회장
연구위원	한 동 민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연구위원	권 영 호	수필가
연구위원	이 달 호	수원화성박물관장	연구위원	김 용 대	수필가
연구위원	김 명 훈	수원시사편찬위 상임위원	연구위원	김 명 훈	수원시사 편찬위원
회 장 (3대)	정 규 호	영화 제작자	연구위원	임애월	경기시인협회 사무국장
연구위원	조 병 로	경기대 교수			

‘기전문화’ 수록 논문 목록

◇제1집 1986. 12. 25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최범훈	阿只 · 干蘭 · 言妍類의 表記에 대하여 –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제적부를 자료로 –	경기대학교 교수
이창식	조선 시대의 水原市場	경기도운수연수원 교수부장
최홍규	禹夏永의 實學思想과 著作物	수원대학 교수
안익승	水原의 傳說(1)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김윤배	京畿 都堂굿과 巫歌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이홍구	華城 城廓築造와 御製 및 上樑文의 孝敬思想 小考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제2집 1887. 6. 3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최범훈	京畿道 西海岸 ‘고지’系 地名攷	경기대학교 교수
이창식	水原牛市場 今昔	경기도운수연수원 교수부장
이인수	利川紫彩와 農謠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형석	臨津江 小考 – 발원지 · 하구 · 길이를 중심으로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행정원
안익승	漢江流域 문화유적 순례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이승언	博士 · 碩士學位 論文目錄(1958~1986)	시흥군지 상임위원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강대욱	京畿道鄕土史料館과 전통문화	경기도학예연구관
이인녕	初期 百濟의 龍仁에 대한 小考	용인향토사 연구가
최홍규	禹夏永의 '觀水漫錄'에 대하여	경희대학교 교수

◇제3집 1987. 12. 3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최범훈	'衿陽雜錄'에 보이는 穀名借用表記	경기대학교 교수
이창식	日帝下의 水驪 · 水仁線의 鐵道考	경기도운수연수원 교수부장
이형석	振威川의 水系 및 地形 小考	한국땅이름학회 부회장
김윤배	京畿 帝釋굿의 敍事巫歌 구조 비교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김영복	朴世堂의 생애와 유적	의정부시 총무과
최홍규	朝鮮後期 近畿學派와 實學의 한 潮流 – 특히 朴趾源의 農業經濟思想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수
안익승	水原의 傳說(2)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제4집 1988. 6. 3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최범훈	借用表記된 固有語 人名 연구 – 경기도 3지점의 비교 –	경기대학교 교수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日帝下의 水原관계 書誌 小考	경기도운수연수원 교수부장
이인수	利川地方 마을이름의 分析	이천문화원 사무국장
이형석	安養川의 水系와 地形 小考	한국하천연구소 대표
최홍규	水原地方과 抗日民族운동의 精神史的 맥락 – 특히 義兵운동의 정신사를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수
김영복	朝鮮朝 歷代 楊州牧使傳(1)	의정부시 총무과
이제재	日帝 侵略期의 華城 敎育	오산여자중학교장
안익승	畿甸地方의 傳說(1)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제5집 1988. 12. 3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畿甸地方의 占卜 사례 採錄	경기도운수연수원 교수부장
이진호	始興·安養지방의 기독교 傳來	지적기술연구원 교수
이형석	發安川의 水系와 地名 小考	한국하천연구원 대표
김영복	朝鮮朝 歷代 楊州牧使傳(2)	의정부시 총무과
심백강	寒齊 李穆선생의 家系와 學問	문학평론가
김윤배	水原地域 巫俗人의 個人史를 통한 成巫과정 고찰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안익승	畿甸地方의 傳說(2)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최홍규	朝鮮後期 廣州와 水原地方의 鄕約(上) – 安鼎福의 '二里洞約'과 禹夏永의 '鄕約序說'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수

◇제6집 1989. 7. 1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제재	우리나라의 驛制와 畿甸地方 驛站攷	수일중학교장
이형석	王宿川의 水系와 地名 小考	한국하천연구소 대표
이진호	畿甸地方의 京仁 · 京釜鐵道史	지적기술연구원 교수
최호림	土地開發과 文化財 보존	한양대박물관 학예관
안익승	畿甸地方의 傳說(3)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박용익	'瑣尾錄'에 대하여	용인향토문화연구회장
최홍규	實學者 禹夏永의 家系와 鄕約(上) – 新資料의 발굴을 통한 生涯의 재구성 –	경희대학교 교수

◇제7집 1990. 6. 6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오상근	'瑣尾錄'과 吳希文의 생애 – 피난길에 쓴 '亂中日記' –	한일친선협회 수원시협회장
이창식	水原의 部落史	경인매일 주필
김윤배	京畿地域 巫俗人의 成巫과정에 대한 現象學的 분석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최홍규	朝鮮後期 廣州와 水原地方의 鄕約(下)	경기지방사연구소장
이제재	水原城에 대한 小考	수일중학교장
이진호	嶺東地方의 義兵활동 발굴 – 乙未事變後 日本測量隊에 항쟁한 자료 –	지적기술연구원 교수
안익승	京畿地方의 傳說(4)	유네스코 경기도협회장

◇제8집 1991. 6. 1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畿甸地方의 鄕土史 연구와 회고	경인매일 주필
최홍규	禹夏永의 田政 및 還政改善論 – '千一錄'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수
심백강	栗谷의 敎育思想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전문위원
이진호	水原農學과 測量 교육	지적기술연구원 교수
안익승	京畿地方의 傳說(5)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이제재	水原地方의 청소년운동 – 1920년대를 중심으로 –	수일중학교장
이형석	金浦 掘浦川考	한국하천연구소 대표
최현수	富川 農旗 고두머리(叩頭首)에 대한 고찰	부천역사연구소장

◇제9집 1992. 4. 1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안익승	吳尙根論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최홍규	禹夏永의 華城 築城方略論 – '觀水漫錄'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교수
이홍구	顯隆園 遷奉과 正祖大王의 園幸 효성	조종중·종합고교장
최현수	山康 卞榮晩 생애와 國學觀(上)	부천역사연구소장
이창식	光武年代의 日軍 동향 – '各司謄錄'을 통해 본 畿甸地方의 이동 실태 –	자유기고가협회 경기도지부장
이제재	水原 교육의 발자취	수일중학교장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김윤배	京畿 都堂굿 群雄路程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형석	龍仁郡의 河川考	한국하천연구소 대표
김영복	日本의 전통 축제 見聞記	의정부시 문화계장
이진호	자료번역 '發展하는 水原'	지적기술연구원 교수
이제재	彰聖寺와 眞覺國師에 대한 고찰	수일중학교장
최현수	富川 장말도당굿에 대한 고찰(1)	부천사연구소장
강대욱	경기도박물관 건립의 목적과 意義	경기도 학예연구관

◇제10집 1992. 8. 15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진호	기독동신회 승송·조덕환·김태희의 선교활동	지적공사연수원 교수
안익승	京畿地方의 傳說 (6)	유네스코경기도협회장
이인녕	몽고 친입과 處仁城 大捷 小考	용인향토사학회장
이제재	수원지방 독립운동의 선구자 金露積 선생	수일중학교장
이창식	韓末 京釜鐵道의 裏面史 발굴 – '各司謄錄'의 訓令과 報告를 중심으로 –	자유기고가협회 경기도지부장
이형석	김포군의 '곶' 땅이름 연구	한국땅이름학회 부회장
최현수	富川 장말도당굿에 대한 고찰	부천역사연구소장
홍석창	水原·華城地方의 三一運動史(上)	화성통단교회 목사
진성기	濟州島民과 民俗文化 – 주로 제주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	제주민속박물관장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형석	김포군의 '곶' 땅이름 연구	한국하천연구소장
이진호	안양지방의 改新敎 傳來	지적기술연수원 교수
정동일	고양 송포 용구재 이무기제에 대한 고찰	고양신문 연구원

◇제11집 2008. 9. 15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89년 만에 밝혀진 '제암교회사건'의 진실 – 3·1운동 당시 조선군사령관이던 郎 日記 분석 –	경기신문 주필
유 선	경기시조시인협회의 어제와 오늘	시조시인
밝덩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의 답을 해야 한다	한글 연구가
강대욱	경기도 수원 시대 반세기	향토사학가
윤수천	경기도를 무대로한 문학작품 살펴보기	아동문학가
이홍구	정조대왕 花山陵 行次 演示考	경기인성지도교육원장
임종삼	백제 구원행궁(狗原行宮)과 독성여왕릉(禿城麗王陵)의 정체	소설가
전영택	설화문학 전달방법 소고	부산디지털대학 강사
신금자	고려 충신, 정몽주와 慕賢堂	독서신문 편집위원

◇제12집 2010. 8. 15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양영조	6 · 25전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박동찬	사진을 통해 본 6 · 25전쟁과 수원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창식	6 · 25전쟁과 제12대 국회의원의 동정 분석 – 도내 출신 30명과 납북자 6명의 행적을 중심으로 –	경기신문 주필
임종삼	6 · 25전쟁 UN군 참전 현황	소설가
강대욱	6 · 25전쟁과 경기도 – 수도권의 지리, 격전의 현장 –	향토사학가
임병호	6 · 25전쟁을 전후한 경기지방 언론	경기일보 논설위원
이홍구	6 · 25전쟁 전후의 경기교육이 걸어온 길	인성지도교육원장
유 선	6 · 25 전후의 시조문학 고찰	시조시인
밝덩굴	'한글간소화 안'의 그 허(虛) – 6 · 25전쟁 후 60년, 돌이켜 보는 한글 역사 –	한글 연구가
윤수천	6 · 25를 무대로 한 한국의 소설문학	아동문학가
전영택	음악교과서에 반영된 6 · 25전쟁 – 국민학교 5 · 6학년 음악교과서를 중심으로 –	부산디지털대학 강사
임병호	6 · 25전쟁 전후의 대중가요 – 대중가요 · 전쟁가요 중심으로 –	경기일보 논설위원
신금자	6 · 25전쟁 이후 여성문학의 변화와 흐름에 대한 고찰 – 시대별 사례와 작가 중심으로 –	독서신문 편집위원
김훈동	내가 겪은 6 · 25전쟁	수원예총 회장

◇제13집 2011. 11. 2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광복 후 처음 공개되는 일제강점기1915 '水原社會史'	경기신문 주필
전영택	山과 水原이 만나 꾸민 이야기	부산디지털대학 강사
강대욱	현하의 웅변으로 민족혼을 일깨운 여운형呂運亨선생	향토사학자
임종삼	정조대왕의 그림 친구 화사畵師 김홍도	아동문학가
밝덩굴	훈민정음 이전의 말과 글	한글 연구가
신금자	조선시대 역참제도와 교통망에 대한 고찰	독서신문 편집위원
이완주	수원, 어떻게 한국 농업의 메카가 되었나?	농학박사
김훈동	예술 소비운동	수원예총 회장
정규호	1960년대의 농어촌 계몽영화에 대한 小考	영화 제작자
임애월	'수원華城'을 소재로 쓴 詩 小考	경기시인협회 사무국장
김명훈	정조의 특수부대 장용영	수원시사편찬위 상임위원
임병호	경기지방의 전통 사찰	경기일보 논설위원
한동민	근현대 수원의 사진관과 사진사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제14집 2012. 11. 3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水原檄文事件'의 진상과 역사적 의미 1930년 10월 12일 새벽 남문 사거리 등에 내붙인 항일 벽보	경기신문 주필
임종삼	금강초롱꽃이 자생하는 경기도의 명산	아동문학가
김훈동	수원의 잡지사雜誌史, 어제와 오늘	수원예총 회장
밝덩굴	땅이름 유래와 분포	한글 연구가
임병호	경기지방 사찰의 불교미술 小考	경기일보 논설위원
강대욱	들풀에 묻힌 임진의병장壬辰義兵將의 생애	향토사학자
한동민	수원지역의 구술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수원박물관 학예팀장
이창식	일제 때 발간된 '東光' 잡지에서 전재한 조선 가요의 수(數)노름	경기신문 주필

◇제15집 2013. 12. 15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일제하 수원향토사료의 발굴과 완역完譯	경기신문 주필
밝덩굴	최초 한글번역 성경 '예수셩교젼셔'를 살핌	한글 연구가
전영택	설화를 중심으로 살펴 본 정조대왕	부산디지털대학 강사
임병호	경기지방 항일抗日 투쟁사 ㊤	경기일보 논설위원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임종삼	할미성설화의 마고선인은 누구인가? 백제 건국 초기역사를 중심으로	아동문학가
유 선	현대시조 작고 작가작품론 畿甸을 중심으로	시조시인
신금자	수원화성 공심돈에 대한 일반적 고찰 강화도 돈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독서신문 편집위원
임병호	경기지방의 성곽 고찰考察	경기일보 논설위원
이홍구	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실제	인성지도교육원장
김훈동	수원을 노래한 詩와 音	수원예총 회장
이창식	향토사 연구자료 02 《水原郡 外 7郡 聯合物産品評會案內》 번역문 90년 만에 공개되는 수원 인접군의 생활상	경기신문 주필

◇제16집 2014. 12. 3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권번기생과 국악 공생관계의 고찰 을묘원행 이후 수원기생 사회의 빛과 그림자	수필가 (전 경기신문 주필)
유 선	경기시조 원로 五人의 작품론 경기시조 사화집을 중심으로	시조시인
밝덩굴	우리말 · 글의 선각자 주시경 선생 보기	한글 연구가
권영호	우리나라 병서兵書 속오군적부束伍軍籍簿	수필가 (전 병무청 공무원)
임종삼	오산시 외삼미동 탁자형 고인돌의 성혈性穴 연구	아동문학가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임병호	경기잡가京畿雜歌의 특징과 시대적 배경에 대한 연구고찰 서도잡가, 남도잡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인 (전 경기일보 논설위원)
신금자	화가 나혜석의 문학업적 고찰考察	수필가
임종삼	광개토왕비에 등장하는 경기도의 지명 연구	아동문학가

◇제17집 2015. 12. 2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일제하 수원기자단의 굴기와 좌절 – 수원 경찰의 박해와 대중문화운동의 자취를 중심으로	수필가 (전 경기신문 주필)
밝덩굴	정태진 선생의 어록에 나타난 정신	한글 연구가
유 선	'경기시조' 의 요절작가 작품론	시조시인
김훈동	화성편액扁額의 금석학적 고찰	적십자사 경기지회 회장
임종삼	독성려왕릉의 정체에 대한 소고	아동문학가
김용대	정조의 화성지역 농업정책 재조명	수필가
신금자	경기지역 거북놀이에 대한 고찰 – 역사적 유래와 지역적 흐름을 중심으로	칼럼니스트

◇제18집 2016. 12. 20 발행

필 자	논 문 제 목	비 고
이창식	일제하 수원군내 범죄실상에 대한 고찰 – 『水原』과 『生活狀態調査』 기록을 중심으로	수필가 (전 경기신문 주필)
이석규	시조의 의의와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 고려 후기 경기도 開城과 漢城에서 시작된 시조時調	한국시조협회 이사장
유 선	역대 경기시조 회장 작가작품론 (1)	시조시인
밝덩굴	문장 구조와 글쓰기의 실제 – 작은 논리論理에 의거한 문장 만들기	한글 연구가
김훈동	水原華城 社稷壇에 대한 考察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김용대	바우덕이 안성남사당 풍물놀이에 대한 소고小考	수필가
임종삼	백제 하남 慰禮城의 위치와 우리말 소릿값	아동문학가
신금자	경동철도의 부설과 기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칼럼니스트
권영호	정조와 위항문학委巷文學 – 중인 시문학을 중심으로	수필가 (전 병무청 공무원)

기전향토문화연구회 발자취

◇ 1986. 6. 24 사단법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창립
(제5장 제13조 회칙 제정)

◇ 초대(初代) 회장 오상근 선임

◇ 초대 임원 및 연구위원 선임

회장 오상근 • 부회장 최범훈(경기대 국문학과 교수) • 상임위원 이창식(전 경인일보 편집국장) • 연구위원 이질현(서울대 농대 교수) • 안익승(유네스코 경기도협회장) • 최홍규(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이훈섭(경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이재은(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정재구(경기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 김건영(경인일보 편집국장) • 김윤배(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 이홍구(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사) • 강대욱(경기도 학예담당관)

◇ 1986. 12. 25 회지 '기전문화' 제1집 발행

◇ 사무실 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원빌딩 한일친선협회 수원시협회 내
②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34-38(4층)
③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7-13(2층) 현재

◇ 전화 031) 247-4073, 019-386-4073

◇ 1986. 12. 25 회지 '기전문화' 제1집 발행 이후

◇ 1992. 8. 15 회지 '기전문화' 제10집 발행

◇ 1999. 7. 5 제2대 회장 이창식 선임

◇ 2008. 4. 1 임원 및 연구위원 선임

초대 이사장 이질현(전 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교수) • 제2대 회장 이

창식(경기신문 주필) • 부회장 유 선(시조시인) • 부회장 밝덩굴(한글연구가) • 사무국장 강대욱(향토사학자) • 연구위원 윤수천(아동문학가) • 연구위원 임병호 • 연구위원 이홍구(경기도인성교육원장) • 연구위원 임종삼(소설가) • 연구위원 신금자(독서신문 칼럼리스트) • 연구위원 이경렬(초등학교 교사) • 연구위원 전영택(부산디지털대학 강사) • 연구위원 정수자(아주대학교 강사) • 연구위원 염상균(향토사학자) • 연구위원 김동훈(건축전문가) • 연구위원 한동민(수원시 전문위원)

◇ 2008. 4. 25 이질현 초대 이사장 취임 축하 및 전체 회원 상견례

◇ 2008. 4. 30 이질현 이사장 '기전문화' 출판 지원금(500만 원) 기탁

◇ 2008. 9. 15 회지 '기전문화' 제11집 속간

◇ 2009. 3. 21 이질현 초대 이사장 숙환으로 타계

◇ 2009. 10. 23 이존하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기전문화' 출판 지원금(500만 원) 기탁

◇ 2010. 5. 20 연구위원 이달호(수원화성박물관장) · 연구위원 한동민(수원박물관 학예팀장) · 연구위원 김훈동(수원예총 회장) · 연구위원 김명훈(수원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 유현이(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간사) · 임애월(경기시인협회 사무국장) 새로 가입

◇ 2010. 6. 30 '기전향토문화연구회' 발전방안 모색 회의' 개최

◇ 2010. 8. 15 회지 제12집(6.25 한국전쟁 60주년 특집) 발행

◇ 2011. 1. 20 연구위원 정규호 · 연구위원 이완주 새로 가입

◇ 2011. 11. 20 회지 제13집 발행

◇ 2012. 2. 20 제3대 회장 정규호 선임 및 임원 선출
신임 회장 인적사항 등록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전동) 2가 140-12 전국향토사연구회

◇ 임원 명단 고문 이창식 · 회장 정규호 · 부회장 유 선 · 부회장 밝덩굴 · 상임위원 임종삼

◇ 사무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282-5 북문빌딩 4층 사무실
우편번호 : 440-818

◇ 전화 사무실 031-242-3373 손 전화 010-2366-1664

◇ 2012. 11. 30 회지 제14집 발행

◇ 2013. 5. 23 제4대 회장 유 선 선임 및 임원 선출
고문 이창식 · 회장 유 선 · 부회장 밝덩굴 · 상임위원 임종삼

◇ 사무실 수원시 팔달구 신풍동 86-5
우편번호 : 442-040

◇ 전화 사무실 031-255-8846 손 전화 010-8301-6555

◇ 2013. 6. 23 제3대 회장 정규호 타계

◇ 2013. 12. 15 회지 제15집 발행
(사)경기언론인클럽(이사장 송광석)과 기전문화 출판 지원 협약체결
연구위원 권영호 새로 가입

◇ 2014. 9. 7 김명훈 위원 타계

◇ 2014. 12. 24 기전향토문화연구회 단체등록

고유번호 174-82-67026(수원세무서)

◇ 2014. 12. 30 회지 제16집 발행

(재)경기문화재단 이사장 홍기헌 기전문화 출판 지원

◇ 2015. 1. 10 제5대 회장 밝덩굴 선임 및 임원 선출

고문 이창식, 유선 · 회장 밝덩굴 · 부회장 임병호

상임위원 임종삼

연구위원 김용대 새로 가입

◇ 2015. 12. 25 회지 제17집 발행

(재)경기문화재단 이사장 홍기헌 기전문화 출판 지원

◇ 2016. 12. 20 회지 제18집 발행

(재)경기문화재단 이사장 홍기헌 기전문화 출판 지원

기전향토문화연구회 회원 명부

2016. 12. 30 현재

직 책	성 명	주 소	연락처	이메일
고 문	이 창 식	(16309)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47번길 13-11(2F)	010-2386-4073	
고 문	유 선	(16251)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6번길 24	010-8301-6555	yoosun8846 @hanmail.net
회 장	밝 덩 굴	(16219)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8번길(연무동)	010-4916-9041	b3280 @hanmail.net
부회장	임 병 호	(16303)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973번길 6, 경기일보사	010-3320-3354	bhlim @kgib.co.kr
상임위원	임 종 삼	(16565)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521동 802호	010-2460-6154	leem0215 @hanmail.net
연구위원	강 대 욱	(16216)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29번길 12-20	010-6390-3886	sukpa3886 @hanmail.net
연구위원	권 영 호	(16422) 수원시 팔달구 정자천로32번길 20, 161동 1106호(LGⒶ)	010-6244-0267	kyh-06 @hanmail.net
연구위원	김 용 대	(16363)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201동 904호	010-3282-8153	kkkyyy555 @hanmail.net
연구위원	김 훈 동	(16439)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67번길 20-9	010-3717-2658	0411khd @hanmail.net
연구위원	신 금 자	(17103) 용인시 기흥구 서그내로 22-1, 105동 305호(SKⒶ)	010-4314-5389	skj5235 @hanmail.net
연구위원	윤 수 천	(16242) 수원시 팔달구 창룡문로 84	010-2466-7875	suchun42 @hanmail.net
연구위원	이 홍 구	(16589)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145번길 26	010-3733-5301	hkl3322 @hanmail.net
연구위원	전 영 택	(16415) 수원시 권선구 수정구47번길	010-2424-1405	taick0829 @hanmail.net
연구위원	한 동 민	(16667)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70-17	010-3218-8079	kaha21 @korea.kr

기전향토문화연구회 회칙

1986.6.24. 회칙 제정
2013.7.11. 1차 개정

제1장 조직 및 사업

제1조(조직) 본 회는 기전향토문화연구회라 칭하고, 향토사 연구에 뜻을 같이 하는 인사로 조직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역사, 지리, 유물, 유적, 인물, 민속, 기타 등을 조사 연구하여 수록 발표함으로써 향토사 연구와 한국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수원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추진한다.

1.분야별 심층 조사와 연구
2.정기, 부정기 논문집의 발간(연2회)
3.전시회 개최
4.기타 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본 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사 연구 및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분으로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인사

2.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입회원 심사를 통과한 인사

제6조(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회가 결정한 일반적 사안을 이행하는 일
2. 회가 지정하고 본인이 수락한 연구과제를 발표 또는 논문을 제출하는 일

제3장 임원 및 직능

제7조(임원 및 의결) 본 회는 다음 임원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회장 1명 : 본 회를 대표한다.

2.부회장 1명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대행한다.

3.상임위원 1명 : 사무 일체를 장리(掌理)한다.

4.감사 1명 : 사무를 감사,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8조(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한다.

제4장 회 의

제9조(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정기총회 : 매년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 :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회원 소집을 인정할 때
3. 수시회 : 회원 소집이 필요할 때

제5장 재 정

제10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회비, 찬조금 및 기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회계연도는 역년(歷年)으로 한다.

제11조(비치 서류) 본 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한다.

1. 회칙
2. 연혁
3. 회원 명부
4. 금전출납부
5. 기타 기록부

제12조(부칙) 기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제13조(발효) 본 회칙은 1986년 6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174-82-67026

단 체 명 : 기전향토문화연구회

대 표 자 성 명 : 박병찬 생 년 월 일 : 1939 년 03 월 05 일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46번길 24, 1층(신풍동)

발 급 사 유 : 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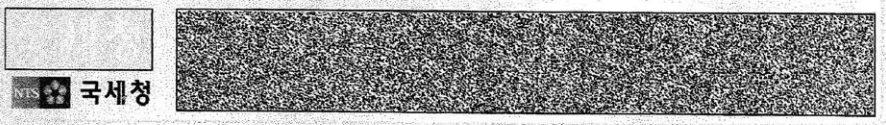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 년 06 월 25 일

수 원 세 무 서 장



국세청

편 집 후 기

◇ 고려 후기에 등장한 우리 고유의 시조는 경기도가 고향이다. 고려의 수도 개성과 조선의 수도 한성이 그 모태이다. 700년 전통 가요인 우리 시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올해의 정조대왕 능행차는 서울 창덕궁에서 수원 화성행궁까지 이어졌다. 서울시와 시흥시와 수원시가 협력하여 문화 축제를 벌인 결과다. 내년에는 오산시와 화성시도 참여하는 정조대왕 화산릉 행차를 보고 싶다. 또한 성군 정조대왕께서 수원 화성에 세웠던 사직단의 복원도 보고 싶다.

◇ 기전문화 18집은 경기도를 사랑하는 연구위원들이 거둔 햅쌀이다. 각고의 노력으로 알뜰한 원고를 써주신 연구위원께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15일

畿甸文化 제18집

2016년 12월 15일 인쇄
2016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밝덩굴
편집인 임종삼
펴낸곳 사단법인 기전향토문화연구회
주 소 16219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8번길 23(연무동)
TEL. (031) 255-8846
010-4916-9041
인 쇄 디자인 신원

ISBN 979-11-954856-6-6 03010 : 비매품
911.5-KDC6
951.9-DDC23 CIP 2016031220